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세계유산 해석 웨비나

유네스코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세계유산 해석 웨비나

5년 동안
유산
서로 다른
기억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세계유산 해석 웨비나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C O N T E N T S

005	1회	2021년 2월	<p>세계유산 보호의 새로운 접근: 유산해석과 설명</p> <p>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p> <p>좌장: 크리스티나 캐머런 캐나다 몬트리올대 건축학과 명예교수</p>
065	2회	2021년 3월	<p>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 서로 다른 기억과 다양한 목소리들</p> <p>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with Different Memories</p> <p>좌장: 가미니 위제수리아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특별고문</p>
147	3회	2021년 4월	<p>세계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경합: 3가지 사례</p> <p>Contested Multiple Memories on World Heritage Sites: Three cases</p> <p>좌장: 장 루이 록센 전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사무총장</p>
215	4회	2021년 5월	<p>[공모전] 세계유산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p> <p>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p> <p>좌장: 수 호지스 이코모스 해석과설명국제위원회 위원장</p>
287	5회	2021년 6월	<p>세계유산 : 시민사회의 역할</p> <p>World Heritage: The Role of Civil Society</p> <p>좌장: 프란체스코 반다린 전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p>
361	6회	2021년 7월	<p>세계유산과 다층적 기억, 유산해석의 역할</p> <p>World 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p> <p>좌장: 이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학센터 연구교수</p>



1회



세계유산 보호의 새로운 접근: 유산해석과 설명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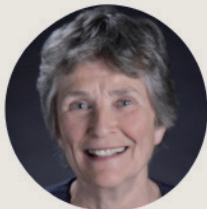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2021 Webinar Series – 1st Session

February 16th 7PM New York, 17th 1AM Paris, 9AM Seoul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Christina Cameron

Professor Emeritus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é de Montréal



Elizabeth Silkes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Jie-Hyun L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Korea
Global Historian &
Memory Activist



Olwen Beazley

Manager
Historic and World Heritage,
NSW National Park & Wildlife
Service, Australia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facing 50 years anniversary.
Why do we need new perspectives to protect World Heritage in this modern world?





세계유산 보호의 새로운 접근: 유산해석과 설명

좌장: 크리스티나 캐머런

캐나다 몬트리올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심혜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2021 유산해석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의 심혜리입니다. 우리 추진단은 이 행사의 주최자이며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서, 유산해석 분야의 연구와 네트워크 형성 역량을 향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는 올해 말에 공식 설립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계유산에 연결된 다층적 내러티브, 때로는 상충되는 역사 해석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을 확인하고자 이 웨비나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한 이후 유산 보존은 무엇보다 유산의 물리적 진정성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사원으로 돌아가는 아야 소피아 성당이나 다양한 역사가 담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여러 당사자 집단과 지역 공동체가 유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내러티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다차원 사회에서 유산을 보호하고, 갈등을 조율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 시리즈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유산협약 제정 50주년을 앞두고 이 시리즈에서 더 나은 유산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질문과 유익한 논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 웨비나 시리즈는 ‘유산과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여섯 차례의 토론회가 2월부터 7월까지 매달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시간인 오늘 토론자들이 얘기할 주제는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접근법: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입니다. 다음 달에 다룰 내용은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서로 다른 기억을 지닌 목소리들’이고, 4월에는 세 가지 특정 사례를 가지고 ‘세계유산에 관한 다른 기억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세계유산을 통한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로 영상 콘테스트를 열 계획인데요. 5월에 열리는 4차 웨비나에서 세계 곳곳에서 제출된 작품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6월에는 이 여정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유네스코의 역할과 시민사회 접근법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웨비나는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릴 예정이며, 주제는 ‘평화 구축과 화해를 향한 다양한 목소리와 기억들’입니다. 웨비나 시리즈는 아프리카 세계유산 기금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아프리카 세계유산 영역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입니다. 우리는 이 웨비나 시리즈가 분쟁 중인 세계유산의 평화적 관리와 세계유산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제 토론 사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캐머런 박사입니다. 캐머런 박사는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에 30년 넘게 관여해오셨고,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을 두 번 지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 유산 분야에 오래 종사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캐나다 대표단장을 맡으신 바 있죠. 지금은 ‘우리의 세계유산’이라는 세계적인 인식 제고 사업을 이끄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다차원 세계에서 유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영상 아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의견이나 질문을 남길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 후에 문답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제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리스티나.

고맙습니다, 헤리 씨.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진단에서 준비한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첫 토론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중점을 두고 세계유산 보존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웨비나에서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관한 국제적 상황, 특히 다양한 기억의 관점에서 논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니다.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두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르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는 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성에 중점을 두는 만큼 주로 역사적 장소와 관련된 다양한 내러티브가 늘 반영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점은, 예전에는 유산의 물리적 상태와 보존에 중점을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해석하고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이 물리적 보존만큼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편 내러티브와 같은 공식 내러티브와 다른 내러티브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이런 현상은 유적지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관한 다양한 기억에서 다수의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같은 유적에 관한 서로 다른 기억을 지닌 만큼, 여러 내러티브 간 불협화음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나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오늘 이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미국과 한국, 호주에서 매우 박식한 세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세요. 먼저 엘리자베스 실크스를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는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사무국장으로 65개국 300개 박물관과 역사 유적 기억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연합의 전략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전시 설계, 동료 학습 교환 프로젝트 보조금, 합동 홍보 사업을 진행하며 전 세계 기억 유산을 위한 혁신적 시민 참여, 과거 청산 인권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지역사회 기반의 기억과 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방대한 경험 덕에 개인적 이야기가

과거에서 현재로, 기억에서 행동으로 청중을 움직이는 힘을 고유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엘리자베스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학회와 토론회의 주요 연사로서 기억이 분쟁 이후나 신생 민주사회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인권 문화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임지현 교수입니다. 한국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이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죠.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 폴란드 역사, 초국가 역사, 세계의 기억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저서를 출판한 분입니다. 최근 저서 중 하나는 폴그레이브 출판사의 '20세기 대중 독재' 시리즈 다섯 권으로 임 교수님이 시리즈 편집을 맡았죠. 현재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 '기억 연대: 세계 기억 공간 속의 식민주의 전쟁, 집단 학살'의 연구 책임자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얽힌 기억들' 시리즈 편집자입니다. 최근의 기억 연구 저서로는 『기억 전쟁: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기억 연대 - 세계적 개입』이 있고 다른 두 권을 작업 중입니다. 임지현 교수는 자칭 기억 활동가로서 '이웃하지 않은 이웃'과 '강제 노동자들의 이름' 전시회를 공동 기획했고, 국제 세계 역사 기구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 올웬 비즐리는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에서 일하는 유산 전문가입니다. 월랜드라 호수 지역, 블루마운틴 산악지대, 곤드와나 열대우림 등 세계유산 세 곳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는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일환으로 올웬은 세계유산 관리와 운영 과정에서 호주 원주민의 대표권 향상을 돕고, 월랜드라 호수 지역의 전통적 소유주들과 긴밀히 협력해 권리 기반의 지역연구 방식 발달과 원주민 조상들의 유골 송환에 기여했습니다. 올웬은 영국에서 현장 고고학자로 일을 시작했고, 호주로 이주해 시드니대학교에서 유산보존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진행한 박사 과정 연구는 결합적, 무형 문화유산 가치에 중점을 뒀고 여기에는 기준 6항에 따라 등재된 기억의 장소들이 포함됐죠. 올웬은 수년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호주의 역할을 지원했고, 현재는 호주 교도소 유적 운영위원회 초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세계유산이죠.

세 분 모두 환영합니다. 엘리자베스를 시작으로 각 토론자에게 주제와 관련한 이미지 하나와 짧은 기조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끼리 토론을 하고, 끝날 때쯤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간단한 기조 발표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자베스 실크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유산의 진가는 진실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유산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의 힘을 통해 활기를 띠지만 그 이야기들이 꼭 유기적으로 혹은 충분히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복잡하고 반발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그렇죠.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진실을 알리는 데 활용되지 않는다면 유산이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위한 긍정적인 힘이 되기보다는 분열을 심화하고, 결함이나 수정주의적 내러티브를 강화하고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유산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면 복잡한 사연을 전부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양한 경험에 근거를 두고 포용적인 해석을 해야 하죠.

이런 과정은 유적 프로그램, 전시물, 해석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소외됐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야 하는가? 여성인가? 원주민인가? 폭력과 압제의 피해자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외면하면 어떻게 유적을 보호하는 데 사회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유산의 이야기가 과거든 현재든 다양한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보전이란 궁극적으로 참여와 관계로 이루어지니까요.

화면에는 세계유산이기도 한 몇몇 기억 유산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 있는 역사 유적 몬티첼로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이야기가 담긴 곳이지만, 최근에는 샬리 헤밍스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줍니다. 그의 아이들을 낳은 노예죠. 벨기에의 르부아 뒤 카지에 탄광도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오늘날에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관한 프로그램도 제공하죠. 화면 아래쪽에는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중 하나인

미얀마의 바간이 있는데요. 201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바간이 다양한 불교 미술과 건축을 자랑하는 성스러운 풍경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UN 조사관들이 미얀마 군대가 수년 동안 이슬람교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절멸할 목적으로 집단학살을 자행했음을 발표하고 몇 달 뒤에 바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아래쪽 중간의 지난주 트윗을 보시 다시피 유산을 분쟁과 분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활동가들은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바간에서 행진을 하고 바간의 세계유산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했죠.

분열을 낳는 역사를 말하는 건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그 역할을 맡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떤 시스템에서 자신이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는지 말이죠. 이 논의는 본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누가 정하냐는 거죠. 유산의 역사에 관해 더욱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선택하고 이론이 있는 기억들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더는 진실을 알리는 데 이바지할 수 없게 됩니다. 애초에 그 논쟁적인 기억들을 낳은 불공평한 권력구조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감명 깊은 이야기네요. 다음으로 기조 발표를 해 주실 분은 임지현 교수님입니다. 임 교수님, 말씀해주시죠.

— 임지현

먼저 좋은 말씀으로 저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제 입장은 기억의 장소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기억 활동가이자 세계 기억 연구 학자의 관점에서 저는 21세기 세계유산 해석과 재해석의 두 가지 특별한 요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금세기 세계화의 특징 중 하나가 세계화에 관한 담론의 초점이 상상에서 기억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억 세계화의 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다양한 집단에 다각적인 의미

를 지니니까요.

둘째, 세계 기억 형성에서 도덕적 회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회상은 어떤 정치적 과정이나 정확한 과거를 찾는 정의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늘 과거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윤리적 해석이 뒤따르죠. 이 두 가지 요소, 즉 기억의 세계화와 도덕적 회상이 21세기 세계유산의 재해석 작업에 포함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 친구인 라인하르트 퀴슬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는 나미비아에 대한 독일의 기억, 특히 20세기 초 식민지 집단학살에 대한 독일의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죠. 이 여성들은 베를린 샤리테 병원 유골 송환 협상에 참석한 나미비아 측 대표들입니다. 베를린을 방문해 유명한 홀로코스트 기념 공원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죠. 누군가는 이 사진이 성스러운 기억을 침해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사진이 21세기의 서로 다른 기억들의 연결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집단의 고통을 다른 집단의 고통, 기억과 어떻게 연결하고 결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세계 기억 공간 혹은 세계 기억 형성의 대단히 징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세계유산을 해석하거나 재해석할 때 이 사진에 담긴 정신을 기억한다면 세계유산에 대한 흥미로운 새 접근법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 올웬 비즐리에게 말씀을 청해야겠네요. 올웬, 기조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
올웬 비즐리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땅, 호주 울런공의 전통적 관리자 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 원주민, 다라왈족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장로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또 호주의 식민 정착으로 인한 땅과 문화, 삶의 상실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유산 설명과 해석을 논하려 만났고, 제 이야기에는 세계유산이 자리한 지역들을 비롯한 영토와 원주민들의 끊을 수 없는 관계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됩니다. 이 화면에 제 입

장과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해석’,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기억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포용’입니다. 현대 세계유산의 모든 이야기와 가치를 논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잘 요약된 슬라이드를 골랐죠.

여기는 베트남 중부 풍나케방 국립공원에 있는 행 엔 동굴입니다. 왼쪽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굴이고, 오른쪽은 현지 원주민 여성이 나무를 운반하는 모습입니다. 세계유산 지역의 자원이죠. 이 여성은 베트남의 아주 작은 두 민족 집단인 모쿰족과 루크족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세계유산 지역의 두 마을에 삽니다. 제가 이곳에 가봤는데, 원주민이나 그들과 이 지역의 관계, 땅을 관리하는 그들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없었습니다. 또 이 지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인 생물 다양성과 지질학적 가치에 대한 해석도 거의 없어 대규모 해석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부에서 주민들을 새 집으로 이주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해왔고요. 이유는 당국이 세계유산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죠. 이 슬라이드가 세계유산의 여러 기억과 소수의 목소리, 다양한 가치의 중요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유산 해석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방법과 이것이 해석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어떻게 관련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죠.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에는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원주민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 세계유산과 관련한 모든 당사자와 권리자의 존중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이 세계유산 해석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 정책은 협약 당사국들이 권리 기반 접근법을 취해 세계유산이 인권 존중과 인식의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되는 모범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저는 권리 기반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취하려면 해석이 관리 항목에 포함돼 당사국이 등재를 신청할 때 이를 세계유산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별개로 신청 서류에 다양한 목소리와 내러티브, 기억, 가치가 포함될 것이고, 그 이후의 유산 해석에서도 효과적인 포용이 가능해 지죠. 유산에 따라서는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재 신청을 위해 제시되는 공식 내러티브의 다양한 목소리, 때로는 가슴 아픈 소수 집단 내러티브를 반영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죠. 오늘 토론이나 이후의 웨비나에서 분명 히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고맙습니다, 올웬.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게 처음에 말씀드린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다른 가치들의 대비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끄는 세계유산협약의 동력이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분의 시작 말씀을 들었고 제가 사회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 질문은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에 관한 건데요. 이제 거의 50년이 됐죠. 그동안 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박사 과정에서 세계유산을 연구한 올웬에게 묻는 게 좋겠네요. 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떤 부분이 간과됐다고 생각하세요?

■ 올웬 비즐리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첫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협약 시행의 주된 초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협약이 시행된 초기에는 당사국들이 자국 영토의 유산을 등재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그게 주된 관심사였죠. 오늘날 세계유산 목록에는 천 개가 넘는 유산이 등재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사국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국가적 위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세계유산 지정이 관광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았죠. 등재에 집중하는 데 따른 주된 문제는 등재 이후에 당사국들이 세계유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관리 과제들을 살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등재하면 '이제 우리에게 세계유산이 있다', '세상이 우리의 유산을 알아줬다', '다음 유산을 등재하자'며 그걸로 만족하는 것 같았죠. '협약에 규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의 식별과 보호, 보존, 설명, 다음 세대로의 전승이 늘 요구돼왔지만, 관리계

획이라는 개념은 아직 발달하지 않았었죠. 이런 부분에서 등재가 관리보다 우선시돼왔습니다. 곧 얘기하겠지만 등재와 관리 다음에는 해석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크리스티나가 지적했듯 유산의 물리적 구조나 자연유산에서의 특정 종 관리에 대한 명백한 집중도 있었지만, 세계유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역할을 감안하는 세심한 접근법이 초기에는 널리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나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1972년 이후로 많이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의 가치와 속성을 관리하고 지킬 당사국들의 책임과 의무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가치들을 어떻게 보호해나갈지 규정하는 관리계획 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되고 확대돼온 부분이죠. 과거에는 주로 이런 영역들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은 간과된 영역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더욱 폭넓은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이나 멸종위기 생물 생태계 외의 영역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리보다 등재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사국들이 많은 공을 들이는 부분이고 등재 절차의 일부로 요구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해석이 중시되지 않았죠. 지금도 곳에 따라서는 해석을 관리계획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하고요. 이렇게 세계유산협약의 일부 측면들이 특권을 지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논의하는 시점에 다다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 등재에서 미묘한 차이를 낳는 부분이죠. 또 세계유산 책임에서 해석이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는 미래의 등재와 관리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해석이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의 동인이 돼야 하고 등재 절차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죠.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유산이 등재되면 그 가치가 뭔지 생각해봐야 하니까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든, 지역적·국가적 가치든 말이죠. 그 모든 가치를 해석 과정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가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가끔 다른 가치들이 등재 신청서에서 생략되거나 등재 신청서에 포함되더라도 유산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적·국가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완전히 배제된 것이죠. 즉, 유산에 대한 권리와 이해관계가 있지만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중심이 아닌 이들의 이야기와 기억이 자주 배제돼왔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억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우습게도, 협약에 문화와 자연이 분리돼 있는 건 사실 두 유산 모두 가치가 충분히 서술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세계유산에 등재된 많은 국립공원, 자연공원, 보호구역들에 강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도 생물종, 화산, 산맥 같은 것들만 조명하고, 사람의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5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변한 만큼 이 세상의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설명하는 데 새로운 접근법과 관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그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먼저 임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겠어요?

■ 임지현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세계유산에 대한 제 지식이 동아시아와 동유럽에 한정돼 있음을 말씀드려야겠네요. 동아시아와 동유럽에 대한 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 말씀드리자면, 조금 과장해서 세계유산은 그동안 ‘국가’라는 행위자에 의해서만 해석돼왔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세계유산의 주요 기획자로서 국가적 성취를 세상에 보여줄 목적으로 유산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기억의 세계화 속에서 세계유산을 대하는 기존의 정신적 태도가 더욱 세계화된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국가적 기억 유산도 마찬가지죠. 세계 역사에 관한 저술이나 서로 얽힌 기억들의 최근 경향을 보면 세상의 모든 과거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역 유적지들도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이러한 역사적·국가적 유산의 형성에 세상의 다른 지역들이 관련돼 있죠. 이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힌 과거가 세계유산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세계유산 해석에서 국가 외의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아시아나 동유럽에서는 국가가 이를 도맡고 유네스코와 국제기구들, 회의에서 세계유산을 홍보해왔는데요. 세계유산의 국제적 홍보를 국가가 독점한다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국익이 충돌하는 일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세계유산 홍보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을 증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죠. 또 자연 영역의 세계유산에 관해서는 인류세에 정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 보존이나 자연 접촉에서 인간의 관여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 중심의 해석이 불가피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른 종과 자연에 대한 인간 제국주의, 혹은 인간 식민주의라고 하죠. 자연유산에 대한 인간의 패권적 접근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이번 세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감사합니다. 엘리자베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 엘리자베스 실크스

비국가 행위자들이 해석에서 더 많은 공식적·비공식적 역할을 맡도록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일이죠. 지금은 하향식 과정이고, 굉장히 배타적이니까요. 취약한 집단이나 유산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경로를 열어주지 않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경험들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만큼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 우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는데, 마침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전 세계적 보건 위기를 보면서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음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을 해석과 유산을 통해 풀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의 인류임을 확인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억의 궁극적 목표 아닌가요?

— 크리스티나 캐머런

올웬,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1972년 제정된 세계유산협약은 말씀하신 대로 당사국 위주의 협약이라 시민사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2003년 제32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

협약에는 시민사회와 개인, 집단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게 흥미롭습니다.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올웬, 말씀해주세요.

올웬 비즐리

감사합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전부 지지해요. 세계유산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세계유산 보호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관점은 유산에 대한 사람 중심 접근법이 그 기반이고, 대중이 세계유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가 팬데믹을 언급하셨는데, 생태계 보호나 국립공원과 세계유산이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류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유산은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죠. 이처럼 유산의 물리적인 면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 접근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게 원주민이건, 세계유산 주위에 있는 지역 공동체들이건, 유산이 등재되기 훨씬 전부터 대대로 그 지역을 이용해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유산 해석에서 그들을 보여준다면 이해를 장려하고, 이해를 통한 가치 인식, 가치 인식을 통한 보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국립공원들의 중심 철학이고, 세계유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중심 접근법의 요소를 세계유산 해석에 연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직접 보고 보호를 즐기고 자원을 누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장소들을 여가 자원으로 이용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콘서트도 즐기죠. 코로나19 이전에는 인류 유산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유산이 대중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협약에 나와 있듯이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되 유산이 자원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하죠.

크리스티나 캐머런

지난 한 해 동안 공원들이 많이 이용됐죠. 많은 길이 다져졌을 것입니다. 방향을 조금 틀어서 세계유산의 이야기 전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석의 근본 원칙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세계유

산 해석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엘리자베스가 시작해주시겠어요?

— 엘리자베스 실크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해석의 원칙이 지역의 필요나 우선 사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좋은 출발점이죠. 지역의 전통도 생각해 하구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표지판이나 미술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구전 역사나 세대 간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유산에 대한 전통적 접근법에 따라 일해온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치는 게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적절한 해석 계획이 있고,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죠. 결국은 이야기가 하나의 내러티브를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과감히 버리고, 공동체의 많은 내러티브를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유산을 공개하고 다양한 관점과 진실이 드러나면 유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유산의 영역 밖으로 멀리 퍼져 나갑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귀를 기울일 길이 열리죠. 이는 접근권과 이해, 연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산을 통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유산을 경험한 이들의 후손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관점을 이야기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미술 프로그램들과 대화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듣는 게 목적이었죠. 연민을 품고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산 관리 영역 밖의 파트너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지역사회 단체, 가족들 피해자 집단, 생존자, 노인 공동체 등이죠. 유산에서 시작된 상호 연결성이 외부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이상적으로는, 우리 업무에서 가상 수단을 이용해 특정 지역의 유산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유산과 연결할 수도 있죠. 그게 진행 중인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개해나가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연결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 크리스티나 캐머런

이미 지적해주신 부분이지만 국가적 내러티브 문제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관한 메시지가 이에 반하는 작용을 하죠. 유산 관리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를 기술한 문서에 나오는 주제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니까요. 그게 그들이 맡은 일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일인데 흥미로운 부분이죠. 임지현 교수님, 의견을 더해주시겠어요?

임지현

세계유산에서 여성과 원주민, 다른 하층민의 부재에 관한 엘리자베스와 올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유산에는 항상 그들이 있었는데 부재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크리스티나는 국가 내러티브가 세계유산에서 주를 이루는 비국가적 집단들을 가린다고 하셨죠.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이른바 국보 목록을 자세히 보면, 상당수가 수입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다른 지역들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이 국보들이 나라 밖이나 세상의 다른 지역에서 제작됐음을 인식하면 사람들이 과거를 이해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 년 전에 지어진 아주 유명한 국가 건축물이 알고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은 건축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건축물을 한국인들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국가 건축물을 천 년이 더 된 옛날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한 것임을 인식하면, 오늘날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과 위치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들이 연결돼왔고, 천 년 전의 과거와 현재도 세계유산을 보는 우리의 시선 이해의 방식을 통해 연결돼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캐머런

감사합니다. 올웬,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올웬 비즐리

네, 감사합니다. 호주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저는 호주의 사례들을 좀 더 잘 아니까요. 호주 내셔널 트러스트에는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관한 흥미로운 안내서가 있습니다.

버럽 반도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올랐는데, 그 안내서가 엘리자베스가 말한 단념의 취지에 힘을 실어주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러티브를 단념하고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개념이 참 좋습니다.

2년 전에 버럽 반도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 원주민들과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산 위쪽에 채광 지역이 있었거든요. 유산 전문가라면 그런 부분은 살펴보지 않고 암각화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현대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유산 전문가들이 해석을 했다면 알려지지 않았겠죠. 단념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해석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상충하는 기억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장소에 관련된 다수의 기억이 있다는 걸 갈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충하는 기억들과 하나의 유산을 둘러싼 대립되는 주장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하는 것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를 극복하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쟁을 인정해야 할까요? 어느 분이 시작해주시겠어요? 엘리자베스, 먼저 말씀해주시겠어요?

—
엘리자베스 실크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의외의 대답일지 모르지만, 분쟁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실을 밝힐 기회가 공동체들에 주어져야만 과거나 현재의 과제에 대해 진정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요. 쉬운 과정이 아니고 선형적인 과정도 아니지만, 유산이 서로 갈등하는 여러 기억에 열려 있으면 지역 공동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느끼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죠.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면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끔 깊은 갈등을 겪는 환경에서 현대의 공통적 과제들이 실마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 이해, 해석에 대해 생각해보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가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요.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포용하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 지점을 시작으로 차이를 존중하며 과거를 돌아본다면, 이 경험과 이런 경험이 이뤄지는 유산은 아주 강력해지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경험을 위해 유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 시작과 바탕은 다양한 관점에 대한 존중과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을 시작으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개별 내러티브가 화합을 이끄는 공통적 경험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공동 구성과 행동으로 가는 게 이런 환경에서 자주 보는 변화입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그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또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 엘리자베스 실크스

그게 파트너들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슷한 경험, 비슷한 불만, 혹은 비슷한 트라우마를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가 늘 있습니다. 이미 결속돼 있는 집단이죠. 그 집단들과 유산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거기서 가치를 뺀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걸 봤고, 분열이 심한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살펴보고, 어르신들을 살펴보고, 세대 간 탐구가 가능할지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적도 없다고 생각할 젊은이들을 노인들과 연결해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깊은 결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차이에서 출발한 단합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 크리스티나 캐머런

올웬, 같은 유산에 관한 상충하는 기억들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올웬 비즐리

감사합니다. 기본 전제는 역사와 이야기의 공동 제작일 것입니다. 엘리자베

스가 큰 트라우마나 갈등을 지닌 유산들을 다룬 경험을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절차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세계유산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석 전략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 유산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확인한다는 개념으로 돌아가서 엘리자베스는 실행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행에 앞서 이를 위한 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장소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포함돼야 하고, 임 교수님 말씀처럼 서로 얽힌 기억과 역사도 있습니다. 세계대전 유산들만 봐도 많은 관계자가 있고 전투와 전쟁에 대한 많은 역사와 기억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놓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기억을 나누고, 함께 전진하는 길로 가는 멋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임 교수님은 동유럽에서 많은 작업을 하셨죠. 전쟁과 관련된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상충하는 기억과 분쟁 유산들을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세요?

— 임지현

최근에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바비 야르 재건 제안에 대한 논평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반갑게도 우크라이나 사학자들이 바비 야르를 다국적·다민족 피해자들을 위한 초국가적 기념 장소로 재건하려 하고 있었죠. 제 제안도 바비 야르를 전 세계적인 기억이 담긴 유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념 공간의 모순은 국가적 기억들이 대결하는 장소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의 세계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웃 나라의 기억에 신경 쓰지 않았습시다. 관심이 없었죠. 자신들의 기억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웃 나라들의 집단 기억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20년 전이었으면 한국인들이 일본의 세계유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한국인들도 일본의 역사 유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기억 공간이 나타나면서 세상과 우리의 기억, 과거가 서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문제는

세계적인 기억의 형성이 가져다준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서 더욱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느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억의 세계화가 우리를 치열하게 대립하는 기억들의 세상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유산이 처음부터 강조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이 세계적 기억 공간을 우리의 편견 없는, 다각적인 기억들로 재건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온라인 생방송 중이라 여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읽어드리고 누가 대답을 해주실지 보도록 하죠. 통찰력 있는 토론이 고맙고 만족스럽다는 말씀들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논의는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앞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유산이 등재된다면 어떻게라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유산이 설명되는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물으시는 것 같네요.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유산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유산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특정한 방식으로 기술돼 있으니까요. 대답해주시실 분이 계실까요? 올웬이 해주시겠어요?

■ 올웬 비즐리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세계유산 분야의 종사자로서 바라는 건 등재 신청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상정되기에 앞서서 다양한 기억을 확인할 수 있는 쪽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틀과 절차가 바뀌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해석이 세계유산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과 관리계획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 시점에 꼭 모든 관계자를 확인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목소리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해석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웨비나 시리즈에 앞서 지난해 말에 열린 강연 시리즈에서 빌 로건 교수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위원회에 제출될 등재 신청 단계의 예비평가에서 이런 해석 전략을 갖췄는지 살펴보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서로 얽힌 기억들,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계적인 기억 형성이 반영된 전략인지 확인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 크리스티나 캐머런

다음 질문입니다. “비난과 질타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다양한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각자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기억과 경험이 있는 만큼 해석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텐데요. 누가 답변해주실까요? 엘리자베스?

— 엘리자베스 실크스

네, 제가 먼저 답해볼게요.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는 해석이 어느 한 시점에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유산의 책임 중 하나는 발달과 이해의 여지를 주고 공동체가 모여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선형적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학문 분야일 수도 있죠. 유산에 대한 이해는 유동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해석 안에서 그 여지를 줘야 합니다. 또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환경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들에는 타협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진실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기억과 관점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을 모욕할 수 없고, 그들의 관점을 비난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집단의 타협 불가 규칙을 세워 안전한 논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큰 유산 해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개인적 진실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는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중에서 출발하고 이해를 넓혀갈 여지를 줄 수 있다면 편견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경계는 필요하죠.

— 크리스티나 캐머런

임 교수님, 여기에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임지현

질문 3, 4번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학자로서 우리가 국사 패러다임을 극복하면 조금 다른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전문 사학자의 저술이 아닌 소설, 영화, TV 드라마, 만화로 역사를 배우는 걸 알았고 이는 제가 사학자에서 기억 활동가로 전향하

는 계기가 됐죠. 어떤 면에서는 세계유산으로 관광을 가서 유산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읽는 게 사람들의 기억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패권이 있습니다. 방문자들에게 세계유산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과거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 크리스니타 캐머런

여기 또 흥미 있는 질문이 있네요. “이 과정이 국가 연성 권력 정책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나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라는 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유산이 있을까요?”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잘 시행하고 있는 유산을 어느 분이 제시해주시겠어요? 네, 임 교수님 말씀해주세요.

■ 임지현

키예프의 바비 야르 기념지 재건에 대한 새 제안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대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로마인 피해자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피해자의 많은 기억을 지닌 곳이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계층화도 없죠. 21세기 세계유산이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같습니다.

■ 크리스니타 캐머런

올웬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나요?

■ 올웬 비즐리

세계유산 얘기는 아니지만, 엘리자베스가 다양한 내러티브를 갖춘 국가 기반 해석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일랜드에 있는 프리 데리 박물관에 대한 자료를 읽었던 게 기억납니다. 나라 간, 종교 간의 까다로운 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죠. 어떻게 그런 해석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선입관을 갖고 찾아올 사람들이 변혁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프리 데리 박물관에서는 그게 허용됐기에 관람객들의 관점이 달라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좋은 사례 같아서요. 엘리자베스가 더 얘기해줄 게 있을 것 같네요.

크리스티나 캐머런

엘리자베스가 마지막 순서가 되겠네요. 마무리를 할 때가 돼서요.

엘리자베스 실크스

감사합니다. 프리 데리 박물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추천하고 싶은 유산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훌륭하게 설명된 곳이죠. 저는 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곳은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의 몬테솔레 평화학교 재단입니다. 특히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주민 700여 명이 살해된 곳인데, 어린 친구들을 모아놓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모호한 경계를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영역을 파고들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선택에 작용하는지 얘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곳이죠.

또 ESMA라는 곳을 짧게 언급할 건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해군 기술학교입니다. 잠정 목록에 오른 유산인데, 이곳을 언급하는 이유는 해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락됐음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는 멋진 방법을 보여준 곳이기 때문이죠. 이들이 뒤늦게 깨달은 건, 해군 기술학교인 이곳에서 아르헨티나의 독재 정권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복판에서 비밀 고문과 감금이 자행됐던 현장이라는 점이에요. 이들이 박물관 내의 해석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이야기가 누락된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단체들과 함께 이 작업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 각각의 안내판에 매직펜으로 빠진 여자들의 이야기를 적어 넣었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포함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들을 빠뜨린 걸 모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크리스티나 캐머런

질문이 밀려들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흥미로운 의견과 경험을 들려주신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기억을 확인하고 해석하는 일에 따르는 과제들을 이해하는 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 웨비나를 시작해주신 심혜리 씨와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추진단의 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당사자의 내러티브 해석에 관한 이 시리즈의 후원을 이끌어주셨죠. 그리고 한국 정부와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에 축하를 드립니다.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헤리 씨에게 순서를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티나, 엘리자베스, 임지현 교수님, 올웬. 무엇보다 시청과 참여로 쌍방향적이고 활발한 토론이 되게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오늘 이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다음 웨비나의 주제로 이어질 텐데요.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서로 다른 기억을 지닌 목소리들'입니다. 두 번째 웨비나는 3월 24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방송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5회의 웨비나가 더 열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세계유산을 통한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로 단편 영상 콘테스트도 열 예정이니 다툼의 역사를 지녔지만 보호 과정에서 평화롭게 화해를 이룬 유산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3월에 열리는 다음 웨비나에서 뵙길 바랍니다.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
Haeree Shim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everyone. Welcome to 2021 Webinar Series on the Interpretation of Heritage, titled World Heritage and Multiple Memories. Hosted by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Republic of Korea. I am Haeree Shim from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e Preparatory Office is an organizer of this event, and a UNESCO category II center, carrying out researching, networking and capacity-building in the field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center will be officially established by end of this year.

We organized this webinar series to identify new issues related to multilayered narratives and sometime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that are attached to World Heritage. Because, since adopting the Convention, heritage conservation has focused more on protecting physical authenticity of heritage.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cases like Hagia Sophia reverting to mosque, or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Sites, which contains various histories, there is a rising interest on multiple narrative due to diverse stakeholder groups and community engagement in heritage management. So we plan to offer a series of discussions to talk about how to protect our heritage and to manage the conflict in this multidimensional society. Facing our 50th anniversary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next year, I think this series will raise timely questions and provide good discussions for a better protection of our heritage.

2021 Webinar Series is composed of six webinars, particularly on the theme of Heritage and Memory, taking place every month with different experts from February till July. The first session is today. The discussants will be talking about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And next month we are going to deal with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With Different Memories. In April, we are going to have a discussion about Contested Multiple Memories on World Heritage Sites, with three specific cases. We are also going to have a video contest, on the them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World Heritage, and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submitted works around the world at the fourth webinar in May. In June, we're going to look for answers to the questions that we have raised through this journey, discussing the Institutional aspects including the role of UNESCO, and the civil society approaches. Finally, the last webinar will be taking place as a side event of the upcoming 44th World Heritage Committee on the theme of Multiple Voices and Memories towards 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The webinar series is in collaboration with the African World Heritage Fund, also a UNESCO Category II center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in Africa. We expect this webinar series

to serve as a forum for discussing the peaceful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conflict, and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kay, so now, I'm going to introduce our moderator, Dr. Christina Cameron. Dr. Cameron is a Professor Emeritus in the School of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Montreal. She has been involved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 for more than 30 years, and has been a chair for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wice. She also has a long history in the government of Canada in the field of heritage including the Head of the Canadian Delegation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recently, she is one of the chairs leading the global awareness-raising initiative called Our World Heritage, redefining the role of heritage in a multidimensional world.

Before beginning our webinar,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you can leave your comments or questions on our Facebook or YouTube below this video during the webinar. There will be a Q & A session after the discussion, so please share your thoughts. Now, I would like to turn the time over to our moderator. Pleasure to meet you, Christina.

—
Christina Cameron

And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to all our audience. And welcome to this first in the series of webinars organized by the Preparatory Office on the theme of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Today our session is on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le of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n this webinar, we've been invited to discuss the international context related to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Especially through the lens, excuse me, of multiple memories. So to put our conversation in context, I want to make two points.

The first is that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says that a site proposed for World Heritage listing must meet the threshold or the standard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is means that the focus is on universality and therefore does not always reflect the multiple narratives often associated with historic places. The second point that I wanted to make is that in the early years, a lot of attention was paid to the physical condition and conservation of sites. And I think we could argue today that interpreting diverse values and reflecting multiple voices at World Heritage sites has become as significant as physical conservation. So what we have then is an interplay of official narratives, like the universality narrative, and other narratives. This can occur in historic sites and it can also occur in natural parks and protected areas. Multiple narratives come from different memories associated with the same places. Because different individuals and groups have different memories associated with the same site, it's obvious that multiple narratives can sometimes be dissonant, leading to disagreements and even, indeed, conflict.

So, to explore these issues today, we are fortunate to have three very knowledgeable discussants from the United States, Korea, and Australia. And I invite them to turn on their cameras. First, let me introduce Elizabeth Silkes. Welcome, Elizabeth.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Elizabeth guides the strategic growth of a thriving consortium of 300 museums, historic sites, and memory initiatives in 65 countries. The Coalition

supports Sites of Conscience across the globe in developing innovative civic engagement, transitional justice and human rights programs through exhibit designs, peer-learning exchanges, excuse me, project grants and joint advocacy initiatives. Her extensive experience with community-based memory and media projects gives her a unique perspective on the power of the personal story to move audiences from past to present, and from memory to action. As a featured speaker at conferences and workshops around the world, Elizabeth has spoken about the role of memory in creating lasting cultures of peace and human rights in post-conflict settings and emerging democracies.

Our next discussant is Jie-Hyun Lim. He's a Professor of Transnational History and Director of the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at Sogang University in Seoul. He has published widely on Nationalism and Marxism, Polish history, transnational history, and global memory. Among his recent works are the five volumes from the Palgrave series of Mass Dictatorship in the 20th century, and he was a series editor for that. And he's now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Project Mnemonic Solidarity: Colonization, War and Genocide in the Global Memory Space and Series Editor of Entangled Memories in the Global South. His recent memory studies books include Memory War: How could perpetrators become victims? and Mnemonic Solidarity-Global Interventions. And he has two other books in progress. As a memory activist, as he describes himself, he has co-curated exhibitions on Unwelcome Neighbors, and one on Naming Forced Laborers and he also serves as the President of The Network of Global and World History Organizations.

And our third discussant is Olwen Beazley, a heritage professional who currently works for the 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in Australia, managing a team that supports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arrangements for three World Heritage sites, and they are, Willandra Lakes Region, the Greater Blue Mountains Area, and the Gondwana Rainforests. As part of this role, she has worked to support and improve Aboriginal representation in the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and worked closely with the Traditional Owners of the Willandra Lakes Region World Heritage Site to develop a rights-based approach to research on country, and to achieve the repatriation of Ancestral remains. Olwen started her working career as a field archeologist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n moved to Australia to do a Master's Degree in Heritage Conservation at Sydney University. Her doctoral work at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focused on associativ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alues, including places of memory, on the World Heritage List using Criterion VI. For several years, she supported Australia's role 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now serves as the Inaugural Chair of the Australian Convict Sites Steering Committee, that being another World Heritage Site.

So welcome, all three. And starting with Elizabeth, I have asked each discussant to make a brief positioning statement related to the theme using only one image. And after that, we will have a discussion among ourselves. And then near the end, we'll move to the question-and-answer period. So, I invite you, Elizabeth, to make your brief positioning statement.


Elizabeth Silkes

It is a pleasure to be here this evening. From my perspective, heritage

sites at their best, are truth-tellers. They come alive through the power of the stories they hold, but those stories don't necessarily unfold organically or fully, especially those that are complex, contested, or divisive, as most indeed are. Yet if those stories aren't harnessed in the service of truth-telling, heritage sites can deepen divides, reinforce faults or revisionist narratives, or reopen old wounds, rather than be a force for good, for new perspectives, for new understandings. To ensure that heritage sites harness their power for good, the full story of the site must be shared, in all its complexity, leaving room for evolving understandings, all of which calls for interpretation that is inclusive, grounded in and emerging from a multiplicity of experiences.

To begin such a process, we might look at a site's programs, exhibits, interpretation, and ask, "Who is missing? Whose voice should be centric here? Is it women? Indigenous community members? Victims of violence and oppression?" And if we don't see such stories, how can we ultimately engage society in protecting these sites? If the stories they tell don't reflect a plurality of experiences? Whether long past or present day, because conservation is ultimately about that engagement, those connections.

We see in this slide, just a few examples of Sites of Conscience that are also World Heritage Sites. Among them, Monticello in the United States, which tells the story of Thomas Jefferson but also, and only recently, tells the story of Sally Hemings, who, as his slave, bore Thomas's children. You also see Le Bois du Cazier in Belgium, which shares its history of migrant labor, but also hosts programs about racism and xenophobia today. And at the bottom of the slide, you see Bagan in Myanmar. It was named a World Heritage Site in 2019.

The Committee noted at that time, Bagan is a sacred landscape featuring an exceptional range of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This was mere months after the United Nations investigators declared that Myanmar's military had for years been carrying out mass killings of minority Rohingya Muslims with genocidal intent. But as you see from the tweet just last week in the center of that bottom row, there really is no way to wall off heritage from conflict. Activists protested the military coup currently unfolding in Myanmar by marching at Bagan and using its status as a World Heritage Site to demand their rights.

Yes, it is hard work telling divisive histories, but it is essential. Anyone in a position of deciding which stories are told might pause to consider how they came to be in that role. How did the system work in their favor to place them in that privileged position? At its core then, this discussion is about power. About who chooses what stories are told by selecting only the stories that might be told more comfortably about a site's history, by choosing not to reflect the full history, including contested memories, we're no longer working in the service of truth-telling. We're perpetuating the inequitable power structures that led to those contested memories in the first place.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That was very inspiring. Our next speaker to present his positioning statement is Jie-Hyun Lim. And I invite you, Professor. Lim, to take the floor.

—
Jie-Hyun Lim

Thank you very much, Christina, for very kind introduction of me. And in a sense, my position is very similar to Elizabeth's position about these Sites of Conscience. From viewpoint of memory activists and also global memory studies, Calle, I would pinpoint two

special points in the interpreting and re-interpreting World Heritage in the 21st century. I think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ization in this century is that the focus of discourse regarding globalization began to shift from imagination to memory. So one can say this is a century for the globalization of memory. So, this idea of World Heritage Sites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t carries multidirectional meanings to different groups in the world.

And second point is that the sort of emergence of moral remembrance in the global memory formation. So the remembrance is not the certain politicalistic process or it's not a certain just for in search of certain accurate past. It involves always a sort of moral estimation and the mor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past. So these two points, this globalization of memory and then moral remembrance, might be involved in our work of reinterpreting World Heritage Sites in this century. And this photo is taken by my friend Reinhart Kössler, who is working on the German Memory on Namibia. Especially this Germany memory of colonial genocide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th Century. And these ladies, they are delegates from Namibia to negotiate over the repatriation of the human bones in Charité Hospital in Berlin. So while they were visiting Berlin, they were just having a rest on the famous Holocaust memorial in Berlin. Some may feel this photo intrudes one's own very sacred memories. But on the other hand, some may feel that, "Oh, this shows a certain connectivity of different memories in the 21st Century."

So how can we really connect or combine suffering of one group to the suffering and the memory of the other group? So, I think that this is very symptomatic of the emergence of global memory space or

global memory 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So I think that when we try to re-interpret and interpret World Heritage Sites in 21st Century, I think that if we carry the certain spirit behind this photo, we might have a quite interesting new approach to World Heritage Sites. That's all,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And now I'm asking Olwen Beazley, if Olwen, you could please make your opening statement?

—
Olwen Beazley

Thank you. I'd like to start by acknowledging the traditional custodians of the land of which I'm standing today in Wollongong in Australia, the First Nations Dharawal people. I would also like to acknowledge and pay my respects to their elders, past, present, and emerging.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loss of land, cultures, and life due to colonial settlement in Australia. We meet today to talk about World Heritage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and in doing so, I include recognition of First Nations people's unbreakable connection and responsibility to country, including country where World Heritage properties are located. So this slide I have up has the sort of position and title Sustainable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inclusion of minority voices, multiple memories, and multiple values. And I've chosen this slide because I think it really encapsulates the challenge that we have in telling the full stories and all the values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the modern day.

So, this is a cave called Hang En Cave at Phong Nha-Ke Bang National Park in central Vietnam. The cave on the left is the second largest cave in the world and on the right, we see a local indigenous woman carrying wood, resources from the World Heritage property.

She comes from one of two minority groups and the smallest ethnic groups in Vietnam, the Morkum and the Ruc, and they live in two villages in the World Heritage property currently. Where the conflict comes is that, I visited the site and there was no interpretation of the indigenous people and their connection to country and their role in managing the land. And indeed, there was very little interpretation about the biodiversity values and geological values for which the site was listed. And so maybe there is just a larger piece of interpretation work to be done at this site and this will all come to the fore, but what is slightly concerning is that apparently the government have sought to relocate the villagers and give them new homes, which of course, they have been avoiding.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of their use of the resources in the World Heritage property. And so, when we look at the central point of multiple memories, minority voices, and multiple values at World Heritage properties, I think this slide encapsulates that point.

I'd like to continue my introduction by explaining what I mean by sustainable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really there, I'm talking about how it supports the aims of UNESCO'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how it relates to the inclusion of multiple voices in interpretation. The UNESCO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states that there should specifically be, and I quote, "full respect and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and right-holders, including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 relation to World Heritage." And I believe very strongly that this should also specifically apply to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The policy identifies that state's parts in this convention should adopt a rights-based approach which promotes World Heritage properties as exemplar places for application of the

highest standards for the respect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My personal view is that for a rights-based approach to be effectively adopted, interpretation should fall under the rubric of management, and therefore be considered central to the project of World Heritage by states' parties at the time of nomination. What this would do is ensure the inclusion of multiple voices, narratives, memories, and values in a nomination document, whether or not they wer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refore, allow for their effective inclusion in subsequent interpretation in or about the property. It could be a challenge for some properties that do not want to reflect multiple and sometimes painful minority narratives within the dominant state narrative, proposed for nominat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These are some of the issues that I have no doubt will be teased out in this webinar, in our discussions, or in subsequent webinars in this series. Thank you.

 Christina Cameron

Thank you, Olwen. That's very interesting and it's the contrast that I was setting up at the beginning between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other values. The driv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ushes you in that direction. So, thank you for all, woops, your lights. Everybody's opening statements. And now I, as your moderator, I have a few questions that I'd like to table and get your views on. The first one is about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was created in 1972, and it's now, of course, almost 50 years old. And in reflecting on that, I'd be interested to hear your view, and probably this is for Olwen, since you've studied World Heritage in your PhD, what you think is the main focus, what has been the main focu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nd where are the gaps? What has been overlooked?

I'll take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 what has been the focus of implementing the Convention, first. So, what I think really, the main focu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early years was the preoccupation of states parties to have properties in their territories identified and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So that was a real major focus. And, of course, today, we have over 1,000 inscriptions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reason this was a focus is because, even today, World Heritage Listing is seen as a highly desirable designation by states parties, and it provides them with prestige. More recently, of course, World Heritage Designation has been seen as important to encourage tourism and therefore economic development, but that was not the focus in the early days. And I suppose the main issue, with the focus being on inscription, was that after inscription, states parties tended not to look at the detailed management challenges of having a property on the World Heritage List. It was almost as though one had the site listed and then rested on one's laurels, and said, "Well, this is wonderful. We have a World Heritage site. It's been recognized by the world, and that's great. Let's look at listing the next one." So there has always been a requirement for the identification, protection, conservation, presentation, and transmission to future generations of heritag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dentified in the Convention. But the concept of management planning had not yet been developed. And this is where the focus on listing was prioritized over management, and then before, later on down the track, which I'll come to, but about interpretation.

There was also, as Christina has identified, a clear focus on conservation of the physical fabric or on particular species management for natural heritage sites. But a more nuanced approach

to take into accoun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roles of World Heritage in society in the early days wasn't really broadly considered. And so, we can see that we've come a very long way from where we started in 1972, and the discussion that we're having today and has been had all around the world at this time. Also, I'd like to point out that th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manage and protec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 World Heritage values, and attributes of those properties, is something that has come later in the piece and really that's been enhanced and drawn out by the requirement to provide management planning systems that identify how those values would be protected moving forward. So, I think those are the main areas the focus used to be.

And so, the second point of the question is, what areas have been overlooked? I think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broader management, other than the conservation of the fabric, or the threatened species, or the ecosystems, the management was, as I said, secondary to the nomination. And now of course, they are the focus of a lot of work of states parties, and are required as part of the nomination process. But I think the question for us is, what that has meant for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 the past. That it wasn't initially seen as a high priority. And perhaps even now, is not considered as with the same level of importance at some places as management planning is. And so again, this privileging of some aspect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ver others, and I think this is why we've come to the point where we are today to discuss these plural voices and plural values which are nuanced within a World Heritage inscription. I think also that, with the issue of interpretation being possibly subsidiary and possibly seen as an add-on to World Heritage responsibilities, that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future inscriptions and the management of properties. And that I would suggest that it actually should be a driver for states parties at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should be seen as integral to the nomination process which currently, it isn't. And I think that's problematic because when a site's inscribed, one really should be thinking about what the values are, whethe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r local or national values, and how all of those values can be explained and told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And then I suppose just to finish up, with the focus of World Heritage inscription being on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that these other values have been sometimes omitted from nomination dossiers or if included in nomination dossiers, they haven't worked through into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perty. And that means that the local and national values are minimized or totally excluded. And in doing that, so often, other stories and memories of the people with rights and interests in the property, who are not central to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is is where we get to this point again of why it's important to discuss these multiple memories.

—
Christina Cameron

In a funny way, the fact that the convention had culture and nature as separate parts means that in both sides actually, that the full values were not described. There are a lot of national parks, and natur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at have been listed that have strong human stories. It was all about the species or the volcanoes or the mountains or whatever, and the human stories are not there, to speak to your point. Though in 50 years, the world has changed a lot. So, we probably do need new approaches and perspectives to protect

and present World Heritage in this world, and I guess I would ask you to speak to what would you suggest as new approaches and why? And perhaps Jie-Hyun, we could start with you, if you'd like to step up on that one.

 Jie-Hyun Lim

First of all, I have to recognize that my knowledge on the World Heritage Sites is very much limited regionally to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So, with my experience, with my knowledge of East Asia and Eastern Europe I would just say, with some exaggeration, World Heritage Sites have been interpreted by the nation state actor without the world. Actually, in the name of World Heritage Sites, the nation state, the main actor of the World Heritage promoter, tends to interpret World Heritage as a sort of national achievement to show the other world. So, I think that with the globalization of memory there's sort of a spirit or attitude to the World Heritage Sites can be changed into a more globalized one or to recognize certain interconnectedness, one the local memory sites, to a national memory sites. Actually,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global history writing or entangled memories, have shown to us that our past has been entangled much closer than we used to think. So even the local historical sites have carried certain multiple values and meanings and actually in which the other parts of the world have been involved in making this sort of local and national sites. So, this sort of entanglement of the past might give us one clue to understanding World Heritage Sites in a different way.

The second point is that we need to increase the non-state actors to involve in this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because usually if it's a nation state, especially in East Asia or Eastern Europe, which promoted World Heritage Sites in the UNESCO and the

global/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eetings. But if a nation state has a monopoly in the promoting these sorts of World Heritage Sites internationally, I think that a sort of conflict between national interest and the World Heritage, the outstanding values is in a sense inevitable. So how to promote non-state actors in promoting World Heritage Sites is also a very important factor. The other one as far as the sort of World Heritage Sites in nature is concerned, I think that we need to think of spirit of Anthropocene. Usually if we put a stress on the human beings' involvement in the conserving nature, or in the contacting nature, I think that a sort of human being centered interpretation is inevitable. Some people say that this is human beings' imperialism, or human beings' colonialism against the other species and the nature. So how can we really overcome this sort of human beings' sort of hegemonic approach to the natural World Heritage Sites, might also be another challenge that we can meet in this century, that's all.

—
Christina Cameron

Do either of you, Elizabeth, would you have any comments on that?

—
Elizabeth Silkes

No, I'll just add that I absolutely agree that broadening the net, if you will, so that non-state actors have more of a formal and informal role in interpretation, that is absolutely essential. And it is, at the moment, when it's a top-down process, it's really exclusive, and it's one that does not create access points for vulnerable community members, for those that have negative experiences of these sites, but those experiences are so important in presenting a full story, so I completely agree. And also, taking this moment to thinking about our interconnectedness as we're all understanding, I think, in a new way, as we look at current public health challenges and how until all of us

can be safe, none of us is safe. You know, we really are connected in ways that many of us had never really thought before. And when it comes to our stories, untangling through these interpretations and through sites, that's really an extraordinary way for us to begin to identify our shared humanity. And that ultimately is the goal, isn't it, in remembering?

—
Christina Cameron

Actually, I was going to make a reflection myself on the fact that the 1972 Convention has no mention, as you say, it's a state party convention and there's no mention of civil society, and it is interesting that the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a lot of reference to civil society, and individuals and groups. So that reflects the change that happened. Olwen.

—
Olwen Beazley

Yes, I'd like to support everything the previous discussants have raised. And I suppose, as somebody who works in World Heritage, I think another challenge or perspective that we need to think about in protecting World Heritage today, it is based on a people-centered approach to heritage. And it's also one where we need to engage the public in World Heritage. And Elizabeth's referred to the current pandemic and I think the protection of ecosystems and what national parks and World Heritage properties has been really central to the well-being of humanity in this current pandemic, being able to use national parks and World Heritage properties as a space of fresh air and exercise. So there is this the sort of the physicality of the properties as well, that I think we need to embrace. And by including a people-centered approach, whether that's indigenous people, local communities who live around the boundaries of a World Heritage property, who you know have been using that site probably

for generations before it was listed, including their stories and letting them be represented in the interpretation of a place will encourage, it's an age-old adage, but it will encourage understanding, and through understanding, appreciation, and through appreciation, protection. And you know, this is the center of the philosophy of national parks, winning hearts and minds. And I think for World Heritage, it's the same.

And if we can connect the two elements of a people-centered approach to interpretation in our World Heritage properties, then people will see themselves, they will enjoy the protection, they will enjoy the resources. And I think we have to also remember that people do use these places as recreational resources. They go for walks, they have weddings, they go to concerts, it's part of an everyday pre-COVID, everyday life in experiencing the heritage of humanity. So I think we must be careful not to be too rarefied about our Heritage and try and bring it as the Convention says, "Have a life in the community," and what that actually means. So, through interpretation and recognizing that it is a resource as well.

—
Christina Cameron

Yes, we've certainly seen all the public spaces well used in this last year. The paths are heavily trodden. Shifting gears a bit, I want to go to the telling stories at World Heritage Sites and how we should do that. What are the principles underlying interpretation? How should we approach interpretation at World Heritage Sites in our time? Elizabeth, do you want to start this one off?

—
Elizabeth Silkes

Yes, I love thinking about this. The principles, really, if they're grounded in local needs and local priorities, then that's a good place

to start. Thinking about local traditions as well, and storytelling can be signage, but it could also be an art project, it could be oral histories, it can be intergenerational dialogues. I think part of the challenge, if one has been working with a traditional approach to World Heritage for a long time, part of the challenge is releasing any sense that you can in fact control the stories that emerge, that there is an interpretive plan that feels right and you want to put it forward. Because in the end, we really must be bold and release any expectation that the stories will reflect a single narrative, reflect well on many in the community. When we open up sites for multiple perspectives and essentially multiple truths to emerge, something organic begins happening, and its much, much farther reaching than the site itself. It's a way for community members to come together and listen in a new way. It's about access, it's about understanding, it's about compassion.

We have an opportunity through sites to bring in marginalized members of the community, descendants of those who experienced sites and really give them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perspectives, I think. I've seen extraordinary art-based programs, I've seen extraordinary dialogue-based programs, which is really about listening rather than about telling your story. And when we can start from a place of listening with compassion, really extraordinary changes can happen within a community. I would also say, thinking about partners outside of the site management is really essential. Thinking about schools, thinking abou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inking about family members, victims groups, survivors, elder communities. How can that interconnectedness start at the site and work out from the site. And then ideally, in our work we also see connecting using virtual means from one site in one location to another in another

region that's facing similar challenges. And that's really, I think, an extraordinary way to elevate the stories being told because it shows that global connection, and ultimately that's really the goal.

—
Christina Cameron

You've all made the point already, but this issue of the national narrative or the dominant outstanding universal value message really works against that, because it makes the site manager feel as if he or she has to tell or give all of those themes from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tatement; that that's what they're there to do and that's absolutely the polar opposite of what you've just described, which is interesting. Jie-Hyun, would you like to add on to that?

—
Jie-Hyun Lim

I agree with Liz and Olwen. When they talked of the absence of the women and indigenous people and other sub inheritance in the World Heritage. But actually, they have been always present in the Site. Just what has been absent was our gaze to recognize their presence. Christina says our national narratives made us blind to the non-nationally dominant people's and groups' presence in the World Heritage Sites. For example, when we have a very close look at the list of so-called the national treasures in East Asia, we can see that many of those national treasures are actually imported goods. They were not made in Korea, made in Japan, they were imported from Central Asia and other places. Once we begin to recognize these national treasures actually were produced outside the nation and/or any other part of the world, then people may begin to change their attitudes in understanding their own past.

Also, architecture. A very famous, eminent national architecture that was built 1,000 years ago, sometimes we see that, "Oh, this

architecture was built by Gastarbeiters more than 1,000 years ago.” But people just presume that, oh, that architecture was made in Korea, or made by Koreans, but it’s not true. So I think that once we recognize that this national architecture has been built by the guest workers more than 1,000 years ago, it may lead us to understanding today’s Gastarbeiters importance and their position in our contemporary world. In that way, these different reasons in the past have been interconnected, also the 1,000 years ago past and present has been interconnected through our gaze or through our ways of understanding World Heritage Sites. That’s all I want to say,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Olwen, would you like to make a comment?

—
Olwen Beazley

Thank you, yes, I just wanted to add a little example from Australia, and I’m sure there’s a lot of work going on around the world, but of course I’m more familiar with the Australian examples. So, the National Trust of Australia, for example, has got a very interesting handbook about how to enable and empower indigenous peoples in Western Australia to tell the stories of their heritage, and of course, the rock art of the Burrup Peninsula is now on the tentative list for World Heritage Listing. And so that again gives strengths to the purpose of letting go as Elizabeth said, which I love that idea of letting go of the narrative one thinks one should be telling and actually giving it to the people who know the story, who can tell the story.

And I had the benefit of going to the Burrup Peninsula a couple of years ago and the stories that the indigenous people there were able to tell about the way the sea had moved and the climate change

stories, because there were midden sites way up the hill. The thing is, as a heritage professional, you probably wouldn't have looked at it, you just look at the rock art and engravings, but the full stories about climate change, which is so significant in our society today, will come out. Were there heritage experts doing the interpretation, that probably wouldn't have been the case. Just wanted to flag that as an example of an interpretation, sort of, avenue of letting go.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Thank you. And I think that now I'll push you off we only really have time for one more discussion and for that I would like to focus on dissonant memories.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part of the discussion. We're more and more aware that there are multiple memories associated with places, and the real question is how do we deal with dissonant memories, how do you with competing claims on the same site, for the same site. What processes can we undertake to get through that and to avoid conflict, I suppose. Or maybe we have to acknowledge conflict. I don't know which one of you wants to start. I'm looking at you. Elizabeth, do you want to jump in?

—
Elizabeth Silkes

Sure, I can start with this. It might not surprise you to hear, I feel you embrace the conflicts. When communities are given the space to come forward with their truth in recognition that each of us might have a different truth, then, and only then, can true dialogue, whether it's about the past or about contemporary challenges, really happen. It is not an easy process and it is not one that is linear. But when a site is open to multiple memories that are at odds, it gives the community a sense of being heard and then positions community members to listen. And when people are heard, they're able to begin to pivot and think about the future, and sometimes what we find in environments

that are deeply conflicted, it's starting with the challenges that are shared challenges, contemporary shared challenges, as an entry point to think about different paths and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interpretations. Because in the end, we all are facing challenges in a similar way.

We all hope for our children to live a peaceful life, we all have a vision for a future that includes all of our voices. So, when you can work backwards, start from that place and work backwards, with respect for difference, then that experience and the site at which that experience happens becomes quite powerful. And you'll see community members beginning to gravitate towards that site to have that kind of experience. And yes, it needs to be, ideally, facilitated, but it starts with and is grounded in respect for different perspectives and a confidence that together we can work through our differences starting with our shared experience. So, moving from individual narratives to shared experience that brings us together and ultimately collective visioning and action. That's the change that we often see in this kind of environment.

—
Christina Cameron

And how do you bring about that discussion? I'm also curious about the length of time, but how do you bring people together? Who can convene that?

—
Elizabeth Silkes

This is where I think your partners really come into play. There are always community groups that are people who have come with similar experiences and similar frustrations or similar traumas that they've experienced and they already are a cohesive group, starting with that group and beginning to explore their connection to the site and then

branching out. I think that we found partnerships to be extraordinarily helpful, and often in deeply, deeply divided societies, it's starting with young people. I think, looking at young people and looking at elders, and whether that moves into an intergenerational exploration where young people who perhaps are thinking that these events, these traumatic events actually never even occurred, putting them together with elders and having them record these stories, it starts to create connections that are quite profound, and at the same time, opens minds to experiences that are beyond their imagination and you start to then create a cohesive community by beginning with difference.

—
Christina Cameron

Olwen, how would you see going about dealing with dissonant memories on the same sites of conflicting memories?

—
Olwen Beazley

I think that the basic premise is the sort of co-production of the histories and stories and I think Elizabeth has really articulated very well, her experiences of working with sites of significant trauma or conflict. For looking at it from a process point of view, I think that, again, interpretation can play a strong part in World Heritage properties. So, going back to the idea of an interpretation strategy being identified and the multiple voices associated with a property being identified at that point. I think what Elizabeth talked about is the actual doing and I suppose before the actual doing, in World Heritage, we need a framework within which that can sit. But the inclusion of all stakeholders who are connected to that place, and of course as Professor Lim has said, there are tangled memories and tangled histories, and all we need to do is look at World War sites where there have been multiple players and multiple histories and memories of those actions and those wars, where if we try to take one over the

other, we would be missing the whole story.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a framework within which this excellent work of storytelling, memory sharing, and reaching a point of common movement forward is really important.

—
Christina Cameron

Hello, Professor Lim, you've done a lot of work in Europe, in Eastern Europe, and it's quite interesting, the reference to wars. What would be your positioning be on how you would deal with dissonant memories and conflict sites?

—
Jie-Hyun Lim

Very recently, I had the chance to write a review for the new proposal to restructure Babyn Jar in Kiev, Ukraine. And then to my surprise, and to my pleasure, these Ukrainian historians now tried to remake Babyn Jar as a relic transnational memorial for victims, multinational victims and multiethnic victims. So my suggestion is also to make Babyn Jar as a relic, a memorial of global memory. But on the other hand, the oxymoron of the global memory space is that it became a playground for competing national memories very often. Before the globalization of memory, people were not interested in what kind of memories do our neighboring nation have? They didn't care. They just cared about their own memories. But with global memory, people began to become interested in the collective memories of their neighboring nations.

So, for example, and nowadays you may have heard about the conflict over the modern industrialization sites in Japan as a new World Heritage Site between Koreans and Japanese. But for example, twenty years ago, Koreans would not be that much interested in the Japanese World Heritage Site. But nowadays, Koreans are also very

much interested in Japanese historical sites. It means this shows a very good example of how the world and our memories and past have been entangled nowadays with the emergence of global memory space. So, how to make this new chance, that the newly emerging global memory space or global memory formation has brought to us a way to make the world more reconcilable, reconcilable memories. Otherwise, also, the globalization of memory, unfortunately may have led us to a very conflictual world of the memory. So, I think that in the sense that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that the World Heritage Sites insist from the beginning is very bottom value for making this global memory space into our own really globally open-minded, multidirectional memories. That's what I want to say.

—
Christina Cameron

Well, thank you. And, I mean, this is a very interesting discussion and we could deepen it a lot, but we are live streaming on YouTube and Facebook, and I have a number of questions that have come in. So, I will put some of these questions on the table and see who would like to answer them. People are thanking us for insightful discussion and are very pleased with the discussion, so that's very nice.

So, first question I have here is, whether the discussion about multiple voices... whether that is only valid for World Heritage Sites that have already been inscribed? What do you think if the sites with multiple voices are inscribed to be World Heritage Sites in the future? So, I guess the question there is, will there be a change in the way sites are presented?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sites that now exist, and thei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described in a certain way. I don't know if one of you wants to pick that one up. Maybe You will...

—
Olwen Beazley

Thank you, Christina. It's a good point and I think that as World Heritage professionals would want to see maybe the processes and framework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could change to accommodate the identification of multiple memories in advance of a nomination coming towards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 kind of alluded to that in our discussion of interpretation being an essential part of management and where there is a need for a management plan, there could be something like an interpretation strategy noting that not all players will necessarily be identified at that point. But to notice that there is a requirement for multiple voices. And then that... and this was actually eluded to by Professor Bill Logan and his lecture in this lecture series preceding this webinar series at the end of last year, he suggested that perhaps the preliminary assessment that will now take place at World Heritage nominations before they get provided to the Committee, could look at that particular aspect to see whether an interpretation strategy had been provided and one which would reflect the multiple voices and entangled memories and indeed the global memory formation as Professor Lim has said in that proposal.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Another question that's come in; how do you ensure that the telling of multiple narratives happens without passing judgment and pointing fingers and allows people to make their own conclusions? Is that even possible? So the interpretation be free of bias since everyone will come to a site with their own memories and experiences? Who would like to take a shot on that one? Probably Elizabeth?

—
Elizabeth Silkes

Sure, I'm happy to start with that. I think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at you can ensure an openness to various perspectives. One is

really starting from the understanding that interpretation doesn't, you don't put a pin at a point in time when the interpretation is done. So, part of a site's responsibility, I think is to create space for evolution and understanding and for the community to come together, and in time, in that non-linear process, come to new understandings. It could even be new scholarship that emerges. So recognizing that a site, the understanding is fluid, and creating space for that in its interpretation. I also think that starting from the place that we must respect multiple perspectives, so in our programs, for example, we have non-negotiables. You can come with your truth, you can talk about your memories and your perspectives, but you need to recognize that you will not insult, and you will not have any right to criticize the perspectives of others in the group. So as a group you set up your non-negotiables, and then you create a safe space for this discussion and that can be expanded into the larger interpretation of sites. It starts with a place where we recognize that not everyone's personal truth will be the same. And if you can start with that respect, and create space for the evolution of your understanding, then that goes a long way towards addressing bias, but we always have to be on the lookout for that.

—
Christina Cameron

Okay, Professor Lim, would you like to add to that comment?

—
Jie-Hyun Lim

My answer can be combined to question number 3 and number 4. As a historian, I have thought that if we overcome national history paradigm, we can live in a slightly different world. But of late, I've found that people are learning history not from professional historian's works, but learning history from novels, and the films, TV dramas, and cartoons, and so on. So that's why I now began to shift from

historian to memory activist. In a sense, touring to World Heritage Sites and reading certain historical explanations of these World Heritage Sites is very important in making people's memories and people's remembrance. Also, it has a very strong hegemonic power, more than we ever thought. So how to make, how to represent World Heritage Sites to visitors is also very important work to remake our understanding of the past.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Here's another question that's very interesting. How does this process interact or intersect with nation state soft-power initiatives? Are there any sites that demonstrate best practices in terms of multiple perspectives interpretation? So, who would like to propose a site or sites that are good practice of multiple perspective interpretation? Yes, go ahead.

—
Jie-Hyun Lim

I think that the new proposal to restructure the Babyn Jar Memorial in Kiev can be a very good example. It now comprises, not only Jewish victims and the Romani victims, and the socialist victims, and the homosexuals. It really carries memories of multiple memories of the various victims and without making any hierarchization of those victims. So, I think they can be a very good example for us to show how the 21st Century World Heritage Site can be represented.

—
Christina Cameron

Olwen, do you have a favorite?

—
Olwen Beazley

Not so much with World Heritage specifically, but I think that Elizabeth would probably have some really good examples of state-based interpretation, where the multiple narratives are provided. And it brings to mind some material I read about the Derry Museum

in Ireland, and where multiple perspectives have been provided in what's essentially a very difficult conflict with different countries and different religions, but how that interpretation enabled, or tried to facilitate a transformative piece of interpretation where people went in perhaps with preconceptions, but because all of the stories were tol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at was allowed within this Derry Museum, that there was the opportunity for a change in perspective of people visiting. So that, I think, sounds as though, I haven't been there myself, but it sounds as though it's a great example. And I'll hand it over to Elizabeth. She may have some more views.

—
Christina Cameron

Yes, Elizabeth, the last word to you because we have to wrap up.

—
Elizabeth Silkes

Yes, that's the Museum of Free Derry. And I highly recommend them, they've done a great job of presenting multiple perspectives. And I just have two more examples I'll share. One is not on the World Heritage List, but it's Monte Sole Peace School Foundation in Italy. And they do really an extraordinary job of working particularly with young people. It was the site of 700 villagers were killed during World War II. And they bring young people together to talk about the porous line very often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And they really dig into the gray area, and what goes into our choices, and that's really an extraordinary site.

Then I will also just mention ESMA, the Naval Mechanics School in Buenos Aires in Argentina. They're on the tentative list. And I'll mention them because this is a specific, I think, really wonderful way to go back and look at your interpretation and adjust when you realize that someone's voice is missing. And they realized that in all of their interpretation, this was site, a naval mechanics school, it was also

the site of clandestine torture and detention during the dictatorship in Argentina, in the middle of Buenos Aires. And they realized that the women prisoners were missing from the stories that were being shared, from the interpretation inside the museum. And what they did, we provided them with funding, as did a few others, but they actually went and wrote with a marker on each of the interpretive panels the stories of the women that were missing. So, on the one hand, you get the stories of the women, on the other hand you start to see, ah, that was missing all along and we didn't realize it. So, I'll just leave you with that example.

—
Christina Cameron

We have more questions rolling in, but I'm afraid we're out of time. And I'd like to thank all three of you for really very, very interesting comments and experience to share with everyone. And I hope that this session for our audience has contributed to your understanding of the challenges that arise when acknowledging and interpreting multiple memories at World Heritage Sites. And so, on behalf of all of us, I would just want to thank Haeree Shim, who opened this webinar, and Mr. Kim who is not here today, but of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ir leadership in sponsoring this series on the interpret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narratives. And also to congratulate the Government of Korea, who have created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It's going to b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o, with that, thank you very much. And Haeree, back to you.

—
Haeree Shim

Okay, Thank you, Christina. Thank you all so much, Christina, Elizabeth, Jie-Hyun, and Olwen, and above all, the audiences

who watched and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for making this webinar interactive and dynamic. And sorry for, we had a bit of bad connection on our YouTube. We'll be uploading our video on our Facebook and YouTube, afterwards, so you can watch it again after today. I think today's discussion will lead to the subject of our next webinar,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with Different Memories. Our second webinar will be on air on March 24th through our YouTube and Facebook as well. We'll still have 5 more webinars to com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o please join our upcoming webinars. We also will launch a short video contest on the them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made through World Heritage, so please share your stories with us about heritage which had a contested history in the past, but have reconciled peacefully in the process of protection. So, thanks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we hope to see you at the next webinar in March.





2회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
서로 다른 기억과
다양한 목소리들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with Different Memories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2021 Webinar Series – 2nd Session

March 25th – 10AM UK, 12PM South Africa, 7PM Korea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with Different Memories



Gamini Wijesuriya

Special Advisor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Dacia Viejo Rose

Senior Lecturer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Pascall Taruvinga

Chief Heritage Officer
Robben Island Museum
Cape Town



Peter Bille Larsen

Senior Lecturer
Anthropology
University of Zürich

What do we mean by dissonance in the context of World Heritage?
Which dissonance to discuss, who decides, and how to resolve current and future issues?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 서로 다른 기억과 다양한 목소리들

좌장: 가미니 위제수리아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특별고문

■ 심혜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문화재청에서 주최하는 2021 유산해석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의 심혜리입니다. 우리 추진단은 이 행사의 주최자이며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서 유산해석 분야의 연구와 역량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는 올해 말에 공식 설립될 예정입니다. 웨비나 시리즈는 아프리카 세계유산 기금의 협력을 받아 진행되는데요. 아프리카 세계유산 영역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죠. 이 웨비나 시리즈가 분쟁 중인 세계유산의 평화적 관리와 세계유산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다층적 서사와 때로는 상충하는 역사 해석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을 알아보고 논의하고자 이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한 이후 유산 보존은 무엇보다 유산의 물리적 측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빚는 유산 영역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당사자 집단과 지역공동체가 유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다중 서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다차원 사

회에서 유산을 보호하고 갈등을 관리할 방법을 논의하고자 토론회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앞두고 이 시리즈에서 더욱 바람직한 유산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질문과 유익한 논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열린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세계유산협약에서 간과된 가치들과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좀 더 나아가 세계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의 맥락에서 불협화음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불협화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문제를 다룰지 누가 결정할까요?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까요? 유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유산 영역에서 불협화음은 부정적이지만 한 것일까요?

토론 사회자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박사입니다. 스리랑카에서 태어난 가미니 위제수리아 박사는 건축가이자 고고학자이며, 4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저명한 유산 보존 관리 전문가입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자연과 문화 보존 활동에 인간 중심 접근법을 도입한 선구적 노력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진 분이죠. 위제수리아 박사는 유네스코에서 간행한 『세계문화유산 관리 안내서』 작업에 기여했고, 진정성과 전통 지식 체계에 관한 저서들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위제수리아 박사는 스리랑카에서 보존 책임자로 재임한 적이 있고, 현재는 로마에 있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ROM, 이크롬) 최초의 아시아인 임원으로서 사무총장의 특별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랩(WHITR-AP) 원장의 특별 자문위원입니다. 화이트랩은 유네스코 후원을 받는 아태지역 세계유산 교육 연수 연구원으로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토론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나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줌이나 유튜브로 스트리밍이 되는 동안 줌으로 보고 계시다면 Q&A 박스에 질문을 남겨주시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다면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토론이 끝나고 문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제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미니. 박사님 차례예요.

고맙습니다, 헤리 씨. 세계유산 해석 웨비나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게 돼 영광 이고요. 헤리 씨와 팀원들, 센터의 멋진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다수의 목소리와 서로 다른 기억에 중점을 둔 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웨비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토론할 주제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 서로 다른 기억을 지닌 목소리들'입니다. 첫 번째 웨비나에서 크리스티나 캐머런 박사와 토론자들이 다수의 목소리와 서로 다른 기억을 인식하는 해석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세계유산 시스템의 두 가지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보편성, 혹은 보편적 가치를 지역적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부분과 해석보다 물리적 보존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불화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했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협약이 보장하는 국권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뤄야 하죠.

먼저 예전 강연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논점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분야에 인간 중심 접근법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유산 관리에서 나아가 유산과 사회 모두의 복지를 추구하는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유산 담론의 중심에 두는 거죠. 두 번째는 보존과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가치를 중심에 두는 접근법인데, 이 또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하려면 유산 관리자들은 물론 학자들도 물리적 보존, 물질적 관리, 진정성 같은 종래의 관심사들을 넘어서서 다수의 목소리, 다양한 기억, 널리 논의된 포용적 서사의 기록, 권리와 권리 보유자들, 그 밖의 다양한 인간 중심 문제들에 관심을 뒤흔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과제죠. 다수의 목소리와 서로 다른 기억, 우위를 차지하려는 시도, 공식 서사의 권위, 국가 외의 관련성들을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

들은 모든 유산이 논쟁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세 번째 논점을 강조합니다. 관리 계획을 세울 때부터 다수의 목소리와 서로 다른 기억의 문제를 모든 당사자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석이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은 우리에게 비교적 새로운 용어죠. 옥스퍼드 사전에는 불협화음이 '귀에 거슬리는 음의 결합'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흥미롭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합의의 결여'라는 정의도 있죠.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턴브리지와 애슈워스는 꽤 오래됐지만 매우 유명한 저서인 『불협화음의 유산: 분쟁 자원으로서의 과거 관리』에서 유산 관리의 원칙과 실행 논의에 불협화음의 개념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불협화음의 개념에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불일치와 부조화라는 개념을 음악적 조화에 비유했는데요. 이는 조화로운 화음이나 어떤 최고의 균형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죠. 따라서 불협화음이 서술 도구이자 중재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논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명사 세 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토론자들이 못다 한 불협화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처럼 토론자들의 짧은 기조 발표를 듣고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토론자인 다시아 비에호 로세 박사는 케임브리지대학교 유산과 과거 정치 분야의 고고학과 부교수이자 케임브리지 유산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잠시 일하는 동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역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갈등 상황 속 유산의 역할과 평화 구축에 관심을 갖게 됐죠. 저서로는 『스페인 재건: 문화유산과 내전 이후의 기억』이 있고, 『전쟁과 문화유산』, 『전쟁이 남긴 기념물들』 등을 공동 편집했습니다.

파스칼 타루빈가 박사도 모셨습니다. 고고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전공 분야는 세계유산 이해당사자들과 지속 가능한 개발 측면입니다. 20년 넘게 유산 관리 부문에 몸담아온 타루빈가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상급직과 임원

직을 맡아 공공 부문에서 지역적·국제적으로 확실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는 남아공의 세계유산인 로벤섬의 유산 책임자죠. 타루빈가 박사의 관심사는 박물관, 유산, 기록 보관소, 문화유산을 보유한 보호지역, 쌍방향 협력 프로그램, 세계유산, 인적자원 관리, 재무관리, 행정과 지도입니다. 타루빈가 박사는 아프리카 내 모든 유네스코 자문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여러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25편 이상 게재했고,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저서를 출판할 예정입니다. 박사는 아프리카 유산 지형의 진화와 탈식민지화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유산 관리, 갈등의 해법, 기후변화, 지속 가능성, 아프리카의 유산 보존을 위한 탄탄한 다리 구축 등이죠.

이 자리에 함께한 피터 빌 라슨 박사는 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유산 보존과 사회정의 문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입니다. 라슨 박사는 옥스퍼드와 제네바 로잔에서 초기 경력을 쌓은 뒤 로잔대학교 고고학과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인류학, 인권 강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서리대학교와 제네바대학교 부교수로서 유산 연구, 지속 가능한 개발, 인류학을 가르칩니다. 또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학계 파트너들과 활발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정의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의 분석과 정책 토론 증진에 힘쓰고 있죠. 최근 저서로는 『탈국경 자원 관리』, 『보존 비정부기구들의 인류학』, 『세계유산과 인권』,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 있습니다. 마지막 책을 집필할 때는 저도 피터와 함께 일했죠. 이제 아시아 박사의 첫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시아 비에호 로세

감사합니다. 대화에 초대해주신 주최 측과 헤리 씨에게 감사드리고, 저희를 멋지게 소개해주신 가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순서인 만큼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로 시작해야겠네요. 문화유산이 일련의 기념물들, 즉 순수한 역사적·미적 가치를 지닌 물체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유산은 유형적 이라기보다 무형적인 것이란 이해로 대체돼왔죠.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행동과 의미 형성, 의사소통 행위의 과정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의미 형성 과정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 대상이 고도로 정치적이고 끊임없이 진화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변동성은 이전에 유산이 갖고 있던 의미론적 안정감을 교란하죠. 화면 아래쪽 사진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시위 장면입니다. 이 시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습적인 기자의 피라미드에 새로운 상징적 측면을 더합니다. 이 상충적 긴장 상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산의 의미와 용도는 통시성을 지녔으니까요. 유산의 의미와 연상되는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더해진다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논점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행위자, 가치, 맥락, 다양한 관점, 접근법이 포함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불협화음을 피하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마찰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 불이 붙으면 좌절감부터 난폭한 충돌까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니까요. 불협화음을 논의하는 게 왜 시급할까요. 부분적으로는 방치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지만, 등재 신청 증가가 최근의 분쟁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분쟁들은 역사적 유산을 지닌 사건이 되고, 계속해서 정체성 서사에 스며들며 오늘날 국가 내부와 국가 간 관계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관련된 유산을 위한 해석 정책은 유산의 향방에 특히 중요합니다. 영구적인 폭력의 순환으로 가느냐,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느냐를 결정하므로, 이런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과거의 해악을 인식하고 그 유산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는 두 번째 논점으로 이어집니다. 불협화음은 다양성의 포용이 아니라 각 서사의 충돌에서 비롯하죠. X는 이 유산이 이런 의미라고 하면서, 선택적 역사를 끌어와 이 시각을 뒷받침합니다. Y는 그 유산의 의미가 다른 거라고 말하며, X가 무시한 부분의 역사를 끌어와 자신의 시각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죠. 다양성의 포용이 아니라 단독성의 충돌이 원인입니다.

유산은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투쟁처럼 경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됩니다. 다각적일 수 있어야 하죠. 계속되는 협의와 상호 참조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다리를 구축하는 세계유산의 용도가 포부에 그치지 않으려면 유산이 갈등을 빚을 가능성을 분명히 평가해야 합니다. 물론 상충하는 시각들 사이에서 협의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이고 유연한 대화적 해석 방식도 필요하죠. 보편적인 이야기를 유산에 바치겠다는 야심은 역효과를 낳기 쉽습니다. 하나의 해석에 특권을 줌으로써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커녕 가로막죠. 불협화음에 저항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불협화음을 받아들여 더욱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새롭고 유연한 해석 체계를 개발할 전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마지막 논점으로 이어집니다. 해석이 불협화음을 유산의 매력적인 요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을 활용해 사람들, 공동체, 다양한 관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2018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사르-사부아 보고서는 아프리카 문화유산 반환에 관해 '새로운 관계 윤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세계유산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탈 무프가 제시한 '아고니즘'에 대한 연구는 서로 상충하는 해석들을 합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마찰의 관점에서 다루는 해석 계획을 개발한 유산 기관들은 방문자 수가 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낳았습니다. 지난번 웨비나에서 언급된 내용 중 특히 북아일랜드의 사례가 있었죠. 합동 접근법은 세계유산을 관련된 이야기, 신화, 민속 공연, 노하우 등 무형적 측면과 연결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표현하는 수단인 공예와 미술 같은 창작 산업은 물론이고요. 유산 관리에 창조성을 통합하면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잘 모르고 과거를 전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게 꼭 문제는 아닙니다.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발견 욕구를 일으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유산 지역의 해석센터는 전문 지식만 전달하기보다 창조성과 훈련, 표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산은 확실한 것만 전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도 전달해주죠. 수동적인 사실 소비보다는 지식 추구를 해석 계획의 중심에 두면 훨씬 더 유연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다시야. 정말 멋진 시작이네요. 유산을 무형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 세 가지 논점, 불협화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문제는 포용이나 집합성, 다양성이 아니죠. 불협화음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과 해석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이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제 동료, 파스칼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스칼 타루빈가

고맙습니다, 가미니. 웨비나 주최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토론이죠. 아프리카의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제 발표 제목은 ‘불협화음과 다통의 공간들: 아프리카의 관점’입니다. 제 첫 번째 논점은 아프리카에서 유산과 불협화음은 다문화, 다민족 공간들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집단이 유산과 관련된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지녔다는 뜻이죠. 한 집단은 특정 유산 공간이 자신들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보고 이를 기리지만, 또 다른 집단은 같은 공간이 탄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산과 관련된 쟁점을 놓고 그 공간들은 논쟁이 계속 진행 중인 과정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는 사회문제이자 해석 문제죠.

두 번째 관점도 아프리카에 관한 것인데, 식민지 시대와 그 이후의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가 아프리카의 유산 관리와 해석을 지배해왔습니다. 늘 이런 이야기가 유산을 보여주고 관리하고 설명하는 방식을 규정했죠. 이는 상충되는 가치와 해석 유산 책임자의 직무를 포함하는 관리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기념물 목록은 대부분 식민 지배와 관련된 장소들이고 원주민 공동체와 관련된 장소들은 소외됐습니다. 짐바브웨에 영국 파이어니어 칼럼을 기념하는 장소가 있는데 파이어니어 칼럼 대대의 패배만 기리고 은데벨레 연대의 승리는 기리지 않았죠. 이것이 많은 역학 관계를 만들었고 지금은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세계유산인 로벤섬도 불협화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산은 다층적 문화 경관으로, 한 정치적 시기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시됩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경관 속에 정치 안의 정치가 있고, 다양한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용적이

고 전체적인 접근법을 취해 그 불균형을 다루고자 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을 줍니다. 그중에는 섬으로 남편을 면회하러 왔던 여성들도 있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니까요.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세계유산이 아프리카 유산의 지역적 맥락과 역학 관계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억 유산, 분쟁 유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르완다의 사례인데요. 당사국은 이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길 바라지만 이 유산이 분열을 초래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는 어떤 유산을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유산의 등재를 제안해야 하는지, 유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등을 지역에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저는 불협화음이 세계유산 관리와 해석에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협화음은 양날의 검이라 관계자들의 의도, 맥락 중재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도 저는 불협화음이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되기 전에 그 쟁점들을 다룰 더 큰 책임이 당사국에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유산은 지역에 속한 것이고, 해결책도 지역적 맥락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나 어느 지역에서든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완화되는 과정을 보면 포용적이고 전체적인 서사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구나 해석, 관리 같은 기본 전략 영역들이 쟁점들을 포용적으로 다루는 데 적합해야 하죠. 물론 갈등 해소 혹은 중재 장치가 내재된 당사자 중심의 과정을 적용해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파스칼. 불협화음이 유산 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지역의 맥락과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상충되는 가치들이나 지역적 맥락은 정말 중요합니다. 불협화음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씨앗이자

—
피터 빌 라슨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고요. 물론 당사자 중심의 과정이나 현지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 동료인 피터를 만나보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미니.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신 두 토론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발표에 '세계유산 시스템 속 불협화음의 공명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약간의 이분법을 이용했죠. 이걸 최근에 수단 북부 주 누비아 지역에서 바르샤바대학교 고고학자들, 수단의 유산 분야 동료들과 함께 일할 감사한 기회가 있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곧 그 얘기를 할 건데 네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불협화음의 공명'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죠. 첫째, 이미 얘기가 나왔듯 우리는 문헌과 경험을 통해 세계유산이 지역사회 내부 당사자들 간 마찰에서부터 국가 간 지정학적 긴장 상태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형태의 불협화음을 수반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들이 유산 등재 과정을 마비시킬 수 있고 군사적 충돌까지 유발할 수 있죠. 단순히 유산을 보존하거나 더 넓은 범위의 지속 가능한 개발 속에서 유산을 다루는 일을 늦출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이 필요한 문제죠.

두 번째는 아시아가 얘기한 내용과 비슷한데, 불협화음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여겨야 하는 쟁점들의 신호죠.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거나 사회 분열, 국가 간 갈등 불평등, 인권 침해의 대물림 등 우리 사회와 세상의 온갖 민낯을 드러내는 과정들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유산 분야에서 이런 현실에 대처할 방법, 유산 과정이 이 문제들을 다루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여기서 세 번째 논점이 이어지는데, 그동안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가미니도 지적했듯 세계유산 시스템에서 인간 중심 접근법이 발전하면서 이에 관해 새로운 시각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도 있습니다. 갈등 해소, 평화 구축, 인권 기반 접근법 등 세계유산 관

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덕분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합하려는 자문 기관의 노력이 있고, 협약국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부 협약국은 이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죠. 물론 수많은 과정과 역학 관계가 그 반대로 가면서 불협화음을 빚는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감추려 합니다. 이는 네 번째 논점으로 이어지는데, 세계유산 시스템 안에서 불협화음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알지만 드러내놓고 거론하지 않죠. 예전보다 주도적으로 이 문제들을 다루는 접근법이 발달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 국가들이나 등재 신청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순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니까요. 우려되는 상황이 많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불협화음을 억누르려 하거나 충분한 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대화를 요청하는 주체가 전문가든, 지역공동체든, 시민사회든, 세계유산위원회의 다른 위원들이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네 가지 출발점입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불협화음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 세계유산위원회는 인권 문제에서 진보하기 시작했죠. 그럴듯하고 듣기 좋은 설명을 선호하고, 다른 관점들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권리침해 같은 문제들을 둘러싼 불협화음에 대해 좀 더 솔직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려는 나라들에 불이익을 주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꿔야 합니다. 막후 거래, 골칫거리 과거의 잔재였던 관행들을 세계유산 작업의 전면으로 가져올 공간과 토대가 확장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고 솔직하게 강조하는 나라들에 보상을 주면서 그 협약국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용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을 감추려 하지 말고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고 화해와 재건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마찰을 빚는 입장들을 숨기거나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수단 누비아의 옛 동굴라 유적지에서 멋진 동료들과 함께했던 일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당사자 간 대화에서 다양한 관점을 결합할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논의가 있었죠. 폴란드 고고학자들

이 6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특히 중세 층을 조사해왔는데 갈수록 이 고고학 유산의 다른 측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현지 이맘이 이슬람교 관점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우리 작업에서 대단히 중요했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계속 말했듯 어떤 유산이 중요한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목소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산 과정을 발달시켜 다양한 관점이 허용되는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협화음을 포용해야 한다는 여러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파스칼이 말한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씨앗이라는 시각에도 동의합니다. 이게 더 큰 진폭을 지닌 활기찬 목소리들과 대화가 담긴 불협화음의 공명을 향한 제 출발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고맙습니다, 피터. 발표 내용을 잘 요약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불협화음의 공명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세계유산 시스템 속 기존 도구의 사용, 혹은 비사용, 더 많은 노력의 필요성,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를 다시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 방면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보죠. 정말 감사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은 멋지고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물론 저도 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부는 이미 대답을 해주셨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불협화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가치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참여 접근법, 인간 중심 접근법 등을 취하고 있으니깐요. 늘 분쟁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을 다시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불협화음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유산과 관련해서 특히 세계유산 맥락에서요. 설명해주신 분이 계시지만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자원하실 분이 계신가요? 먼저 다시아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다시아 비에호 로세

네, 제가 먼저 얘기하죠. 피터와 파스칼, 가미니가 이미 이 개념을 소개해주

셨는데, 불협화음이 '양날의 검'이라는 파스칼의 비유가 마음에 듭니다. 저는 불협화음을, 피터처럼 반항의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그 반대가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모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협화음은 음악적 비유니까요. 음악에서 불협화음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데 사용되고, 재즈 같은 장르에서는 화음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죠. 그래서 불협화음이 전체 중 일부가 되고, 꼭 사실적 진실이 아니라도 최소한 감정적·연관적 진실에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는 뭔가의 일부가 될 방법을 생각해보는데 음악에서 유추할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는 불협화음은 연상되는 가치들의 범위 확장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또 유산과 관련된 불협화음은 유산이 어떻게 연관되고, 평가되고, 이용되고, 이해될지에 관해 의견이 조화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불협화음이 다양한 소리와 목소리가 뒤섞인 소음이라면 공통된 맥락을 찾거나 하나의 소리가 나머지를 억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소음이 풍성해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산 분야에서 지역공동체에 관한 논의나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발언권 부여에 관한 논의가 많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체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발언권을 주면 불협화음이 발생하죠. 공동체는 다양한 목소리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과거에는 불협화음이 따른다는 이유로 공동체와 교류하는 일이 반대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교류가 이뤄질 때는 공동체의 대변인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공동체의 목소리로 여기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또한 문제를 낳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대화의 요점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목소리가 섞이게 할 공간을 마련하는 건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전 역사를 수집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산에 대해 자기 방식대로 말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단만 찾으면 되죠. 그러려면 유산을 창조적 과정, 창조적 공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짐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다시야. 피터와 파스칼도 이미 설명을 해주셨지만, 관련 사례나 한두 마디 보태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다른 논점들도 있으니까요.

파스칼 타루빈가

제가 사례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그럼 좋겠네요.

파스칼 타루빈가

사실 불협화음은 우리에게 합의에 이르거나 포용적 서사를 만드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설명,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데 로벤섬이 한 예죠. 세계유산으로서 로벤섬의 핵심은 정치범 수감입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 안에서 브랜드의 시초 혹은 해석의 출발점은 고인이 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가 로벤섬에서 긴 세월을 보냈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에 기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만델라가 로벤섬으로 간 유일한 정치범이었을까요? 다른 정치범도 3,500명이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정치범 서사에 기여하는 경험들 외에 그들의 개인적 경험이 있죠.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벤섬에 정치범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섬에는 유배지의 풍경이 있죠. 식민 통치에 저항하다 로벤섬으로 추방된 추장들과 관련된 곳입니다. 식민 통치는 결국 아파트헤이트로 이어졌고요. 영국인들이 시작했고, 나중에는 네덜란드인들이 아파트헤이트를 도입했죠. 우리는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관리 과정에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또 그곳엔 한센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병 때문에 섬으로 추방된 사람들이니 정치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이들도 정치범들과 마찬가지로 섬에서 생존해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산 관리가 다른 분야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있죠.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저는 당사국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자는 바이올린과 드럼 연주자, 가수, 기타 연주자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의 음악을 만들게 해줘야 하죠. 우리는 다른

분야를 보고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분야들로 눈을 돌려 차이와 다양한 해석을 포용하는 법을 배울 때가 됐습니다. 유산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유산의 불협화음은 진화 과정이죠.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그 사례연구를 기대했어요. 피터, 덧붙일 말씀이 있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피터 빌 라슨

계속 진행하셔도 내용이 연결될 것 같네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네, 다음 논점은 다양한 가치, 다양한 당사자, 다양한 기억 등에 관한 애깁니다. 우리가 점점 인간 중심 접근법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인간 중심 접근법은 사람을 담론의 중심에 두고 가치를 논하는 방법인데, 모든 논의와 많은 부분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죠.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까요? 수많은 분쟁과 불협화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죠? 단지 학자들이 논의할 일일까요? 아니면 실제 관리 업무를 하는 파스칼 같은 사람들의 영역일까요? 또 유산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국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 어떤 기억이 해석에 포함돼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이끌어야 할까요? 지역공동체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공동으로 해야 할까요? 질문이 깊습니다만, 또 논의할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관리 분야는 물론이고 어쩌면 학문 작업에서도요. 또 결정은 누가 해야 할까요? 누가 시작하시겠어요? 피터가 할까요?

피터 빌 라슨

제가 끼어들어도 될까요? 멋진 질문이네요. 대답할 방법이 정말 많은데요. 파스칼이 예로 들어준 콘서트의 지휘자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콘서트가 멋지고 조화롭게 시작됐다가도 오케스트라가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은 콘서트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요. 저는 이

런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좋은 콘서트를 규정하는 기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아가 말한 즉흥 연주와 약간의 불협화음을 허용하는 재즈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좋은 콘서트, 즉 좋은 세계유산 공연은 불협화음을 이용하고 다루는 일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약국에는 위임사항의 일부로서 등재 신청을 준비할 때나 해석 계획을 세울 때 불협화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하죠. 이는 다양한 음악 집단이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 비유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불협화음을 다루는 건 어려운 일이고 일반적으로 유산 관리에 관여하는 데 동원되는 것과는 다른 기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오케스트라에 새로운 악기 집단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불협화음과 분쟁의 사회적 복잡성을 다룰 사회학 기술이 필요하죠. 파스칼이 설명해준 로벤섬의 다양한 집단처럼 다양한 사람이 그 지역에 관한 생각, 이해관계나 권리를 지녔을 수 있으니까요. 불협화음을 다루는 데는 기준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 기술도 수반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다시아, 덧붙일 내용이 있나요?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아 비에호 로세

파스칼이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피터가 박사님의 논점을 언급했는데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그래요. 네, 파스칼 말씀하세요.

파스칼 타루빈가

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산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유산이고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정하는 법률 문서가 있죠. 사회도 그런 일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관련된 과정과 결과는 고정적이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하죠. 처음부터 사회를 포함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재적으로 약자의 위치를 안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기반 관리 시스템이 바라는 보호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역시 유산 분야가 협조와 검토를 목적으로 하

는 기존의 제한된 협의 과정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당사자들과의 협의는 단지 형식적인 확인 절차였죠. 이제 우리는 유산 관리에 이해당사자 관리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구조적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유산 과정에서 우리는 사후 모니터링 작업을 할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관찰자가 되죠. 당사자들의 배경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만,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없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제 말은 이 사람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벤섬에서처럼요. 우리는 한 발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논의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개발한 한 가지 관점은 전략적 연구 과제였죠. 그동안 출판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고 빠진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주제와 영역이 제대로 윤곽이 잡히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해왔고, 앞으로 2~3년 동안 그 공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으로 작업하고 있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문제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고맙습니다. 다시아, 보태실 말씀이 있나요?

다시아 비에호 로세

네, 저는 피터와 파스칼이 이미 얘기해주신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걱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다양한 의견, 모든 사람의 참여, 다수의 목소리 같은 의견에 저도 찬성해요.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중주의 운동에 의해 유산이 이용되고 오용되는 모습에서 이런 유산 서사가 유산에 대한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해석을 지탱하고 전달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포괄성을 갖추기 위해 이런 서사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는 법률 위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이런 목소리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파스칼이 제안한 것 같은 전기적 접근법을 취하는 게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 전기를 포함하는 거죠. 코르도바 모스

크처럼요. 전에는 이슬람교 사원이었고, 서고트족 신전이기도 해서 다양한 측면을 지녔는데 층 얘기는 하고 싶지 않네요. 그러면 그 측면들이 별개의 시기들 같은데 각 층의 유산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곳의 모든 삶, 이 장소를 이뤄온 모든 것, 그 각각의 역사가 낳은 다양한 유산의 정신들을 전부 고려한, 마치 사이키델릭 트랜스 같은 전기적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조적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창조적인 의미 형성 과정으로서 유산에 집중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 쌓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는 방향에 관해서요. 유산에 대해 수없이 얘기된 부분이 미래를 만드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유산 해석을 하면서 과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죠.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며, 어떻게 하면 유산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대화의 공간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누가 더 큰 피해자였는지 같은 문제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피해의식에 관한 경쟁이 통합되는 상황은 갑갑하고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은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제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해주신 것 같네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면 좋죠. 물론 그 외에도 포용성, 관련된 모든 사람과의 협의, 피터가 제안했듯이 어떤 기준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피터의 말처럼 새로운 지식 분야, 새로운 훈련, 새로운 역량 구축이 필요하죠.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어떤 영역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포용성과 집합성, 이해당사자들의 관련성 등을 생각해야 하죠.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세계유산에 관한 가치를 누가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제 질문에 답해줄 분이 계신가요? 파스칼은 지역 사람들, 지역 당국의 몫이라는 견해가 확고한 것 같은데, 1분 정도 말씀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피터.

피터 빌 라슨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지역 당국에서 이 일에 참여하길 바라니까요. 하지만 운동장이 기울어진 경우가 많고, 협약국 측이 추진 과정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운 점입니다. 자문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죠. 협약국의 책임을 재확인해주는 부분이지만,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태로운 국면이 벌어진 경우들이 있었죠. 다시아가 얘기한 미래 지향적 과정으로서의 유산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위원회, 혹은 세계유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공정한 과정에 대한 품질기준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새롭게 고안하지 않아도 될 때도 있죠. 지금은 재고안이 이뤄질수록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폴리즘에 가까워지거나 유산이 다시아가 언급한 다른 역학 관계들에 휘말릴 위험이 증가하죠. 재료는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바라는 요리나 케이크는 만들지 못했고, 처음에 목표로 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피터, 다음 질문에서 그 스피드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네요. 토론을 보시는 청중 여러분, Q&A 박스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10분 뒤에 문답 시간이 시작되니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토론자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무리 지을 시간이 7분가량 남았네요. 불협화음을 빚는 유산들이 있는데요. 아마 미래에도 그런 유산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따라야 하는 방침을 제시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센터와 세계유산 과정을 인도할 방향 말입니다. 주요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석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저는 이런 방침이 시스템에 짜여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몇 가지 방침과 그 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단지 학문 영역일까요? 현장에 적용돼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누가 시작하시겠어요? 다시아가 먼저 할까요? 앞에서 이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현 시스템의 문제들을 언급해주셨는데요. 유네스코의 구조적 측면에서 협약국들이 지닌 압도적 권한, 비정부기구와 참관기관들의 제한적 관여 시도, 지역을 참여시킬 방법 등이죠. 저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방식이나 운영 지침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때 유산의 무형적 측면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형유산은 여러 나라가 공유하기가 훨씬 쉽죠. 무형유산이 지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면 중 하나는 수많은 새 유산이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탱고를 공유하고, 미식 전통들도 공유되고 있죠. 기념유산에도 정서적이고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무형적 측면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거기에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유산을 무형유산처럼 공유물로 생각할 수 없을까요? 또 그 공유를 통해서 사르-사부아 보고서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계 윤리'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과거, 특히 분쟁에 휩싸인 과거와 또 서로와, 영향을 입은 공동체들과 교류할 윤리적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역사, 유산, 서사를 위해 어떤 유적을 기리는 일은 같은 사건을 아주 다르게 겪은 나라나 국가, 공동체에 폭력이 될 수 있죠. 그 다른 목소리들을 포함하는 게 유산을 기념하는 서사를 폄하하는 일은 아닙니다. 산업적 우수성과 발전을 기리는 유산들이 있는데 그 산업 발전을 위해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계약 노역자, 노예, 강제 노역자, 죄수 노동자일 수도 있죠. 이 또한 그 산업 유산의 성공을 이끈 일부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포함한다고 해서 유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로벤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센병 환자, 여성, 피해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전부 포함한 것이 유산의 정치적 서사를 약화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에 관한 부분이 희석되지도 않죠. 유산에 풍성함을 더할 뿐입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의 서사를 지나치게 방어하려 들지 말고, 다른 서사들을 허용하는 것이 내 서사를 약화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유산을 더욱 강건하게 하죠.

유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서사가 하나뿐일 때는 그 유산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위태롭습니다. 그 하나의 서사에 이의가 제기되면 전부 무너져버리거든요. 반면에 다양한 서사와 풍성한 역사를 지닌 로벤섬 같은 경우라면, 그중 한 서사가 문제가 돼도 유산에 존재의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서사가 있으니까요. 정체성 같은 거죠. 제 정체성이 전적으로 성별에 근거한다면 그 부분이 의심받았을 때 제가 허물어지지만, 제 정체성이 백 가지 요소에 근거한다면 그중 하나에 이의가 제기돼도 괜찮습니다. 그건 존재의 위기나 존재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불협화음이 잠재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산을 취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죠.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피터?

피터 빌 라슨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불협화음을 창피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계유산과 관련된 불협화음을 이야기하는 게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지극히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토론 주제입니다. 유산에 새로운 형태의 공명을 가져오는 소중한 것을 인식하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는 게 가미니의 질문이었죠. 단지 다른 해석 방식이면 되는지, 전 영역에 걸쳐야 하는지 묻는 건데, 저는 전 영역에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유산의 전 주기에 걸쳐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등재 신청을 위한 준비는 물론 평가 과정에서도요. 당사국이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들을 살펴봤는지 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시도가 있었던 만큼 불협화음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를 개방해서 시민사회 등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협화음의 공명을 고려한 시스템 속의 불협화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울림은 단조롭고 그럴싸한 하나의 서사만 있는 멋진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수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관여하고 있죠. 세계유산 시스템이 그 구조와 과정 안에서 이를 실행하도록 독려해야 하며, 자문 기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당사국이 문제를 논의하길 꺼릴 때는 다른 협약국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친구 역할을 해줘야 하고요. 이걸 일부일 뿐이고 전 시스템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죠. 이게 제 생

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파스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파스칼 타루빈가

감사합니다. 동료분들 말씀에 덧붙여서 먼저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계속 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은 고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굿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유산 관리 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죠. 굿 거버넌스, 혹은 그냥 통치는 대부분의 유산 기관에 이질적인 개념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 구역 분야에서 논하는 주제를 문화유산 분야에서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게 첫 번째 논점이구요. 두 번째 논점은 피터가 한 얘기와 연결되는데, 유산 관리에서 다른 분야에 가까운 영역을 맡을 사람들을 들여올 새로운 역량 구축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나 사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그런 기술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고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작업 모델과 능력 범위들을 적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쩌면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다뤄온 방식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인데요. 왜 협약국들과 위원회가 지역적·세계적 과정이 대안적 해석과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상황을 피할 불협화음과 공명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특별한 지침 없이 위원회에 맡겨놓으면 그 책임이 협약국 단계에 머물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협약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공동체들이 세계유산과 관련된 글귀에 대해 항의할 때조차 유네스코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협약국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틀과 장치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는 지루한 논쟁을 거듭해왔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반대 의견들에 발언권을 주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해석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좁은 한 가지 경쟁 이점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는 대안적 설명에 무한한 선택지를 줍니다. 유산의 물리적 전시를 통해서서는 하나의 서사밖에 볼 수 없지만,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면 뭐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책은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방법을 찾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먼저 다시아가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협화음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통치 시스템과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갈등 해소 같은 다른 영역을 살펴봐야 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처럼 불협화음에 관한 문서와 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포용적 해석 모델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해석뿐 아니라 유산 관리 시스템의 모든 관리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의견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 유산들의 불협화음 문제를 다루는 데 아주 값진 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분 모두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생각을 전해주셨고, 주최 측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기대를 충족하는 논의가 됐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워낙 풍부해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유용한 말씀이었죠.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이를 가르침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친구이자 동료인 다시아, 피터, 파스칼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고 문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Q&A 박스에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질문도 있고요. Q&A 박스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무함마드 메크다드 씨가 주신 첫 질문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아닌 국가가 세계유산에 대한 권한과 주요 당사자 자격을 독점한 환경에서 불협화음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과정에서 국가가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이미 했지만 짧게라도 세 분 모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해주신 부분이지만 저도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협약에 보장된 국권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유산은 국가가 주도하는 과정이고, 관련 기관들도 전부 국가기관이니까

요. 물론 협의 과정에서 기회들이 있고 협의가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자문 기구 등이 있긴 하지만요. 의견이 있으신가요? 피터가 시작하시겠어요?

— 피터 빌 라슨

간단히 말씀드리죠. 말씀하셨듯이 이는 국가 주도 과정이고 그건 변하지 않겠지만, 국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명한 품질기준도 있고요. 아직 그렇게 분명하진 않다는 게 문제겠지만요. 다른 목소리들을 포용하기 위해 인권 기반 접근법이 도입됐고, 자유의 사에 따른 사전 동의가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있죠. 이런 장치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고 시행돼온 방식에도 부족함이 있지만, 이 논의를 위한 토대인 건 분명하죠. 그동안 가미니와 오랫동안 논의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탁월한 보편적 가치 관리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전체적 가치의 관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 가치의 일부로서 상충하는 가치 같은 것들도 다뤄야 합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야 할 듯합니다.

—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파스칼, 이 질문에 기꺼이 답해주실 것 같군요. 파스칼은 협약국 대표이신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 파스칼 타루빈가

아주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법적으로나 협약에 따르면 협약국이 주 관계자니까요. 그래서 저는 앞서 위원회가 통치 구조를 재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른 지역 당사자들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국내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치에 관한 문제가 있지만 국가의 독점 상태가 바뀌지 않을 수 있음을 유념하고 우회적인 해결책도 찾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해방 유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산 통제권은 항상 집권당이 쥐고 있고 어떤 유산을 기릴지도 이들이 결정합니다. 권력을 잡지 않는 한 내 유산을 기릴 자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 독점 상황에서 우리가 동등하게 인

식되게 할 다른 장치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죠.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에서는, 해방운동 세력인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애국 전선, 아프리카민족회의 등이 집권당으로서 해방 유산 문제를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정당들과 그들의 해방 유산에 대해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제 말은, 독점이 존재하지만 통치 문제들을 바로잡아 이를 극복할 수 있고, 동시에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안고 가야 할 문제이며, 피터의 말처럼 이 독점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장치들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다시아도 이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다시아 비에호 로세

네, 일단 모든 말씀에 동의합니다. 피터의 말처럼 협약국들이 조금 다른 시각을 갖도록 독려해야 하고, 두 분이 제안하신 실무 지침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실무 지침뿐 아니라 보고와 감시 시스템도 갖춰야 하고요. 우리 모두 말했듯 이건 계속되는 과정이니깐요. 어떤 해석에 합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른 서사가 부각되고 나머지는 묵살될 테니 이게 계속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유산 프로그램이 설립된 목적은 사려 깊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까다로운 과거와 전쟁, 폭력에 관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죠. 세계유산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격이 바뀌고 있다면 이 시스템과 장치들을 지탱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될 테니까요. 왜 이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는가라는 문제가 세계유산 목록의 의미가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가 등재되는 유산의 종류와 그 이유를 바꾸고자 한다면 이를 떠받치는 모든 걸 바꿔야죠.

이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협약국들을 설득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다양한 해석을 수용하고, 역사적 서사에 자랑스럽지 않은 역사를 포함하는 것이 나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강건함과 힘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얼마나 형편없는 짓을 했고, 그게 우리 정체성과 역사의 일부고, 이제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약함이 아니

라 강함의 표시죠.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록다운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데요.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나이지리아 작가의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태양은 노랗게 타오른다』 저자인데,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전쟁을 다룬 멋진 소설이죠. 이 작가가 단일 서사의 위험에 관한 환상적인 강연을 했는데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강연 실력도 뛰어나죠. 서로를 단일한 걸 상징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의 위험성을 논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복잡합니다.

복잡성은 힘이자 강건함입니다. 협약국들에 그 점을 설득하는 게 저의 큰 포부인데요. 이를 위한 한 가지 장치가 있는데, 나라에서 등재 신청을 추진할 때 국회를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부나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국회가 우리가 바라는 만큼 대표성을 지닌 건 아니지만 국회 단계에서 협의할 수는 없을까요? 어떤 유산의 등재를 제안하고 추진할지 국회에서 논의하고 지역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입니다. 안건이 문화부로 올라가기 전예요. 이게 어떤 유산의 등재 신청을 추진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다수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여러분 모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유산 과정 전체가 진화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니, 피터의 말처럼 그 점에 계속 기대를 걸어 보자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면 다양한 사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더 나은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비교적 긴 편인데요.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질문들과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가치와 목소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존 세계유산들에서 소외된 집단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기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서사를 훼손할까 봐 우려하는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세계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정치적 분쟁으로 번져왔습니다. 유네스코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도 유네스코가 화합을 이끄는 유일한 기관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당

사자 간 대화를 위한 대안이 있을까요? 이윤경 씨의 질문입니다. 이것도 이미 논의한 부분입니다만 계속 등장하는 흥미로운 질문이죠. 답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남은 시간은 7분이고요. 이 질문 뒤에 두 질문이 더 있습니다.

■ 피터 빌 라슨

제가 아주 빨리 얘기해보겠습니다. 유네스코와 세계유산위원회가 국제적인 틀은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대화는 국내에서 이끌어야 합니다. 물론 이건 국가 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질문일 텐데요. 이 경우에는 대화를 수월하게 할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새 장치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 분석 등을 통해서 지정학적 긴장 같은 위험 신호들이 감지되면 유네스코가 세계유산협약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주선자 역할을 맡을 책임이 분명 있을 텐데, 아마도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회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시아가 제안한 국제 협력 과정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뿐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여러 국가가 관여하는 다른 활동 무대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 가미니 위제수리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조너선 빌도 씨가 주신 짧은 질문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유산의 상업화로 불협화음이 증가하는 현상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평화로운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상업화를 말려야 할까요? 누가 대답해주시겠어요?

■ 파스칼 타루빈가

제가 해야겠네요. 상업화는 필요악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유산들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산 보존과 관리, 해석에 투입할 자금을 모아야 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산이 의미하는 바에 공감하지 않는, 맥락에서 벗어난 상업화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세계유산의 수혜 구조가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화로 얻은 수익을 당사자들에게 득이 되도록 분배하는 방식인데, 유산 기관들은 이 영역에서 좋은 경험을 쌓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관의 운영과 생존을 위

해 수익을 올리는 것만 생각하니까요. 지속 가능성은 관리 당국뿐만 아니라 세계유산과 관련된 지역공동체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들을 지역화하고 지역에 돌아갈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세계유산들의 관리 계획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목표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지역공동체의 생계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계획 말입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준법 감시인이 되고자 하고 유일한 수혜자가 되고자 하는데, 그게 우리를 곤경에 빠뜨립니다.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인데 다른 면에서는 필요악이죠.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 있는데요.

피터 빌 라슨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네, 말씀해주세요.

피터 빌 라슨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조너선의 질문과 파스칼의 관점에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이는 상업화가 이뤄지는 방식의 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익 분배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이죠. 상업화가 꼭 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이에게 진실한 동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관 제휴 작업을 하면서 봤듯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파스칼이 강조한 생계 문제들은 이런 상업적 기회들을 잡는, 더 힘 있는 관련자들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상업화를 막을 게 아니라 공평한 관행을 장려할 방법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불평등이나 이익 분배 문제를 터놓고 다루는 방식이죠.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질문 두 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한 질문은 아주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서요. 김남훈 씨 질문입니다. 유산은 불협화음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 국가 정책들은 사회

정체성과 구조의 안정을 위해 사람들과 공간의 역사를 직선적으로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민주사회에서는 대중에게 제한된 유산 서사를 바로 잡을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중이 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의미와 목소리를 대할 문화적 역량을 갖추게 되니까요. 하지만 불협화음을 표현하기는커녕 인식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 체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협화음을 다루고 그 과정을 평화롭고 비폭력적으로 유지하는 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접근법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통찰력을 기대합니다. 긴 질문이었고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비니 오 씨의 질문인데요. 특정 유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불협화음이 존재함에도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논의가 가능하고, 조화롭고 포용적인 해석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거의 사례가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들이네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혹시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두 질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누가 시작하시겠어요? 피터, 말씀하세요.

—
피터 빌 라슨

네. 제가 첫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때로는 폭력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며, 어떤 장치들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러 나라가 저마다 입법 체계를 통해서 참여적 대화, 도구와 장치 등을 도입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그런 식으로 원주민들과 교섭했고, 등재 신청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공동으로 대표단 자리에 앉은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모범 사례에 관한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과거의 식민주의나 국가기구 등 많은 면에서 현존하는 식민주의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최소한 새로운 일 처리 방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이런 일을 국가적 장치나 역학 관계에만 맡길 게 아니라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미 정책을 채택했으니 그 정책을 알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모니터링 평가와 심사에서도 이를 우선시해야 하고요. 이런 방법들이 다시아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산 시스템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좋은 관행으로 강조돼야 합니다. 국가 제정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파스칼이나 다시아도 생각을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파스칼.

파스칼 타루빈가

피터의 얘기에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불협화음은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정 국가의 정치체계와도 뗄 수 없고요. 잠비아의 바로체 문화 경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등재가 고려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체 문화 경관 내의 특정 공동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고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치와 사회, 경제 문제가 혼합돼 있음을 알 수 있죠. 일부는 그들의 역경에 관한 인식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네스코가 나서서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 작업은 결국 당사국의 몫이죠.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치인이 돼서 정치 문제와 세계유산 문제를 구분 짓기 시작하고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입장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들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게 무엇이고, 사람들을 특정 공간의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이 과정들에서 추진력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다시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아 비에호 로세

피터와 파스칼의 얘기에 동의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는 파스칼의 제안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선언하는 과정이 지역공동체와 유산을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지역공동체와의 연을 끊고 지역공동체와 유산 간에 장벽을 세우는 거죠. 이런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는 불협화음을 넘어 폭력적인 상황들을 낳았습니다. 세계유산을 보존한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이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추방됐죠. 우리 모두가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유산과 세계유산을 해석과 대화의 장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유산은 유리 진열장 안에 보호하는 박물관 전시품이 아닙니다. 유산은 열린 공간이고 그 근처에 사는 지역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거의 평범한 존재입니다. 일상생활의 일부죠. 우리에게서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페트라와 앙코르와트, 로벤섬이 특별하죠. 하지만 유산과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는 삶의 일부이므로 그 가치가 존중돼야 해요. 피터가 했던 얘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특별한 가치를 위해 이들을 소외시켜선 안 됩니다. 유산의 일상적인 의미도 포함돼야 하죠. 그러려면 유산을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와 해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결정체로 만들어서 유리 진열장에 던져놓지 말고요. 윤궁리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무리 짓기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결론 삼아 한두 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토론에 대한 소감이나 마지막으로 한마디라도 짧게 하실 말씀 없나요?

피터 빌 라슨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건설적인 시간이었고 우리가 불협화음에 관한 논의의 가치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했는데요. 그 공간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웨비나의 파트너이신 아프리카 세계유산센터와 한국 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 대화를 지속해갈 길을 닦아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파스칼?

파스칼 타루빈가

가미니와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논의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대륙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유산 기법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억, 갈등 유산과 관련된 기법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일이 고통이 아니라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전 과제들을 세계유산을 융통성 없는 기준과 제한적 사고 밖으로 끌어낼 기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유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유산이 무엇인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한 제약이죠. 제가 보기에 불협화음

은 세계유산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고와 태도의 전환으로 이끌어주는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다시아가 마지막이네요.

다시아 비에호 로세

파스칼의 마지막 말씀이 끝맺음으로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가미니 위제수리아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훌륭한 동료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 상상을 뛰어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질문과 언쟁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불협화음을 긍정적인 것, 더 노력하려는 의지, 더 많은 제안을 위한 기회로 보자는 게 오늘 나온 멋진 이야기였고요. 센터에서 이를 받아들여리라 믿습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고자 했던 센터의 목표에 부합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토론이었고요. 앞으로 이 논점들을 더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센터에서도 이 모든 논의를 이어가면서 갈등이 있는 유산들과 모든 유산들을 더 잘 보호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세 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주신 헤리 씨와 센터 측 우리 토론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멋진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리 씨에게 순서를 넘깁니다.

심헤리

정말 감사합니다, 가미니. 토론을 멋지게 진행해주셨습니다. 다시아와 파스칼, 피터도 깊이 있고 흥미로운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토론을 봐주시고 참여해 더욱 흥미로운 쌍방향 웨비나를 만들어주신 청중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열정적인 토론은 다음 웨비나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불협화음의 다양한 측면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터키의 아야소피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세네갈의 고레섬입니다. 열띤 토론이 될 테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네 편의 웨비나가 남아 있으니 우리의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우리 웨비나에 관한 마지막 공지 사항입니다. 세계유산을 통한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영상 콘테스트 웨비나도 시작할 예정인데요. 세계유산과 다른 유산들에서 화해와 평화가 유산 보호와 관리의

일부가 된 사례들을 찾고 있습니다. 5분 길이 영상을 만들어서 짧은 제작 노트, 작성된 줄거리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내일 페이스북에 정보를 올릴 테니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4월 웨비나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with Different Memories

—
Haeree Shim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everyone. I hope you are all well. Welcome to the second webinar of the 2021 webinar series on th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titled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hos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Haeree Shim from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e preparatory office is an organizer of this event, a UNESCO Category 2 center-to-be, carrying out researching, capacity building, networking in the field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center will be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The webinar series is also in collaboration with the African World Heritage Fund, another UNESCO Category 2 center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in Africa. We expect this webinar series to serve as a forum for discussing the peaceful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conflicts and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e organized this webinar series to identify and to discuss various new issues relating to multilayered narrative and, sometime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that are attached to World Heritage. Since adopting the Convention, heritage conservation has focused more on protecting physical aspects of heritage.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recent dissonant cases in heritage, there is a rising interest in multiple narratives due to diverse stakeholder groups and community engagement in heritage management. So we plan to offer a series of discussions to talk about how to protect our heritage and to manage conflict in this multidimensional society. Fac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next year, I think this series will raise timely questions and provide good discussions for better protection of our heritage.

In the first webinar, which was held last month, we talked about the values that were overlooked by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the need for new approaches to protecting World Heritage. As an extension of discussion in the first webinar, we now will talk about the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We will discuss the nature of the dissonance in heritage context. What do we mean by dissonance? Who decides which issues to be addressed? What approaches to use? Can conflict in heritage be prevented? And is the dissonance only negative in heritage?

And now, I would like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about our moderator, Dr. Gamini Wijesuriya. Born in Sri Lanka, Dr. Gamini Wijesuriya is an architect, archaeologist, and renowned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fessional with over 40 years of experience. He is known internationally for his work on World Heritage and pioneering

work on people-centered approaches to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culture. Among his major contributions are: The Resource Manual on Managing Cultural World Heritage published by UNESCO and additive volumes on Authentic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Systems. He has held the positions as the head of the Conservation in Sri Lanka and as the first Asian staff member of ICCROM. Currently, he is a special advisor to the Director General of ICCROM based in Rome and a special advisory to the Director of the WHITR-AP World Heritage Institute training and research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based in Shanghai, China.

Before beginning the webinar,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you can leave your questions or comments during our webinar. As it is streamed on Zoom and also on YouTube, please give your question through the Zoom Q&A box if you are on Zoom, and please leave your comments under the video if you are on our YouTube. There will be a Q&A session after the discussion, so please share your thoughts. Now, I would like to turn the time over to our moderator. Welcome, Gamini, the floor is yours.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Thank you, Haeree. Thank you and it is a great privilege to come back to the interpretation webinar series. Once again, congratulations to you and the team at the Category 2 center for the wonderful start. Welcome to all of you, from all over the world, to the second webinar series on th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focusing on multiple voices and different memories. In this particular session of the series, we will focus on the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and different memories. In the first webinar, Christina Cameron and her team highlighted two issues that exist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that serve as impediments to the acknowledgment of multiple voices and different memories in their interpretation. The two issues were the heavy focus on universality or the universal values over local values with heavy emphasis on physical conservation over interpretation. They acknowledged the dissonance and had a brief discussion, as well. In my view-- if it were me, I would add a third issue, which is the national sovereignty currently by the Conven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same context.

However, as you have now said, I wish to bring back three points raised in my presentation in the first webinar series. The first point is that the sector has advanced towards people-centered approaches which exhibits a paradigm shift of moving from care of heritage to act of pursuing developing both heritage and society, as well, displaces the people and the heart of the heritage discourse. The second point is how values are centered 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decision-making which is also gaining popularity. Both these points oblige heritage practitioners, of course, academics also, to move beyond their conventional concerns such as physical conservation, care of materials, authenticity, et cetera to focus on multiple voices, different memories, writing of widely consulted inclusive narratives, rights and rights-holders, and a range of other people-centric issues. These are talented tasks, trying to accommodate multiple voices and different memories. Attempts to dominate one or the other's dominance of official narratives, links beyond nation states are not easy and, inevitably, would create dissonance and conflicts. Some would argue that all heritage places are contested.

It is in this context that I emphasize the third point that interpretation

needs to be an integral part of management so that issues of multiple voices and different memories can be discussed from the beginning with all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management planning process. Dissonance is relatively a new term for us.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dissonance as a “combination of musical notes that sounds harsh together.” Which is interesting, but to make our lives easier, it is also defined as a lack of agreement. We will discuss this further.

Turnbridge and Ashworth in their well-known book,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I know this is a relatively old book, utilizes the concept of dissonance in discussing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heritage management. According to them, the idea of dissonance can raise two key elements: ideas of discrepancy and incongruity and an implicit analogy with musical harmony which applies the possibility of a move towards consonance for some form of optimum balance. Dissonance, therefore, according to them, provides both a tool of description and a guide to planning interventions. Hope this will be useful in our discussion. We will continue from where Christina and her team left on dissonance today with three distinguished speakers. They will first make a brief position statement like last time and they will then join the discussion.

Let me briefly introduce them. The first speaker, Dacia Viejo-Rose, senior lecturer in heritage and politics of the pas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deputy director of the Cambridge Heritage Center. She first became interested in the role of heritage in countries and peace-building while working briefly at UNESCO and observing the organization’s projects in the Bosnia and Herzegovina area. Her

books include *Reconstructing Spain: Cultural Heritage & Memory After Civil War* and the co-edited volumes *War & Cultural Heritage* and *Memorials and Aftermath of War*.

And then we also have Pascall Taruvinga. He holds a PhD in archaeology with specialization in World Heritage stakeholde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pects.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heritage management, he has held various senior and executive positions in Africa with truant taxes in the public sector locally,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Currently Chief Heritage Officer for Robben Island World Heritage Site in South Africa, he has strong bias in museums, heritage sites, archives, and protected areas with cultural heritage bilateral and partnership programs, World Heritage, human resource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leadership. He works closely with all advisory bodies to UNESCO in Africa and has over 25 refereed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s and a forthcoming book o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e has a desire in contributing to the evolving and decolonizing heritage landscape in Africa, to create new and innovative manners in addressing issu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heritage, governance, conflict solutions, climate change, sustainability, building resilience bridges for conservation in Africa.

You also have Dr. Peter Bille Larsen, who is an anthropologist who works on heritage conservation and social justice issues at both local and global level. After initial experiences in Oxford, Geneva, and Lausanne, he lectur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thropology and human rights at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of the University of Lausanne. He is currently senior lecturer in

the Universities of Surrey and Geneva, where he teaches heritage studie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nthropology. He works actively with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and academic partners to strengthen analysis and policy discussions on a wide range of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 topics. Recent books include Postprandial Resource Governance, The Anthropology of Conservation NGOs, World Heritage and Human Rights, and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ast, I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on with Peter as well. So let me now invite Dacia to make her first statement.

—
Dacia Viejo-Ros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aeree and the organizers for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is conversation and thank you, Gamini, for the kind introduction to us all. So as I'm first, I thought I would start with stating what I think we all know that this idea of cultural heritage as a series of monuments or objects of purely historical and aesthetic value has been superseded by an understanding that heritage is at least as much, if not more intangible than it is tangible. That it's a process of doing, of meaning-making a communicative action that draws on and provokes emotional responses. The implication of understanding heritage as a process of meaning-making is that it's a highly political and continuously evolving one. And this volatility disturbs the kind of semantic stability previously associated with heritage sites. The Arab Spring in Egypt, for instance. And you see some images at the bottom of the slide add a new symbolic aspect to the seemingly immovable and unquestionably patrimonial pyramids of Giza. The difficulties lie in that, what can be contradictory tensions as to the meanings and uses of heritage sites for their diachronic, which I mean that their meaning and associative values are constantly

changing and added to with time.

So there are three points I wanted to make which are up there on the slide. The first is that dissonance and heritage is unavoidable, because of this process that involves actors, values, context, different perspectives, approaches. So trying to avoid dissonance is futile. It's not possible. So ignoring it and leaving it unattended can actually be quite dangerous as it can ignite tensions resulting in anything from frustrated expectations to violent confrontations. So why is it urgent to discuss dissonance? Partly because leaving it unattended is a bit dangerous, but also because we're seeing this increasing number of nominations for World Heritage sites to do with recent conflicts. And these conflicts constitute events that have historical legacies, that continue to inform identity narratives and structure relationship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today. So the interpretation policies for heritage sites related to conflict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ir potential to go either way, either perpetuating cycles of violence or enabling peacebuilding work and such policies are effective when they acknowledge the past harms and open up discussions to how the legacies of those can continue to affect people in the present. This isn't something that's past and kind of gone, but that continues to affect our relations. Which brings me to the second point. Dissonance results not from embracing diversity, but actually from singular narratives that clash. So X says that the site means one thing and selectively draws on history to back that mission. Y says that the site needs something different and draws on different parts of that history skipped over by X to back that vision. That's where the conflict is. It's the singularities that clash, not in embracing diversity.

So heritage should not be about a competition as though it was a Zero-Sum struggle over scarce resources, but multidirectional, this means subject to ongoing continuous negotiation and cross-referencing. If the use of World Heritage to build bridges to peace is to be more than an aspiration, we need lucid assessments of its potential to create rifts, to fuel conflict, as well as a mode of kind of dialogical interpretation, continuous, ongoing, and flexible that allows for negotiating often conflicting views. So often ambitions to offer up a kind of universal story at heritage sites can have the opposite effect not of opening up dialogue, but actually closing them down by privileging one interpretation over all others. So rather than resist or avoid dissonance, what I suggest is trying to find strategies for embracing it and developing it more creatively and developing creative and flexible interpretive frameworks for it. Which brings me to my final point, which is that interpretation can make dissonance part of the appeal of World Heritage, part of its attraction by harnessing dissonance and working on the relations between people, between communities, between these perspectives. The 2018 Sarr-Savoy Report in France on the restitution of African cultural heritage calls for what is called a new relational ethics. And I think this, too, can be applied to th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ork on agonism, for instance, as proposed by Chantal Mouffe, suggests the importance of bringing together conflicting interpretations rather than trying to find some sort of neutral or objective meeting point.

Heritage institutions that have deliberately developed interpretation plans that address the points of friction have seen audience numbers grow and have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them. And there are examples that were talked about in the last webinar, particularly from

Northern Ireland. A joined-up approach would link World Heritage sites with their intangible dimensions: the associated stories, myths, folklore, performances, know-how, as well as the creative industries, crafts and arts vehicles for the expression of diverse perspectives. So incorporating creativity into heritage management can help harness the unknowns, the uncertainties. We don't know, and we don't understand everything about the past. This isn't necessarily a problem, though. It can be an inspiration for curiosity and a way of fostering the drive for discovery. And just to conclude, I think interpretation centers at World Heritage Sites could act as hubs of creativity, training, expression, rather than just communicators of expert knowledge. The legacies of heritage aren't just about passing on certainties, but also about passing on questions that are still to be answered. Making the pursuit of knowledge rather than a passive consumption of facts central to the interpretation plans that can open up the process to become much more flexible and responsive. And that's my position to get us started.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Thank you, Dacia. That is a great, great start. Looking at everything more as intangible, and then your three points that dissonance is unavoidable, this which I also believe strongly, and of course, the problem is not embracing all or collectivity or diversity, and then also can have positive impacts for interpretation centers and can act as how it's a good proposition. And hope we can continue with that discussion. And may I now invite my colleague, Pascall, for your intervention or your policy to be explained. Thank you.

—
Pascall Taruvinga

Thank you very much, Gamini, and thank you to the organizers of this webinar, which is very important, and looking at an issue that is

central to the heritage management on the African continent. And I've titled my presentation Dissonance and Contested Spaces: An African Perspective. My first point is that when you look at heritage and dissonance in Africa, they are inseparable and intertwined within multicultural and multiracial spaces. And what it means is that different groups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and views of heritage and the related spaces. While one group could see a particular space of heritage as representing their victory instead of letting it, another group could see the same space as representing their oppression. These mixed heritage issues and spaces have become a contested terrain as an ongoing process. So it has no start. It has no end. It's a societal issue and it's an interpretation issue. And my second point is that if you look at Africa, also, the story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in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period has dominated the heritage management and interpretation in Africa. It has always defined how heritage should be seen, managed, and presented. It is the story of conflicting values,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choices, including commitments of those that are in charge of heritage.

For instance, in Africa, monuments lists were dominated by sites associated with colonialism and at the expense of sites associated with the indigenous communities. These sites record the British Pioneer Column, which was celebrating a defeated battalion of the Pioneer Column, not celebrating the victorious Davella Regiment. And this caused a lot of dynamics. And now the site is trying to balance the two. And when you look at Robben Island, the site that I'm managing, it's heavily associated with dissonance. It's a multilayered cultural landscape with the political period being prioritized over everything else. But within that political landscape, there are politics

within politics, there are different political groups. And we have adopted inclusive and holistic interpretation approaches to try and address those imbalances. And we are giving voices even to others and the women that used to visit the island to see their husbands there, we need everybody to tell the story. We need to have an inclusive story. It's a contested terrain from different angles. And my third point is that when you look at World Heritage, I think it has to respond to the local context and dynamics of heritage in Africa. And to that end, I will give you an example of the sites of social memory and sites of conflicts, for example, in Rwanda, where the state parties decided to enlist that as World Heritage, but some people are seeing it as divisive heritage. So the question is, we must allow the locals to define what heritage should be protected, what heritage should be put forward for their listing and how it should be separated, because I think society has a role.

And my fourth point is that when you look at dissonance, I think it's a seed for multiple voices to be embraced in the management and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However, dissonance is also a double-edged sword and depends on the motives of the involved players, the context, and the mediator in the process. And I still think that the state party has a bigger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se issues before they become universal issues, because to me, the heritage first and foremost is local, and solutions must come from the local context of the heritage sites. And of course, my last point is that when we look at mitigation and mitigating dissonance at World Heritage sites in Africa or anywhere else, I think it's going to be a function of inclusive, holistic narratives and how our strategic killers like research and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are actually geared to address

these issues in an inclusive way. But of course, you need to adopt a stakeholder-driven process with inbuilt conflict resolution or mediation mechanisms. Thank you very much.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Pascall. Thank you very much. Your idea of this dissonance is central to heritage management and the idea that it's inseparable and within a context that territories and, of course, contested values and local context is so important and dissonance as the seed for multiple voices, but it's also a double-edged sword. And of course, the process driven by multiple stakeholders and giving voice to locals, this is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and I hope you can discuss them further. Now, thank you, again. And may I invite Peter, my colleague to make your statement. Peter.

—
Peter Bille Larsen

Thank you so much, Gamini. Thank you also to the two other panelists for absolutely interesting perspectives here. Much has been said. I would like to entitle my intervention towards distant resonance playing a bit with the dichotomy here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Here's an image from recent work where I had the privilege and pleasure to work with archaeologists and from the University of Warsaw, together with heritage colleagues from Sudan in the Nubian part of Sudan in the northern state. So I'll get back to that in a second. I have four key points I'd like to make and then a conclusion why I think we need to move towards what I call "dissonant resonance." My first point is, as has been said already, we know from the literature now and experiences that that World Heritage entails multiple types and forms of dissonance at multiple levels, even starting from within the community, within different stakeholders to the highest level of geopolitical tensions between countries. These are

forms of dissonance that can paralyze heritage processes, that can even create conflict and militarized conflict, but also simply that can slow down work to actually work, to conserve heritage and actually engage with heritage in wider sustainable development. So these are real issues that need attention for multiple reasons.

My second point is that, and this goes in line a bit with what Dacia was also saying, is that dissonance is not necessarily, I would say, a bad thing. On the contrary, it's very much these are signs or signals of issues to take seriously. Think of Black Lives Matter. Think of other processes that highlight divides in society, tensions between countries, inequalities, legac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ll the kinds of ghosts in the closet, of course, that characterize society, that characterize our world. Our world is not without problems and issues. There's also the question is: how do we deal with this and heritage, and how do we actually empower heritage processes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dealing with these? And this leads me to my third point, which is that indeed there had been efforts, as Gamini was also indeed pointing to the growth of people-centered approaches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opens up for new reflections in this regard. Also, we have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addressing issues like conflict resolution, peacebuilding,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as well, as central to World Heritage Management. Now, this has enabled some small changes taking place, ranging from advisory body efforts to incorporate some of these questions, dialogues with states parties, some states parties moving forward also in addressing these issues. But also, as we see, of course, also a huge number of processes and dynamics going the other way, trying to sort of not address these issues where dissonance is appearing and rather trying to hide them.

So this leads me to the fourth point, which is, dissonance remains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What we might say is the elephant in the room. What progress there has been in terms of a more proactive approach to deal with these issues is clearly not enough when issues of dissonance appear at different moments for particular states or nominations, there's a lot of uneasiness. There's also still a pattern and a trend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tempting to overrule dissonance or not allow for sufficient dialogue, whether it comes from requests from experts, communities, civil societies or other members from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so on. So those are four starting points.

Now, where do we go from here? I think we need to move towards a new situation where dissonance is prioritized, as we have discussed from and indee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has started to move on in terms of human rights. We need to move from a situation where the system tends to favor glossy, good-feeling presentations with little room for divergent perspectives and even in a situation currently where we even tend to have a system that penalizes or punishes countries that actually try to be more explicit and open about issues of dissonance, rights infringements, and so on. And we need to change this. I think there's a growing space and foundation now for practices that were backstage dealings, problems, past legacies can be put at the front stage of World Heritage work, where there are carrots for countries and state parties to actually make this a clear, explicit emphasis and generate and mobilize that state party energy to show how solutions can be found. How rather than to hide and put it under the carpet, so to speak, how state commitments can be mobilized to resolve, to reconcile, and to rebuild rather than hide away, impose,

and cement dissonant positions.

So returning to this work that we've been doing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with wonderful colleagues in Nubia and Sudan in the site of Dongola, we just a few weeks ago had very good stakeholder dialogues about actually how to bridge these different perspectives. Polish archaeologists have been working for six decades, particularly looking at medieval layers, but increasingly also opening up to other dimensions of this archaeological heritage. The picture you see here is indeed also a presentation from the local imam also presenting about an Islamic perspective, trying to actually show the different layers of different perspectives was central to the work we're doing. Now, why do I mention this? Because as has been said throughout the presentations today, there are different perspectives. There are different ideas about what heritage is significant. We know this. It's omnipresent. But I think the key moment now is to nurture heritage processes that allow for these to come together and create a new form of resonance that allows for different perspectives to be. So, I completely join previous panelists about this, embracing dissonance and also seeing this as a seed for multiple voices, as Pascall said. So thank you. Those were my starting points: towards that dissonant resonance with more amplitude, vibrant voices and exchanges around heritage. Thank you.


Gamini Wijesuriya

Thank you. Peter, you summarized what you were saying so nicely. Thank you. And of course, the multiple nature of this and dissonance and resonance and the use or not-use of existing tools in the world system and also need to do more, and of course, where we go from here, we want to hear it again. I have some questions, particularly in

this direction. So we'll come back to that.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nice and wonderful thought-provoking presentation.

Now, you have heard all these things. And, of course, I have some questions for your reflections. But some of them, you have already answered. But, you know, as we all heard, dissonance is something unavoidable, particularly in the process where we are now looking at values and participatory approaches and people-centered approaches and so on, and always the conflicts or the dissonance will come again and again. And my first question is, again, going back to some of the things we explained. Sorry for that. What is your understanding of the term dissonance in relation to heritage and World Heritage context, particularly in the context? I know some of you explained, but let's elaborate a little bit more on that. I mean, anyone would like to volunteer or can I ask Dacia to start, please?

—
Dacia Viejo-Rose

Yeah, I can get us started. Also, Peter and Pascall and you, Gamini, have already kind of introduced us to this. And I like Pascall's metaphor of the double-edged sword and dissonance very much. For me, I went back to dissonance not looking at it so much in terms of resonance the way Peter did, but trying to look, you know, what's the opposite of dissonance? Well, it's harmony and yet dissonance, because, as you said, it's a kind of musical metaphor that we're using here and it feels like dissonance in music is really important. It's used musically to evoke emotion. It's used as a building block for harmony, for example, in jazz. So I think that there can be something there that we can also continue borrowing a little bit further from the musical analogies to think about how dissonance can be part of something of a whole in something that helps us get closer to at least emotional

or associative truth, not necessarily factual. I think my understanding of dissonance is, in terms of site interpretation, it's really about broadening the scope of its associative value and understanding dissonance in relation to heritage. It's about a lack of harmony in relation to how heritage is related to value, used, understood. But it feels like this. If dissonance is a kind of cacophony of different sounds and voices, then it's just a question of finding, not necessarily a common thread and certainly not letting one of them over impose or superimpose itself on the others, but finding a way in which that becomes a richness.

And we've talked a little recently in Heritage about communities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allowing the community voice to be heard. But of course, as we all know, community doesn't speak with one voice. When you allow community to speak, there is dissonance because communities speak in many different voices, right? So that has to be a good thing, because I think in the past, engaging with communities was resisted because of the dissonance that comes with it. And often when the engagement was done, it was like, OK, well, we'll speak or choose that spokesperson from the community and talk to that one person as the voice of the community. And that also led to problems. So I think the challenge for us is opening up the space for as many voices as possible without kind of losing complete track of what it is we're talking about. And I think that can be done through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through letting people talk about their own heritage in their own terms. So I think it can be done. We just have to find the vehicles for doing it. And for me, it goes through that thinking of heritage as a creative process, a creative space, not just a load that you inherited from the past.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Do you want to add anything you have already explained, Peter and Pascal? Do you want to bring any examples or anything like that to add one or two lines to this point?

—
Pascal Taruvinga

Maybe I can add an example

—
Gamini Wijesuriya

That would be great.

—
Pascal Taruvinga

How dissonance is actually demonstrating our inability to agree or produce inclusive narratives. And this affects conservation management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for example, at Robben Island. The main point of Robben Island as a World Heritage site is the political imprisonment which underlines the OUV, and within that OUV, the brand inception or the interpretation point of departure is the late Nelson Mandela. How many years he spent there and how he contributed to a peaceful transition into the democracy that we're enjoying at the moment. But when you ask yourself, you say, is he the only political prisoner that went to Robben Island? There are other three thousand five hundred ex-political prisoners. We have got the individual experience, apart from them contributing to the overall narrative of the experience as political prisoners. And then you also dip in that and you ask yourself, "Are political prisoners the only people that were on the island?" No. We have the banishment landscape, which is associated with traditional chiefs that were banished to the island for resisting colonialism, which then turned into apartheid. It started with the British and then ended with the Dutch, who then introduced apartheid. How are we commemorating that? How are we involving them in the management process?

And there's also the lepers that were banished to the island because of their medical condition,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politics. But still, they had to actually survive on the island, just like the political prisoners. So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heritage management has failed to learn from other disciplines, like, for example, music, where if I could give an example of an orchestra where if a conductor and I think state parties are conductors of this orchestra, but they must be able to allow the violinist, the drummer, the vocalist, and the guitarist to play their part in producing this one piece, which becomes a song that can win and I want. So we don't learn from other disciplines. And I think it's time we get outside our box and learn from other disciplines on embracing differences and different interpretations, because to me, heritage always takes different meanings at different places and in different times. So dissonance is an evolving process at World Heritage sites. Thanks.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Thank you. I was expecting that case to be an example. You want to add something or you can go.

—
Peter Bille Larsen

Yeah, I think we can move ahead or we can also make the connection.

—
Gamini Wijesuriya

Okay, now, my next question or point is that the multiple values, multiple stakeholders, multiple memories and so on and so forth, because we are moving more and more towards the people-centered or getting the people, placing people at the heart of the discourse and then values and central to all our discussions and so on. How do you identify and call-- this a difficult question, but how do you prioritize? Because so many conflicts, so much dissonance, how do

you prioritize? Are these only for academic discussions, or is it for people like Pascall to engage in real management? And related to this also? Now, who decides whose responsibility is it in relation to World Heritage? We know that World Heritage value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transcend beyond national boundaries. So does that mean that the decisions about which values or which memories are to be interpreted should be gui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the local community or collectively and so on. So it's a long question, but how do you prioritize which issues to be discussed, particularly management and even academic work? And who decides? Who wants to start? Maybe Peter, you?

—
Peter Bille Larsen

Can I jump in? Well, what a wonderful question. So many ways to answer that.

—
Gamini Wijesuriya

Yes, I know.

—
Peter Bille Larsen

I wanted to start with Pascall's example of a conductor of a concert and a performance. And I think the situation we have right now is very often that the concert kind of starts very nicely and harmoniously, but somehow the orchestra breaks down very often, or the concert doesn't come across as very convincing. And we're in a situation now where I think the criteria for actually determining what is a good cultural concert performance might be useful. I think in this respect to bring in also the jazzy tones that Dacia was saying that allows for a bit of free jazz and a bit of dissonance there to actually say a good concert performance, a good World Heritage performance is also about working with and addressing dissonance. And this is where we are. And that, for me, involves a shift in the ways that the system

works, that sends a clear signal to states parties about how to engage with this dissonance as part of the terms of reference, so to speak, when you build a nomination, when you set up an interpretation plan, et cetera. It's also about engaging different violins and different music groups to go back to how the orchestra works. You know, it's difficult to work with dissonance and it very often requires different skill sets, perhaps, than the ones that are usually mobilized to engage with heritage management. So this is also perhaps about inviting new instrument groups to the orchestra, social science skills to deal with the social complexity of dissonance and conflict, the kinds of different groups that Pascall was explaining exist in Robben Island, that may have an idea that may have a stake that may have certain rights associated with the area. So for me, it both entails about the criteria, but also about the people and the skill sets involved.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Dacia, you want to add something? I think you have something to add.

—
Dacia Viejo-Rose

Or maybe Pascall wants to come in. Peter was speaking directly to your point.

—
Gamini Wijesuriya

Okay, Pascall.

—
Pascall Taruvinga

My response would be very simple. I think we've gotten accustomed to the fact that the heritage can be defined legally. They are the instruments which define what is heritage and how it should be looked after. But I think society has also a responsibility to do so because the culture and the associated processes and outcomes are not static and they keep on changing from time to time. And if we don't involve

them from the beginning and we don't take them on board at the local level, then we are likely to carry an inherent weak position that is characterized by what the states management system think should be protected. So, yeah, I'm talking about heritage again, looking outside the limited and restricted consultative processes that they have, which is for compliance purposes, is for audit purposes. Just to tick the box that we consulted the stakeholders, we did this. But we really need now to think about how to embrace stakeholder management approach in all heritage management. There's too much structure because, for example, if you look at all the heritage processes, we like consulting stakeholders during reactive monitoring missions. But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community, they become observers. So we want to hear them within the whole context, but when making decisions about what they're interested in and what they're much interested in, we don't give them that voice for decision-making. So all I'm talking about is that we have to involve all these people, like at Robben Island, we took a step backwards and then invited everybody else on the table. And we developed, for example, one perspective that we developed was a strategic research agenda. We took stock of everything that has been published over the years and we identified the gaps. And this is where we are now closing in with the research to see which team and which area, which was not properly a profile we should focus on in the next two to three years. And we are doing that systematically. It's not an overnight process, but it's one way we address it from the stage. Thanks

—
Gamini Wijesuriya

Dacia, like to add something or..?

—
Dacia Viejo-Rose

Yeah, I just to go back to what has been said already by Peter and

Pascall. I think one of the things that I worry about myself sometimes and I'd be interested to hear your thoughts on it, is that as we open up and say, diversity of opinions and bring everyone in and multi-voice in all of this, which I espouse. But then, of course, you know what we have seen in terms of the use of heritage by populist movements around the world and the abuse of heritage by these movements is that these heritage narratives can be used to uphold and communicate violent and exclusionary interpretations of sites as well. So, you know, for being inclusive, we have to include these narratives. I mean, of course, there's some limitations if they're breaking the law by denying historical events. I just wonder how we can include these voices.

And it's something I've been thinking about myself, and it just feels that one way of doing it is, as Pascall has suggested, is kind of taking a biographical approach to these sites where you take their whole biography not just one bit of it. So like the Mosque of Cordoba, before it was the mosque and it had been the Visigoth Temple it has all these kinds of aspects to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layers because that makes it seem as if they're discrete moments in time where they're not because each layer has legacies. And so, I just wonder how we can use this. To me, it feels like a psychance kind of biographical approach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all the life of the place, everything that has gone into the making of this place, the different kinds of legacies that each of those histories has resulted in is also created. And I'm repeating myself a little bit, but focusing on heritage as a meaning-making process and therefore as a creative process that we can harness, that we can to some extent build on it, especially in terms of the direction in which we go in, right? So

much about heritage now is being talked about its future-making so in heritage interpretation, we're not just making the past, but we're building the future. So what's the future that we want to have and how can these heritage sites be platforms for beginning to discuss, have a conversation that moves us in that direction that we want to go in rather than kind of backward-looking and fighting about the past and who was the bigger victim in the past and all of that, which is my biggest fear, that competition over victimhood. I find that very limiting and dangerous, so I think opening them up instead for talking together about the future direction you want to go in might be a better way forward.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I think you try to understand and answer some of my questions and just some of my questions. Yes, in fact, it's nice to start with sort of the idea of future-making and then, of course, the inclusivity and consultation with all people, all relevant people, and also developing some sort of criteria like Peter suggested, perhaps, or to think new completely new maybe as you, as Peter suggested, we need new knowledge, new training, capacity-building. So these are some of the things I believe the center will consider as well. And I think you can't just say these are the areas, these are the priorities. And who decides? You cannot specify. But broadly, we need to think about inclusivity, collectivity, and the relevance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so on. So thank you for that. And if I may ask before I go to the last question as to how we go forward, do you have any answer to my question, who should be assessing these values in relation to World Heritage? Should it be? I think Pascall was firm that it is the local people, local authorities, but any other in one minute. Yes, Peter.

—
Peter Bille Larsen

I fully agree we'd like to have local authorities involved in these kinds of things, but I also think it's an uneven playing field very often, and states parties need to take their big share of responsibility in taking this forward. That's one thing we've learned. Advisory bodies we've seen can do some of that, but only to a limited extent. So I think really to reaffirm the state party responsibility, but also the committee. I think the committe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needs to take its responsibility very seriously here. And of course, we've seen some risky developments in that respect. I would say just in responding to Dacia's that point about future-thinking heritage, indeed, as a future-oriented process. What is important, I think, for us to underline is that the committee or the World Heritage System has adopted quality criteria for thinking these as an equitable process and so as part of it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commitments. So it's more about actually walking the talk on some of these things than sometimes necessarily needing to reinvent it. The problem is the more that the reinvention that's taking place right now, it tends to go the other direction, getting closer to the kind of populism and the risks of sort of capture of a heritage for other dynamics that Dacia was alluding to. But I think in a sense, we have some of the ingredients, but they are not yet being turned into the kind of cooking and cake or what we're hoping for and all that that the aspirations initially aim for. Thank you.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Peter. I need that repeated again in the next question. But for the audience listening to this discussion please leave your questions in the Q&A box. In 10 minutes we'll be starting a Q&A session so you can put the questions there. Now, my last question to the panelists. We also have seven minutes to conclude this. There are sites of dissonance, and perhaps there will

be future sites with dissonance. And do you have any future directions that we could be taking? And we should be guiding particularly the center and the World Heritage process in this direction. So my main question is, can this be limited to interpretation or beyond. In my personal view, I think these have to be built into the entire management system. But what is your opinion? Give us some future directions and tell us what else can we do? Is it only academic exercises or is it going to the field? Thank you. Who wants to start? Dacia, you want to start? I know you have suggested some of these. Please repeat it.

—
Dacia Viejo-Rose

Yeah, I can start, pick up the gauntlet. I mean, you've already mentioned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system, the overpowering power, if you like, of the nation state in terms of the UNESCO structure and the attempt of the NGOs and the observer bodies to have a part that's limited to include the local. I mean, I think for me, I think the way forwar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way it's implemented, the operational guidelines, I think maybe that we can take some inspiration from the intangible side of things. With intangible heritage, it's much easier for sites to be shared between different countries, right? One of the things that I found hopeful and optimistic with the intangible heritage, just how many new sites are shared. So the tango is shared between Argentina and Uruguay. You have this sharing of gastronomic traditions. So I wonder if we recognize that even monumental heritage has important intangible dimensions, affective, relational, that's where the value sits. Can we begin to think about tangible sites the way we do about intangible, as also shared? And I think in that sharing, if I go back to that Sarr-Savoy report, their call for a new relational ethics, I think we have this responsibility and ethical

responsibility around engaging with the past, especially conflicted us and with each other, with the affected communities.

So celebrating a site in one way for one particular national history, heritage, or narrative can be a violence to other countries, nations, communities that experience that particular event in a very different way and it just it feels like including those other voices doesn't diminish the site, doesn't diminish the narrative that might be celebratory. There are sites that maybe celebrate industrial excellence and advances, but that that industrial advance was done at the cost of lives, sometimes of that community, sometimes of other communities that were indentured labor, slavery, forced labor, prisoner of labor work. And those stories are part of the success of the industrial site. So incorporating those other stories about it don't diminish it in the same way as when Pascall was talking about Robben Island, including the story of the lepers, including the story of the women, the children of the men that were held there, including all those stories doesn't diminish the political narrative, doesn't diminish the part of the heritage that is about Nelson Mandela. It just adds to the richness of the site.

So I think it's about being a little bit less protective over the singular, very powerful, singular narratives and understanding that giving space to the other narratives doesn't diminish one's own. Actually, it makes the site more robust. Now there's this contradiction in heritage when it's singular, when it has one narrative, it feels very powerful and strong. But actually it's quite vulnerable because if that one narrative is in any way challenged, then it all crumbles. Whereas if there are these narratives to a site, all this richness of the history, as we're told with

the Robben Island case, then if one of those narratives is challenged, well, it isn't an existential crisis for the site because there are all these other narratives. It's kind of like identity. If my entire identity were to be based entirely on my gender. And that becomes challenged, then I crumble. But if it's based on a hundred different things, then being challenged on one of them isn't an existential risk, isn't an existential attack. And that's what I was trying to get at, was the kind of dissonance potentially being something positive and that it makes the heritage site more robust rather than fragile.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Thank you. Peter?

—
Peter Bille Larsen

Yes, thank you. Along the similar lines, I would say we need to think of dissonance, not as a matter of shame or right now as if it's we're revealing our dirty laundry when we talk about dissonance and World Heritage, but that it's actually something that's extremely constructive and good to talk about. So indeed, to see something valuable that brings something new to sites, a new form of resonance. And how do we do that? This was your question, Gamini, no? Should we just have a different form of interpretation or do we need to go the full way? I think we need to go the full way because we have opportunities throughout the World Heritage cycle, both in terms of when sites are being, of course, nominated, the preparation of that, but also in the evaluation process. And again, we need the Committee to go in and basically ask state parties, "Did you do the job of actually looking at these issues of dissonance in your site?" Maybe even allow opening up the committee, as there have been attempts to do, to have other voices, abide by civil society and so on, to be able to speak when we know there are issues of business. Again, incorporated in the

mechanics, incorporated in the system that allows for dissonant resonance. That resonance is not ending up with these bland, quasi singular, outstanding descriptions, but that it's actually about a multiplicity of voices and all that, that are engaged in an equitable way. So I think we need to encourage the World Heritage System to walk the talk on implementing this and its mechanisms and its processes. But we also need the help of the advisory bodies and of course, other states parties to play the role also of a good friend that can actually also raise difficult questions when states parties sometimes perhaps feel uncomfortable talking about it. This is part of it, no? I think that that's where we need the systemic change to take place. So those would be my thoughts. Thank you, Gamini.

—
Gamini Wijesuriya

Pascall, any last comments?

—
Pascall Taruvinga

Thank you very much. Just in addition to what my colleagues are saying, and I would like to reinforce this point that heritage and dissonance are continuous processes because heritage is not static, and therefore one of the things that could be considered, I think, is the whole issue of advancing good governance and multifocality in the entire process of World Heritage management. And I think good governance, or governance, it might be a foreign object or a foreign concept to most heritage institutions, but I think we need to move towards that. And we are talking about that in protected areas. Why can't we talk about that in its cultural heritage sites? So that's my first point. And my second point is that linked to what Peter was saying, we have to look at new capacity building measures that will bring those responsible for managing heritage closer to other disciplines, because it's one thing being trained as an archaeologist and being

trained as a historian. But you are not a conflict resolver. You don't have those skills. You don't have that capacity. And that's why this issue has become hidden and are misrepresented. So we need to adapt other working models and capacity areas from other disciplines.

And then my third point is that maybe in the bigger matrix of things, just like the way we have been dealing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we now have a policy o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y is it difficult for the state parties and the committee to really look at it dissonance and the resonance guidelines to avoid both the local and the global processes suffocating som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and multifocality? If we leave it to the committee without some guidelines, the accountability level remains with the state party and we know how state parties behave in these circumstances. And that's why you end up with communities writing to UNESCO and fighting against an inscription. Because it means that there's no framework and mechanism that is standard that can be applied to the state parties. And last but not least, of course, this one is a tired argument, but it has not been implemented. We need to look at these inclusive and holistic interpretation models where we actually give voice to other opposing opinions. And nowadays we have a competitive advantage that we are moving towards digitalization, which gives unlimited options for alternative presentations compared to physical exhibitions at the site where we're forced maybe to look at one narrative, but with a digital or visual tour you can almost say anything and present anything. So we just need to kick the books and work out with more thinking and new dimensions. Thank you.

need to look at things positively and bring positive results and then add in our governance systems and thinking of capacity building, particularly looking at other areas of conflict resolution and so preparing a dissonance docu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lso inclusive interpretation models. So this will help not only for interpretation, but also for the management system and heritage management. So I hope these are very valuable propositions to address how to deal with dissonance issues at the current sites and also future sites. So I think all of you brought very interesting, very valuable thoughts and I believe this session was very useful to the organizers and hope we have kept to the expectations. For me, I'm not going to summarize because they are so rich. Every word for this is useful and they can be rewritten and then looked at and revisited and then the tools can be used as lessons and to go forward. So with that, thanking all three of you Dacia, Peter, and Pascall and friends and colleagues will now stop this session and then we will go in for Q&A.

Okay. I think we have some questions in Q&A. And also there are some questions coming from YouTube. We will start with Q&A. Can you look at them or you want me to read? The first question from Q&A from Mohammed Meqdad. How dissonance could be addressed in the environment of state monopoly of the World Heritage sites in that jurisdiction as the main stakeholder rather than local community? How the role of the national state could be more constructive? This is something we discussed. But I'd like comments from all three of us. And very briefly, we answered this, but this was something I was also because this national sovereignty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but at the same time there's a state-driven process and all the nodal

agencies are stayed, and all them, although there are opportunities for consultative process and some advisory boards are looking at the consultation as an essential. So, any idea? Peter, you want to start?

—
Peter Bille Larsen

Just very briefly, that you say I mean, Gamini, it is a state driven process and that's not going to change. But I think that has been a clear policy shift that opens up this not to be a state monopoly only. And there are clear quality criteria, now. We're perhaps not so clear yet. That's maybe the problem, including other voices there. There are calls for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hat have been adopted. There are calls for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as well to be implemented. So these are some of the mechanisms that are in the making. I don't think they're quite sufficient yet, neither in the way they have been articulated or how they're being implemented. But it's clearly a basis that opens up for that discussion. Another thing that we've discussed a lot with your Gamini over the years has been the need to, of course, not only focus on management as a matter of managing OUV,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ut as Gamini, you and I have talked so many times, it's also about how our management of the full set of values is being addressed. And I think that's something where it's increasingly coming up, but as part of those full sets of values, also conflict of values and so on need to be addressed. And I think here and more emphasis can be made to actually incorporate that in the system.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Pascall, you are happy to answer this question. You are a state party of yourself and you have a way, more proactively to...

—
Pascall Taruvinga

I think it's a very tricky question in the sense that, legally and in terms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is the main player. And that's why earlier on, when I spoke about maybe the center or the committee looking at its reviewing its governance structures. We should also give other local stakeholders an equal opportunity to give input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cause they are represented by the same people that are oppressing them at home. And I don't see how it will work in committee sessions. So the issue around governance, but also we must be mindful that the monopoly of the state might not change and we have to find ways of working around it. I will give you an example, with Liberation Heritage in Africa, it's always the ruling party that is in control and they even determine which kind of heritage should be celebrated. So as long as you are not in power, you are not going to have that freedom to celebrate your own heritage. But the question is, how do you then create other mechanisms around this state monopoly to make sure that you are equally recognized? So, for example, in Sadak, the front line liberation movement, your Zanu PF ANC, they are in power, and they're determining what is happening to liberation heritage. But it doesn't mean that we have to avoid talking about the other political parties and their liberation heritage. So all I'm saying is that, yes, there's monopoly, we can overcome it through maybe adjusting governance issues. But at the same time, it's a problem that will remain with us for a long time. We have to think of mechanisms like what Peter was saying of going around this monopoly and getting to resolve these issues. Thank you.

—
Gamini Wijesuriya

Dacia, do you have any views on that?

—
Dacia Viejo-Rose

Yeah, perhaps just to say, I mean, I agree with everything that has been said, I think the state parties need to be, as Peter was saying,

encouraged to think a bit differently than they have. I think that good practice guidelines, like both of my colleagues have suggested, are absolutely necessary, but not just good practice guidelines, but also systems of reporting and monitoring, because as we've all insisted, this is an ongoing process, you can't just say, "Okay, let's agree on this interpretation." And that's done and dusted. Right. You've got to keep going on because as government changes, different narratives will come to the fore and others will be silenced. I think that it has to be a continuous and ongoing process. I don't know. Now, the World Heritage Program was designed-- it wasn't created for the purpose of engaging and thoughtful and ethical ways of dealing with difficult pasts and war and violence. That's not why it was created. It was a vehicle for celebrating the achievements of humanity. So if now it's if the whole character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is changing, then the framework that upholds the mechanisms also has to change. Otherwise, why not use the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nstead? And why do we make these sites World Heritage sites if that's not the point of the list? So I think we need to change everything that sits under it if we're going to change the kinds of sites that are being listed and the reasons for it.

And again, it comes back to me to be really convincing nation states that having a diverse interpretation and being able to incorporate into their historical narratives, bits of their history that maybe they're not so proud of isn't a sign of weakness, but actually a sign of robustness and strength that you are able to say, "Yes, we got this wrong. Yes, we did lousy things and it's part of who we are and our history and we have to deal with those legacies now." It's a sign of strength, not a sign of weakness. There's this fabulous-- whenever you have a quiet

moment in your various lockdowns, COVID lockdowns around the world, there's a TED talk by the Nigerian author, Chimamanda Ngozi Adichie. She's the author of Half of a Yellow Sun, that wonderful novel about the Biafra war in Nigeria. But she has, there's this TED talk that she gives on the danger of singular narratives, which is fantastic, and I highly recommend you to listen to it. She's also a wonderful speaker, but she talks about those dangers of seeing each other in singular ways as representing singular things when, again, we're all so complex.

And that complexity, again, is strength and is robustness. I think convincing nation states to do that.... That's my kind of big ambition kind of thing. But I don't know if one of the mechanisms, also, for getting there is that when nation states kind of put forward nominations, if that can also go through national parliaments. I mean, I know not all parliaments are as representative as we would like them to be. But because it often goes, I think, from a very diplomatic kind of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t kind of sits there. But could it could these consultations sit at the parliamentary level where there's a parliamentary discussion around which national-- which sites, which heritage sites might be proposed and put forward and more of a consultation at the local level as well before it goes up to the kind of Ministry of Culture level. That might be one way of making this kind of multivocal process of deciding which sites that's designated to propose World Heritage.

—
Gamini Wijesuriya

I think all of you said this because things are changing, things are evolving as the entire World Heritage process is evolving. So let's keep hope on that, like Peter said. So when things are included,

some changes happen so that people's voices, multiple voices are heard, hopefully we will have a better view for that. The next question is relatively long, and I will read it. So can you look at it or do you want me to read? Okay, thanks indeed for your interesting and insightful questions and this question. I would like to ask one question relating to the World Heritage sites in UNESCO. Due to the increasing significance in the multiple values and the stories of the marginalized groups are newly highlighted in the existing World Heritage sites. However, some groups are concerned that multiple stories would harm the narrativ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he existing World Heritage sites. In addition, dissonance of World Heritage sites has been developed into political disputes. UNESCO seem to be in a dilemma between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ism. If so, should UNESCO be the only institution in harmony, or are there any alternative options on creating dialogue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of the World Heritage sites? This question from Yunkyung Lee. Well, again, something that has already been discussed, but coming up again and again and a very interesting question, anyone want to start? And how much time also. We have seven minutes to go this question and you have two more questions.

—
Peter Bille Larsen

I'm happy to jump in, Gamini. I think very, very rapidly, I think that the UNESCO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ffer an international framework, but fundamentally, dialogues between different stakeholders will need to be driven nationally, of course, but also in the case that these concern intrastate relation and so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en indeed, I think that that one needs to explore also perhaps thinking about new mechanisms for the World Heritage Program to facilitate dialogue. When we have signals

from problem analysis and so on, that there are risks of geopolitical tensions and so on, then clearly there is, I think, a responsibility here also from UNESCO as the hos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o play that facilitative role. And that, I think, is something that perhaps can be strengthened. And it's been done on an ad hoc basis right now. It's probably worth an exploration to see what opportunities there are to actually do that more systematically. And part of that, indeed, as Dacia is saying, perhaps also we can learn from proces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ot just from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ut also other arenas that involve engaging multiple states in one process.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Peter. Thank you. I hope Ms. Lee is happy with that. I have one more short question from Jonathan Bildeau. I'll read it. I have been concerned about our commercialization. World Heritage heightens dissonance, which does not promote peaceful interaction. Should commercialization be discouraged? Who wants to answer that?

—
Pascall Taruvunga

I think, Gamini, commercialization is a necessary evil. A necessary evil in the sense that World Heritage sites, they never get adequate funding from national governments, they have to raise money to invest into the conservation, maintenance, and interpretation of the sites. But on the other side, you have commercialization which is done out of context and is not sympathetic to what the site stands for. And that's very dangerous. But more importantly, I think what is lacking is this all-beneficiation mechanism. At World Heritage sites, how do we distribute the benefits of this commercialization to benefit the stakeholders? So heritage institutions, they don't have good

experience in those areas because they always think about raising revenue for their own administration and survival. So sustainability is not an issue that relates to only the management authorities, but also the communities that are involved with the World Heritage site. So I think there's more that we can do to look at how we localiz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ow we create measurable benefits that are going to accrue to the communities. Because I always get shocked when I look at management plans for World Heritage sites. It's very rare to see an objective that is looking at this element to say, "What is it that we're going to do communities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ir livelihoods?" Because it's not our space. We want to be the compliance officers. We want to be the only beneficiaries. And that's what is getting us into trouble. So I think those are the issues that we need to address, but otherwise it's a necessary evil.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One more question from YouTube.

—
Peter Bille Larsen

Can I just jump in, Gamini?

—
Gamini Wijesuriya

Peter, you want to? Yes, please do.

—
Peter Bille Larsen

Yes, I think it's an interesting question. I agree with both the question from Jonathan and also Pascall's perspective here a little bit. I would say it's a question about the quality also of how commercialization takes place, obviously. Indeed. So raising issues like benefit sharing, not only necessarily an evil as such, but it depends, of course, on how it's done. You know, I mean, I do think that there is a genuine motivational factor for many to get engaged. But as we've seen, for

example, in work we've done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t's a very uneven playing field. And very often the kinds of livelihood issues that Pascall is clearly underlining tend to get a bit of a back seat compared to other more powerful actors, capturing these commercial opportunities. So I think it's not discouragement, but rather let's look at encouraging practices that are equitable and that, as Pascall says, address issues like inequalities and benefits sharing explicitly. Thank you.

—
Gamini Wijesuriya

I have two more questions. I don't know whether we have time. One question is very long, but I would read it for the sake of our information. Namhoon Kim, despite the fact that heritage is inherently dissonant, national policies tend to keep the history of people and space lenient for stability of social identity and structure, in my view. Luckily, in democratic society, the general public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limited narrative of everyday life. The people become culturally competent in dealing with manifold meanings and voices coming from it. But what about the other regime that doesn't allow the dissonance to be recognizable to its people, let alone expression of it? There must be a different approach that enables people to be involved in dealing with the dissonance of their heritage and keeping the process benign and nonviolent. Looking forward to your insights on this issue. Well, this is a long one. I also have another question from Benni Oh. There are some past examples to show that conflict has been reduced and discussion is possible in spite of the dissonance that exists by accepting different viewpoints, each other on certain heritage and creating harmonizing and inclusive interpretation. So these questions are very interesting. Our time has passed but if any one of you is interested. Yes, please go ahead with commenting on

both of those.

—
Peter Bille Larsen

Let's see, I think, again, if I understand the first question correctly, it's indeed about how do we actually deal with these in an uneven playing field, sometimes violent situations, and how do we transform that? What kind of mechanisms are in place? And there I think we've seen a number of countries that, through their national legislative systems, have adopted, you know, participatory dialogue, tools and mechanisms and so on that actually have forwarded a lot of discussion. So we've seen that in the case of Canada, for example, in their engagement with indigenous peoples, we've seen nominations that have really taken indigenous peoples also jointly in the driving seat in that respect. And therefore, to respond to the second question, offer examples about how despite a colonial past and colonial present, in many ways in terms of the state apparatus and so on, the World Heritage at least can try to offer new ways of doing things. And that's not done overnight, of course, but it can be done. I think the point we can learn from these cases is that we need to not just leave this up to national mechanisms and dynamics, but we need to highlight this even more. Again, as I said earlier today, this has already been adopted as policy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o this is basically just about rolling it out, walking the talk and making this a priority also for assessing the monitoring in relation. So such mechanisms need to be highlighted, as Dacia and others have been saying, as good practice, as something that really should be rewarded in the World Heritage system and not just dependent upon national legislation.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Any one of you Pascall or Dacia, you want to have your

reflection? Yes, Pascall?

—
Pascall Taruvinga

Just briefly, in addition to what Peter is saying, dissonance cannot be separated from politics and political systems in a particular country. And I'll give you an example of the cultural landscape in Zambia, which is being considered for possible inscription. And now there's an objection from a particular community in the Barotse Kashala landscape. And when you read the objection, do a little bit of background checking, you realize that there's a mixture of politics, a mixture of socio-economic issues, and some of it is just awareness, on their plight. So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UNESCO is not going to come and sort out these local issues because UNESCO is to remain as neutral as possible. So the building remains with the state budget. And I think we have to think differently. Instead of running away from these issues, we have to confront them head-on. We have to become politicians and begin to separate political issues, World Heritage issues, and find what I call interconnecting positions, because you are not going to be able to solve everything. But what is it that connects the people and the processes that we are doing? And what is it that connects the people together as a people of a particular space? And how do we utilize that to our strength to move forward with some of these processes? Thank you.

—
Gamini Wijesuriya

Dacia, last words.

—
Dacia Viejo-Rose

And maybe just to add, I mean, I agree with what Peter and Pascall have said. And just to add to that and to build on Pascall's suggestion that the emphasis on interconnectivity, which I agree is fundamental. Unfortunately, the process of declaring a site World Heritage has

often had the impact of actually creating a distance between the local community and the site, disowning the local community in favor of this universal value of creating barriers between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se sites. And I think that that has to stop there. It has created all kinds of not only dissonance, but violent situations where people are displaced away from their ancestral homelands in the name of preserving a site as World Heritage. And I really think this shift in thinking that we're all calling for, which has to think about heritage sites and World Heritage sites as sites of interpretation and dialogue, not as museum pieces over which you put a glass case to protect them, that there really is open spaces where these communities that live around the places for whom these sites have almost mundane relation to these sites, they're part of their everyday lives. For us, they might be exceptional. For me, Petra is exceptional; for me, Angkor Wat is exceptional; Robben Island is exceptional, for me. But for people who live with these sites, they're part of their everyday lives, and that has to be valued as well, which is also building on something Peter said earlier, they can be alienated in the name of the exceptional value. They have to be the mundane, everyday relations of these sites have to be included. And I think that goes through making these sites of creative, ongoing, constant dialogue and interpretation and not kind of crystallizing them and throwing them into a glass case. And that kind of response also to Yunkyung Lee's earlier question in the Q&A as well.

 Gamini Wijesuriya

Thank you. I think these are good words to conclude these sessions, but if you have any one or two sentences to conclude, and we are aware that our time has passed, but any impression of the overall session and you want to say one line or just take half a minute and

say something.

—
Peter Bille Larsen

Yeah, from my side, I would just s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t's been an extremely constructive session. I think we're showing the value of having discussions around dissonance and we've been very agreeing with each other a lot. But I think that trying to open that space, still we need to recognize it's not there yet. So I think if the partners of this webinar, both from the African World Heritage Center, World Heritage Program, sorry, the Center and also the Korean center, indeed can pave the way towards shaping and continuing this dialogue. That would be extremely welcome, I think. So thank you indeed for organizing this.

—
Gamini Wijesuriya

Thank you. Pascall?

—
Pascall Taruvinga

Thank you very much, Gamini, and the organizers. I think it was a very interesting discussion and as a parting shot, I'd like to make a reference to my continent where new heritage typologies are emerging, and they are relating to social memory, sites of conflict. And I think instead of seeing difficulties, we must see challenges in addressing these issues and we must convert these challenges into opportunities of moving World Heritage beyond the confines of the criteria and the restrictive thinking on what heritage is all about. And we should decide what is heritage and how should that be presented. So to me, dissonance is an opportunity that can take us to a new thinking and a mindset shift in terms of implementing World Heritage. Thank you.

—
Gamini Wijesuriya

Dacia, last word is yours.

—
Dacia Viejo-Rose

No, I think Pascall's parting shot was a perfect note to end on.

—
Gamini Wijesuriya

Okay,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to all the wonderful colleagues who were discussants. And I mean it is for me it went beyond my imagination. I thought there would be many questions, many conflicts among themselves. And I think looking at certain aspects as a positive thing and the willingness to work more and the opportunities to raise more is this wonderful thing that came up. And I believe this will be taken up by the center. And I think we have done justice to the objectives of the center who wanted to open up this discussion. In my view, it was indeed a great, great discussion. So hopefully we will pick up these points in the future and the center will pick up some of these, not some, all of these points and then work towards better protection of heritage, the conflicts and, of course, all heritage sites. Thank you very much, the three of you again, once again. And then Haeree and the center for inviting me and our team and also for organizing this wonderful session. Thank you very much. Over to you, Haeree.

—
Haeree Shim

Thank you so much, company, for your wonderful moderating the discussion and Dacia, Pascall, and Peter for your deep and interesting discussion, and above all, the audiences who watched and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for making this webinar all the more interesting and interactive. Today's passionate discussion will lead to the next webinar, where we will discuss diverse aspects of the dissonance through three specific cases that are Hagia Sofia in Turkey, the site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and Goree Island in Senegal. It will be a very intense discussion, so please don't miss it. And we still have four more webinars to com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so please join our journey. I have one last advertisement for our webinar. We are also launching a video contest webinar on the them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rough World Heritage. We look for the cases of how reconciliation and peace have become part of protecting and managing World Heritage and other heritage sites. Make a five minute video and with a short production note and written plots, just submit them to us. We will share the information on our Facebook tomorrow, so please keep an eye on us. So thanks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we hope to see you at the next webinar in April. Bye. Thank you.

3회



세계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경합: 3가지 사례

**Contested Multiple Memories
on World Heritage Sites:**
Three cases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2021 Webinar Series – 3rd Session

April 29 – 10AM New York, 4PM Paris, 11PM Seoul

Contested Multiple Memories on World Heritage Sites:

Hagia Sophia, Sites of Meiji Industrial Revolution, and Memorial Itineraries of Slavery



Jean-Louis Luxen

Emeritus Board Member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Former Secretary-General
ICOMOS



Bissera Pentcheva

Professor
Department of
Art & Art History
Stanford University



Shu-mei Huang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Building and Planning
National Taiwan University



Ali Moussa Iye

Founder and Director
AFROSPECTIVES
Former Head
UNESCO Section
for History & Dialogue

How do we reconcile conflicting memories?
And how do we revisit the significance of a site with multiple memorie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PIC

Regional Office for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Promotion and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frican World
Heritage Fund



세계유산을 둘러싼 기억의 경합: 3가지 사례

좌장: **장 루이 룩센**

전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사무총장

■ 심혜리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 센터 설립 추진단의 심혜리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 추진단은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서 유산해석 분야의 연구와 역량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는 올해 말에 공식 설립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세계유산과 연결된 다층적 서사와 때로는 상충하는 역사 해석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을 알아보고 논의하고자 이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한 이후 유산 보존은 무엇보다 유산의 물리적 측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왔죠. 하지만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가 담긴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된 아야 소피아 성당과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당사자 집단과 지역공동체가 유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다중 서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다차원 사회에서 유산을 보호하고 갈등을 관리할 방법을 논의하고자 토론회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앞두고 이 시리즈에서 더욱 바람직한 유산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질문과 유익한 논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맡아주실 장 루이 룩센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룩센 박사는 벨기에 고위 공무원으로서 1975년부터 유산 보존 분야에 종사해왔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세계 유산협약 이행과 1994년 열린 나라 회의(Nara Conference) 조직에 관여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이사회 일원이었고, 특히 2018년에는 '기억 유산 해석'에 관한 유네스코 전문가 연구단 의장이었는데요. 이는 불편 유산을 다룰 때 꼭 필요한 핵심 참고 문헌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줌 Q&A 박스와 유튜브에 질문이나 의견을 남기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이 끝난 뒤 문답 시간이 있을 예정이니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간단명료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사님 차례예요.

장 루이 룩센

모든 청중분을 환영하고, 우리를 초청해주신 주최 측에 세 동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세 번째 시간의 문을 열어주신 헤리 씨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갈등을 빚는 다양한 기억은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죠. 이런 대담한 일을 기획한 한국의 동료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앞선 두 차례 웨비나가 자극이 되는 전반적 고찰로 길을 열어줬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든 과제죠.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해석을 통한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개념이 무형적 가치,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억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와 다른 관련 집단, 외국 당사자들의 기억까지도요.

다중 서사를 인식하게 되면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의미가 풍부해지죠. 이는 참여적 과정을 요합니다.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면 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해석과 설명이 관리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

죠.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허용한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세계유산이 일반적인 인류의 업적과 시공간적 문화 교류를 강조합니다. 유산의 보편적 의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져 있지만 많은 유산에 얽힌 다양한 기억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에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두 번째 웨비나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불협화음을 빚는 다양한 해석은 피할 수 없는 주제이므로 터놓고 다뤄야 합니다. 자극이 되는 토론이 유산의 의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포용적 접근법이 필요한 부분이죠. 유산의 의의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돼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 시대적 관심사와도 연결될 수 있죠. 지난 웨비나에서는 유산에 관한 다양한 기억을 인식하는 일이 등재 신청부터 모니터링, 역량 구축에 이르기까지 세계유산위원회가 추진하는 절차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산과 관련된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이 당사국의 국수주의적 설명을 넘어 폭넓고 다원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유산의 역사에서 비롯된 기억의 갈등을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 문화적 소수 집단이나 원주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탓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세계유산협약과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차원의 쟁점들은 더욱 엄중합니다. 특히 과거나 최근의 식민 지배 혹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들과 관련된 문제들이기에 더욱 사려 깊게 다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웨비나에서 논의할 내용입니다.

앞서 개괄적으로 고찰했으니 이제 구체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과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현재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공적 역사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할 계획인데요. 정치적 요소를 다루는 논쟁에서 벗어나 인문학적·사회적·영적 가치에 대한 토론을 끌어내보려 합니다. 이 두 사례 외에도 유네스코 '노예의 길' 프로젝트의 경험에서 비롯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유산의 네트워크로 그중 몇몇은 세계유산이죠. 노예의 길 프로젝트는 노예제 유산을 기억하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인종차별 문제를 연결하는 등 기념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유산협약이 주권 국가들의 정부 간 협약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정은 협약국들과 세계유산위원회의 몫이죠. 따라서 세계유산위원회 업무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평화에 이바지하는 유네스코의 정신이 관용과 대화, 협동인 만큼 우리는 정치에서 벗어난 논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제안을 해야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이 존재하는 만큼 운영지침과 세계유산위원회의 작업 절차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개선할 방법을 살펴볼 수 있죠. 1972년 세계유산협약과 동시에 채택된 또 다른 문서인 '국가 차원의 문화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권고 문서에 덧붙일 만한 추가적 수단을 제시하면 훨씬 더 큰 법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제가 서두에 드리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제 저명한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세 분의 약력이 나올 텐데요.

감사합니다. 첫 토론자인 비세라 펜체바는 스탠퍼드대학교에 여러 해 몸담은 미술과 미술사 정교수이며,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와 책 세 권을 출판한 저자입니다. 특히 아야 소피아 성당에 관한 저서가 있는데요. 『아야 소피아: 비잔티움의 소리와 공간, 정신』입니다. 펜체바 교수는 구겐하임 보조금을 받았고, 로마 아메리칸 아카데미와 베를린 지식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았으며, 고대 아랍어 연구를 위한 멜론 뉴 디렉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슈메이 씨인데요. 화면을 볼까요? 황 슈메이 박사입니다. 황 박사는 국립대만대학교 대학원 부교수이자 구축환경 박사고, 대만 과도기 정

의위원회 임명 고문이며, 대만국립공원 관리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현재 곧 출간될 책을 편집 중인데요. 제목이 『아시아 태평양의 기억의 경계들: 어려운 유산과 식민시대 이후 민족주의의 국경을 넘는 정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째 토론자는 알리 무사 이에입니다. 이에 씨는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통신사 감독으로 일한 언론인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에 씨가 1997년부터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유네스코 평화의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2001년 더반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인종 차별 철폐회의 후속 조치 책임자였고요. 이 부분은 이에 씨가 발표할 내용과 관련이 깊은데, 대화를 위한 역사와 기억 부서 책임자로서 노예의 길 프로젝트와 아프리카 일반 역사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훌륭한 토론자 세 분을 모셨죠.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 비세라를 만나보겠습니다. 아야 소피아 성당의 사례에 대해 발표해주실 것입니다. 비세라, 말씀해주세요.

비세라 펜체바

안녕하세요? 헤리 씨, 장 루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야 소피아에 대한 제 견해와 우리에게 필요한 화합의 노력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야 소피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비범한 건축물로, 1500년 역사를 지녔습니다. 총대주교가 머무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성당이었고, 근 천 년 동안 예배와 황실 의식이 거행된 웅장한 무대였죠. 그 오랜 기간은 1204년부터 1261년까지 잠시 중단됐는데, 제4차 십자군 운동의 여파로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을 때입니다. 아야 소피아는 1453년 오스만 정복 직후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

높고 빛나는 돔을 둘러싼 성당의 아름다운 내부는 술탄이 건설하는 모스크 공간의 새로운 오스만 양식이 됐습니다. 다주식 예배당의 전통인 직선성과 연속성에서 벗어나 빛나는 돔 아래 일체화된 내부의 모습으로 발전했죠. 아야 소피아는 언제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실의 권위와 동방 정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존재였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기독교

에 대한 이슬람의 승리, 비잔티움에 대한 오스만의 승리를 상징했죠. 16세기 말, 아야 소피아는 장례 기념물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의 제11대 술탄 셀림 2세가 그곳을 자신의 매장지로 선택했고, 이때부터 시작된 전통이 수세기 동안 계속됐습니다. 16세기 말, 오스만 제국의 입장이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며 아야 소피아는 오스만 술탄의 신앙인 수니파 이슬람의 정통성을 상징하기도 했죠.

이어 더 큰 변화는 20세기에 찾아왔습니다. 1934년, 아야 소피아가 이슬람 사원에서 박물관으로 바뀌며 새로운 공화국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케말 아타튀르크 대통령이 현대 터키를 오스만 제국의 기억, 유산과 단절된 세속 국가로 규정했죠. 가장 최근인 2020년 7월에 진행된 사원 복구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아타튀르크의 세속주의적 종교 분리 운동을 지우고 그와 동시에 비잔티움 교회의 기억을 지우는 일이죠. 이번 재전환은 현 정권의 분열적 정책을 위해 유산을 덮에 가렸고, 치유와 재건에 힘쓰기보다는 과거의 기억을 조작해 폭력을 재조명하고 상처를 덧나게 했습니다.

아야 소피아에서 놀라운 부분은 거대한 내부 공간입니다. 웅장하고 밝게 빛나는 돔이 바닥에서 56m 이상 솟아 있죠. 반원형 돔들과 엑세드라(반원 모양으로 내민 관람석이나 재판관석, 사회석 따위를 이르는 말)에 원형의 운동성이 부여됐고, 벽과 보도는 광을 낸 알록달록한 대리석과 금 모자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이 돌과 유리 장식의 조화가 상상력을 자극해 바다의 미학과 반짝이는 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신앙 운동이 그 살아 있는 바닷물에 반응하죠.

아야 소피아는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축의 경이로움뿐 아니라 중기와 후기 비잔티움의 정교한 모자이크도 보여줍니다. 제단 애프스(교회 동쪽 끝에 있는 반원형 부분)에 있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그 시작이죠. 마리아의 얼굴 조형에 담긴 자연주의는 무심한 듯 유려해 로마의 산타 마리아 인 도미니카 성당에 있는 동시대인 9세기 모자이크 테오토코스의 도식적 시

각화와 대조를 이룹니다.

바다의 살아 있는 물, 광선, 잔잔한 바람, 빛의 반사, 소리의 반향은 현재를 형이상학적으로 느끼게 하는 아야 소피아 내부의 현상이자 비유, 물질이죠. 그 감각적 경험은 영성에 다가가는 문턱이 됩니다. 자연광이 계속되는 낮에는 원형의 춤을 추고 그 현상이 신과 신성한 지혜가 순환하는 운동성을 시각화합니다. 이 건축물이 그 개념에 바쳐졌죠. 돔을 받치는 하단과 외부를 에워싼 벽에 난 창들의 위치 덕에 하루의 흐름, 한 해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햇빛의 역동성이 신을 향해 영혼을 밀어 올립니다. 소피아, 즉 지혜의 형태와 이해를 향해서 말이죠.

아야 소피아의 물리적 구조가 이처럼 신성한 조명을 만들어 물질이 빛을 반사하는 눈부신 거울이 되게 합니다. 하늘의 빛이 돔 하단과 제단 애프스에 있는 창문들을 관통하며 햇살을 빛의 기둥으로 바꿔 유형 물질로 지각되는 역설적 외양을 보여줍니다. 향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먼지가 공기를 자욱하게 해 빛의 지각적 응결을 강화할 수 있죠. 내부로 침투한 빛이 점차 바닥으로 내려오며 윤이 나는 표면을 빛의 응덩이로 만들어 돌과 빛이 물의 형태를 지니게 하는 연쇄적인 지각적 변형을 일으킵니다. 다른 건물에서는 그저 눈부신 빛으로 보이겠지만, 아야 소피아에서는 물질로서 나타난 영의 화신이 됩니다. 이 액화성, 혹은 하얀 프로코네시안 대리석의 높은 반사율이 아야 소피아에 독특한 미학을 부여합니다. 벽이나 천장보다 바닥의 반사율이 더 높죠. 천장의 반사율이 80%이고 바닥의 반사율은 가장 낮은, 현대건축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물의 미학에는 청각적 측면도 있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과 25만㎡가 넘는 아야 소피아의 거대한 내부 공간 덕에 사람 음성의 주파수로는 잔향 시간이 10초가 넘습니다. 30Hz 정도부터 1kHz까지 잔향 시간이 10초 이상이죠. 성가는 햇빛과 같은 힘을 발휘하며 건물의 구조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내부가 그 에너지에 반응해 인간의 목소리를 호흡하며 감화력으로 바꿉니다. 운

울 안에서 명료함이 사라지고 소리의 맛이 느껴지죠. 성가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야 소피아의 음향 효과를 청각화한 자료입니다.

광휘와 빛의 반사, 소리의 잔향 같은 무형적 측면은 유네스코 등재 기준 6번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세계적인 건축의 걸작이 미학적·음향학적 측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현재는 바닥을 덮은 카펫들이 내부의 발광을 억제하고, 원래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카펫은 음향적으로도 소리를 건조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죠. 감각을 매료하는 아야 소피아의 무형적 측면들, 햇빛의 작용과 소리의 울림이 재전환 속에서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카펫이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가린 덮개 없이도 이슬람 사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 건축물을 이슬람 사원으로 처음 사용했던 250년 동안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이죠.

바다의 미학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모두에 특별하고, 아야 소피아에 이어 탄생한 모든 오스만 모스크와 차별화합니다. 다른 이슬람교 사원들은 정원의 미학을 이용했지만, 아야 소피아는 바다의 영적 비전을 상징합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죠. 1985년, 아야 소피아가 유네스코 이스탄불 역사 지구의 일부로 등재되면서 비잔티움과 이슬람교 모두가 이 건축물의 본질이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최근의 재전환에서 비잔티움의 측면은 지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 건물 내부를 영성으로 채운다면 기독교가 이슬람교에 맞서도록 부추기는 걸 막고 우리가 지중해의 이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루이 룩센

고맙습니다, 비세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영성의 걸작에 대한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세계유산 목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아야 소피아는 그런 식으로 등재된 게 아니고, 6번 기준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우리가 마주

한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유산을 관리하는 건 터키 정부의 몫이니까요. 토론을 향상하려 애써주신 게 참 좋았습니다. 미학과 음향학, 과학 등 이 건축물의 특출한 점을 모두 보여주셨죠. 마지막으로 이곳이 기독교인과 이슬람교인 모두의 영적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주셨고요. 논점을 정치와 분리하고 보존의 관점에서 해석을 포함한, 더 나은 접근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명료하게 말씀해주셨으니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슈메이에게 순서를 넘겨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슈메이, 말씀해주세요.

■ 황 슈메이

고맙습니다, 장 루이.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온 황 슈메이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영광이고요. 오늘 저는 메이지 유산의 사례를 다루면서 노역자들의 기억을 되살려보고 싶습니다. 발표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기억은 과거의 대체물로, 아버샤이 마르갈리테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 사람들을 연결하고, 윤리적이라 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도 가능하게 하죠. 이 이론적 설명을 메이지 유산의 맥락에서 카시마섬을 기억하는 일에 적용해보겠습니다. 화면에 국가 서사가 적힌 외부 표지판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노역자들의 기억과는 많이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차이에 관심을 가져야 하죠.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진 2015년에 유포된 자료에는 메이지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다음과 같이 설명돼 있습니다. “이 유산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먼저 산업혁명이 비서구 국가에 성공적으로 이전된 첫 사례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이 유산들은 현대 산업국가 일본의 출현을 보여주는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다.”, “메이지 시대가 1850년부터 1910년까지”라는 언급도 있습니다. 이 책자 옆에 일본 건축사학자가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요. 표지에 나와 있듯 1952~1970년에 집중된 조사입니다. 작은 섬에 수많은 사람이 고립돼 살아가는 힘겨운 삶에 대한 내용인데, 등재 때 이 기록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계속 비교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은 8개 지역에 걸친 11개 유산의 23개 시설로 이뤄져 있고 8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일본 남서부입니다. 왼쪽 지도에 나와 있죠. 특히 전 총리, 아베의 고향이 있는 야마구치현에 많은 기

간과 시설이 집중돼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하시마섬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사례로 6번 지역, 나가사키현에 자리합니다.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많은 쟁점 중 하나는 시대 구분과 그로 인한 선택적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책자와 공식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1850년대부터 1910년까지 60년 기간이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와 실험, 서양 기술 직수입, 본격적 산업화 단계로 구분했는데, 명백히 정부 관점에서 산업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메이지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인정한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대 구분이 큰 논란을 낳는 부분 중 하나인데, 1910년 이후를 제외하면서 식민지배라는 역사 문제와 강제 노역을 지워버렸죠. 이는 회의 내내 일분이 펼친 주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2015년, 메이지 유산은 등재에 성공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물론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중요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많은 회의가 있었고,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해석 전략이 고안됐습니다. 붉은색 글자로 된 부분을 봐주세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기간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해석은 그 기간을 전후해 각 시설의 중요한 역사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적어도 지금 보시는 해석 전략은 일본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발행한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도 현재 메이지 유산의 주요 설명과 해석은 만족스럽지 않죠. 저는 유네스코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유산 해석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그중 최근에 등재된 유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이지 유산과 관련이 있고 그보다 먼저 등재된 야마모토 사쿠베에 컬렉션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어른신 이 야마모토인데요. 야마모토는 일곱 살 때부터 후쿠오카현 지쿠호 지역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1899년,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형을 따라 탄광에 들어갔는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규슈 지방의 탄광촌들에서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았죠. 미성년 노동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저를 포함한 대만의 많은 학자는 후쿠오카현 정부와 지역 대학에서 컬렉션의 그런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강조하는 걸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야마모토는 정말 놀라운 컬렉션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림과 함께 힘든 노동에 대한 기억을 상세하게 설명해놓아 탄광 노동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죠. 이건 지쿠호에서 열린 축제 장면이고요. 노동자들이 산업화를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는지 보여주는 등재 신청 서류의 한 단락을 인용해보겠습니다. “탄광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했고, 야마모토 사쿠베에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당시의 광부들로는 남녀와 아이들을 포함한 전 농촌 노동자들, 상인, 전과자,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 저는 지역 정부에서 산업화의 이런 어두운 면을 솔직하게 다룬 데 놀랐습니다. 더 고무적인 점은 이 기록유산이 사회사학자들이 메이지 시대의 노동 역사를 연구할 새로운 자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는 이 컬렉션이 대만에 소개됐는데, 우리도 탄광업 역사를 그렇게 다뤄야 한다는 자극을 주었죠. 일본어로 ‘負の遺産(funoisan, 부의 유산)’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유산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끌어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기억을 열린 자세로 대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끝으로 야마모토 컬렉션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메이지 유산을 나란히 놓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산업 유산에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기길 바랍니다. 이 국제화 시대에 지구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꼭 수행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일이 국경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서 배울 만한 점은 비국가 행위자가 국가 행위자와 동등한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정부, 지역 대학, 지역 박물관, 비정부 기구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기업들과

협력해 주도했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경우와 다르게 말이죠. 때때로 유산 정치를 조작하는 국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어떠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유산이 논쟁에 휘말리거나 더 심각하게는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루이 룩센

고맙습니다. 슈메이, 발표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려주셨으니 제가 정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당사국 외에 외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셨고, 국경을 초월한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는 유네스코의 과제이며, 알리의 다음 발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겠네요. 알리는 유네스코의 노예의 길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해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슈메이. 알리, 시작해주세요.

알리 무사 이에

친애하는 동료, 장 루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예 매매, 노예제와 관련된 유네스코에서의 경험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서 무척 기쁩니다.

노예 매매와 노예제는 인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고, 인간이 탐욕을 위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범죄 기록들을 갖고 있죠. 오늘날 이 비극은 과거의 사소한 사건이 아니라 현대 세계의 토대로 여겨집니다. 노예 매매로 축적된 자본이 산업화와 자본주의 기업에 투자됐고, 노예제에 맞선 첫 투쟁이 인권운동에 영향을 미치며 존엄과 자유, 평등의 개념을 재정립했고, 노예제의 해로운 사회경제적·문화적·심리적 유산이 불평등과 인종차별을 계속 재생산하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이 강제적인 접촉에서 발생한 문화 간 대화가 문화유산과 현대사회의 정체성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런 역사적 중요성을 지녔음에도 노예 매매와 노예제는 사회와 언론, 박물관, 정치, 학계, 교육에서 조직적 침묵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 긴 침묵을 두 가지 수치심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노예제를 행한 이들과 그 후손들이 느끼는, 다른 인간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이고, 다른 하나는 노예가 됐던 이들의 후손들이 느끼는, 부모가 당한 굴욕적인 대

우에 대한 수치심이죠. 이 침묵을 깨고자 1994년, 유네스코 노예의 길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처럼 중대하고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눈감는 일 자체가 상호 이해와 화해, 평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죠. 따라서 노예제 관련 유산에 대한 논쟁은 갈등하는 기억들의 흥미로운 예입니다.

방향이 점차 도덕적 요구에서 기억해야 할 의무로, 기억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인정으로 바뀌고 있죠. 제가 보기에 이 대립은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역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공권력과 인정을 요구하는 지역공동체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는 박물관과 기념물, 역사적 서사에서 노예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업적이나 노예였던 사람들의 경험, 노예제의 해로운 유산이죠.

오늘날 제기되는 질문은 공식 사과와 국가 서사의 수정 정책이 아프리카계 공동체들의 배상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볼 때 노예제 유형유산의 보존과 홍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 화해를 이루고, 사회 결속을 강화하고, 더욱 포용적인 국가 서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억 유산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이 높아져왔죠. 그 결과 국가 및 국제 지형에서 노예제를 기념유산에 포함하는 것이 부인과 무관심뿐 아니라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울 효과적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네스코 노예의 길 프로젝트는 이를 위한 홍보 자료들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기념유산의 식별과 보존 홍보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세우도록 각국 정부를 장려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당국과 공동체의 기념유산 보존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고자 '유네스코 노예의 길 관련 기억 유산'이라는 칭호도 만들었는데요. 지역 당국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국제과학위원회의 협의와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의 정보를 거쳐 프로젝트 사무국에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칭호를 수여했죠.

이 독려와 방향성 덕분에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아프리카, 인도양, 유럽의 많은 나라가 기념 여행 경로의 건설과 관광 홍보를 염두에 두고 자국이 보유한 기억 유산과 장소들을 이해했습니다. 이 역사가 인류에게 보편적인 도덕적 교훈을 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그중 몇 나라는 한 발 더 나아가 특별히 상징적인 일부 유산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고자 하는 바람을 표했죠.

오늘날 노예제 역사와 관련된 유산 36개 정도가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돼 있고, 40개 유산이 잠정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도 문화 관습 표현 20개 정도가 올라 있고요. 2018년, 유네스코 노예의 길 프로젝트에서 유산과 기억 여행 경로 관리자를 위한 안내서를 발행했는데, 여기에는 노예제 관련 기억 유산의 홍보에 관한 경험 비교 분석과 개념적·실용적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안내서는 이 기억의 윤리적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유산 관리자에게 '건설된 돌의 함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물리적 유적의 건축적 측면을 중시하느라 자연환경과 인간 창작 간 복잡한 상호작용은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우주 발생론적 관계에 대한 원주민들의 해석도 간과하게 되는 경우죠.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맥락에서 그와 같은 위험은 해롭습니다. 자연 요소들이 지닌 종교적·사회적 기능이 무시되니까요. 나무, 숲, 산, 동굴, 호수, 강 같은 것들이죠. 저항, 희생, 숭배와 관련된 장소들처럼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면 기념유산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다원론적 관점과 전체론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산의 의미에 제한적 기준을 둔다면 노예제는 피해자들의 기억보다는 가해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결과가 될 수 있죠. 카리브해와 인도양에 있는 관광지 섬들에서는 이런 위험이 실재합니다. 서양인이 대부분인 관광객들을 만족시켜야 해서 식민 유산이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다양한 건축물을 보여주면서 그 저택이나 요새, 시설을 노예들이 지었음을 명시

하지 않으면, 노예제도를 간과하고 그런 기억 유산의 주목적을 놓칠 위험이 있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부 노예제 관련 유산들의 설명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노예 무역상의 기술적·건축학적 독창성에 집중하면서 그 유산을 건설한 노예들이 겪은 끔찍한 상황은 간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을 피하고자 유네스코 안내서가 노예제 관련 유산의 미적·역사적 가치, 관광 가치의 지배적인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죠. 안내서는 관련 집단의 상징적·정신적·사회적 중요성을 더욱 충실히 고려하는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관련 집단이 기억 유산과 장소를 직접 승인해야 하고요.

40년 넘게 세계유산협약을 적용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원칙이 다양한 지역에서 인지되고 시행돼왔는데, 이제 방식을 검토해볼 때가 됐죠. 노예의 길 프로젝트와 아프리카 일반 역사 프로젝트를 통한 고찰이 유산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몇몇 개념, 패러다임, 분류에 의한 유럽 중심적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 고찰은 근래의 인류 탈식민화 논의에서 나온 재개념화와 새로운 해석을 고려해 아프리카와 아프리카계 후손들의 기념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죠.

실크로드나 일반 및 지역 역사, 세계기록유산 같은 다른 유네스코 프로그램들을 통해 발달한 다양한 관점의 방대한 지식을 이용한 비판적 대화가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산, 기억, 보편적 가치의 개념을 다시 논의하고 규정해 다양한 해석을 더욱 잘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적 이해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루이 룩센

감사합니다, 알리. 굉장히 알찬 발표였습니다. 의문을 제기하셨을 뿐 아니라 답과 제안도 주셨는데요. 검토하고 계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제안이었죠. 특히 노예의 길의 토대가 된, 국경을 초월한 대화에 대한 부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나라, 특히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부분인 무형적 측면과 신성한 자연유

산을 조명해주신 것도 좋았어요. 또 어떤 유산들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고, 무형문화유산이나 다른 목록에 오른 유산들도 있고, 그 유산들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모든 유산에 관습을 개선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지침이 담긴 안내서도 소개해주셨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표는 전부 마쳤고 주최 측에서 네 가지 부차적 논제를 다뤄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전달을 받으셨죠. 첫 번째 논제는 우리가 이미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정치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세계유산협약에서 각 사례의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룰 수 있을까요?

세 분이 이 문제를 이미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질문을 다뤄보면 흥미로운 것 같군요. 어느 분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어요? 비세라, 슈메이, 알리? 세계유산협약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 알리 무사 이에

이미 다뤘던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은 노예제뿐 아니라 다른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감수성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가 세계유산이라 부르는 것의 미학적·건축적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저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요새와 유산들을 방문할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내서나 국가 당국의 유산 설명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석조 건축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18세기, 16세기에 건설됐고 설계가 아름답다고 하죠. 저는 노예로 잡혀 온 사람들이 이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들의 고통에 대한 서사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세계유산 목록이 처음 구상됐던 방식은 ‘건설된 돌의 함정’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장 루이 록센

맞습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건 장소임을 명심해야 하죠. 토지가 있어야 하고, 대개 건축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유산을 풍부하게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거고요. 노예제와 관련된 유산뿐 아니라 어느

사원이든, 교회든, 역사적 건물이든, 사람이나 그 이면의 사회적 측면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협약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하려면 세계유산위원회나 자문 기구의 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알리에게 물었습니다만, 어쩌면 비세라나 슈메이가 대답해줄 수도 있겠네요. 비세라, 말씀해주세요.

■ 비세라 펜체바

두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저는 학자고, 제 전문 분야가 문화유산은 아닙니다. 저는 중세사학자지만 유산이 제시되는 방식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 그 부분에 학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이죠. 종종 등재 이후에 정부에서 유산을 설명하는 방식에 간과한 부분이 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아야 소피아의 경우 최근 정부가 만든 아야 소피아 웹사이트에서 서사가 완전히 축소됐고,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서사가 전부니까요. 비잔티움에 관해서는 두 단락에서 부정적인 내용만 언급했죠. 이는 과실입니다. 이게 새로운 세대의 기억을 형성하니까요. 알리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는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상에 대한 이야기죠. 저는 완전히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는 건축물을 볼 때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담긴 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이데거의 '사물'이라는 중요한 글이 떠오릅니다. 그는 현대성이 분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용기라는 물질을 볼 뿐 그것이 실제로 하는 일인 '담기'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죠. 다원적 서사라는 것도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입니다.

아야 소피아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는 제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조차 제가 영혼에 대해 논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형적인 것이니까요. 어떻게 광휘나 잔향 같은 무형적인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냐고 했죠. 그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공간에 영혼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요점은 대중에게 유산을 설명하는 방식에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야 소피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유산이 등재되고 난 후에 그 서사는 지역 당사자뿐 아니라 국제적 당사자들까지 포함하는, 모두를 향한 이야

기가 돼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바꾸고 삭제했죠. 유산 등재 25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건 새 유산이 아니라 등재 시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지녔던 오래된 유산인데, 지금은 한목소리로 축소됐죠. 비잔티움이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터키의 세속주의적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 역시 터키의 이슬람 정체성과 대립하게 됐고요. 이처럼 담론을 활성화하는 일을 방해하는 건 위험해 보이고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장 루이 룩센

학자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네요. 세계유산위원회에 요구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외부에서 다원적 접근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 열 명이 입장을 취하면 모든 정부가 귀를 기울이죠. 여론에 파급력이 있으니까요. 저는 학자들이 개입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슈메이 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음 논제로 넘어가고요. 말씀해주시죠.

황 슈메이

비세라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짧게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과거를 해석하는 건 언제나 현대의 공동체, 국가라는 사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명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경은 항상 바뀌고 사람들은 항상 여행을 하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에 대한 상상력을 단기적인 시야 안에 가두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것도요. 적어도 세계유산협약의 경우는 그렇죠.

장 루이 룩센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라면 세계유산 프로그램의 목표는, 말하자면 크리스티나 캐머런이나 프란체스코 반다린 같은 학자들은 당사국의 국가주의적 설명을 넘어서는, 더욱 세계적이고 다양한 유산 설명을 위해 시민사회와 대학, 또 다른 목소리들이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협약의 법적 제약을 고려했을 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는 한 방향이라고 생

각합니다.

다음 논제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서로 다른, 혹은 상충하는 기억들을 다루는 데 어떤 접근법을 추천해주시겠습니까? 상충하는 기억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쉬운 질문이 아닌데요. 누가 용감하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
황 슈메이

제가 시작해볼까요?

■
장 루이 룩센

네, 부탁드립니다.

■
황 슈메이

저는 항상 어떤 결론이나 정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대화가 훨씬 더 큰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수중 문화유산을 접했는데요. 이 유산은 제1차 세계대전 사례들을 다루면서 공동체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유네스코 프로그램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이 수중 유산과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배울 기회를 줬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것을 미래 세대에 그대로 계속 공급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장려하는 상황과 적당한 재료를 제공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대화 속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편안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고,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죠.

■
장 루이 룩센

고맙습니다, 슈메이. 알리나 비세라도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
알리 무사 이에

갈등을 빚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룰 때는 학술 연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상충하는 기억들과 관련해서는 화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역사적·과학적 사실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학계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가 한 일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일반 역사, 지역 역사를 수집하면서 한 일이죠.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전쟁과 분쟁을 다뤘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당사자로 구성된 국제과학 위원회를 설립해 갈등하는 기억들과 역사에 관해 학계 수준의 논의를 해왔어요. 이게 진지하고 솔직한 제 의견입니다. 어느 정도의 진실을 찾고 다양한 정서를 고려하고자 한다면, 고통스럽거나 상충하는 기억들을 다룰 때는 다양한 관점과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연구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억들의 역사에 대한 학문적 합의를 찾은 다음, 지역공동체들이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거부하는지, 기억들의 화해를 위해 이 공동체들을 어떻게 화합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 비세라 펜체바

여기서 제가 끼어들어 볼게요.

— 장 루이 룩센

비세라, 말씀해주세요.

— 비세라 펜체바

슈메이와 알리의 대답을 종합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의견 교환과 대화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더 많은 관련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면 그 조화 속에서 기초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학술 연구는 중요하고 저도 그 방면에 속해 있는데요. 학술 연구가 뭔지에 대해 좀 더 복합적인 방법으로 논해보려 합니다. 제가 아야 소피아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미학이라는 놀라운 문턱으로 더 많은 관람객이 들어와 기념물과 건조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리는 그만큼 심오하죠. 이 방법으로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미학과 현상학은 역사적으로 한정된 것일 수도 있는데, 지배적인 서양 관점의 학문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몸보다 우선시하는 합리적 담론이죠. 저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포화 현상을 논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성한 유산을 다룰 때, 그게 풍경 속의 나무 한 그루든 인공 구조물이든 형이상학을 다루는 것입니다. 물질 속의 형이상학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수용력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각이 중요하죠.

7세기 신학자 막시무스가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 일상의 일들을 구조화하지만, 감각은 우리가 신에게 닿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저는 이성과 언어 너머에 뭔가가 있음을 인식하는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광휘와 진향 같은 것들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음향과 디지털 기술 분야 간 협력도 큰 역할을 했고요. 아야 소피아 밖에서도 우리를 감싸는 그 소리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21세기 관람객을 이 유산과 연결해주는 부분이니깐요. 의미 있는 일이죠. 말이 많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루이 룩센

감사합니다. 쌍방 대화에 양측만 두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분야에 걸친 접근법과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그래야 논의의 질을 높이고 비세라가 언급한 부분에 도달해 사람들의 영혼, 문명의 영혼을 다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논제로 넘어가볼까요? 민족 정체성이라는 구조 안에서 기억 유산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바람직한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질문도 알리가 기꺼이 다뤄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리, 괜찮을까요?

알리 무사 이에

네, 저는 무엇보다 국가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체성의 개념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족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고유하고 유일한 국가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다수의, 다양한 민족 정체성 개념을 발달시킨다면 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다양하고 다원론적인 해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포용함으로써 그 다양한 해석 간 진정한 대화를 끌어낸다면 차이를 넘어, 때로는 역사와 기억의 갈등을 넘어 대화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배경으로 한 나라가 다양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고, 그 다양한 정체성을 포함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다양성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예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획한 좋은 본보기가 있는데, 노예제의 피해자 후손들과 가해자 후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노예제의 심리적 결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로는 양측 모두 그로 인한 심리적 영향을 받아왔거든요. 가해자 측 후손들은 여전히 그 영향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개 의문조차 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들이 백인만 거주하는 동네에 살려고 하는 이유 같은 거죠. 우리는 이 논의에서 가해자 후손들은 피해자 후손들이 떠오르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모아놓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노예제의 피해자고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으니 함께 치유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이 문제를 다루는 또 한 가지 방법 같습니다.

장 루이 룩센

1회 웨비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심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에 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억 유산도 자금 설명해주신 것과 같은 접근법을 제안하는데요. 갈등을 빚는 기억에 큰 도움이 되는 방식이죠. 슈메이나 비세라도 의견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발언을 하지 않으실 거면 다음 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슈메이?

황 슈메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유산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를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하려고 세계유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계에는 방법론적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를 효과적인 분석에 적합한 유일한 사회 단위로 가정하는데요. 세계유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이를 극복하게 도와줄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메이지 유산의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전쟁 포로가 속한 나라들의 공동체와 사회과학자들에게 이들이 공유하는 과거가 연구할 유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사국에서 모든 관련 공동체에 열린 태도를 취해준다면 말이죠. 그 과정에서 당사국 역시 새롭게 회복된 민족 정체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질문에 짧게 답변해봤습니다.

장 루이 룩센

고맙습니다, 슈메이. 이제 마지막 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용적인 유산 해

석과 설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특히 유산의 다원적 기억을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육에 관해서는 비세라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군요. 비세라, 부탁드립니다.

비세라 펜체바

아야 소피아에 대한 제 생각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유산에는 국제적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웹사이트, 국제 전시 등 모든 국제적 수단이 아야 소피아의 다원적 가치를 보여주는 방법일 것입니다. 일례로, 저는 이슬람교를 영적으로 해석하고자 수피파와 순결의 형제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는 아야 소피아의 6세기 신플라톤주의 미학과 아주 유사하고 이슬람교의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잘 알려진 수니파의 밖에 있는 면이죠.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슈메이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이 영적 측면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와 전시회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사람들을 배치하는 일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이미지와 음향을 재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죠. 곧 이 건축물 안에서 미학적 측면에 대해 얘기하는 일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사랑이 없다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없죠.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터키는 비잔티움의 과거를 인정하고자 문화유산과 비잔티움 연구소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역행은 최근의 일이고 아주 위험합니다. 지난 5년, 10년간의 이야기죠. 올해 8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비잔티움 연구 회의 일정이 변경되고 장소가 터키에서 이탈리아로 바뀐 건, 우리 눈앞에서 폐쇄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삭제 작업이 이뤄지고 있죠. 열린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고 사건의 복잡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재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아야 소피아는 1934~1935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가 뭘 의미할까요? 이는 기념물이 살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유산의 기억, 존재, 기운은 강화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데, 아야 소피아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사건들이 인종과 노예제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힘든 기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는데, 아야 소피아는 그 반대

입니다.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다른 쪽에서는 지는 거죠. 학자로서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루이 룩센

네, 헤리 씨는 별말씀이 없지만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알리나 슈메이가 보텔 말씀이 없으시면 문답 시간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네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겠습니다. 비세라가 대답해줘야겠네요. 아야 소피아의 경우 위원회에서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 문제는 유산을 보유한 국가의 책임인가요? 이 방법으로 권력자들과 시각이 다른 서사들에 여지를 줄 수는 없을까요?

비세라 펜체바

대답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네요. 복잡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국가에 맞서는 게 생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매체가 있습니다. 삭제 과정을 알리고 그에 대응할 수단이 있죠. 기독교와 이슬람교 정신의 풍부한 유산에 공감하는 아야 소피아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진보의 한 단계이고, 주요한 장소에서 아야 소피아에 관한 국제 전시회를 기획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며, 현장의 행동에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직접 아야 소피아를 관람하면서 이 복잡한 역사를 다루는 게 중요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대응책이 가장 부족하고, 아직 생각 중입니다. 다른 두 수단인 웹사이트와 전시회는 구상이 훨씬 더 진전돼 있죠. 아직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쟁을 분쟁으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슈메이가 말한 것처럼 대화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장 루이 룩센

고맙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갈등 상황에서 분열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자문 기구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시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었죠. 모니터링과 역량 구축 단계에서요. 디지털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은 1회 웨비나에서도 나온 제안입니다. 유산에 대한 다원적 접근법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니까요. 알리나 슈메이가 덧붙일 말이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역사를 다루는 유산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비극적인 역사인데, 그런 기억은 고통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기억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할까요?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의 앞부분인데요. 알리, 노예들과 노예를 부린 쪽의 후손들을 모았던 일을 얘기해주셨는데요. 그 경우엔 후손들이었고, 이건 직접 고초를 겪은 사람들에게 관한 질문이죠. 슈메이가 대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고난의 역사를 겪은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
황 슈메이

대만 원주민들의 고통을 다룬 사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낀 부분은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고 참여할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침묵을 지키려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또한 존중해야 할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학문적 지식으로 보는 일과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인간의 경험으로 보는 일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장 루이 룩센

여기에 생각을 보태주실 분이 계실까요? 알리, 고맙습니다.

■
알리 무사 이에

네,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의 고통스러운 기억에 관한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건데요. 르완다의 투치족 학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1970~80년대에 공산 정권이 학살을 자행했구요. 피해자들과 학살 가담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 안된 일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다른 조치는 먼저 피해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증언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떠올릴 길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증언을 할 수 있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언 수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르완다에 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

장 루이 룩센

프쥬. 그런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고 적어도 미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증언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요. 하지만 당장은 그 기억에 대한 화해나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에 대해 얘기하려면 마음을 달래고 진정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라는 비세라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신앙 같은 게 있다면, 관용과 용서를 목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의 갈등을 다룰 때는 아주 어려운 일이죠. 아직은 그에 관해 말씀드릴 만한 좋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 유산에 관한 경험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네요. 제가 중남미 지역에서 본 바로는 과테말라와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전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들 간 대화를 성사시켰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죠. 방법론이 아주 명확한데요. 그런 경험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기억에 관한 노력을 기울인 나라죠. 전쟁 중에 강제 노역이 행해졌던 독일의 산업 유산들에 가보면 그 일을 언급합니다. 등재 시에는 관심이 부족한 탓에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유산 관리자의 관심을 끌면서 강제 노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쩌면 외부의 압력도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열린 태도로 과거의 해악을 인정하는 게 자신들에게 이익임을 아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헤리 씨, 진행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와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요점들만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을 유지하되 서로 다른 문화와 지역의 다양한 감수성을 인식하며 더욱 풍성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게 한 논점이고요. 또 한 가지 강조됐던 점이 있는데요.

당사국 외에 시민사회와 학계에도 발언권을 줘 유산 해석을 확장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효과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요. 비세라가 했던 말을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요. 즉, 유산 해석은 이성의 문제에 그칠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사회와 영혼도 다뤄야 합니다. 이게 유산에 관한 분쟁을 극복하는 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풍성했던 논의에 비해 결론이 너무 짧습니다만,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미 예정보다 길어졌는데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헤리 씨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에 센터가 설립되는데, 여러분의 프로젝트와 작업에 행운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헤리 씨. 감사합니다.

■ 심혜리

고맙습니다, 장 루이.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웨비나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충하는 기억들을 지닌 유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이 논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논의는 5월에 열릴 다음 웨비나의 주제 ‘유산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흥미로운 영상 제작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주최한 영상 콘테스트에 보내주신 각 지역의 갈등 유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웨비나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5월 웨비나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Contested Multiple Memories on World Heritage Sites:

Three cases

—
Haeree Shim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third webinar, in the series of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hos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Haeree Shim from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e Preparatory office is an organizer of this event, a UNESCO Category 2 Center carrying out researching, capacity building, and networking in the field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center will be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We organized this webinar series to identify and to discuss various new issues related to multi-layered narratives and sometime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that are attached to World Heritage.

Since adopting the Convention, heritage conservation has focused more on protecting physical authenticity of heritage. However, as we can see from the cases, like Hagia Sophia reverting to mosque or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sites, which have diverse

perspectives and stories, there is a rising interest on multiple narratives due to diverse stakeholders and community engagement in Heritage management. So, we are offering series of discussions to talk about how to protect our heritage and to manage conflict in this multi-dimensional society. Fac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next year, I think this series will raise timely questions and provide good discussions for better protection of our heritage.

Now, let me introduce the moderator of the webinar, Dr. Jean-Louis Luxen. Dr. Luxen is a Belgian senior civil servant involved in heritage conservation since 1975. He has been a Secretary General of ICOMOS from 1993 to 2002,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n the organization of the Nara Conference of 1994, and also a member of the board of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from 2007 to 2019. Importantly, he was a chair of the UNESCO expert working group on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in 2018, which is the core reference when dealing with difficult heritage.

Before beginning the webinar, I would like to let you know that you can leave your questions or comments in zoom Q&A box if you're in zoom and also on our YouTube during the webinar, there will be a Q&A session after the discussion, so please share your thoughts and it would be much appreciated if the question is simple and clear.

So now, I would like to turn the time over to our moderator. The floor is yours, Jean-Louis.

Jean -Louis, you're muted. Jean-Louis you are muted.

—
Jean-Louis Luxen

Sorry. Well, thank you, Haeree. Good morning, good afternoon, and good evening to everyone. I'm still muted? Do you hear me? Okay, welcome to all the audience. Thank you to the organizers, for the invitation, also on behalf of my three colleagues, thank you, Haeree, for your introduction to this third webinar on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The theme of contest, Multiple Memories is important and very sensitive. We congratulate our colleagues of Korea for their audacious initiative. The first two webinars have opened the way with very stimulating, general considerations. It's difficult to summarize them. It is a challenge to try to do. The first webinar did explore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to interpretation. One, it is clear that the no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should better be open to intangible values and the diverse associated memories. Memories of local communities, of other associated groups, or even stakeholders beyond the borders of a country.

The significance of a cultural or natural site is enriched by the recognition of multiple narratives. This requires a participatory process. Involving various stakeholders also contributes to the conservation of the site and to its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is part of the management plan. And finally, lessons could be drawn from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Heritage of 2003, allowing civil society to take part in the processes. The majority of World Heritage Sites highlight common human achievements and cultural exchanges over time and space. There is a wide consensus on their universal significance. However, many sites have multiple and different memories challenging the very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 second webinar did address that issue.

It is clear that plural dissonant interpretations are unavoidable and should be openly addressed. Stimulating debate can enlarge the significance of a site. This requires a multidisciplinary and inclusive approach. The significance of our heritage site is related to the history context and can change over time. It can be connected to concurrent concerns, namely human rights, sustainable development, or even climate change. The webinar considered that recognition of the multiple memories associated with the site must be part of the procedure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from nomination to monitoring and to capacity-building.

They also consider that the new digital technologies make it possible for civil society and stakeholders associated with the site to feed wider probabilistic interpretations, beyond the nationalist presentation of state parties. I personally believe that it is important to consider both the national and the international levels. At the national level, contested memories associated with heritage sites can be observed due to the history of the site. And very often the lack of recognition of cultural minorities or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n we have the international level as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ssues are more critical particularly in relation with past colonial or recent colonial domination or recent conflicts. They require tactful treatment. This is what we are invited to consider in this third webinar.

After the general considerations, we have to examine concrete situations. Hagia Sophia and the Meiji Industrial sites are currently

under special attention. The idea is to analyze the situation from a public history perspective, trying to depoliticize the controversy and to elevate the debate to humanistic, social, or even spiritual values. Besides those two cases, the third input will come from the experience of the Memorial Itineraries of Slavery, a UNESCO program. It is a network of a large number of sites, a few of them being World Heritage Sites. The Itineraries have a memorial value as such remembering the legacies of slavery and connecting memories to present concerns of racial discrimination.

Finally, I believe that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an intergovernmental instrument between sovereign states parties. The decisions belong to them and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is means that political considerations are always present as it can be observed already in the work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ur present session should try to depoliticize the discussion in the spirit of UNESCO's experience of tolerance, dialogue, and cooperation in the service of peace. We should try to make some suggestions. However,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there. We could try to explore how to improve its implementation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and the working procedure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e could also consider another document that was adopted at the same time a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I mean,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at a national level. We could have much more legal flexibility and to bring some additional measures that could be proposed as an addendum to that recommendation.

This is the few words that I wanted to make as introductory remarks.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all three, distinguished panelists. I suppose I will see their bio on the screen?

Thank you. Well, the first speaker will be Bissera Pentcheva. She is full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in Art and Art History and she has been at Stanford for many years. She is the author of three books with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especially on Hagia Sophia and Hagia Sophia space, sound and spirit. She had a Guggenheim Fellowship. She went to Rome, with an American Academy Fellowship. She went to Berlin with also a Wissenschaftskolleg Fellowship, and a Mellon New Directions Fellowship of Classical Arabic.

Well, the next speaker will be Shu-Mei. Shall we see? There is Shu-Mei. She is associate professor at the Graduate Institute at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She has a PhD in Built Environment. She is appointed advisor to the Commission of Transitional Justice in Taiwan. She's also a member of the Urban Planning Committee of National Park Service of Taiwan and she is currently editing another upcoming volume, titled "Frontiers of Memory in the Asia-Pacific: Difficult Heritage and Cross-border Politics of Postcolonial Nationalism."

Maybe the next slide please. And the third speaker will be Ali Moussa Iye. He's a journalist for a long time. He was a director of Press Agency in Djibouti, but what is more interesting for us is that since 1997, he has been working at UNESCO in the Culture of Peace Programme, especially in the Horn of Africa. He was the coordinator of the UNESCO Follow up of the Durban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and, very important in relation to the presentation is going to

make, he was head of the History and Memory for Dialogue Section in charge of the Slave Route project, the General History of Africa, and the Silk Roads projects. So, we are fortunate to have three brilliant panelists. I will not speak longer. I shall give the floor first to Bissera Pentcheva, who is going to present the case of Hagia Sophia. Bissera Pentcheva, please, you have the floor.

—
Bissera Pentcheva

Hi everyone. Thank you, Haeree and thank you, Jean-Louis. It's an honor to be here and to share my understanding of Hagia Sophia and what is the work of unity that we need to do. So, I'll start. Hagia Sophia is one of the most extraordinary buildings in the world with a history of a thousand and five hundred years. It has been the Cathedral of Constantinople, the seat of the patriarch, and the majestic stage for liturgical and imperial ceremonies for almost a thousand years. This long stretch of time was briefly interrupted in 1204 to 1261 during the Latin occupation of Constantinople in the aftermath of The Fourth Crusade. Hagia Sophia became a mosque immediately after the Ottoman conquest of 1453.

The beauty of its interior unified around the lofty luminous dome, became the new Ottoman idiom of sultanic mosque space, breaking with the tradition of linearity and seriality of the hypo-style prayer hall and promoting instead the unifying vision of an interior crowned by a radiant dome. Hagia Sophia has always been a symbol of power. For Byzantium, it stood for imperial authority and the claim for universality of the Orthodox Church. While the Ottoman Empire, it was a symbol of the triumph of Islam over Christianity and the Ottomans over the Byzantines. In the end of the 16th century, it became a funerary Monument when Sultan Salim II chose it for his burial site and he

instigated a tradition that continued in the following centuries. As the Ottoman Empire transformed in the late 16th century from offense to defense, Hagia Sophia also became a symbol of the Orthodoxy of the Ottoman Sultan-Sunni, understanding of Islam.

The next major shift is in the 20th century, where the secularization of Hagia Sophia in 1934 from mosque into a museum transformed the monument into a symbol of the new republic. Kemal Ataturk defined modern Turkey as a secular state cut off from the memory and legacy of the Ottoman past. The most recent reconversion in July 2020 is a reversal. An erasure of the secularist, modern turkey movement of Ataturk and the concomitant erasure of Byzantine Christian memory. The reconversion has also entrapped the monument for the deeply divisive politics of the current regime and manipulation of the memory of the past in order to reinscribe violence, and re-inflict wounds rather than to heal and to rebuild.

What makes Hagia Sophia extraordinary is its immense interior volume, enormous and luminous dome raised over 56 meters above the floor. Circular motility invested in the semi-domes and the Exedra, and walls and pavement covered in polished variegated marbles and gold mosaics. The gathered this lithic and vitreous decor stirs the imagination to conjure the aesthetics of the sea and its coruscating waters. Spiritual movements in both Christianity and Islam respond to this image of the living waters of the sea.

In addition to being an architectural marvel dating back to the 6th century, Hagia Sophia has exquisite middle and late Byzantine mosaics starting with the image of the Virgin and Child in the apse.

The naturalism in the modeling of the face of Mary is effortless and fluid, contrasting with the more schematic visualizations of the Theotokos like the contemporary 9th century mosaic in Santa Maria in Dominica in Rome.

The Living Waters of the sea. The rays of light, breeze, optical reflection and acoustic reverberation are phenomena, metaphors, and materiality within Hagia Sophia, that make present the metaphysical in the sensorial. The sensorial experience becomes a threshold of the spiritual. Natural light performs a continued, diurnal, circular dance and this phenomenon visualizes the circular motility of the divine and holy wisdom, the concept to which this building is dedicated. The positioning of the windows in the drum of the dome and in the outer envelope enables the viewer to perceive its rotation in the course of the day and the year. The circular dynamic of sun rays pushes the soul to be uplifted to the divine, shapes and understanding of wisdom, Sophia.

The material shell of Hagia Sophia enacts this Divine illumination that causes matter to become a reflective, incandescent mirror. The windows in the drum of the dome and in the apses and exedra channel direct light from above, transforming sun rays into columns of light, giving a paradoxical perceptual appearance of tangible matter. The dust and smoke of incense can make the air dense and enhance this perceptual solidification of light. When rays penetrate the interior, they gradually descend to the floor, transforming its polished surface into pools of light and thereby causing a concatenated, perceptual metamorphosis of stone and light into the isomorphism of water. What in other buildings would be considered blinding glare, in Hagia

Sophia becomes an incarnation of spirit in matter. This liquescence or high reflectivity coefficient of the white Proconnesian Marbles endow Hagia Sophia with unusual aesthetic, in which the floor has higher reflectivity compared to the walls and ceiling, and this is in complete reversal of the modern building standards where the ceiling has 80% of the reflectivity, and the floor had the lowest.

The aesthetics of water also has an acoustic dimension. The polished marble and the great interior volume of Hagia Sophia of over 250,000 cubic meters produces a reverberation time of over 10 seconds in the frequencies of the human voice. And you can see here from 30 more or less to a couple of kilohertz, the reverberation time is over 10 seconds. Chant as an objective force is like sunlight. It animates the shell of the building. The interior reacts to this energy, breathing and transforming the human voice into an emanation and causing the intelligibility to be lost in the prosody, almost taste of sound and I'll play a small snippet for you that is auralized in the Acoustics of Hagia Sophia.

[Plays chant snippet]

The intangible aspects, of coruscation, reflection, and reverberation have not been recognized with a UNESCO Category 6 designation. Thus, both the aesthetics and the acoustics of this masterpiece of world architecture are not protected. The current covering with carpet subdues the luminescence of the interior and undercuts the original aesthetic, the carpet also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acoustics drying the wet sound, thus the intangible aspects of Hagia Sophia that mesmerize the senses, the play of sunlight and the reverberant acoustics are compromised in the reconversion. The space can still

be a mosque without the carpet or the veils covering the Virgin and Child. In fact, such an uncovered interior will be authentic to the first 250 years of the use of this building as a mosque.

The sea aesthetic is special to both Christianity and Islam and makes Hagia Sophia different from all the Ottoman mosques it gave rise to. While the latter play with the aesthetics of the garden, Hagia Sophia stands for the spiritual vision of the sea. That alterity needs to be recognized and cherished. Both the Byzantine and the Islamic essence of this building were recognized in the 1985 inscription of this Monument as part of the historical sites of Istanbul in UNESCO, but it is the Byzantine side that is erased in the current reconversion that happened so recently.

And I would like to finish with, filling this interior with spirituality can hinder the pitting of Christianity against Islam and enable us to share in this cultural heritage of the Mediterranean. Thank you.

—
Jean-Louis Luxen

Thank you, Bissera Pentcheva. Thank you very much. Well, this is a brilliant presentation of a masterpiece of architecture and spirituality.

That shows also the difficulty of the World Heritage List because Hagia Sophia was not listed as such and it was not recognized with Criterium 6, which is one of the problems we are going to face because it is up to the Turkish government to manage the site. And I liked the way you try to elevate the debate, showing the aesthetics, acoustics, the scientific, all the exceptionality of that building, and finally explaining that it could be a shell for spirituality both for Christian and Muslim. I think this one way to depoliticize the issue, and from a

conservation perspective, to show the interest of a better approach including with the interpretation. Well, I will not be longer because you have been very clear. I would give the floor to Shu-Mei for her presentation concerning the Meiji industrial site. Please Shu-Mei, you have the floor.

—
Shu-Mei Huang

Thank you, Jean-Louis.

Hello everyone. I'm Shu-Mei Huang from Taiwan. It's truly my honor to be here and say in this case of the Meiji site, I would like to bring the laborers' memories back to the industrial heritage. And before presenting the case, I want to be clear about how I see memory as alternation with the past. As the connection between the past, the future and among people, and according to Avishai Margalit, it can even make possible what kind of relations we can call ethical. And if we put that kind of theoretical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the Meiji site, then in remembering Kashima Island, the state narratives are strong in the description device outside. As you can see in the photo, it's very different from the former laborers. There's a big gap and it is a gap that deserves our attention. Here, I'm showing you the materials being circulated in 2015, where the nomination was made.

The OUV of the Meiji sites was explained as follows. The OUV of a group of sites is founded primarily on real demonstration of the first successful transfer of industrialization to a non-Western nation. They represent the primal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of the emergence of modern industrial Japan. And the Meiji periods mentioned here are dated from 1850 to 1910. Next to the book, I'm showing you a survey done by Japanese architectural historian and

you can see on the cover that its focus was between 1952 to 1970, and it was actually about the changing life, of living in extreme density and isolation of a tiny Island, which, however, was not included in the nomination. And if we continue to compare these materials, we can see it again. So to be precise, the Meiji sites--in terms of the Meiji sites, there are 23 components in 11 sides, across 8 areas, and 6 of the 8 areas in the southwest of Japan, as you can see on the map on the left. In particular, a lot years a lot of concentration in Yamaguchi where the former Prime Minister Abe's hotel is.

And we can see on Hashima island, the most famous case and the most contentious case, is located in area that is Nagasaki. So, among the many issues of the Meiji sites, one particular issue has to do with periodization and their selective remembering. I'm showing you a table that was shown in the book and also its official website. And here you can see how the 60-year time span between the 1850s to the 1910s was divided into three phases, including trial and error, experimentation, direct importation of Western technology, and full-blown industrialization, which obviously focuses o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And again, here I'm showing you the criteria that make the Meiji site qualify as World Heritage. But again, the issue of periodization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parts, and by leaving out the years following 1910, the issues, the historical issues of the colonialism and forced labor are removed. And that has been the argument by Japan throughout the meeting. So, even though the nomination was successful in 2015, it still draws a lot of criticism from, of course, Korea, China, but also from scholars around the world. And therefore,

there were a lot of meetings made discussing this important case and therefore there was this interpretation strategy being formulated to address this issue. And here I would like to bring your attention to the red lines:

“While the period relevant to OUV will be the primary focus, interpretation will also include important aspects of each of the history of each component part before and after the period related to OUV. So here we can see this interpretation strategy and this one was actually a document recognized and published by the Japan government trying to respond to the issue. Unfortunately, even with these documents, the current present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Meiji sites is still not satisfying. And so here,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perhaps interpretation of heritage can find inspiration from another program in the UNESCO, that is the Memory of the World.

And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bring your attention to one of these ladies, registered, related to, and actually predating the Meiji sites nomination, that is the Sakubei Yamamoto Collection. Yamamoto, who is the gentleman you can see on the right, used to be a coal mine worker at the Chikuho-machi at Fukuoka Prefecture at the age of just seven. So, in 1899, when he was just a boy, he went down to the mines with his father and his older brothers which was not an unusual pattern of virtual coal mining communities in Kyushu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nd of course, this can raise the issue of child labor. But what amazed me and a lot of us entire world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University in Fukuoka Prefecture were not hesitant to highlight this collection.

And, indeed, Yamamoto left us an amazing collection of paintings--annotated paintings that show his memory of difficult work and all the vivid scenes of hard labor that you can see in a coal mine. And this scene is a celebration held in Chikuho and I'm quoting a paragraph from the nomination document here to show you how industrialization was understood differently from the memory of the laborers. "The rapid expansion of coal mining demanded a much-increased workforce and miners during that period, recorded by Sakubei Yamamoto, included former rural workers, both men and women and their children, tradesmen, ex-convicts, and foreign laborers." So here again, I'm amazed by local governments being honest, featuring these rather darker sides of industrialization. And what's more inspiring is that this nomination actually having have been kind of a new source for social historians to study labor history during the Meiji period.

And this particular collection even traveled to Taiwan in 2018 and encouraged people in Taiwan to do the same with our own coal mining history. So here, I think this case can serve as a rather positive case that we can make something positive out of a negative heritage or in Japanese, funoisan, if we are willing to open up to different memor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So, in conclusion, in juxtaposing this MOW register of Yamamoto's connection to the Meiji sites, I want to bring laborers' voices back to industrial heritage and I think that would be a particular task to do in a global age, for us to nurture the sense of a global community. And that's to not be limited by national borders.

And also, I think what we can learn from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s that it allows for the non-state actors to ask for the role as the state actors. The local government, local universities, local

museums, and NGOs can play a role as opposed to, in the case of the Meiji sites, was the state working with business conglomerates in highlighting Meiji site. And I think if we don't fundamentally adjust the nation-states' roles in sometimes manipulating heritage politics than any alternative programs or charges can become sites of compensation or for-sale weapons in geopolitics and I believe that's not the road we would like to take as a global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
Jean-Louis Luxen

Thank you, thank you Shu-Mei for this presentation. Well, you made some conclusions so that I don't have to draw them. You insist on the fact that we need a role besides the state parties from outside and also that cross-border dialogue is important. This is very much the task of UNESCO and this helps me establish the link with the next presentation from Ali, who will present the UNESCO program of the Memorial Itineraries of Slavery. Thank you, Shu-Mei. Ali, you have the floor.

—
Ali Moussa Iye

Thank you very much for Jean-Louis. Thank you, dear colleague. I'm very happy to have the opportunity to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experience of UNESCO regarding the slave trade and slavery.

The slave trade and slavery have marked, as we all know, the history of humanity and hold some of the worst records of crime that man can commit, for greed. Far from being a minor event of the past, this tragedy is today considered to be at the foundation of our modern world by the capital accumulated during the slave trade, which was invested in the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stic companies by the first struggle against slavery which influenced the movement of Human Rights and redefined the very notion of dignity, liberty, and equality by

the disastrous, socio-economic, cultural, and psychological legacy of slavery which continue to reproduce inequality, racial discrimination and racism, and finally, by the intercultural dialogue born from this first encounter of people, which transformed the cultural heritage and identity of contemporary societies.

Surprisingly, despite this historical importance, the slave trade and slavery has been the subject of an organized silence in society, the media, in museums, in politics, in academia, and in education. The combination of two types of shame may explain this long silence. In my view, the shame of the enslavers and their descendants, for what they did to other human beings, and the shame feared by the descendants of enslaved people because of the humiliating treatment received by their parents. So, it was to break this silence that the Slave Route project was created in 1994 by UNESCO, which considered that ignoring such a major tragic historical event constituted in itself an obstacle to mutual understanding, reconciliation, and peace. The debate on the site related to slavery constitute, therefore, an interesting example of contested memories.

Progressively the sticks shift from the moral requests to the duty to remember to the political affirmation of the right to memory. So, in my view, this confrontation has passed through, you can say, three different phases. Up to the 1970s, the confrontation reached between the public authorities trying to deny or minimize this history and communities claiming its recognition. From around the 1980s to the 1990s, the debate turned around what aspect of slavery should be highlighted in museums, in monuments, in historical narrative. The achievement of abolitionists or the experience of enslaved people and

the disastrous legacy of slavery.

Toda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policy of official apologies and of revision of national narratives would be sufficient to respond to the claim of the communities of afro-descendant for reparation.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con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tangible heritage of slavery became a crucial issu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awareness concerning stakeholders about the role that site of memory can play in the process of national reconciliation, into reinforcement of social cohesion, and in the elaboration of more inclusive national narratives. Therefore, the inclusion of slavery memorial sit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pographies emerge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to fight, not only against the denial and oblivion, but also against historical distortion.

To that end, the UNESCO Slavery Project to develop a series of advocacy material including a methodology encouraging countries to formulate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identification,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ir memorial sites. The project, even launched a label called Sites of Memory associated with the UNESCO slave route to recognize and reward the efforts of local authorities and communities in preserving their memorial heritage. In order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 the label was granted through a simplified procedure by the Secretariat of the project after consultation of it i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and information of national commission to UNESCO.

Thanks to this advocacy and orientation, many countries in the Americas, Caribbean, Africa, Indian Ocean and Europe, understood

inventories of their sites and places of memory in view of building Memorial Itineraries and promote memorial tourism. Convinced that this history presents universal, ethical lessons for humanity, some of these countries have even taken the next step by expressing their wish to inscribe some of their most emblematic sites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There are today around 36 sites and properties linked to the history of slavery, which are inscribed in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list, 40 sites, which are on the indicated list but also, we have around 20 expressions on cultural practices o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ative list. In 2018, the Slavery Project published a handbook for the managers of sites and it's in areas of memory, which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erience, as well as conceptual and practical advice for the promotion of slavery-related memorial heritage. Recalling the ethical stakes of this memory, the handbook alerts the manager of sites about the Trap of Built Stone, which, of course, more importance to architectural dimension of the material remains neglecting the complex interaction betwee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creation. It also overlooks the indigenous interpretation of the cosmogonic relationship between the visible and invisible world.

In the African diaspora context, such a pitfall is damaging as it ignores both the sacred and social function included in certain elements of nature such as trees, forests, mountains, caves, lakes, and rivers. In f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ymbolic or spiritual sites, such as places of resistance, sacrifice, and worship requires a pluralistic perspective, and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memorial heritage.

Therefore, restrictive criteria on the meaning of Heritage can lead, in the case of slavery, to honor the deeds of the slavers rather than the memory of the victims. In some very touristic islands of the Caribbean and the Indian Ocean, this risk is real, as the commercial obligation to satisfy the mostly Western tourists sometimes pushes to overvalue the colonial heritage. By showing the colonial mansions and building and by forgetting to specify and distress that these residences, these fortifications, these installations were built by the enslaved people themselves. The risk would be to ignore the oral of the slavery system and therefore miss the primary objective of such sites of memory.

Furthermore, some descriptions of sites related to slavery that are inscribed in the World Heritage list commit this kind of mistake by focusing more on the technical and architectural ingenuity of the slave trafficker, overlooking the appealing condition of the enslaved people who built these properties. To avoid such trap, the UNESCO handbook invited to question the dominant criteria on the appreciation of the aesthetic, historical, and tourist value of the heritages relative to slavery.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reflecting on criteria, which take better account of the symbolic, spiritual, a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concerned population, that the concerned population grant themselves to sites and places of memory.

After more than 40 years of the applic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t is time to assess the way in which the principl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s perceived and implemented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e reflection developed through the Slave Route Project and the General History of Africa Project helped to question and challenge some Eurocentric interpretations of a certain

number of concepts, paradigms, and categorizations about heritage and universal values. This reflection highlighted the necessity to assess the African and Afro-descendant Memorial Heritage in light of the new reconceptualization and interpretation that came out of the current debate on the decolonization of humanity.

There is therefore an urgent need to engage a critical dialogue between the different actors, making, for instance, use of the tremendous multi-perspective knowledge developed through other UNESCO programs, such as the Silk Road, the general and regional histories, the Memory of the World. The concept of heritage memory and universal values need to be revisited and redefined in order to build a new common understanding, which could better accommodate the plurality of their interpretation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Jean-Louis Luxen

Thank you, Ali, for this very dense presentation. You are not only raising questions but already giving answers and proposals to face the challenges that you are exploring. I like very much the cross-border dialogue, which is at the basis of the Route. I like the way you highlight intangible dimension and the sacred natural sites that is also important in many countries but especially in Africa. I like the way the way that some sites are World Heritage Sites of the Convention, some of them, two or three intangible conventions and some that are not connections of older sites give an opportunity for all sites to improve their practice. And finally, you have the proposal of the handbook, which gives some guidelines on the way to manage your sit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ll, we are at the end of the four presentations. Now, the organizers asked us to treat four subtopics that you have received, and we just raised the first one which is a question. To what extent can each case's issue be addressed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given the political context?

The three of you did already mention it, but it will be interesting to address the question as such. I don't know who would like to take the floor or make a comment? Bissera Pentcheva, Shu-Mei, Ali? What are the limit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is is in line with what you have already been saying.

—
Ali Moussa Iye

Yes, exactly. I have already touched upon this issue and I think, of course, now there is a real will to try to accommodate this new sensibility, a sensibility for painful memories like slavery but also other painful memories. And I think what I said, we have to go beyond this aesthetics, architectural conception of what we call World Heritage. And I was always shocked when I go to visit forts and sites inscribed on the list, and when I read about how the guides, and even the authorities of the country presented these. They are so happy to present these stones, here it is, these are 18th and 16th century beautiful designs, and I said, "But you are forgetting that it was enslaved people who built these. Where are the narratives about what they suffered?" and I think, perhaps the way that the World Heritage cultural list, I mean, Heritage is conceived at the beginning really does not help to go beyond what I call the "Trap of the Built Stone."

—
Jean-Louis Luxen

I understand, we must bear in mind that the convention speaks about places. You have to need a territory and very often the building. That's

why it is so complicated to enrich the interpretation of the site with the human dimension of it. This is not only in sites connected to slavery. This is also in any temple, church or historic building, there is a tendency to forget the people, the social dimension behind it. I agree. But my question is, you cannot change the convention. How can we improve the process? The proces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advisory body in order to take into account what you are asking for. I asked it to you but it could maybe be Bissera Pentcheva or Shu-Mei may be able to answer. Please, Bissera Pentcheva.

—
Bissera Pentcheva

I have a couple of suggestions. I am a scholar and clearly my field is not cultural heritage. I'm a medievalist, but what I see is a very important aspect is how the sites are presented. And this is the place where I see academic scholars playing a role. It's how we shape the memory. And so, I would consider important that there is some oversight of how governments present the sites once they're inscribed in the list. And with the case of Hagia Sophia in the recent government site online, the website on Hagia Sophia, it had completely reduced the narrative and it does no longer allow for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ecause the entire narrative is only about Ottoman. There are two paragraphs on Byzantium and they're all negative and so there should be some oversight and this is because it shapes the memory of new generations. Then there is the other question that Ali brought about what is more than what the hand could touch. And I fully sympathize with that. And in fact, the way we have looked at architecture, we have looked in the shell but we have not recognized what it contains and this reminds me of a very important text of Heidegger, *The Thing*, where he says modernity is about the separation, that we look at the material of the vessel but not what it actually does which is to hold,

so it is in gathering that is essential and plural narratives are about in gathering these diverse voices.

And so, when I started working on Hagia Sophia, even within my academic field, the fact that I talked about Spirit was questioned at the beginning because it's intangible. How can you speak about something that is intangible? That is glitter or reverberation? It took a decade to convince the field that that's an important aspect. It's about recognizing spirit in the space. So, my bottom line is that they should be oversight in the way the sites are presented to the public because once in a monument is inscribed, and I speak from the point of view of Hagia Sophia. It has both local stakeholders but it also has international stakeholders, and the narrative that is presented needs to speak to all parties. And here, we have a conscious change and a conscious erasure that had happened 25 years after the inscription of the monument. And we should guard against that because this is not a new site, it's an old site that from its inscription had plurality of voices and now it's reduced to one. And it's not just the Byzantine, it's not just the Christian, it is also the secularist identity of Turkey which is also pitted against the Islamic identity of Turkey. And I find that this flattening of the discourse is dangerous and this wher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could step in and a website that everyone could access could be centered.

—
Jean-Louis Luxen

I think academics have a responsibility in it because you cannot ask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o do so, but you can from outside some people who have a plural approach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regions if they have, you know, it's very much like when you have 10 Nobel Prize people who take a stand, all the governments

are listening to it because it has some weight in the public opinion. I believe we should try to find such a kind of intervention where academics could play a role, but I don't know. Shu-Mei, do you want to intervene on that point? Otherwise, we will move to the next one, please.

—
Shu-Mei Huang

Well, I totally agree with what Bissera Pentcheva just said and I just want to add briefly about the fact that it's always the contemporary community, national states interpreting the past. And we always have to be careful and be aware of the fact that, in the longer term, borders change all the time. People travel, people interact all the time and I think it's extremely unfortunate if we limit our definition of heritage on a rather short time frame, that we are sharing and unfortunately are always, most of the time, dominated by the national state. At least in the cas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
Jean-Louis Luxen

If I understand correctly, the objectives of the World Heritage Program that is with the leaders Christina Cameron, Francisco Bundoran, he really wants to look for a way for civil society, universities, and other voices to be able to express their opinion so that we could go beyond nationalistic presentation by your state party and have a more global and more diverse presentation of the site. I think this is one of the ways we could try to find practicality, given the legal constraints of the convention. One way to move forward.

So, shall we move to the next subtopics. The next question is, what interpretive approaches would you recommend for the treatment of different or conflicting memories? How to deal with conflicting memories? Not an easy question. Who wants to take the risk to give

an answer?

—
Shu-Mei Huang

Maybe I can start.

—
Jean-Louis Luxen

Yes, please do.

—
Shu-Mei Huang

I always find dialogue much more inspiring than just supplying the conclusion or definition. And lately, I came across the Underwater Heritage. It's also part of a UNESCO program. Dealing with the First World War cases and still promoting the mutual understanding across the community. The program invited young people, high school students from England, from France, from Germany to learn about this underwater heritage and to learn about the past. I found that kind of program really inspiring and empowering. So instead of us continuously supplying the future generation with what we used to believe, we created occasions and adequate materials to encourage conversation. And I think, in that kind of conversation, we also don't want to... These people, these participants can feel comfortable sharing their understanding and sometimes, yes, they might have stereotyped understanding before they have this dialogue, but people can feel comfortable sharing that and then, they may come to an agreement or means to understanding after having a meeting.

—
Jean-Louis Luxen

Thank you. Thank you, Shu-Mei. And any other intervention Ali or Bissera Pentcheva?

—
Ali Moussa Iye

Well, I think one it came to a very sensitive, conflicting. or painful memory, I think here, the academic research can really play a great role because it's very, difficult to reconcile something, when it comes

to painful memories or conflicting memories. It's very difficult to reconcile as such and here we really need to engage academia so that some historical, scientific truth can be brought. And I think in a certain way, that is what we did, UNESCO did, through this general collection of histories, general and regional histories because we talked about the different wars, the different conflict that happen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e fact that we established an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composed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and that would discuss, at the academic level, to transfer conflictual memories and history. So here, my serious and honest thoughts. If you were to try to find some truth or in the into account, the sensibility of the different...

—
Haeree Shim

Sorry, I think Ali's internet environment is not very good at the moment.

—
Ali Moussa Iye

Is it okay now?

—
Jean-Louis Luxen

Yes

—
Haeree Shim

You were disconnected for a bit.

—
Ali Moussa Iye

Okay sorry, I was just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that kind of being full or conflicting memories, I think it's important to begin with this academic research to bring together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different disciplines to try to find a scientific consensus about the history of those memories, and then go back to the communities to see what they can accept, what they can refuse, and how we can bring together these communities for a possible reconciliation of memories.

■
Bissera Pentcheva

And I will stop here...

■
Jean-Louis Luxen

Bissera Pentcheva, please.

■
Bissera Pentcheva

I will stop here combining both the responses of Shu-Mei and Ali. I absolutely believe in the need for dialogue and that in conversation when you have more of the stakeholders invested in this monument, to have their voice heard and that could create in the texture through which you build. Now, academic research is important, and clearly, I represent that side, but I also want to argue in a more complex way about what academic research is. What I have discovered working on Hagia Sophia is that aesthetics is an incredible threshold that actually allows large audiences to come and to communicate in the response to monuments and to build environment. And so, I would say light and sound are profound, and you can bring audiences coming from different religions with these ideas. And I find that aesthetics and phenomenology, it can be historically circumscribed phenomenology, that goes against the colonizing Western view of scholarship, which is rational discourse, which privileges mind over body. I argue for saturated phenomenon, that is sensorially experienced. And when we deal with sacred sites, whether it's a tree in the landscape or whether it's a man-made structure, we are dealing with the metaphysical and the capacity to recognize the metaphysical in the material, and that's why the senses matter.

There is a Byzantine, I'll quote here from memory, Maximus the Confessor in the seventh century says that "Language, we use to structure the affairs of our everyday life, but the sense is how we reach the Divine". So, in other words, I argue for academia that

recognizes that there is something beyond the rational and that there is something beyond language and that's where the glitter, the reverberation, all of this can play a role. And also, where my collaborative work with people who are in acoustics and digital technology had really played a role because creating the enveloping sound of Hagia Sophia, even outside Hagia Sophia, is what makes the 21st century audience connect to this monument and mean something to them. I spoke a lot, I'll stop here.

—
Jean-Louis Luxen

Thank you. Thank you, I believe it is important not to leave the two parties in bilateral dialogue. It should be broader with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people from different cultural regions so that that could help to elevate the discussion. And to reach what this mentioned by Bissera Pentcheva to address the soul of the people in the soul of the civilization.

We can move to the next subtopics if you agree. The question is, how can sites of memory contribute to the plurality of historical perspectives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What can we learn from best practice? Once again, I think that was a question Ali would be happy to deal with. Ali, is it okay?

—
Ali Moussa Iye

Yes, well, first of all I think we need to, at the country level, develop the idea of the multiple identity. But what we call the national identity is mostly in most of the country is always as like unique and monolithic national identity. But if we already develop a concep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which is plural and multiple, it will facilitate and open the door for a plural and plur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history of the country. So, I think it's by bringing, again,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same historical fact by engaging a real conversation and dialogue amongst all those different interpretations with the aim of trying to find some commonalities, beyond the differences, beyond, sometimes, the conflict of history and memory. By trying, asking everybody participating in the dialogue to find that commonality, and with this background, that a country can have a plural identity and can incorporate and accommodate that plural identity, I think that is a way of trying to solve this plurality of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good practice is what we have organized. For instance, around the issue of slavery, for instance bringing the descendants of enslaved people with the descendants of enslavers to discuss what we call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slavery. Because we realize that each camp has been really affected psychologically by this, the descendants of the enslavers were still suffering from that, but mostly they don't even question why they are afraid. For instance, why they want to live in a segregated neighborhood with only white people and by discussion, they realized that they are in fear of being reminded of those descendants of enslaved people. So, bringing them together, saying we all are victim in a certain way, of slavery, we all have psychological consequences and let's talk to see how we can heal ourselves together. And I think that's also another way of addressing this issue.

 **Jean-Louis Luxen**

I don't know whether you had opportunity to watch the webinar number one because there was a presentation of the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And I believe that what you are just explaining is a kind of approach proposed by Sites of Conscience, which can help very much in case of conflicting memories. Any other intervention from

Shu-Mei or Bissera Pentcheva?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Maybe I will move to the next point, unless you want to take the floor, Shu-Mei?

—
Shu-Mei Huang

I will be very, very brief. But I have to say that I don't want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ritage and national identity.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the creation of World Heritage is trying to overcome that. But in academia, we have this notion that we call methodology for nationalism, which assumes that the nation states are the only powerful effective social unit for analysis. I think the World Heritage Program has that potential for us to overcome these. And in the case of the Meiji sites that I talked about today, I just showed how it can be a side for social historians or communities from Korea, from China, from where the POW belongs to study their past, their shared past. If the host country is going to open it up to all the associated communities and, maybe in so doing, the host community can also obtain renewed national identity. So, that's my brief comment to this question.

—
Jean-Louis Luxen

Thank you, Shu-Mei. I propose we move to the last subtopic. The question is, how to reach an inclusiv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heritage sites. With a particular question, what role of education for the pluralistic memory of a heritage site? Maybe about education, Bissera Pentcheva could make a contribution. Bissera Pentcheva, please.

—
Bissera Pentcheva

My thoughts about Hagia Sophia continuously evolve. So I think that as a monument with international stakeholdership, I think all the international means, which means websites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they are means through which to show the pluralistic value

of Hagia Sophia and I have been inspired to develop research into the Sufi and Brethren of Purity, for instance, spiritual understanding of Islam that is very consonant with the neoplatonic aesthetic, the 6th-century neoplatonic aesthetic in Hagia Sophia and it shows a different side of Islam which is outside the immediate preview of Sunni Islam. And I agree with Shu-Mei that there are multiple histories that could be told and I find a turn to this spiritual aspect very important. So, I speak about websites, exhibitions, but I also think that activating people on the ground is essential. Being inside this building is essential, we could not reduce it to digital images and stick reconstructions. And I find that it will be important soon to be in this building and speak about the aesthetics of in this building. So I find all these channels...

We teach with love. You cannot learn new things if there is no love. And so, I find that this is the approach that we need to do and I would also say that Turkey had invested in acknowledging the Byzantine past cultural heritage, there are centers for Byzantine stud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We talking about a reversal that is so recent and it is dangerous because we're talking about the last five years, ten years.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for Byzantine Studies which was scheduled to take place in August of this year is rescheduled and changed. The location has changed from Turkey to Italy. It just shows that there is a closing that is taking place in front of our eyes. An erasure taking place in front of our eyes, which is different from an instance, a list project, which is to open up, to start a conversation, to speak about the complexity of events. Here, with Hagia Sophia, the start was there in 1934, 1935. What we're seeing is to change, is a change of what which means that monuments are living creatures. Their memory, their presence, their aura could be

enhanced or reduced. With Hagia Sophia we see the reduction. With the recent events, I'll speak also from the American point of view, that really brought the subject of race of slavery at the forefront and there is a lot of sympathy to go together and try to embrace that difficult memory. With Hagia Sophia it's just the opposite, so the sun rises and the sun sets on the other end. And as a scholar, we need to keep our voices. I'll stop here.

—
Jean-Louis Luxen

Okay, well Haeree doesn't say anything, but I am afraid we are behind schedule and unless Ali or Shu-Mei want to add a point, we could move to the question-and-answer session. I will try to reach to have a look. I have several questions. I'll choose one of them. This is for Bissera Pentcheva. In the case of Hagia Sophia, could the committee propose to consider it as heritage in danger? Or is that responsibility of each state regarding its heritage? Could this be a way to leave room for narratives different from the ones of those in power?

—
Bissera Pentcheva

The answer could only be complex because it's a complex issue. But I don't find it particularly productive to go against the state. And I think that we have other media through which to bring awareness of this process of erasure and to try to counteract it and I find building a website about Hagia Sophia that is sympathetic to the rich inheritance of both Christian and Muslim spirituality is a step forward. I also think organizing an international exhibition on Hagia Sophia in a major center will be a primary importance and motivating action on the ground. Having a day in which you have tours in Hagia Sophia that address this complexity of history will be important. Clearly in terms of how to organize on the ground, my response is the weakest right now. I'm thinking about that. With the other two means of website

and exhibition, I am much more developed in my thinking of what can happen. I believe the door has not closed and I don't want to address the conflict at the conflict, but actually to avoid the conflict and seek ways in which, as Shu-Mei said, we could have a dialogue. That's what is important.

—
Jean-Louis Luxen

Thank you in line with what you said, it is important, also, to try to prevent divergence in conflicting situation. As said, maybe there is a role that could be played by the advisory body and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t the time of the inscription, on the face of monitoring and in capacity-building. And the idea of having digital resources was also a proposal from webinar number one, because this brings new opportunities for a pluralistic approach to be heard about any specific site. Any additional point by Ali or Shu-Mei on that point? Or shall I move to the next question?

The next question is this one. In sites that deal with relatively recent history, it is difficult and tragic. Such memories are painful. What should be done for the memory while the victims are alive? And what role do you expect the Centre could play? Not an easy question. What role for the victims when they are still living? This is the first part of the question. Ali, you did mention it when you try to bring together descendant of slaves and descendant of masters. They are descendants, but now the question is about the people who did experience the difficult. Maybe this is for Shu-Mei, do you have a comment on that question? How to address those who have been experiencing the hardship of history.

—
Shu-Mei Huang

Well, in the case of adjusting indigenous people's pains, we found

it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victims themselves... They themselves can decide to what degree they want to express and get involved. There are some victims who would rather keep silent until the end and that's something to respect too. So, the point I want to make is that I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seeing the painful past as scientific knowledge to extract, and seeing the painful past as human experience to be respectful.

—
Jean-Louis Luxen

Haeree, I don't see any questions coming from YouTube. Haeree, do you have questions that you would like to submit to the panelists? I have not received from YouTube.

—
Haeree Shim

Yes, we had one question.

—
Jean-Louis Luxen

Could you read it, please?

—
Haeree Shim

Okay, there are sites of memory that deal with relatively recent history that is difficult and tragic. Such memories are painful and unforgettable. And enduring for victims and by contrast, it is uncomfortable for perpetrators and so prone to denial and oblivion. What should be done for the memory while there are victims alive, and what role to expect the WHIPIC Centre to play?

—
Jean-Louis Luxen

Yes Haeree, but this is the question I did just summarize to Shu-Mei. I don't know whether anybody wants to add a reflection on that point. Ali, maybe? Thank you.

—
Ali Moussa Iye

Yes, I was saying that it is a very challenging issue of trying to create a dialogue around a very recent painful memory. And I'm taking the

example of the Tutsi genocide in Rwanda. In Ethiopia, there was a genocide that was perpetuated by the communist regime during the 70s and 80s.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bring both together the victims and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genocide. Because of course, it's too recent. And so, I see different steps. I mean,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collect as much information and testimonies from the victims. And, surprisingly, the victims are not always interested to record what they said suffered and mostly it took them a long time to really be able to feel the testimony.

But I think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to really collect the testimony to try to show... We have a museum in Rwanda, which is moving when you go in to see what happened, You can make a museum as they did. But also, you can keep at least these testimonies for future utilization through a museum or through other ways. But for the time being, I don't know if there is any reconciliation or dialogue that can be done around that memory. I think that kind of memory needs a certain time where it will take to appease and to calm down to really begin to talk about that. And perhaps, the only way, and here, I agree with Bissera Pentcheva about this spirituality aspect dimension, if those people, the victim and perpetrator also have belief and faith, perhaps it's possible to pass through that as a burden and forgiveness purpose that may help. But it's very challenging to do something with these recent conflicts and so far, I don't think that there is a best practice. I can't really share about that.

—
Jean-Louis Luxen

Once again, I'd like to mention the experience of sites of conscience. I have seen in Latin America in Guatemala and in Brazil before Bolsonaro, and in Argentina, they did manage to bring together

victims and perpetrators. And that was quite an experience. The methodology is a very specific one. And I think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at kind of experience because it could help in some very painful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I would like to mention what did happen in Germany because the Germans did make work on their memory. And when you visit some industrial sites in Germany, where there has been forced labor during the War, they do mention it. It was not mentioned at the time of the inscription because people did not pay attention to it. But once the attention was drawn from the site manager, they did decide to mention the fact that they have been slavers. So, it takes time, it takes maybe a pressure from outside but in the long term some countries understand that it is their own interest to be more open-minded and to recognize the harm that has been done in the past. So, let's be optimistic.

I don't know Haeree, because I am afraid we are behind schedule. I would like to try to conclude now. It's difficult because, we have been mentioning so many ideas. I would like to maintain as many points that the necessity to revisit: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keep it, at the end, reach it by recognizing the different sensibility in the different culture and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This is one point.

The point that has been stressed is that it is necessary besides the state party to have a voice for civil society and the academic circle, so that you can broaden the interpretation of the site, especially using digital technology that can allow many effective exercises. And I'd like to keep one of the remarks from Bissera Pentcheva as

conclusion. It is not only a matter of rational, but we have to deal with the social, with the people, and with the soul of the people, the spirituality. This is, maybe one way to overcome the practical dispute between any heritage site. I know it is much too short, as a conclusion, because the discussion was much richer, but we have to stick to the schedule. We are already behind schedule, so I will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for your involvement. And I would give the floor to Haeree. Thank you to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Centre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The Centre that will be established at the end of this year. Good luck in your project and your work. Thank you Haeree. Thank you.

—
Haeree Shim

Thank you Jean-Louis. Thank you all so much for making this webinar all the more meaningful and interesting with your contributions and participations. I hope today's discussion will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issues that we are facing in relation to the heritage with contested memories.

And I think today's session will lead to the subject of our next webinar in May: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Next webinar will be particularly presenting interesting film works submitted from all around the world through a video contest that we have been running, speaking about dissonant heritage in their community. So, this webinar will be uploaded on our YouTube and Facebook later so you can watch it again after this event. Thanks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we hope to see you at the next webinar, in May, bye.

—
Jean-Louis Luxen

Thank you. Bye.



4회



[공모전]
세계유산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2021 Webinar Series – 4th Session

May 26 – 9AM UK, 11AM Kenya, 5PM Korea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Video Contest Winning Entries Presentation and Discussion

How does the heritage interpretation contributing to peace and reconciliation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Mercy Andeso
Kenya

<Foste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the Youths and Elders at the Mijikenda Kaya Sacred Sites>



Yousif Al-Daffaie
Iraq

<Heritage Interpretation through Community Interactions in Mosul's Old Town>



Olufemi Adetunji
Nigeria

<Rethinking the Barracoons>

Moderator



Sue Hodges
Australia

PRESIDENT
ICIP - ICOMOS



Imamur Hossain
Bangladesh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Interpretation at 'Bithangal Akhra'>



Ganesh Dutt
India

<Towards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Khandokar Mahfuz Alam
Bangladesh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Interpretation at 'Bithangal Akhra'>





[공모전]

세계유산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

좌장: 수 호지스

이코모스 해석과설명국제위원회 위원장

■
심혜리

안녕하세요.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2021 웨비나 시리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네스코 산하 WHIPIC, 즉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의 심혜리입니다. 이 행사의 주최자인 우리 추진단은 유산해석 분야의 연구와 역량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업무를 수행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가 될 예정이며, 센터는 올해 말에 공식 설립됩니다. 웨비나 시리즈는 아프리카 세계유산 기금의 협력을 받아 진행됩니다. 아프리카 세계유산 영역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죠. 저희는 이 웨비나 시리즈가 유산과 관련된 역사의 다층적 서사와 상충하는 해석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세 차례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이웃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달에 진행된 유산해석 영상 콘테스트 수상작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급하게 진행된 첫 콘테스트임에도 전 세계에서 수준급 영상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케냐, 이라크,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의 사례를 통해 유산 해석이 평화와 화해에 기여할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수상자들의 나라죠.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앞두고, 이 시리즈에서 더욱 바람직한 유산 보호를 위한 시의적절한 질문이 제기되고 유익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 호지스

오늘의 사회자인 수 호지스 씨를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수는 호주 멜버른에서 온 사학자로, 역사와 유산 해석, 지속 가능한 관광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이코모스 해석과설명국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자문위원회 위원이며, 로무알도 델 비앙코 재단 국제 전문위원입니다. 수는 제40회, 41회 세계유산위원회 초청 전문가 연사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터프리테이션 오스트레일리아 회장이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호주 ICOMOS 집행위원이었습니다. 이제 사회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수. 시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헤리. 오늘 사회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요. 웨비나 시리즈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한국 유네스코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ICOMOS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 30~40년 동안 문화유산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됐죠. 상충하는 역사, 혹은 갈등의 역사라 불리는 경우가 있고, 유산 공동체들의 발언권과 관련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처럼 다양한 목소리와 기억들이죠. ICOMOS에서 이 모든 문제를 이론적으로 살펴봅니다. 유네스코에 조언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고요.

오늘은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유산은 대단히 이론적일 수 있는 분야지만, 이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가 유산 해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부분에서 큰 공을 세웠고 이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평화와 화해라는 주제는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대회 수상자들을 모시고 유산 해석이 세계 평화와 화해를 촉진할 방법에 관한 이 어려운 문제를 각 공동체에서 어떻게 다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곧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많은 분이 엄청난 갈등이나 트라우마를 겪는 등 큰 어려움에 부딪친 유산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유산을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길 방안, 각 지역공동체들에 변화를 가져올 수단입니다.

모든 수상자와 참가자들이 프로젝트에 쏟은 열정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헤리 씨가 말했듯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았지만 정말 훌륭한 참가자들이 있었고, 단기간 내에 영상을 제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하고 헤리에게 순서를 넘겨 수상자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 심헤리

감사합니다. 그럼 수상자들의 소개와 발표를 듣고 수상작 감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머시부터 시작할까요?

■ 머시 안데소

안녕하세요? 머시 안데소입니다. 케냐 국립박물관 연구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쁩니다. 저는 케냐 지역공동체에서 여러 연구 활동을 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1등을 하게 돼 영광입니다. 모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메시지가 전달될 거로 믿고, 우리는 각자의 공동체에서 이 유산들과 세상의 많은 유산과 관련된 지식을 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헤리

네, 이제 머시의 영상을 틀 건데요. 시간 제약 때문에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줄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상하시죠.

■ 영상
젊은이들의 평화와
화해 증진 - 머시 안데소

케냐의 세계유산.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의 유산해석을 통한 평화 이룩. 유산해석을 통해 미지켄다족 사회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려는 노력. 청소년들을 '문화 산책'에 데려가는 어른들. 카야 숲의 악령과 주술에 대한 미신과 오해를 밝히는 게 문화 산책의 목적. 숲에 들어가기 전에 점술 등의 의식을 치르는 장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어른신.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나뭇가지를 드는 의식.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지은 전통 움막.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바구니 세공. 평화와 통합을 증진하는 활동. 공동체의 평화와 통합 증진을 위해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도자기 공예. 새들의 울음소리는 평화의 징후.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에서 민요를 부르고 전통 악기를 연주하며 남녀노소가 함께 추는 전통춤.

■ 심헤리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회에 세대 문제가 있는데, 자연유산 해석을 통한 세대

간 화해와 통합의 좋은 본보기가 담긴 영상이네요. 이번엔 유시프를 만나볼까요? 유시프, 소개해주시겠어요?

—
유시프 알 다파이

감사합니다, 헤리. 주최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즐거웠고, 여러분과 함께해 영광입니다. 헤리가 말한 것처럼 제 이름은 유시프고 노팅엄트렌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2019년에 과정을 시작했고, 올해 학위를 받길 바라고 있습니다. 연구 조교로 일하면서 요르단과 이라크의 문화유산에 관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노팅엄트렌트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교도들의 멋진 노력을 조명하고, 이 재건의 이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대 풍습의 현장에 남은 역사적 증거와 대조적으로 재건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목표고, 또 이 영상을 통해 이런 전통적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
심헤리

네, 감사합니다. 이제 유시프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
영상
모술 구시가지 -
유시프 알 다파이

유산은 기억을 통해서만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모술의 구시가지는 2014~2017년 IS 반란 중에 대량 파괴를 겪었고, 소중한 유산들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의지로 도시가 재건되고 있습니다. 이 의지 덕분에 상점 주인, 장인, 지식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평화와 화해를 찾아, 풍습을 되살려 유산을 복원하고자 돌아왔습니다. 평화를 위한 불굴의 정신이 전후의 삶을 지배했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문화와 풍습, 전쟁과 평화 등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채로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경우 유산 해석은 공유된 기억, 풍습과 상호작용의 보존과 기록, 서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토론과 인터뷰를 촉진하고 인지도를 높여 공간 기억을 유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구시가지와 그 안에 있는 유산을 아깁니다. 이 영상이 그 정신을 되살리죠. 폐허 속에서 삶을 찾는 모술 주민들의 건투를 빕니다.

—
심헤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유형 유산과 나란히 살아가는 사람들

의 일상을 볼 수 있었고, 기억과 유산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남겼죠. 감사합니다. 이제 올루페미를 만나보겠습니다. 올루페미, 자기소개와 작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올루페미 아데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제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주신 WHIPIC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이지리아인 올루페미 아데툰지이며 현재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호주 뉴캐슬대학교에서 연구 조교로 일하며 기후 재난 위험이 세계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전문 지식을 발휘할 수 있었고, 유산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아프리카와 호주, 세계 각지의 공동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룰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은 노예 활동이 있었던 바다그리의 가치를 통해 공동의 평화와 공존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생계를 개선하고 향상해 지역 발전을 가져오는 방식이죠. 감사합니다.

심헤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죠.

영상 바라쿤을 다시 생각하기 - 올루페미 아데툰지

막사를 뜻하는 ‘바라쿤(barracoon)’은 붙잡혀 온 노예를 가둬두던 수용소입니다. 노예 출신 노예상, 세리키 윌리엄스 압바스를 위해 지은 건물로 지금은 바라쿤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노예들이 승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밟은 아프리카 땅입니다. 식민 정부 시절의 고통, 트라우마와 연결된 역사죠. 오랫동안 바다그리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건물들, 시설, 공간들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신을 노예 무역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로 여기는데, 이는 가족 갈등, 공동체 간 분쟁, 권력 다툼 등 많은 문제를 낳죠.

프로젝트의 목표는 노예 유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활용해 현재의 문제들과 싸우며, 평화와 공존, 다양성, 포용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활동, 학생들을 위한 유산 건**



학, 노예의 손자에게 설명을 듣는 학생들, 재단장한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방문한 학생들.

— 심혜리

감사합니다. 멋진 영상이네요. 한국에도 식민지 유산을 둘러싼 쟁점이 많은데요. 논쟁 속의 어두운 과거를 건설적인 미래로 바꿀 방법에 관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칸두카르와 이마무르의 차례입니다. 시작해주세요.

— 칸두카르 마푸즈 알람

네, 감사합니다. 칸두카르 마푸즈 알람입니다. 저는 건축가이자 유산 전문가로서 방글라데시 문화부 고고학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유산 건축물 기록과 연구 관련 프로젝트를 여러 건 수행했죠. 우리가 만든 영상에 나오는 아크라라는 권력과 종교 간 갈등이 있던 시절에 세워졌습니다. 제 파트너인 이마무르 호세인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이마무르.

— 이마무르 호세인

고맙습니다, 마푸즈 알람. 저는 이마무르 호세인이고 대학 강사이자 건축 유산 실무자입니다. 커먼웰스 장학금으로 유산 전공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제 연구는 해석 패러다임 내의 비판적 담화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영상 콘테스트가 해석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유산들의 가치를 살펴보는 핵심 동기가 됐습니다. 이 영상은 문화 지속성에 기여하는 공감을 자아내는 세심한 접근법을 통해 해석이 개입하는 방식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 심혜리

감사합니다. 이제 1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죠. 영상을 틀어주세요.

— 영상 -

방글라데시 ‘비탕갈 아크라’의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 이력 - 칸두카르 마푸즈 알람.

비탕갈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196km 떨어진 곳입니다. 갈등 속에 있던 이곳의 과거는 현재의 해석 안에서 조화를 이뤘죠. 하층 계급의 눈에 이 아크라의 역사적 맥락은 사회권력 표현의 요약입니다. 이 적대적인 맥락에서 평민들에게는 무시와 무관심이 오히려 도움이 됐죠. 이 유산은 평화와 사회 화합에 기여한 동시에 종교적 의미도 지녔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뤄진 의미

와 가치들 간 협의가 다양한 목소리를 가리고 해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적 맥락을 넘어 통합과 평등의 협의 안에서 포용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비탄갈 아크라의 해석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원 관리위원회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는 구전 역사와 전통 공연, 종교의식의 보존을 보장합니다. 비탄갈은 종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종교적 의식뿐 아니라 세속적 활동을 통해서도 그들이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경계를 넘어 평화와 위안의 서사를 전파하는 유산 이죠.

■ 심헤리

네, 감사합니다. 가네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요한 마지막 순서죠. 가네시, 나와주세요.

■ 가네시 더트

안녕하세요? 저는 가네시 더트라고 하고, 인도에서 서비스업과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영학 석사학위와 호텔경영학 학사학위가 있고, 객실 관리 직원으로 일을 시작해서 인도의 상징적인 타지마할 호텔을 비롯한 여러 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영상은 분쟁 이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유산 해석의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제 모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무력분쟁으로 파괴의 표적이 된 문화유산들에 대한 제 우려를 다루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문화유산의 광범위함을 설명했는데요. 문화유산은 기념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는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분쟁국들에서 표적이 된 문화유산들의 사례를 담았고, 보스니아 내전 이후 ‘모스타르 다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문화유산이 평화와 화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영상 말미에서는 무력분쟁으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의 해석에 기술이 혁신적으로 적용된 두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심혜리

감사합니다, 가네시. 영상을 보죠.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상 -
유산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 이룩 - 가네시 더트

분쟁으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의 복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쟁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심리적 치유뿐 아니라, 유산과 관련된 사회적·문화적 풍습이 회복되면 사회 재건에도 도움이 되죠. 더 나아가, 분쟁 후에 문화유산을 복원할 때는 취약성을 줄이고 회복력을 강화해 더 잘 지어야 합니다. 유네스코 프로젝트였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역사적인 모스타르 다리 재건이 훌륭한 본보기로, 유산 재건이 분쟁으로 충격을 입은 사회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감사합니다.

심혜리

가네시의 영상은 광범위한 분쟁 유산을 다뤘는데,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수상자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수, 이제 사회를 부탁드립니다.

수 호지스

고맙습니다, 혜리. 이 토론에서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선자분들께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각 주제를 10분씩 진행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상에서 세계유산을 통한 평화와 화해 이룩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아마 이게 더 중요할 텐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서로 난처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merci부터 시작하죠. 그 지역에서 겪는 문제가 뭐고,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머시 안데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제 영상에서는 우리 지역공동체, 특히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을 다루었습니다. 이 신성한 유산은 세대 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유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거든요. 어르신들이 이 유산의 관리인들로 여겨집니다. 젊은이들은 배제된 느낌이지요.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신성한 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뭔가 하는 건 어르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운영 체계가 부실하죠.

이 영상에서 공동체와 제가 참여해서 세대 차를 줄이고자 개발한 다양한 활동과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숲속에서 문화 사업을 하고, 함께 움막을 짓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차이를 좁히다 보면, 어르신들이 도움을 주실 때도 있고 젊은이들도 간혹 이런 지식을 배우게 되는 걸 좋아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도력을 비롯한 그 모든 것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살해 문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인들을 사악한 주술사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노인 두 분이 살해된 사건을 언론에서 크게 다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죠. 이 어르신들이 사라지면 젊은 세대에 역사가 전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처럼 우리 공동체에서 세대 차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숲속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 움막 짓기, 문화 사업을 통해서 세대 간의 유대감이 훨씬 강해질 거로 확신합니다. 분명 이 반감은 줄어들고, 결국 근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고맙습니다, merci. 그게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경우엔 현장 활동이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올루페미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영상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려 했고, 공동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 올루페미 아데툰지

머시가 설명한 요점에 말을 덧붙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세대 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게 '바라쿤을 다시 생각하기' 프로젝트에서 다루려고 했던 쟁점 중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를 보면, 미래의 희망인 이 세대가 바다그리 지역공동체의 노예 유산과 단절돼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이 유산을 기록하고, 지식 형태로 완성해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노예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더욱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룰 수단으로도 활용하고요. 자료 상태가 나빠지는 문제도 있고, 홍수 같은 환경적인 문제도 유산에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위험 요소를 검토하

고, 유산이 재해로 인한 위험을 이겨낼 방법을 젊은 세대에 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유산들이 있고,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죠. 이로서 선대가 우리에게 넘겨준 유산을 미래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고맙습니다, 올루페미. 유시프의 사례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요?

—
유시프 알 다파이

질문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결정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문화적 풍습을 다루고 싶었거든요. 지금 모술에는 정부의 확정된 재건 계획이 없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모든 재건 노력은 개인들이 주도한 것이며, 정부의 자금 지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고, 이 장소와 풍습에 애착을 느끼는 이유에는 훨씬 더 심오하고 복잡한 요소와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풍습이 사라지면 역사적 중심,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과 재건 과정을 그대로 기록해, 이런 전통이 왜 중요하고 이 풍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지 조명하고자 했죠. 그게 학문과 현실의 간극을 메워줄 테니까요. 학자들은 그 장소가 지닌 의미만 연구하고 현장에서는 재건을 목표로 하는데, 저는 그들이 재건을 원하는 이유를 파악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그곳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과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 이곳의 풍습과 중요성을 영상에 담으려 했고요. 어찌 보면 무형유산을 이해하는 일인데, 아주 어려운 일이죠.

—
수 호지스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영상들의 형식이 다양한데, 파워포인트 형식의 발표를 선택하신 분도 있었고, 유시프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택했죠. 해석은 이야기하고 의미를 만드는 일인 동시에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라는 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다양한 접근법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네시도 여기에 덧붙일 의견이 있나요?

가네시 더트

유산과 연결된 다양한 서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쟁점 같은데요. 그 결과 다양한 집단이 유산을 부분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이해해 분쟁 상황에서 유산이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지죠.

수 호지스

그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다뤘고,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이마무르 호세인

우리 프로젝트의 주된 쟁점은 조화로워 보이는 이 유산의 역사가 대조적인 정체성들의 변천, 권력의 이중성, 다양한 기억이 담긴 다층적 과거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정체성 구축, 대표성, 문화 풍습에 관한 협의들이 있었는데, 이런 협의들이 해석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리는 분쟁으로 점철된 비선형적 역사 맥락에 기여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원 관리위원회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권한을 주면서 해결됐죠. 또 이 유산은 농민들에게 돌아갔고, 민초 집단에 권리를 주면서 이들의 위치가 달라졌죠. 정부의 유산 기금, 특히 고고학부의 지원으로 지금은 해석에서 종교성이 강화됐고, 역사적 의의도 인정됐습니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본래의 가치를 보존하는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화합을 통해서죠. 감사합니다.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분이 각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뤄주셨는데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자면, 각자의 공동체에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각 지역에서 해석을 통해 평화와 화해를 이룩하는 데 주된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올루페미가 시작해주면 좋겠네요.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해주셨지만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데, 긍정적인 결과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올루페미 아데툽지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왔듯이 바라쿤을 다시 생각하는 방식은 이 유산들과 장소들, 그에 대한 인식이 물질성에 국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공

동체의 일부로 보고, 공동체의 생계에 기여하는 장소들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지역에서 공동체 지도자들을 인터뷰했어요. 그중 많은 분이 조상 중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 유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관여할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유산들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의 무관심한 태도도 속고 해야 합니다. 많은 유산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데 답답한 일이지요. 노예 유산의 생존자들로서는 유산들의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유산에 대한 위험 요소를 이해하고, 이 장애물들을 다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유시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앞으로 나타날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해석을 통해서요.

■ 유시프 알 다파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을 겪은 모든 지역에서 주된 장애물은 자금 부족일 텐데, 저 같은 연구원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 예금 잔액을 전부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죠. 대개 재건 자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재건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방치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모술 구시가지는 문제의 성질이 굉장히 다차원적입니다. 알리프(ALIPH) 회장은 모술 구시가지는 아주 까다로운 경우라며, 복잡한 안보 문제 때문에 많은 비정부기구가 재건 노력을 위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정부기구와 재건을 위한 정해진 지침이 없어서 유네스코나 UNDP 같은 기구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UNDP에서 집들을 재건하려고 하면 유네스코는 그 집들이 역사 가옥이라서 건설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특성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 때문에 모술 구시가지의 상황에는 충돌되는 서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향식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상향식 접근법을 개발한다면 유산 해석의 가치가 아주 높아질 거로 봅니다. 먼저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이해하면, 재건할 때 뭘 우선시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합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제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점입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네시의 지역에서는 유산 해석을 통해서 문제들을 어떻게 다뤘나요?

■ 가네시 더트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공동체에서 평화와 화해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은 다양한 관점과 신념 체계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결과를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제약 없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장애물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죠.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고무적인 얘기네요. 머시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머시 안데소

고맙습니다, 수. 제 생각에 이 장애물과 싸울 방법은 반드시 이 유산의 역사, 특히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의 역사가 지역공동체와 젊은이들에게 계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이 신성한 유산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을 테니까요. 또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유산의 역사, 문화적 역사와 이 신성한 유산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면 어르신들이 해오신 일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생길 테니까요. 아울러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 사업, 건설, 유대감 형성 활동 등인데요. 이런 활동을 계속해서 훗날에는 지금 같은 세대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이 역사적 지식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방해 요소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이마무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마무르 호세인

장애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잡성을 띤 두 가지 양상의 연결을 약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유산들에 내재된 어려움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 둘째, 관리 관점에서 이를 화해와 운영에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이게 어려움을 낳고 사람들이 의미 있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을 하

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회적 가치나 대표성, 문화 풍습에 관한 많은 협의가 있는데, 이 의미와 가치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릴 때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속한 지역의 상황을 보면 식민 시대 후의 맥락에서 이주나 소유권 변경, 잔학 행위 등이 있었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고 중립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힘듭니다. 남방 개발도상국들은 유산 전달에서 전통적인 선형적 접근법을 따랐고, 박물관과 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만들거나 배움을 얻는 접근법으로 소통하기가 더 어렵죠. 그게 평화와 화해를 이룩하고 해석 환경에 적절한 맥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멋진 대답이네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봐주시는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대화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해서 이미 네 개를 준비했지만,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에 담긴 해석적 사고와 해석 기법을 살펴볼 건데요. 유시프부터 시작해보죠. 평화와 화해를 위해 해석이나 해석에 관한 생각을 활용하셨나요? 앞선 질문에서 이에 관한 일깨움을 주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 다큐멘터리 이면에 담긴 사유를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
유시프 알 다파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상향식 접근법에 대해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한 발 물러나야 한다는 건데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먼저 주민들과 얘기해보고,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유적지 재건의 첫 단계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이 유적지가 수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갈 당위성이 없어요. 경제적 보상이 목적은 아니지만 가장 큰 동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뭐고, 이들이 뭘 재건하려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에서 재건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한 다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술 구시가지에는 역사에 남을 만한 시장이 많고, 저마다 역사적 사연과 역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 먼저 복원된 시장들이 있는데, 사람들과 얘기해보니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상인들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면서 본격적으로 복원이 이뤄진 것입니다. 제 영상은 상향식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놀라운 노력을 조명하는 게 목표죠. 이게 모술 구시가지가 그저 폐허가 아니라 삶을 되찾았다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그렇게 한 거고요. 주민들이 폐허 속에서 삶을 찾았고, 자신들의 풍습을 지키겠다는 강한 열정으로 자비를 들여 재건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점을 알고 나면 모술 구시가지의 상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동기가 될지도 모르죠.

■ 수 호지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사람들이 유산을 지키고 싶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쉽지 않은데, 그 유산이 자신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기에 자비를 들인 거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마무르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영상을 만들면서 유산 해석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 이마무르 호세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의미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유산의 경우 그 과정이 유기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유산들과 달리 관리인들이 권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의 출발점은 해석을 별개로 볼 게 아니라 방문객들의 모든 감각적 경험과 이들이 어떤 기억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 종사하면서 유산 해석에 큐레이션 방식을 도입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물과 장소가 정체성을 구축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지니는 방법을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올루페미의 얘기를 들어보죠. 영상을 만드실 때 어떤

해석을 생각하셨나요?

—
올루페미 아데툰지

감사합니다, 수. 노예 유산과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것의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려면 유산 해석을 보는 시각은 이야기나 교육 방법, 기록, 글, 미술, 디자인, 창작의 활용을 넘어서야 합니다. 유산 해석을 확장하면 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경제·환경 문제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영상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유산 해석을 이용해 공동체에 기후변화와 재난 같은 위험을 이해시킬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이겨내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싸우는 데 필요한 실천 방법을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게 우리 영상이 보여준 한 가지 측면인데, 우리는 유산 해석이 공동체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멋진 대답이네요. 특히 기후변화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요. 우리 모두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ICOMOS의 의견에 동의할 것입니다. 다른 긴급한 문제들과 함께 현재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 아주 수준 높은 질문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문답 참여를 부탁드릴 텐데요. 오늘 제 역할을 위한 팀이 따로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말겨야 해요. 그럼 이 논의의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영상을 만드셨고, 여러분의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어느 분이 먼저 대답해주시겠어요? 제가 지목할까요? 먼저 하시죠.

—
올루페미 아데툰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한 가지 중요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제 출신 지역에만 유산 건축물 여섯 채와 18개 유산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쯤 그곳을 떠났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때가 2019년이었는데요. 우리 지역 유산의 80%가 철거됐더군요. 그 광경을 보면서 유산이 파괴된 장소들은 희망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산들을 이용해서 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공동체 내의 개발

지역들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보였습니다. 교육 영역의 개발은 없었고, 사람들이 살지도 않는 집을 짓느라 유산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간직한 장소들을 새로운 시각과 인식으로 다시 생각할 방법이 있고, 이를 이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머시의 대답을 들어보죠. 영상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고, 이 영상이 왜 중요한가요?

■ 머시 안데소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젊은이 대부분이 유산에 담긴 역사를 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유산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요. 이는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우리의 유산이고,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것이니까요. 우리는 작년에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코로나19가 유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시골로 돌아가 지내면서 밀렵으로 숲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이 유산의 중요성을, 이 신성한 유산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유산을 파괴할 이유가 없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산을 보호하면 유산이 우리를 보살펴주니까요. 유산을 돌보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유산 해석이 그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보존하는 도구인데, 예를 들면 박물관이 있죠.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가네시는 어때요?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평화와 화해 조성과 관련해서 이 영상이 왜 중요할까요?

■ 가네시 더트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출신인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수십 년간 분쟁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저는 유산이 분쟁에 희생되는 걸 목격했고, 한 유산의 손실과 관련해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게 이 영상을 만드는 동기가 됐죠.

— 수 호지스

이번엔 유시프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시프도 이 작업에 대한 열정이 크던데요.

— 유시프 알 다파이

네, 맞습니다. 저는 이라크에서 왔지만 모술 출신은 아닙니다. 이라크 전 국민이 이 일로 피해를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애국심이 아니라 인권입니다. 온라인으로나 현장에서 참여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구시가지에 대한 그들의 큰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시장이나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애착의 문제이기도 한데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죠. 제가 그들을 규정하는 건물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구시가지 전체가 그들에게 일체감을 주기 때문이죠.

제 영상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답하자면, 이라크 언론은 엄한 통제를 받고 있고 정부의 분명한 재건 계획도 없어 주민들의 이 놀라운 재건 노력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록 작업 없이도 재건을 한다는 건 자신들과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의 노력과 그 이유를 기록하는 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무르에게 묻죠. 이 영상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나요?

— 이마무르 호세인

우리가 해석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형성하는 여러 유산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게 된 중요한 동기 중 하나가 이 대회였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산을 직접 방문하진 못했지만, 많은 유산을 살펴보면서 유적지나 건축 유산들이 이 나라의 문화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았습니다. 유산마다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또 우리 유산을 방문해서 현재의 유산에 스며들

어 있는 신성함 속에 보존된 과거를 경험한 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해석적 개입이 우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 유산과 같은 확실한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데, 종교 유산뿐만 아니라 모든 유산이 마찬가지죠. 종교 유산을 보면 신도들이 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상적인 집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비종교적 활동을 통해서요.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집단적인 방식으로 문화가 지속되죠.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곧 문답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의 영상에 기초해서 유산 해석이 평화와 화해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요약해달라고 부탁드렸었죠. 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요. 먼저 어떤 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마무르의 대답을 들어보죠. 이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영상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 이마무르 호세인

저는, 유산이 물질적 구조, 환경 등 모든 물리적 속성의 측면에서 어떤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의 무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깐요. 이 맥락에서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됐고, 어떻게 유지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해석은 아주 세심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죠.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가네시의 얘기를 들어보죠. 가네시의 영상에 근거해서 유산 해석으로 평화를 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해주세요.

■ 가네시 더트

인도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는 인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종교도 다양하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하고, 정부는 물론 민간기구들도 이 부분을 살펴보고 문화 풍습들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화 풍습들이 사라져가고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의 기억에서 잊히고 있죠.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머시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 머시 안데소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주된 문제는 이 유산에 대한 지식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 범위는 아주 넓죠. 제게 권한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유산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거죠. 현재의 교육 과정 전체에서 학생들에게 유산의 중요성 등을 가르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제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 신성한 유산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다들 없다고 합니다. 유산의 역사에 대해 아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하고요.

결론은 지역공동체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산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지식과 보존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죠. 지식은 머릿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런 지식을 보유하면 세계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아는 위치에 있게 될 것입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이번엔 유시프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 유시프 알 다파이

질문 감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제 영상에서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모술 구시가지뿐 아니라 열악한 지역들을 재건할 때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게 진정한 재건의 첫 단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유적지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이런 장소의 역사와 정체성에 의미를 두는 까닭은 그들의 역할 때문이고, 사람들의 지속적인 보살핌 덕에 그 장소들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재건의 첫 단계는 사람들의 서사와 이야기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제 영상에서 그 부분이 설득됐길 바라고요.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올루페미입니다.

— 올루페미 아데툰지

감사합니다. 저는 계획적인 공동체 참여를 끝낼 것입니다. 모든 당사자가 유산

해석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한 상황에서 참여해야 하죠. 바라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공동체에서 두 가족 간의 논쟁이 있었어요. 노예와 노예상을 조상으로 둔 가족들인데 그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쪽 가족의 서사에 근거해 노예 유산을 해석했거든요.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는 계획적 공동체 참여를 허용하면 지역공동체에 평화와 공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상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두 개가 있고, 또 하나가 들어오네요. 첫 번째 질문은 꽤 복잡한데요. 질문을 천천히 읽은 다음 헤리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먼저 대답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마누 씨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유산은 반드시 “해석”돼야 합니다. 큰따옴표로 표시돼 있는데 모두 질문을 보실 수 있나요? 네, 보실 수 있군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문화유산이 창조되면서 한때는 일상의 사물과 장소, 전통이었던 것들이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정체성, 거대 서사 같은 구성 형식의 의미에 따르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이견 박사과정에서 다루는 주제인데요. 모두를 위한 보편적 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수용할까요? 이 자리에서 몇몇 국가 정부를 언급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의 첫 부분에 대한 대답을 시도해보고 다른 분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 창조됐으며, 뭘 표현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물과 장소, 전통이라는 개념도 소중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또 우리 회사의 팀과 함께 일하면서 자주 느끼는 건데 사람들은 모두가 뭔가를 이해한다고 가정하지만, 그 지식은 특권적 지식이거나 여러 세대가 해석 과제에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해석이 유산이나 장소에 관해 다양한 의미를 수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를 여러 공

동체, 청중과 함께 살펴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고정적 의미나 거대 서사는 없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게 이 시간의 주제죠. 본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해석과 차단돼 있어 사회를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는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이 기여하게 해 그 의미들이 변해가는 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대답이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산 해석이 함의하는 바가 뭘까요? 모두를 위한 보편적 해석이 필요할까요? 누가 대답 해주시겠어요? 생각이 다르면 저나 질문자에게 반박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
이마무르 호세인

말씀하신 대로 유산이 되는 사물과 장소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강조해야 하는지는 당국이나 관리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어찌 보면 유산은 항상 정치적이죠. 소외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오명을 쓰는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늘 있고요. 유산과 관련해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호주에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로라제인 스미스 교수가 말하는 ‘권한을 지닌 유산 담론’을 보면 유산이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상품이라는 개념에 따라 물질성을 강조하고 미학이나 우월한 원칙에 수반하는 주장들을 강조하는데요. 스미스 교수는 유산이 객관적 개념을 넘어선다고 보죠. 저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도 지각화와 관념 형성에 작용하고 사회적 의미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올루페미 아데툰지

이마무르의 의견에 덧붙이자면, 우리 지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넷이 있으면 하나를 키우려고 셋을 죽이지 않는다. 넷이 함께 자라게 한다.” 이것이 제가 유산에 적용하는 개념 중 하나인데요. 어떤 제약도 권한 부여도 없이 모든 주요 쟁점이 발달하고 표현돼야 합니다. 보통 하나의 의미를 인정하면 다른 의미들은 침묵을 강요받는데, 모든 의미가 발달하고 표현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모든 각도에서 유산을 즐길 수 있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수 호지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자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쟁점을 제기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주제죠. 한 분이 이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이죠. 국가나 정부, 의뢰인, 권력자가 원하는 이야기가 있고, 지역공동체는 다른 이야기를 원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머시가 대답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머시 안데소

네, 감사합니다. 케냐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노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정부는 이런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쟁점들이야말로 꼭 다뤄야 하고, 공동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갈등을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공동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정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는 언론의 힘이 센 편이라 모든 이야기를 사실대로 다룹니다. 신성한 숲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숨김없이 기사가 실리죠. 이쪽은 다행히 언론이 자유로워서 지역공동체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수 호지스

고맙습니다, 머시. 캐서린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산 화해라는 측면에서 공동체 참여의 효과를 어떻게 관찰해야 할까요? 공동체가 참여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아나는 거죠. 누가 대답해주시겠어요?

유스프 알 다파이

제가 해보죠. 화해 같은 무형적 정보를 위한 선형적인 모니터링 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해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추억으로 여기거나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될 수도 있죠. 논쟁에 등장하는 유산이나 화해라는 개념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든 무형적 정보이며, 이를 연구해보면 다양한 뉘앙스가 결합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폐허로 돌아가 직접 시장을 재건한 이들도 있죠. 어찌 보면 정해진 관찰 방법은 없고,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개별적 화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으로 넘어 가야 하는데요. 유튜브로 흥미로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해석이 피해자 측에서 만들어진다면, 가해자 측과의 협력이나 협의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유산 분야에서 중대한 질문으로, 현재 유네스코와 ICOMOS에서도 다루고 있죠. 누가 대답해주시겠어요? 피해자 측의 이야기가 있을 때 가해자 측과의 협의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가해자 측 서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이마무르 호세인

이 부분에서 유산 종사자들이 홍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상 공감을 끌어내는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느끼니까요. 항상 협의가 있고 이 맥락에서 결정들이 영구화될 수 있는데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명확한 해답이 없으니까요. 아주 길고 비선형적인 접근법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고,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여기서 홍보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 올루페미 아데툰지

이마무르의 대답에 덧붙이자면, 아주 복잡한 문제지만 여전히 가해자 측의 힘을 쥐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생존자들의 힘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도록 부추겨선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주어야 하죠. 그게 꼭 필요한 치유 과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맥락에 따라서는 가해자 측의 이야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유 과정을 시작하려면 생존자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 수 호지스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까요?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저는 답을 모릅니다. 대답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피해자 측 서사에 관한 추가 질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끔찍한 행위를 저지르는 원인을 이해해볼 가

치가 있을까요? 꼭 유산에 관한 질문은 아니에요. 특히 폭력과 증오, 강간 같은 행위들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얻는 게 있을까요? 이해나 치유에 도움이 될까요?

유시프 알 다파이

제가 답해도 될까요?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진행하는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시 학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종족 학살’의 도시 버전인데요. 종족 학살이 인종 청소라면, 도시 학살은 도시 청소죠. 구시가지에 대한 공격 양상을 살펴보니 모술 전체가 아니라 구시가지만 의도적으로 공격했더군요. 유산들이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사람들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우려는 계획적 공격이고, 인간성의 모든 측면을 말살하려는 시도입니다. 집들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공격한 건데, 사람들의 표정을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 재건 참여자의 비유로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모술 구시가지는 얼굴이 지워진 사고 생존자 같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도시 학살입니다. 몸의 기능은 남기더라도, 얼굴을 지워버리려는 거죠.

가네시 더트

저도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게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과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모든 영역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죠.

수 호지스

고맙습니다, 가네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제 친구의 조상이 호주 중부에서 일어난 원주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3년 전에 원주민 측 후손들과 함께하는 치유 의식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행사였죠. 이처럼 때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현되면 정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제안이 될 것 같은데요. 의식을 열 수도 있고, 권력자가 물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슬픔이든 사죄하는 마음이든, 그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한 가지 방법이 될 텐데 올루페미의 말처럼 가해자가 여전히 권력을 쥐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로즈 비주의 질문입니다.

유시프에게 하는 질문 같은데요. 지역의 풍습과 상호작용이 모술 건설이나 재건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
유시프 알 다파이

제가 대답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사실 쉬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만하죠. 일반적으로 재건 노력을 보면, 또 사람들의 풍습과 재건 계획을 보면 서로 연관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상점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집들을 재건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이게 인간 행동과 기억의 다양한 측면을 자극합니다. 집단기억과 집단 회상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집단 회상은 논쟁적 서사 중심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요. 풍습과 상호작용이 집단 회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 재건을 하러 돌아올 수 있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갈등 유산의 재건과 관련해서 꼭 연구해볼 만한 요인입니다.

—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것도요. 어제 점검해봤을 땐 걱정이 컸거든요.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 맺음말이 될 텐데요. 정말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영상들이 중요한 대화들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답과 저마다 핵심 주제가 있는 논의를 통해 잘 진행됐죠. 앞선 질문과 같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해결 방안의 시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분야에 이런 질문들에 답하려 애쓰는 수많은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 과정의 참여자로서 가장 대단해 보이는 일은 지역적 노력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세계적 규모가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통해 하나씩 찾아오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모든 분이 그 활동의 중요성을 아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수상자들은 평화에 진정한 기여를 했고,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죠. 이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 시작에 있던 중간에 있던 아마도 끝은 아닐 테지만 이 과정은 계속돼야 합니다. 오늘 논의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는데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공동체의 중요성과 상향식 방법론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해답이 꼭 전문가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죠. 공동체의 노력과 유산 전공자들과의 협력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협력이 변화를 만들 것이고, 현장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멋진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이 과정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헤리에게 진행을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헤리.

심헤리

고맙습니다, 수. 멋진 진행 감사합니다. 머시, 유시프, 올루페미, 칸두카르, 이마무르, 가네시, 영상과 열정적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참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 연구원, 박물관 직원들과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토론을 시청하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도 더욱 흥미롭고 상호적인 웨비나를 만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토론은 다음 웨비나로 이어지는데요. 다양한 기억과 유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들의 역할과 시민사회 접근법을 논의할 예정이고, 프란체스코 반다린 박사가 사회를 맡아주실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두 달 동안 두 편의 웨비나가 남아 있으니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6월에 열릴 다음 웨비나에서 다시 뵙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
Haeree Shim

Hi everyone. Our journey for the World Heritage and Multiple Memories has come to the fourth one. Welcome to the 2021 webinar series on th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hos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 am Haeree Shim from the Preparatory Office of WHIPIC,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e Preparatory office is an organizer of this event, UNESCO Category II Centre to be, carrying out researching, capacity-building, and networking in the field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Centre will be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The webinar series is also in collaboration with the African World Heritage Fund, also a UNESCO Category II Centre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in Africa. We expect this webinar series to serve as a forum for discussing multi-layered narratives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related to World Heritage.

Based on the last three expert discussions, this webinar is particularly

presenting the stories of our global neighbors. We will screen the winning entries of the heritage interpretation video contest that we ran last month. Considering that it was our first contest and a short notice, we are grateful that we received a lot of competitive videos from around the world. So today, we will discuss how Heritage interpretation contributes to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examples from Kenya, Iraq, Nigeria, Bangladesh, and India, the countries of the winners. Fac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next year, I think this series will raise timely questions and provide good discussions for a better protection of our heritage.

And now I would like to give a brief introduction about our moderator, Miss Sue Hodges. Sue is a historian from Melbourne, Australia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field of history, heritage interpretation, and sustainable tourism. She is currently president of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a member of the ICOMOS advisory committee, and an international expert member of the Fondazione Romualdo Del Bianco. She was an invited expert speaker at the 40th and 41st ses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president of Interpretation Australia from 2010 to 2013, and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Australia ICOMOS from 2012 to 2015. Now I would like to turn the time over to our moderator. Welcome Sue, the floor is yours.

—
Sue Hodges

Thank you very much, Haeree. And I'd like to say how honored I am to be invited to moderate this session and thank the Korea UNESCO for their superb work in organizing these sessions.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ICOMOS is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and its whole mission in life is to preserve and conserve

cultural heritage. Recently, in the last say, 30, 40 years, some huge issues have arisen for cultural heritage. Some of them, that we're familiar with are called contested histories or histories that conflict. Other histories are about rights-based heritage, communities having their voice, multiple voices, multiple memories, as this session is titled. So ICOMOS looks at all of these issues theoretically and advises UNESCO too, which is one of its most important roles.

But tonight, we see what this means in practice. Heritage can be highly theoretical as those of us who work in heritage know. But this UNESCO Category II Centre has done some really groundbreaking work in looking at what matters with heritage interpretation, what will make a difference. And this key topic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s one of the world's most pressing issues that has been for a long time. For tonight's session, we'll hear from the people who won the competition about how they've tackled this very challenging issue of how heritage interpretation can further worl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ticularly in their own communities. And as you'll hear soon, many of the people have reported on very, very difficult heritage sites where there's been enormous conflict or trauma. And what I was particularly interested in is what was happening on the ground in these places. How do we move heritage from theory to practice and what will make a difference to these local communities?

So, I'd like also to commend all of the winners and the entrants and the enormous passion that they put into this project with very, very short time mind as Haeree has said, but we received some really wonderful entries and I'd like to thank everyone who did present their videos in such a short time. So, without further ado, I'll hand it back

to Haeree and we can hear from all of the winners of the competition. Thank you. Haeree, you're on mute, I think.

—
Haeree Shim

Okay. Sorry. Thank you, Sue. Now let us start our self-introduction for the winners, and the presentation and screening of our winners' entries. Why don't we start with you, Mercy?

—
Mercy Andeso

Hello, all. My name is Mercy Andeso. I am a research scientist at the National Museums of Kenya. I am glad to be here. I am glad to be here. I have done a number of research activities in my community back here in Kenya, and I feel honored to have won the first entry in this competition, and I'm certain that through all the videos shall pass a message to everyone and we shall continue the good work that we're doing in our communities to give knowledge about these sites and many other that are in the world. Thank you so much.

—
Haeree Shim

Okay, we're now going to play Mercy's video, so please be noted that because of the time limit, we shortened it down to a one-minute highlight video. So, enjoy.

—
**Video Clip -
Foste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Youth - Mercy Andeso**

Achieving peace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at th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 World Heritage Site, Kenya. This video seeks to demonstrate how the elders at sacred Mijikenda Kaya Forest World Heritage Site in Kenya interpret heritage to promote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the Mijikenda community in Kenya. "Cultural walks"- Elders engage youths in cultural walks to promote peace and reconciliation in the community. The culture walk aims to demystify the myths and misconceptions about the kaya forests being a place that inhibits evil spirits that the elders engage in witchcraft. A Kaya elder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 place for performing divination and other rituals before going into the kaya forest. The ritual of removing shoes and picking a twig at the first gate of the kaya. The traditional hut constructed by both the elders and the youths. Basket weaving by women, men, youths and elders. The activities used to enhance peace and unity. Pottery being undertaken by youth, women and men to enhance peace and unity within the community. Chirping of birds is interpreted as a sign of peace. Elders, youth, men and women engage in a traditional dance inside th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 as traditional songs are sang and played using traditional instruments.

—
Haeree Shim

Okay, thank you. So, every community has generational issues, and your video shows a good example for us that gener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with natural heritage interpretation. Thank you. So now let's move to Yousif. Yousif, do you want to go next?

—
Yousif Al-Daffaie

Yes. Thank you, Haeree, and thank you everyone for organizing this event that I personally really enjoyed working on the video and I'm honored to be here with everyone. So,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My name is Yousif, like Haeree said, I am a PhD researcher at Nottingham Trent University. I started in 2019, hopefully, fingers crossed, graduating this year. I'm also working as a research assistant, so I worked with multiple projects relating to cultural heritage in Jordan and Iraq. And I'm also working part-time as a tutor at Nottingham Trent University as well. So, my video tries to highlight these fantastic efforts by Muslim individuals and it tries to further understand the rationale behind this reconstruction. So, the aim is to really assess how well the construction is going in contrast to the historic evidence of the location of these generational practices. And

hopefully, it will raise awareness about any possible change in the locations of these practices.

—
Haeree Shim

Okay, thank you. Now, we're going to watch Yousif's video.

—
**Video Clip -
Mosul's Old Town -
Yousif Al-Daffaie**

It is only with memory that the continuation of Heritage is possible. Mosul's Old Town suffered from mass destruction during the 2004 through 2017 Isis Insurgency, causing its most valuable heritage sites to become wiped. However, it is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locals for a 'life' that the city is being reconstructed. This determination compelled the locals including shop owners, artisans at intellectuals to return in search of not only peace, but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f heritage through the recreation of practices. The fortitude for peace governs the post-war life in Mosul.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how do you interpret such a rich history that includes multiple layers of culture, practices, and war and peace? Heritage interpretation in this case must focus on preserving, documenting, and narrating these shared memory heritage practices and interactions through facilitating workshops and interviews and triggering special memories through cognitive maps. {speaking native language} So here's to the people of Mosul, finding life below the rubble.

—
Haeree Shim

Well, thank you, that was beautiful. We could see people's everyday life along with the tangible heritage and it left us a great question about memory and heritage. Thank you. And now, let's move to Olufemi. Olufemi, please give us the introduction of yourself and your work.

—
Olufemi Adetunji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I'm glad to be here today, and

appreciate WHIPIC for this opportunity to present my work in short time. I'm Olufemi Adetunji, a Nigerian currently based in Australia. I'm a research assistant at the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where I demonstrate my expertise in assessing and understanding climate risk disasters, risk affecting cultural heritage all around the world and I've been able to use this video to demonstrate my expertise in this field and to find a way to illustrate heritages' value and leverage it to address the wider challenges affecting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in Africa, in Australia, and most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is video illustrates a way that we could leverage the values of slave heritage sites in Badagry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our communal peace, communal coexistence that exist within this community in a way to bring about community development whereby livelihood will be improved and enhanced. Thank you very much.

—
Haeree Shim

Okay, superb. Let's watch your film.

—
Video Clip
Rethinking the Barracoons -
Olufemi Adetunji.

The barracoon, meaning barracks, which is used as a holding place for the captured slaves. Built for Seriki Abass, who was a former slave turned merchant, the building is now used as Barracoon Museum.

This is the last spot in Africa motherland where the slaves, we step home before boarding the ship. The H3 is connected to the agony and trauma of the colonial government. Over years, the members of Badagry and other neighboring towns were faced with difficulties in engaging with these buildings, facilities, and spaces. For instance, many community members regard themselves as victims and survivors of the practices of the slave merchants resulting in family rivalry, communal violence, leadership tussles, and many more.

The project is to initiate a rethinking process to the development of positive perception of the slave early trade site as well as leverage values and significant subjects decide to tackle current challenges to the communal peace, coexistence, diversity and inclusion.

What's been done.

Site tour organized for school-age children.

Students listening to narratives from a grandson of a former slave.

Students at the refurbished Point-of-No-Return.

—
Haeree Shim:

Thank you, that was great. We have a lot of issues in colonial heritage in Korea as well, and I think that video gave us a good reference for how to make a dark and contested past into a constructive future. Thank you. Now, it's your turn, Khandokar and Imamur, please go ahead.

—
Khandokar Mahfuz Alam

Okay, thank you. This is Khandokar Mahfuz Alam, I'm an architect and heritage professional, besides working at the Department of Archaeological Ministry of Cultural Affairs of Bangladesh. I have conducted several architectural documentations and research-related projects on heritage buildings based in Bangladesh for the best part of a decade. Our project which we submitted, this Akhra was established in a context when there was a tension between power and religious practices. Now, I would like to give the floor to our partner. Mr. Imamur Hossain. Imamur.

—
Imamur Hossain

Yes, thank you Mahfuz Alam. So, this is Imamur Hossain. I'm a university lecturer and also an architectural heritages practitioner. I'm also pursuing my Master's, majoring heritage, funded by the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my research focuses o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ithin the interpretational paradigm. The competition has been a key motivator for me to look at the values of different heritage sites, that shapes multivocality of meaning in their interpretation and my video summarizes how interpretation as an intervention could be done in an empathetic and sensitive approach that contributes to cultural continuity. Thank you, Haeree.

—
Haeree Shim

Thank you now, let's watch your one-minute highlight film. Please play the video.

—
**Video Clip -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Interpretation at
'Bithangal Boro Akhra',
Bangladesh -
Khandokar Mahfuz Alam,
Imamur Hossain**

Bithangal is about 196 kilometers away from the capital, Dhaka. The Video Clip - Khandokar Mahfuz Alam, Imamur Hossain site embodies a contested past that has been reconciled in the current interpretation. The historical context of this Akhra encapsulates an expression of social power for the subaltern grassroots. In this such antagonistic context, the ordinary people were thriving to have grace from being neglected and disregarded. While the site contributed in constructing peace and social harmony, it also has a spiritual meaning. The negotiations of meanings and values within the context had imposed challenges that contributed to obscuring multivocality and created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Beyond the conflict-ridden historical context in negotiating unity and equality, the inclusive atmosphere has been restored.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Bithangal Akhra prioritizes the temple management

committe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eventually ensures conserving oral histories, traditional performances, and ritual practices. Bithangal welcomes again, the interfaith audiences and influences them to be active meaning-makers in the ritual performances as well as secular activities. It significantly promoted a narrative of peace and solace beyond its boundary.

—
Haeree Shim

Okay, thank you. Now, let's watch yours. Let's play the video.

Oh, okay. Sorry. Yes, thank you. We have Ganesh here, so, last but not least, the floor is yours Ganesh.

—
Ganesh Dutt

Hello everyone. My name is Ganesh Dutt. I'm a professional from India working in hospitality and tourism industry. I hold a Master's in tourism management and a Bachelor's in hotel management. I have started my career as a room attendant and I have worked with different hotels including the iconic hotel in India, The Taj Mahal.

My video highlights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for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following conflicts. I have prepared this video to highlight my concern for cultural heritage that has been the target of destruction due to armed conflic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my own country, India. In this video, I have personally explained the wide scope of cultural heritage, which is not just restricted to monuments but is more connected to the people in their day-to-day lives. Afterwards, I have shared several examples that show culture heritage has been targeted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such as Syria, Yemen, and Afghanistan, Iraq. Thereafter, my video brings forward the point that culture heritage can actually play a positive role in building

peace and reconciliation as shown in the case of Mostar Bridge following the war in Bosnia. My video concludes with the showcasing of two projects, in which technology has been used innovatively for heritag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at have been victims of armed conflicts.

—
Haeree Shim

Thank you, Ganesh. That's great. Let's watch yours. Please play the video.

—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 Ganesh Dutt.

Recovery of cultural heritage damaged by conflict is therefore essential, not only for psychological healing of people that have become victims of conflict. It also helps in rebuilding societies through reinstating of social and cultural practices that are associated with heritage. Moreover, post-conflict recovery of cultural heritage should also strive to build back better by reducing vulnerabilities and enhancing resilience. UNESCO's project on the reconstruction of the historic bridge of Mostar in Bosnia-Herzegovina following the conflict is a shining example that demonstrate how reconstruction of heritage can serve to build peace and reconciliation in societies traumatized by conflict.

—
Haeree Shim

Thank you. Ganesh's video covered a wide range of conflict heritage and we have learnt a lot from your video. Okay, thank you. Now, we're going to have a bit of a discussion with the winners and moderator, Sue. So, Sue, do you want to proceed the moderation.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Haeree. In this discussion we have four topics that will ask different presenters to join in and discuss, people who won the competition. And we'll begin with the first topic and each topic has

10 minutes. So, we'll ask... Yes, Haeree? Okay. Each topic has 10 minutes. The first topic which will open up is the question of "What's the main issue in your video in relation to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World Heritage? And more importantly, perhaps, how have you tried to solve that problem?" So, I'm going to call on people and we have prearranged this so we're not putting people in the spotlight unnecessarily but I might begin with Mercy. How have you really looked at this issue in your... What's the problem that you're facing in your community, and how have you tried to solve it?

—
Mercy Andeso

Thank you so much, Sue, for this opportunity. In my video, and particularly in our community, in regards to th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 These sacred sites face the problem of generational gaps. These sites have been predominantly taken over by the elders. The elders are seen as the custodians of these sites. So, you find that the youths feel left out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feel left out. They don't have the knowledge about these sacred sites since they see that the elders are the ones who are supposed to be in there, they're the supposed to do everything, so you find that they have poor governance systems.

And in this video, I showed that there are different activities or ways that the community and I got involved and have come up with, to make sure that we bridge that generational gap in that, the activities, such as cultural works inside the Forest, building of the traditional huts together. As they do these activities, they create the tension between the elders and the youths... The gap is bridged and you find that, at a time when the elders want to be there, the youth would have gained this knowledge that they've been given from time to time to make

sure that there is that continuation of the leadership and all that.

Also, you find that there's the problem of the elders being killed because most of them here in Africa, they perceive gray hair as witchcraft. And I'm so sure, most of you have had that so you find that there are couple of elders who have been killed and it has been highlighted in the media and you find that that's really a problem because eliminating these elders means that the history won't be passed down to the youth. So that's quite a thing, the generation gap is quite an issue in our community and I'm certain that through these activities that they do, the cultural works, the building of the huts, cultural enterprises inside the Forest... I'm certain that as they continue, the bond will grow much stronger, and I'm sure this animosity will reduce and eventually be eradicated. Thank you so much.

—
Sue Hodges

Thank you so much, Mercy. And that was one of the things that the judges were really impressed by the actual, I guess, on-the-ground actions that really is making a difference at this time. So, thank you. I might ask Olufemi to answer the same question. What was your video trying to address and then how did you try to solve the issue in your community, Olufemi?

—
Olufemi Adetunji

It's very hard to extend the key point that Mercy illustrated. She talked about generational gap. That is one of the issues that Project Re-Bar, that's "Rethinking the Barracoons," tries to address and we observe that the younger generations that are the future and hope for tomorrow are disengaged, and not connected to this slave heritage site in the Badagry community. We try to leverage that by integrating digital

technology into it, in a way that we are able to document this heritage site and compress this in the form of knowledge and present this to the younger generations in schools in form of learning curriculum and other ways.

And also, our leverage is also to address all the border issues, affecting this slave heritage site. Some of them are challenged with object deterioration, environmental, we discussed flooding, that are impacting these heritage sites. We try to assess these heritage sites to understand the risk, the environmental risk that are impacting them and try to present the knowledge about how to make this heritage site resilient to disaster risk and present it to the younger generations. This is for the general younger generation to understand. Now, these are the heritage sites within our community and these are the ways we can address the risks facing this heritage site. By this, the heritage that was handed over by the previous generation reboot to have that continuity to the future generation. Thank you very much.

—
Sue Hodges

Oh, sorry. Thank you very much, Olufemi. What about you, Yousif? How could you tackle those issues?

—
Yousif Al-Daffaie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everyone, if you've seen the video, I elected to go more towards the kind of the documentary-style video and there's a deliberate reasoning for why I made that decision. It's because I wanted to really address these cultural practices that are taking place because in Mosul, right now, there is no set governmental plan for reconstruction. And what that means is that all the construction efforts and reconstruction efforts that you've seen in the video are individually met, there's no governmental funding.

So, there are a lot of deeper, multi-layered elements and aspects of why they are coming back to this place and why are they attached to these places, why are they attached to their generational practices. And these generational practices, if they disappear, the whole historic core, identity disappears.

So, in a way I kind of, I opted to really document what's happening right now and how they are reconstructing right now in order to maybe shed light on these practices and really highlight, why are they important? And what happens if they were to disappear? And that then will link when the gap between academia and practice happens. When academics really only study the meanings behind places and practitioners just aim to reconstruct, but I plan to understand why they want to reconstruct and open up in order to be able to tell what changed and really raise awareness about this change, that might happen with the place. So in this video, I tried to really capture this attachment to these places and what's been happening in these places and what are the practices and why they are important. And in a way it's making sense of intangible heritage which is a very difficult task.

—
Sue Hodges

Yeah.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point and you'll see throughout the different styles of the videos, some people chose more of a PowerPoint-style presentation and as you said you adopted documentary-style but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hat interpretation is also about documenting change as well as telling stories and creating meaning through your work. So, each persons approached this differently and what you've done is show how important it is to have a variety of approaches too, so thank you.

About you Ganesh, do you have something to add to this? Ganesh, I think you're on mute.

—
Ganesh Dutt

In my view, the main issue is that you are not able to tell multiple narratives linked to heritage from various perspectives. As a result, partial or limited understanding of heritage by various sections of community makes it vulnerable to target during conflict situations.

—
Sue Hodges

What about you? How did you tackle the issue in your community? And how did you try to solve the problem?

—
Ganesh Dutt

Pardon?

—
Sue Hodges

I was just throwing it to Imamura at the moment.

—
Imamura Hossain

Yeah. So, the main issue in our project was that the biography of this apparently harmonious site as a multi-layered past that encapsulates the dynamics of contrasting identities, and duality of powers, and also multiple memories. And there are negotiations in terms of social values, identity constructions, representations and cultural practices. These negotiations have contributed to the conflict to read a nonlinear historical context that obscures multivocality in interpretation. And the problem was resolved by authorizing the Temple Management Committe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s the stewards and this site has been reclaimed by 'the peasant' that also empowered, the subaltern grassroots communities and repositioned them within this domain. And the heritage endowment from the government, especially from the Department of Archaeology in the current interpretation has also augmented the religiosity and endur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So, I think this is an exclusive example to keep the traditions living and to conserve the original values, from infiltration, obviously.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so much. We'll move on to the second topic now and I think all of you have highlighted to some extent. What issues arose in your community, but one of the key questions is that you have all begun work in your communities, but what do you think the main obstacles are moving ahead in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in your community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So, I might call on Olufemi to start to try to see what you can do as you move forward. Because, of course, even though you've all done really great work so far, it needs to be continued. And again, what's rising for you think in the future that might stop some of these things, positive outcomes from happening?

—
Olufemi Adetunji

Thank you, Sue. As the video demonstrated, the way to rethink the Barracoon is to ensure that this heritage site, heritage places, their perception is not limited to the materiality of this site, in a way that we could see them as part of the community, esteemed as places that contribute to the livelihood of the community. While we were in this community, we interviewed lots of community leaders and we observed that many of them are not, despite being descendants of families of his former slaves, many of their forefathers were captured as slaves, they were not given that recognition to be integrated into how these slave heritage sites are managed. And also, we should consider this neglec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managing these heritage sites. In a way, many of these sites are deteriorating, which is annoying, which is not making the people that are survivors of these slave heritage site to be happy about the states

of the slave heritage sites. And thereby, we're trying to leverage this in a way that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risks affecting them and find a way to ensure that these obstacles are addressed going forward. Thank you very much.

—
Sue Hodges

Thank you. What about you, Yousif? How do you think you'll deal with obstacles that come up in the future with heritage interpretation?

—
Yousif Al-Daffaie

Thank you for the question again. So, I think in all post-war communities, the main obstacle is the lack of funding, and for that, we as researchers can't do much. I wish I could pay all my bank account to them, but unfortunately, we cannot do that and I think generally with the lack of funding for reconstruction, there's a disconnect between the people and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they feel like they have been suffering from neglect because of this lack of reconstruction. And in Mosul's Old Town specifically, there's a very multi-dimensional nature of the issue because, and I'm quoting the Director of ALIPH when he said, Mosul's Old Town is a very sophisticated issue because it has multilayers of security issues, which is keeping so many NGOs from actually going to the Old Town and attempting to reconstruct. And B, there is no set guidance for NGOs and for reconstruction. So there's the UNESCO, there's UNDP, and they're all kind of in conflict with each other because UNDP, for example, tries to reconstruct homes. But these are historic homes, so UNESCO is saying there are guidelines for building historic homes. So, there's kind of a conflicted narrative to what's happening in the Old Town and because of this, historic nature is very contested in that manner. And I think in that way, we need to really adopt a bottom-up approach and I think going forward, heritage interpretation becomes

very valuable when creating this bottom-up approach because we need to, first, speak to the locals and really understand what's important to them to then be able to pinpoint what are the priorities for reconstruction and maybe that will put everyone in the same page. So that's what I'm trying to really highlight in my video.

—
Sue Hodges

Thank you. Thanks so much. And on to Ganesh, how have you dealt with the problems in your community through your heritage interpretation?

—
Ganesh Dutt

Thank you for the question again. The main obstacle for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in my community, is the diversity of views and belief system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consequences and open-ended dialogue around and posting the spirit of inclusiveness can help in overcoming the hurdle.

—
Sue Hodges

Thank you. That's really inspiring. What about Mercy? How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
Mercy Andeso

Okay, thank you so much, Sue. I think the way forward for tackling these obstacles is ensuring that the history of these sites, specifically, th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 is passed on to the communities, passed on to the youth, so that when it's time for them to come into leadership, they're able to have this knowledge about these sacred sites and also it's important that the people in the community know the history of these sites, the cultural history an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se sacred sites in that when they know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m they'll have the urge to continue with what the elders have been doing. And also, they should be doing these

activities, for example, the cultural works,-, the construction, they're bonding activities, they should continue so that in future we don't face these animosities that we see between the youth and the elders. So, I think the bottom line is that this historical knowledge needs to be passed from the older genera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at I know for sure will eradicate all these obstacles.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What about you, Imamur?

—
Imamur Hossain

About the obstacles, I think we often undermine the link or bridge between the gaps of two modalities of complexities, I think. First, how we conceptualize the difficulties embedded within our heritage sites, and second, how we should align those to the reconciliation and implement in the managerial point of view. And as a result, this contributes in difficulties and people cannot have meaningful personal or social experiences. And there are several negotiations, if we can see in terms of social values or representation on cultural practices. And the problem arises when these meanings and values lead to obscuring the multivocalities. And if I contextualize from the community where I belong, in the post-colonial context, there have been migrations, changes of ownerships, or and also atrocities happened, which are very difficult and have very difficult focuses also, to interpret from a neutral point of view. In the Global South, we follow the traditional linear approaches in communication in the heritage sites. And this is also the same case in the museums and exhibitions as well. And it is often harder and difficult to connect the audiences in the meaningful meaning-making or learning approaches. And I think this results in challenges for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s, and for creating a proper context in the interpretive settings, I think. Thank you, Sue.

—
Sue Hodges

Thank you. That was great answer. I just wanted to remind everyone you use in the audiences in the different platforms, if you can leave your questions in the chat box. Otherwise, we're going to have to make some up. We've already got four here so please, everyone, contribute. We want it to be really interactive.

So, we'll move on to the third part of this discussion. It's really looking at what kinds of interpretation thinking you've used interpretive techniques in your videos so I'll begin with Yousif. Have you used interpretation and the thinking around interpretation for further peace and reconciliation? I think you've answered that very evocatively in the previous question, but perhaps you can just elaborate a bit more on the thinking behind your documentary.

—
Yousif Al-Daffaie

Alright, thank you. So, I think I'll pick up where I left off, this bottom-up approach that I was talking about, the fact that, I think, we need to take a step back. Yeah. So, my idea is that taking a step back and really speaking to the locals first and pinpoint what is important to them. So, we are guilty as people who really like history that the first step for any reconstruction is because historic sites, and to the people, this historic site might not give them an economic return and therefore they cannot justify returning to these places. And I know it's not only about economical returns, but this is the biggest incentive, if you will. So, in a way, what I'm trying to really understand is what is important to the people and what are they trying to reconstruct. And that will help understand many layers of why the reconstruction is happening in the way it is and why it is not happening in other places.

So, as the nature of Mosul's Old Town, it does have a lot of historic

markets and each historic market has its own historic story and historic function. So, some of these markets were sold quicker than the others. And the main reason for that, from speaking to these people, is that, one person came and then they motivated the other shop owner to return. So, therefore, it becomes like a domino effect of people, creates a coming-back because the others started to come back as well. So, in a way, my video is about the bottom-up approach, of course, but on the other hand, my video is trying to really highlight this fantastic effort that's been happening right now. And this might help people to really understand that Mosul's Old Town is not just a pile of rubble. They actually found life. And that's why, hence, the ending of my video. They actually did find life below the rubble, and then they actually reconstructed from their own... From their own funding, and solely because of their passion to their practices. And maybe when people see that, it will start to give a clearer idea of what's been happening in the Old Town and maybe it will incentivize some people to return as well in this case.

—
Sue Hodges

Thank you. That's really important points about the economics of the sites as well and that people might want to keep a historic site but it's so expensive, but then they funded it themselves which is really because they understood the meaning of the site to them. So that's what's so powerful about your work. Thank you.

Might move to Imamura, now, how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How are you thinking about heritage interpretation when you made that video?

—
Imamura Hossain

From our video, it can be concluded that meaningful interpreta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s needed. Also, this happened organically in our site, but most importantly, unlike other sites, the custodians did not impose any authoritative interventions here. And my point of departure from this is the interpretation should not be seen in isolation and we should consider the entire visit of the senses of our audiences are assimilated and what memories and learning a person can take with her to her home. And I think by engaging in this process and by bypassing the authoritative way of curation, meaningful interpretation can be done and how the objects and places can construct identity and the significance of its value can be promoted. And I think Mahfuz Alum, he can continue from here, the video part. If you can listen.

—
Khandokar Mahfuz Alam

Sorry?

—
Sud Hodges

Sorry?

—
Imamur Hossain

I was asking you...

—
Khandokar Mahfuz Alam

My connection is up and down here. Okay, please. Discussion again.
Sorry?

—
Imamur Hossain

We've been asked how the video shows how we have used heritage interpretation for finding peace and reconciliation in our context. Okay, I think I can take it from here.

—
Sue Hodges

Okay, thank you. We'll move on to Olufemi, have you really thought about one interpretation is when you're making that film?

—
Olufemi Adetunji

Thank you very much, Sue. I would like to add that in the context of the slave heritage site and what we demonstrated with Project Re-Bar, heritage interpretation should be viewed beyond the use of storytelling, the use of teaching methods, beyond the use of documentation, writing, art, design, and creation to portray the values of heritage sites. If we can extend heritage interpretation to influence development at the community level, and address differen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facing community. Back to the video that we sent in, we demonstrate how we can interpret heritage and leverage it to make communities understand the kind of climate and disaster risk facing their community in a way that they'll be able to know, and be able to action some practices that will make the communities resilient to disaster risk as well as resilient to climate change impact. That is one of the aspects that the video has demonstrated and considered every day as multi-pronged powers, multi-pronged influence on different aspects of the community. Thank you very much.

—
Sue Hodges

That's a great answer, particularly thinking about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it's worth mentioning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dentified climate change as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everyone in ICOMOS and I'm sure we'd all agree on that, so as well as all the other really pressing issues that are top-of-the-list at the moment. Thank you.

Sorry, I'm on mute. We've had one question in the questions and answers and it's a very sophisticated question. So, we'll ask other people to contribute to Q&A as well, and I have some of my own team from my work here. So, I'll force them to do that if they don't do

it natively on the chat line. So, anyway, I will now move on to the final question in this discussion. What were your thoughts and feelings when you produced the video? And why does your video matter? So, I'll throw this open, who'd like to answer this first? Otherwise, I'll choose someone.

—
Olufemi Adetunji

I'll go first.

—
Sue Hodges

You go first.

—
Olufemi Adetunji

Okay, thank you. What one thing that-- one key fact that motivated me to really initiate this project is I came from Nigeria. Within my community alone, we have six different heritage buildings and 18 heritage sites. And the last time I was there, it was around 10 years ago, and when I went there in 2019, I could see that 80% of these heritage sites had been demolished. And that made me think that these are places that have been destroyed, that the communities have lost hope, that can be leveraged, that can influence development within the community. When I look at the areas of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within that thing is, I could see a negative value. The community is not really developing the education sector, but all these heritage sites have really been destroyed to build houses that people don't really live in. That's why I initiated this project in which to demonstrate a way that we could have a rethink, to have a new view, to have a new perception about the places that conserve our history, and a way to leverage it, in a way to use them and a way for them to implement development at the community level. Thank you very much.

—
Sue Hodges

Thank you. What about you, Mercy? I'll call on you next. What were

you feeling when you were doing the film and why does your film matter?

—
Mercy Andeso

Okay, thank you so much. While I was doing this video, even when I was watching the video, I felt that there is need for the youth to be more engaged in matters of the community an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is World Heritage Sites. You know, most of the youths are not interested in knowing the history behind this site. So, I felt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youth to be more engaged and more to be more interested in these heritage sites because that is our future. That is our heritage. That's what we need to preserve. And that's what our future generations are going to have. And also, last year, we did a project in one of the sacred sites in Mijikenda Kaya Forest to assess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site. And we found that due to people losing their jobs and going back to the rural areas there is illegal poaching. The forests are being destroyed and the and I thought that they need to actually let the people know the importance of this sacred site and the importance to us. We just don't have to destroy them. But we need to preserve them, because in one way or another, if we preserve them, they really do take care of us. If we take care of the sites, they really do take care of us. Yeah, and I felt that heritage interpretation is a tool for conservation whereby people are given information about these sites. For example, the museums and...I felt that there is room for many more needs to be met.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very much. What about you, Ganesh? What were your thoughts and feelings when you produced the video? And why does your video matter in terms of furthe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
Ganesh Dutt

Thank you for the question again. As I belong to the state of Jammu and Kashmir in India, there has been witnessed conflict for decades since my childhood. I have seen heritage become victims of these conflicts and I can see the pain associated with the loss of one's heritage. This has been real motivation behind my video.

—
Sue Hodges

And I'll move on to Yousif, now. What's your response to this? Obviously, you're also very passionate about your work.

—
Yousif Al-Daffaie

Yeah, you're correct about that one. So, I'm originally from Iraq and while I'm not from Mosul, it directly impacts us as people, as a whole nation really. But the idea is not about nationalism or more or less about human rights. And when I was interviewing participants, whether online or in the field, I found that they do have a lot of passion about their Old Town and to them, it's not only about their markets, it's not only about their homes. It's also about their identity and their sense of attachment to these places that they cannot explain with words, really. And that's why my question when asked them, how do you identify yourself, what building identifies you? And they really failed to answer that, because to them the entirety of the Old Town identifies them.

So to answer the second part of the question of, why does my video matter is because media in Iraq is severely controlled and because there is no clear governmental plan for the reconstruction, there's not really any documentation officially about these reconstruction efforts that they are undertaking and this whole idea of them reconstructing with no documentation means that they're doing it for themselves, they do it for their whole community and that's why I think that

documenting these efforts and the reasoning behind these efforts is very valuable and currently it's not something existent, unfortunately.

—
Sue Hodges

Thank you very much. And finally, Imamur. What's your thoughts on this? How do you think your work matters?

—
Imamur Hossain

So, the competition has been one of the key motivators for us to locate the different meanings and values of different heritage sites that shape multivocality in their interpretation. And due to the COVID scenarios, we cannot go to the site but we have explored a number of sites and we learned that Bangladesh is embellished with plenty of architectural heritage sites that differently contributed in shaping, the cultural landscape of this country and they also have multiple meanings embedded within them. And we found several audiences that are coming to our site. They experience the site of the past within the present, besides to be infused within dwelling certain places within the Divine. And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I think the interpretive intervention should be done in a careful way, that it must not change the authentic fabric of the intangible sites. It's not just particularly for the religious sites, but for all sites and in my context, worshippers, they could maintain the relationship with the divine. And at the same time, they can preserve the social connection among themselves through informal, congregational activities, and secular and non-secular activities. And this confirms the cultural continuation in the collective way through civil engagement.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I've overlaid the mute button. There we go. We're about to move to the questions and answers but I've asked each of you to summarize very briefly what's the one thing that you think heritage

interpretation can do to further peace and reconciliation based on your work? How do we move into the future with it? Let's see who I choose first now, let's try... seeing you there, Imamur. How would you answer that? What's the takeaway from your work for other people working in this space?

—
Imamur Hossain

I think the most important part should be to carefully look at how the sites should retain the authenticity, in terms of its material fabrics, in terms of the settings, and in terms of all the physical attributes. But also, we need to consider how the intangibility is there and it also matters because people should maintain their social connection. It should be focused on how identity is created and how identity should be retained in the context. And interpretation should be done in a very critical and careful way.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let's call on Ganesh. Where are you? I can't see you there. Ganesh! What is the one thing you would recommend to people in the future based on your work that would make a difference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to achieving peace?

—
Ganesh Dutt

To people, I would like to say, as I'm from the country... India as a country where I'm staying, here, the people are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they have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they have different languages and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are living here. I would like to say that they should respect each other's cultures, their values, and government and civil bodies should also look into this and they should promote cultural practices which are nowadays-vanishing. Ritual, nowadays, is vanishing and people are forgetting, especially the youth.

—
Sue Hodges

Thank you. What about you Mercy?

—
Mercy Andeso

Thank you so much. For me, I think that the main issue should be passing down the knowledge about these heritage sites. That covers a lot. For example, given the mandate, I would say that they should have programs, for example, in schools where they teach the young children about these sites because we find that in the whole curriculum, there is no place where students are taught about the importance of our heritage sites, and all that. And even people in the community-- while I was working with them for example, if you ask them, "Have you been to this sacred site?" They will tell you no. "Do you know about the history of it?" They tell you no.

So, the bottom line is that these people in the community, they should be given the historical knowledge, the cultural knowledge about these sites and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em. Knowledge really sticks in your mind and I think with this, moving forward, when they're given this knowledge, they will be in a position whereby they know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this World Heritage Site.

—
Sue Hodges

Thank you, and now I'll call on Yousif.

—
Yousif Al-Daffaie

Thank you for the question. Under the risk of sounding like a broken record, I think the idea from my video and that I would like to see more about it in reconstructing, not only the Old Town, but also generally impossible communities are that the priority should always be on listening to the people first. And they should be the first step into an authentic reconstruction, because if it wasn't for them, the historic site wouldn't exist. Because the reason why we attach the

history and the identity of this place is because of their functions and people's continuity and continuation of caring about these places is what made them historically valuable. And that's why the first step for each reconstruction should be on the people's narratives and stories. And that's what I'm hoping to have achieved in my video.

—
Sue Hodges

Thank you. And finally, Olufemi.

—
Olufemi Adetunji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emphasize intentional community participation where all stakeholders will have that understanding that they matter i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heritage sites because in the community where Project Re-Bar focused on, we see the contention between two families that participated in... Their forefathers were former slaves, they were slave merchants, and that contention still lingers today because the government has interpreted this slave heritage site based on the narrative of one of the families. Well, if we allow intentional community involvement where all of the stakeholders are involved, I believe it will engender peace and coexistence within the community. Thank you.

—
Sue Hodges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hat really great participation in the discussion about your films. And now we'll move on to the questions and answers, which we have so far two questions and one is coming in. But the first question is quite a complicated question. So, I will speak slowly and then try to answer it myself as Haeree's asked and then throw it open to other people.

So, Manu has said, "Today, Heritage must be interpreted in inverted polymers and you might..." Can everyone see the Q&A,

Haeree? Okay good, people can see it. So basically, the gist of the question is that cultural heritage has been invented essential and it's shifted from what were once real objects, places, and traditions in everyday life into artificial and contrived domains. Then what a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onstructing versions of meaning, such as national identity, master narrative-- this is actually a PhD-- is there, or should there be one universal interpretation for all, and how would this be accommodated in times to come? As several of the nation-states were mentioned or raised, I might answer the first part or attempt to and then throw this open to other people.

So, as a postmodern thinker, I'd say heritage has always been invented as it were, it's always a choice about what you represent. And the idea of real objects places and traditions is really valuable, but not everyone, on the other hand, understands the meaning. And certainly, I've struck this a lot in my own work and with the team that we all work with at my business that people assume that everyone understands something. And in fact, often, that knowledge is privileged knowledge or something someone may have over generations. And the task of interpretation, I believe, is trying to really start thinking about what different meanings can be held in about a site or place and then to explore that with the different communities and audiences. So, I don't believe there's a fixed meaning or a master narrative. I think there are multiple meanings which is the topic of this whole session. But by assuming an essentialist viewpoint, it sort of means that people are locked out of interpretation. They don't understand what a society is, and what we're trying to do in this work is to show the

many possible meanings and allow those meanings to change and shift and be dynamic as more people contribute.

So that will be my answer. But then, I'll throw it open to everyone here.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heritage interpretation? Should there be one universal interpretation for everyone? Who would like to try to answer that question or maybe argue with me or argue with Manu if you have different ideas, there are many ways of thinking about this?

—
Imamur Hossain

Yeah, can we?

—
Sue Hodges

Bring this question? I'll call on someone otherwise, we don't want to...

—
Imamur Hossain

Should I go?

—
Sue Hodges

Please go.

—
Imamur Hossain

Okay, so the heritage places, objects, or sites have multiple meanings and it's from the authoritarian or managerial perspective that which meaning should be highlighted. Heritage is always political, and maybe some people, or some communities are always disregarded or misinterpreted or undermined. It always happens in the heritage context. And if we see the focus power-knowledge relation and obviously, you are staying in Australia. If we see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by Professor Laurajane Smith. Yes. She discusses a lot about this. The concept of heritage is a product that has a social meaning, that has a cultural meaning as well, and it emphasizes the materiality. It emphasizes the arguments, those come with the

aesthetics and superior principles. And she says heritage is beyond objective notions and I also think that there is also a power-knowledge relation that how we perceptualize how the ideologies are there and it dictates the social media also, yes. Thank you.

—
Olufemi Adetunji

If I can add to what Imamur just said, in my community, there's an idea that says, if you have four children, you won't kill the three of children to allow them to grow. You allow the four of them to go together. That's one of the concepts I apply to everything. All the main issues are allowed to develop to be expressed without limitation, without horizons, by anyone. By the time one is authorized, those that identify with other meanings will be silenced. Let's allow all meanings to grow. Let's allow all meanings to be expressed, and we will all have a way to enjoy and take from all the angles that we can enjoy from. That's my perception about that.

—
Sue Hodges

We've got quite a few questions coming in now. So, one of the issues that Manu raised was about the role of the nation-state in heritage, and that's a very important topic. So perhaps I could ask one of the winners to talk about how you deal with, and it happens to everyone everywhere, How do you deal with a situation where a nation-state, government, a client, a powerful person wants one story to be told and the community wants another story to be told. What have people done in this situation? Mercy, you look like you might want to answer that.

—
Mercy Andeso

Yes, thank you so much. I'll give an example from here in Kenya about the occasional killings of the elders. You know, at times the government doesn't want these things to be seen, but in the real

sense, these are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So, I feel that the community is given the power to tell their stories and that's why the media highlights these stories and in our community here, I haven't seen so much of that conflict between the community wants to tell another story and the government also wants to tell another story. The media is quite powerful here so they highlight each and every story as it is. So, if there are killings here in a certain sacred Forest, they will highlight that, they will not hide anything. So, I think here we are really privileged to have free media, where they tell the stories and the community, just as they are. Yes.

—
Sue Hodges

Thank you, Mercy. I might move on to Catherine's question, how would you monitor the effects of community engagement in terms of the reconciliation of heritage sites? So, when you engage with the community how do you know whether that's going to be successful, whether it's worked? So, who'd like to answer that?

—
Yousif Al-Daffaie

I can go.

—
Sue Hodges

Thank you, Yousif.

—
Yousif Al-Daffaie

Yeah, I think there's no linear monitoring process for such an intangible parameter as the reconciliation because reconciliation can take multiple forms. It can convert into actions on the ground and it can convert to just reminiscing and ideas of actually wanting to return. So, the idea of contested heritage and the idea of reconciliation with considers are very untouchable, kind of intangible parameters that are, when you study them, there are multiple nuances attached to them. So, for example, when I spoke to diasporas, they were very

helpless, they wanted to return but they couldn't return. But in a way they made peace with the fact that that's still their home, they still want to return to it at some point, while other people took it into their hands and they actually went back and reconstructed the market. So, in a way, there's no set way to monitor it. I think there are multiple variables that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to be able to really understand the individual reconciliation processes.

—
Sue Hodges

Thank you that's an excellent answer. I'll need to move on because we don't have very long left, but we've had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come in on YouTube. And that is if the interpretation of reconciliation and peace is made from the victim's side, do you think you can really reach peace without any cooperation or consultation with the perpetrator? And that's a huge question for heritage. And it's actually a question UNESCO and ICOMOS are really dealing with at the moment in many areas. So, who would like to answer that? What if you have a victim story and then can you reach peace without consulting the perpetrator? And I'd even say further, how do you then interpret that? What do you do with the perpetrator's story?

—
Imamur Hossain

I think what the heritage practitioners, the advocacy roles come here because first, the victim side is always... He or she, the community always feels that an empathetic approach should be done and it always comes to the negotiations and how the decisions can be perpetuated in this context. And this i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because it doesn't have any straight answer and it's a very long and nonlinear approach, how the things can be reconciled, how the context should be interpreted. Yes. And I think advocacy is the first priority here.

—
Sue Hodges

Thank you. What about other people here? How would you think about answering that question?

—
Olufemi Adetunji

So, to add to what Imamur said, it's very complex, but the perpetrator still has that power. And the victim, all the survivors, their powers are dwindling. That's why we should always not put in more encourage the power, the power to get more powers and ensure that we give more powers to those, to the victims to really express themselves because it helps the healing process that need to take place. That's why the story of the perpetrator is, in some context, it's not really the important at that stage, but it's for the survivors to express themselves. For them to have to get to have that healing and to initiate that healing process.

—
Sue Hodges

What about the argument that we need to understand what drives someone to do terrible things? Does that have a place in interpretation? I'm asking everyone here.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Would anyone like to try to answer?

—
Imamur Hossain

And what was the question once again?

—
Sue Hodges

I just added to the question. What about the perpetrator's story? Is there any value in understanding what drives people to terrible behavior and terrible acts? And that's a question for not just heritage, but for everything. Particularly in terms of violence and hatred and rape. You know, what value is there in knowing, is there any point at all in telling that story? Does it help people understand or heal?

—
Yousif Al-Daffaie

Can I answer that? Can I attempted to answer? Well, in terms of the

stories that I am undertaking is basically there's a term called "urbicide" and that's the urban term of genocide. So, you have genocide, which is the ethnic cleansing and we have urbicide, which is the urban cleansing. And for that, when I studied the pattern of the attacks on the Old Town, I found that it's deliberate on the Old Town rather than the whole entirety of Mosul and that's because it encapsulates all these heritage sites. So, in a way it's a systematic attack for to really wipe the identity and wipe people's beliefs-- it's a total annihilation of the whole aspect of the human nature. Not only their homes but also their identity. It's kind of like wiping their facial expressions off them. And there's one participant that I'm going to finish with this and he said a metaphor for Mosul's Old Town is like a person that survived an accident, but his face was white and that's exactly what urbicide is. They try to wipe the face and even though the body can still be functional.

—
Sue Hodges

Thank you.

—
Ganesh Dutt

I would also like to answer this question.

—
Sue Hodges

Please go ahead.

—
Ganesh Dutt

Yeah, a role is to bring multiple viewpoints together and this requires special skills of negotiations and dialogue, and we need to engage all sections of the community.

—
Sue Hodges

Thank you, Ganesh. There was one instance. A friend of mine in Australia was responsible for massacring Aboriginal people in the central part of Australia and they held a healing ceremony three years

ago with the Aboriginal people, the descendants. And that to me, that was very powerful, it can't-- it's sometimes impossible to do that, but it really seemed to heal people, so that would be one suggestion, maybe? Ceremonies, or actually, people move from a position of power to one of sorrow or apology, or whatever you might call it. That is an option in these terrible situations, but quite often, as Olufemi said, sometimes the perpetrator still has power and is still doing that same thing.

So, we might move on now because we only have a couple of minutes. To the question from Rose Bijou, which is, I think it's to Yousif again, how do the local practices and interactions help with the construction of Mosul or the reconstruction of Mosul?

—
Yousif Al-Daffaie

I'm assuming that's for me? Well yeah, I think it's actually a very well... While it's an easy question, it's very understandable why it would be asked because generally when we look at people's reconstruction efforts and we look at people's practices and then the reconstruction plans, it's kind of not attached because how does the person speaking to a shop owner help them reconstruct their homes? But actually, this triggers multiple aspects in the human behavior and the human remembering. So there's a difference between collective memory and collective remembrance. So collective remembering highlights the contested narrative-driven history and that usually drives people to understand spaces the way they do, and through these practices and interactions, it will help trigger these collective remembering memories and then that will possibly encourage people to return a reconstruct. So, it's indirectly related, but it's a very important factor to study when it comes to reconstructing contested

heritage sites.

—
Sue Hodges

Thank you very much. I think we'll need to move on to concluding remarks, but I'd like to thank everyone for participating so well and also for keeping to time. Remember, we had that checked yesterday, and that was just, "Oh no," from a moderator's point of view. It was fantastic and I guess, the next stage of this is my own concluding remarks, and what I think is really powerful is that the videos have started a really important series of conversations, which particularly came through in the questions of answers and the discussion that everyone had about the key themes of this session. And the questions that can't be answered, in this form, or indeed, probably at all. But what I think everyone has shown is the beginnings of how we deal with these things. And it's, of course, not just the people here, but the whole of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is full of people trying to answer these questions. But what's been most profound for me in being a participant in this process is seeing how local efforts can make a massive difference. It's not on a global scale that peace will come but through local actions, one by one. And I trust that everyone participating in today's webinar will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he actions that all of our winners have made to contributing to peace, and really understanding that it's not simple, but it's a process, and that you're either at the beginning of that process in the middle, probably not at the end but it needs to be ongoing. And there were many things in today's discussion that really struck me. Oh, the dogs are barking just as we're finishing. They're locked upstairs. Apologies.

One thing that really struck me wa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and bottom-up methodology again and again. It's not from experts or dogs. It's not from experts that the answers will come necessarily, it's from community and also working with people trained in heritage. Working together in genuinely cooperative ways, that will be what changes things and changes things to people on the ground. So, on that note, I'd like to thank you all very much again for this wonderful discussion and for the huge effort you've put into this process over the last few months and I'll hand back to Haeree. Thank you Haeree.

—
Haeree Shim

Thank you. Thank you, Sue.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nderful moderating and Mercy, Yousif, Olufemi, Khandokar, Imamur, and Ganesh for your films and passionate presentation to us. I think it was a very special session in the sense that we made a discussion with not only experts like professors but also the PhD students and researchers and museum practitioners and it was a very beautiful experience. And above all the audiences who watch that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for making this webinar all the more interesting and interactive. So, today's discussion will lead to the next webinar where we'll be discussing the role of responsible institutions and civil society approach for dealing with the multiple memories and heritage under the moderation of Dr. Francesco Bandarin. Sorry. So please don't miss it. And we still have two more webinars to come in the next couple months. So, please join our journey, till the end. So, thank you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we hope to see you at the next webinar in June. Bye everyone.

—
Sue Hodges

Bye, thank you.


Haere Shim

Thank you. Bye everyone.



세계유산: 시민사회의 역할



World Heritage:
The Role of Civil Society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2021 Webinar Series – 5th Session

June 30 – 6AM New York, 12PM Paris, 7PM Seoul

World Heritage: The Role of Civil Society



Francesco Bandarin

Former Assistant Director-
General of UNESCO for Culture
Former Director of
the World Heritage Centre



Sophia Labadi

Professor of Heritage
University of Kent, UK



Cécile Duvelle

Former Secretary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ge Yildirim

OWH Sustainable
Debate Coordinator,
ICOMOS SDGs
Working Group Member

Why does the World Heritage system need to be more inclusive
and open to civil society and how to make i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PIC

Professors Office in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and the Council of WHC/ICOMOS



African World
Heritage Fund



세계유산 : 시민사회의 역할

좌장: 프란체스코 반다린
전 유네스코 문화 사무총장보

■ 심혜리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세계유산 해석에 관한 2021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WHIPIC 설립추진단의 심혜리입니다. WHIPIC은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의 약자죠. 이 행사의 주최자인 우리 설립추진단은 유산해석 분야의 연구와 역량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업무를 수행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가 될 예정이며, 센터는 올해 말에 공식 설립됩니다. 이번 시간이 다섯 번째 웨비나로 여정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네 차례 진행된 웨비나에서 세계유산과 그 갈등에 관한 시의적절한 질문들을 제기했고, 오늘 웨비나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유산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토론합니다. 이 웨비나 시리즈가 세계유산과 관련된 역사의 다층적 서사와 상충하는 해석들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더 나은 유산 보호를 위한 유익한 논의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자, 프란체스코 반다린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청중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텐데요. 프란체스코는 건축가이자 도시설계자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베네치아건축대학교에서 도시설계 및 보존 과목 교수로 재직했고, 2000년부터 10년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유네스코 문화 부문 사무총장 보좌 역을 맡았습니다. 현

프란체스코 반다린

재는 아워 월드 헤리티지 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럼 사회자를 모셔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프란체스코. 진행을 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세계 청중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보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시리즈를 주최해주신 WHIPIC 설립추진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사와 올해 아워 월드 헤리티지에서 추진하는 작업과 무척 근접한 문제를 다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2022년 세계유산협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중요한 토론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WHIPIC과 많은 시각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지난 50년 동안 이룬 중요한 성취를 넘어서게 하려는 노력도 함께하고 있죠. 또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에 훨씬 현대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특히 시민사회와의 관계 면에서요.

이제 우리가 대화에 초청한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나 우리, 여러분과 협력해온 전문가 세 분을 모셨는데 이 논의의 책임자로 생각한 분들이죠.

첫 토론자는 터키에서 오신 에게 일디림입니다. 에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보존 전문가이자 설계자로, 불과 몇 달 전에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발표한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문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터키는 물론 아워 월드 헤리티지에서도 많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7월 내내 열리는 지속 가능성 주제 토론의 조정자이기도 하죠. 에게는 시민사회 관련 문제들을 그 각도에서 다루줄 거고요.

두 번째 토론자는 소피아 라바디입니다. 제가 유네스코에서 일할 때 협력했던 분이구요. 지금은 켄트대학교 유산 과목 교수로 계시고, 국제기관과 정부들의 자문 위원으로서 인권과 젠더 문제를 다루왔는데 직접 잘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세실 뒤벨입니다. 훈련받은 인류학자인 세실은 제가 유네스코에서 일할 때 무형문화유산 과장으로 계셨기에 수년 동안 제 동료였죠. 세실은 무형문화유산 과장으로서 이 중요한 협약을 최대한 투영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전 세계 많은 공동체에서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세실에게 협약이 시민사회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방법에 관한 중요한 질문도 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토론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들의 발표를 5분씩 듣고 먼저 토론자들끼리 얘기를 나눈 다음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세계유산협약과 시민사회의 관계입니다.

이 복잡한 영역을 논하기 전에 시민사회의 정의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아주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시민사회는 아주 포괄적인 말로,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시민사회의 일원이죠. 그래서 때로는 다소 막연하고 모호한 용어인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국가나 정부 기구가 아닌 모든 걸 정의하는 말이니깐요. 정부의 정의 역시 복잡한 만큼, 정부의 관심을 대변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일반 정의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시민사회는 포괄적인 용어이며 이를 정의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죠. 여기엔 유네스코도 포함되는데, 유네스코의 정의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민사회에는 모든 민간단체가 포함됩니다. 비정부기구, 학술 기관, 지역 집단, 문화공동체, 직업공동체 등이 있죠. 유네스코의 정의도 아주 전반적이라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요. 다만 우리는 개인보다는 비정부기구와 문화공동체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개인도 시민사회의 일원이지만 임무와 작업 방식을 이미 확립한 단체들을 확인하고 다루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시민사회에서의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협약의 진보와 관련된 문제들에 해당하는 단체들 무리로서의 시민사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단체가 세계유산협약이 시민사회를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데요. 물론 협약을 읽어보면 특히 운영 지침에서는 시민사회를 언급하고 추켜세우지만, 협약의 실질적인 기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국들의 관심사에 국한된 폐쇄적 시스템으로 남아 있죠. 때로는 이게 단순한 참여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유산 보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 없게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공동체 등 세계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의 권리나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시민사회가 준비 과정이나 등재 신청 유산 관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일도 있죠. 우리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분 전에 아워 월드 헤리티지에서 중요한 인사들을 모시고 이 문제, 즉 인권에 관한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전 국제사법재판소 소장 유수프 박사와 저명한 세계유산협약 관련 법률 전문가 프란치오니 교수가 참석했고, 호주의 아나 브르돌랴크가 기획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인권과 원주민 문제를 관심 있게 다뤘는데, 협약이 공동체들의 역할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심지어 등재 신청 과정에서 그 역할과 싸우는 현상을 살펴봤죠. 이처럼 세계유산협약과 앞서 짧게 설명한 형태의 시민사회의 관계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인 내년에 이 문제가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50년이면 성공과 실패를 평가해보기에 좋은 기간이죠. 미래를 예상해볼 수도 있고요. 미래는 21세기인데요. 이 협약이 21세기의 문제들에 적합한 도구들을 개발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 측면, 즉 과정이 체계화되는 방식은 물론 정치적 측면, 즉 이 문제들에 대한 협약국들의 접근법도 쇠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크고 화급한 문제죠. 간단치 않은 문제고요. 정치체제나 국가 간 이해, 때로는 협약국과 시민사회 간에 존재하는 갈등과 직결되니까요. 우리는 이게 중립적인 사안이 아님을 압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등을 고려해야 하죠. 동시에 이 문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이 협약은 금세기는 물론 앞으로 몇십 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관심사의 이유를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설명해봤고요. 친구이자 동료인 세 전문가와 이 문제를 논해보려 합니다. 에게가 먼저 시작해주면 좋겠네요. 에게는 광범위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정부와 비정부기구의 관계와 직결된 문제죠. 에게가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5~6분 동안 견해를 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주세요.

에게 일디림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초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 세 장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말했듯 저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했고, 전직 유산 관리자로서 여러 단계의 다양한 당사자를 상대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ICOMOS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달하고 싶은 몇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보기엔 문서들이 잘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문서, 정책, 원칙을 오랫동안 개발해왔죠. 협약 자체에서 시작해 공동체와 시민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진입점이 많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제5조와 공동체의 다섯 번째 C가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설명했듯 유네스코는 협약국들을 제외한 모두를 공동체로 보고 있죠.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데요.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당사자와 교류하며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2011년에 채택한 역사도시경관 권고문에도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최근 이 문서의 10주년 행사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에는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은 다양한 주제를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관점인 사회·경제·환경, 평화와 안보라는 중요한 주제죠. 이런 주제를 다룰 도구들이 마련돼 있고요.

비국가 행위자, 즉 우리에게 대해 말하자면, 일반 시민사회라고 하죠. 국제 전문가 기구들이 중요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시민사회 조직이죠. ICOMOS 같은 저명한 기관이 있고, 아워 월드 헤리티지처럼 새롭고 훨씬 유연한 기관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산과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맞물리게

할 명확한 방법에 관한 대응을 끌어내었습니다. 저는 명확함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16번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는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항목으로 투명성과 책임, 참여 통치, 역량 구축 교육 분쟁 해결 등을 이야기하죠. 또 아워 월드 헤리티지는 시민사회 토론 주제에서 협약국 간 상호작용 중심의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논의했죠. 특히 2030 의제 채택으로 지난 5~6년간 이런 대응이 가속화됐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되는 문서죠.

또 몇 가지 중요한 생각을 모아봤는데요. 프란체스코가 말한 화급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제들입니다. 2015년 정책의 제5항에서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루지 않으면, 세계유산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위험 신호가 많습니다. 세계유산이라는 유명 브랜드가 그 성공의 피해자가 돼가고 있죠. 바람직한 방향은 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정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법규, 역량, 사회자본 및 경제적 발전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유산 시스템이나 보호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양쪽 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개발과 유산의 더욱 유의미한 주류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행동주의의 압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지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같은 청소년 기후 운동이 있고, 탈식민화와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픈소스, 크라우드소싱이 새로운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있는데, 특히 팬데믹의 영향이 컸죠. 모두 진보를 위한 중요한 진입점들입니다. 공식과 비공식으로 나누는 흥미로운 경계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와 시민사회에 상응할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론, 언론 등 비공식 영역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종 미디어에서 세계유산을 많이 다룹니다. 요즘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에서 위험에 처

한 여러 유산을 보도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달에 그런 논의나 논쟁, 논란들을 찾아보시면 흥미로울 것입니다. 세계유산 공식 시스템은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관여해야 할까요? 저는 마련돼 있는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 장치들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역도 중요하고, 국가와 지역, 그 외 관련자들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프란체스코 반다린

나중에 더 얘기하죠. 이제 소피아에게 발표를 청하겠습니다. 소피아는 한 달 간 진행된 아워 월드 헤리티지의 젠더와 다양성 토론에서 주역을 맡아셨습니다. 이 영역에서의 경험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럼 발표를 시작해주시죠.

■ 소피아 라바디

고맙습니다, 프란체스코. 저도 에게처럼 먼저 이 중요한 웨비나를 열어주신 WHIPIC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사회를 다룰 때면 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번엔 문화 다양성과 젠더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조명하고, 제가 연구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및 젠더와 관련한 세계유산 시스템의 배제적인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식론적 불평등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앨리스와 일리의 저술들에 나오는 개념이죠. 2013년 출판된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포함한 제 몇몇 출판물에서 세계유산이 공인된 유산 담론을 영구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역사 속 위대한 남자들'에 초점을 둔 유산 서사인데요. 저도 그렇고 로라제인 스미스도 그렇게 부르죠. 이 과정에서 여성과 성 소수자, 그 외 소수자들은 세계유산 서사에서 소외되거나 완전히 제외됩니다. 연구 결과, 최근 몇 년 동안 '역사 속 위대한 남자들'에 대한 집중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우려스러운 경향으로 2016년에 르 코르뷔지에 건축물이 연속유산 목록에 등재된 것이 한 예입니다.

두 번째는 반다린 박사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권리자들의 입장에서 전통

관습에 대한 인정이 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 아토스산과 성스러운 섬으로 꼽히는 일본 오키노시마가 떠오릅니다. 특히 불편한 부분은 유산의 여성 배제에 관해 권리자들과 협의했는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에서의 차별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죠. 유네스코에서 승인한 차별행위이자 국제기구에 의한 정당화이죠.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조명했으니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2015년에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입니다. 에게가 언급한 문서죠. 저도 작성을 도왔는데, 우리는 2003년 협약의 성과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책의 네 번째 항목은 성평등 실현에 관한 내용으로 방금 얘기한 쟁점들을 다루는데, 특히 아토스산의 사례와 관련이 있죠. 요구 사항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 체계에 대한 접근이나 참여와 관련한 관행 등 세계유산 내에서의 성별에 근거한 전통 관습은 성평등을 준수하는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내 모든 집단의 완전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성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겠지만 꼭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중요한 성명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마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긍정적 조치들은 최근 아워 월드 헤리티지 사업의 하나로 열린 젠더와 다양성에 관한 일련의 행사에서 이미 언급됐는데, 프란체스코와 다른 분들이 기획에 참여하셨죠. 특히 우리는 배제적 관행과 서사를 바로잡자 참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한 인식론적 불평등이죠. 참가자들은 세계유산, 특히 인도 유산들의 다양한 역사를 보여줬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살펴본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또 브라질에 있는 다양한 유산의 축제에서 행해진 문화적 표현을 다룬 참가자가 있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젠더 규범의 유동성을 강조하고 여성이 공공장소들을 정복하는 걸 도왔거든요. 우리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소외되는 걸 많이 봐왔는데, 이 참가작은 유무형 유산의 간극을 잇는 더욱 포용적인 접근법이 이 배제적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무형유산을 언급하셨는데, 세실의 얘기를 들어보아야겠네요. 세실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과장이었죠. 세실이 시민사회 쟁점을 다루는 전혀 다른 접근법인 무형유산협약에 대해 더 얘기해줄 것 같네요. 이 협약이 완벽하진 않지만 확실히 다르니까요. 세계유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무형유산에서 영감을 얻곤 하죠. 시작해주시죠.

세실 뒤벨

네, 2003년 협약을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협약은 원래 공백을 메우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유산의 성격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요. 이 협약이 한 발 더 나아간 영역 중 하나는 시민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통합하기 위한 부분이었죠. 그 결과, 협약의 원문과 구조는 1972년 협약에 맞춰져 있지만 2003년 협약과 운영 지침에서는 분명한 근거에 의한, 과정의 두 주요 행위자를 볼 수 있습니다. 협약에 나오는 첫 번째 주요 행위자 집단은 공동체, 집단, 적절한 개인들입니다. 협약 곳곳에서 이 행위자들을 볼 수 있죠. 이들이 무형문화유산의 생산과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유산을 물려주는 전달자이자 유산의 소유자들이죠. 많은 부분에서 이들의 역할이 있지만, 협약국들에 요구되는 건 유산의 식별, 즉 상세 목록 작성과 그들의 영토 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는 데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운영 지침은 협약국이 유산을 등재하려면 정보를 제공할 때 관련 공동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가 보호 계획에 참여하고 계획에 완전히 동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 시스템에서 이익을 취하려면 공동체와 협의해야 하며 그들이 관리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하죠. 이처럼 협약 곳곳에 공동체가 등장하고, 협약국들에 협의를 위한 조정 기구 마련을 고려해보라고 권하는 내용도 있죠.

두 번째 행위자는 제11조에 나오는데요. 특히 상세 목록 작성 과정에 비정부 기구 참여를 요구했죠. 하지만 아주 분명한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 위원회에 고문역, 고문 업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나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처럼 1972년 세계유산협약에도 비정부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기구만 원한 게 아닙니다. 무형유산 영역에서

는 다양성을 원했죠. 비정부기구의 종류뿐만 아니라 지리적 출신 배경이나 주제 전문성 면에서도 다양성을 요구했죠. 최대한 많은 사람, 많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10년 정도의 인가 과정을 마친 비정부기구가 200곳에 가깝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위원회가 200개 기구와 함께 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재 신청 관련 자문 기구는 12개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전문가 6명, 비정부기구 6곳이죠.

임기는 4년이고요. 4년 간격으로 한 지역의 한 비정부기구가 위원회의 자문 기관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이 200개 비정부기구는 분명 큰 과제를 안고 있죠. 위원회에 조언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비정부기구가 많기 때문인데, 이들은 무형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훌륭히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지만, 위원회의 임무 완수를 도울 역량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협약에서는 인가된 비정부기구들의 차이를 밝힐 방법을 계속 고찰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위원회를 확실히 도울 수 있는 기구와 지역 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구를 구분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200개 비정부기구가 포럼을 만들어 매년 최소 한 번,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회의를 하고, 위원회에 보고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업무가 아니어도 이 기구들끼리 협력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역량을 구축하죠. 이는 2003년 협약을 위해 진행 중인 과정이지만, 시민사회 참여가 성공하려면 체계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목소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아주 흥미로운 얘기네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시민사회 참여를 주목표로 삼았으니까요. 이 일의 어려움을 알고 난관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법적·정치적 장치와 과정들을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과정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협약도 시민사회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시민사회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은 회의를 시작할 때 이행 경과 보고서나 세계유산 등재 신청 논의 중에 2분 동안 주어

지는 발언권인데, 항상 결정이 내려진 이후죠.

이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된 것 같고요. 헤리 씨가 관창으시다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에게부터 시작해보죠. 포괄적인 시각을 지닌 토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년 동안 지속 가능성 과정에 몰두해오셨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세계유산에 시민사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까요? 50년 동안 시민사회 없이 잘해왔는데 왜 필요한 거죠? 우리 목표는 유산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에 전해주는 건데요. 단순히 하고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대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에게 일디림

어렵고도 쉬운 질문인데요. 쉬운 대답부터 해보죠. 시민사회가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무의미하거든요. UN 2030 의제는 소외되는 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모두 함께하지 않으면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협약국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없냐는 건데요. 세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50년 전에는 협약국들의 위치와 권한이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회가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정치경제학, 자본주의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성장과 정치·경제의 억압적 관행이 때로는 정부와 협동해 취약한 집단에 손해를 입히죠. 너무 모질게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협약국들이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계획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력에 대한 독점이나 기준 설정 등이 있죠. 그게 또 다른 측면입니다. 협약국도 없어서 안 되겠지만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죠.

또 세상의 동력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청년층이 더 중요해졌고 자원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어 자원에 대한 후대의 권리가 젊은이들의 요구에 의의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50년 뒤에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을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시민사회 참여가 이 새로운 관심사들을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소피아, 이 의견에 동의하세요? 시민사회가 지금보다 더 많이 관여하게 되면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점을 우려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소피아 라바디

네, 하지만 시민사회 참여가 꼭 갈등을 낳는 건 아닙니다. 그 용어를 언급하신 게 흥미로운데, 시스템의 개방과 민주화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 표현 같거든요. 보존과 유산 접근성을 가르는 이분법에 오랫동안 적용돼온 말이기도 하고요. 에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동의와 같은 과정일까요? 아니면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에서 본 것처럼 등재 신청 결정 작업에 공동체를 참여시켜 서사를 바꾸는 걸까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역사가 쓰인 방식이 가장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요. 영국에서 그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고, 프랑스에서도 나폴레옹과 관련해 그런 논쟁이 있었죠. 세계 역사를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참여로 등재신청서가 작성되는 방식이 바뀌면 말이죠. 우리는 시민사회가 어떤 부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관리일까요? 가치일까요? 단순히 사람들을 연관 짓는 걸까요?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다만, 저는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게 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가 한국에서 열린 만큼 해석과 시민사회 참여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한국과 한국 정부에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WHIPIC이 이 문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이 질문에는 세실이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를 수용하다 보면 시민사회에 압도돼버려서 협약국의 접근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세계유산 협약이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같은 협약국들이네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세실 뒤벨

무형유산의 경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형유산은 국가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니까요. 공동체에서 무형유산을 계승해야 지켜질 수 있으니 보호가 이들

의 몫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적인 부분이었죠. 하지만 모든 비정부 기구가 전체적으로 합의된 기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의견이 분분하죠. 공동체 내에서도 사람들이 특정 입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고요. 시민사회의 참여를 논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누가 옳은 해결책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대화와 계속되는 논의의 유익함입니다. 옳은 해결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국가는 유산을 지키고 보호할 책임의 측면에서 이런 논의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입장이나 행동이 유산 보호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집단에 근거할수록 국가에 좋을 테니까요. 너무 많은 국가가 시민사회를 반대자로 여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있고 지지도 있죠. 시민사회가 민초 단계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 국가가 유산 관리에 대한 짐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제가 유네스코 사무총장보로 재임하는 동안 세계유산, 무형유산 등 모든 협약을 파악해야 해서 모든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무형유산은 세계유산협약보다 더 갈등이 많더군요. 세계유산협약이 갈등을 더 잘 잠재웠는지도 모르지만요. 무형유산 쪽은 시민사회에 열려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았죠. 무형유산들이 거대한 논의, 혹은 갈등의 대상이 된 많은 사례가 기억 나는데요.

세실 뒤벨

하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어 유산에 유익한 논의였습니다. 갈등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좋은 지적이네요. 그럼 세실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혹은 그 과정들을 관리하셨으니까 세계유산의 과정도 아실 텐데요. 시민사회의 역할 개선을 위해 세계유산 과정 중 어느 부분을 손보면 좋을까요? 세실이라면 어느 요소를 손보시겠어요?

세실 뒤벨

예를 들면 시민사회가 보고에 참여하게 하거나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왜 유산 관리에 대한 보고를 국가만 해야 할까요? 왜

유산 관리나 공동체에서 역할을 지닌 시민사회가 먼저 국가에, 그다음으로는 위원회에 그들의 견해를 보고할 수 없을까요? 그러면 위원회가 더 큰 견지에서 상황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꽤 쉽게 진척을 이룰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가 있긴 하죠.

프란체스코 반다린

아워 월드 헤리티지의 자매기관인 월드 헤리티지 워치에서 수년 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요. 이들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서를 제시하는데,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시각을 어느 정도 대변하는 협약국들을 겨냥한 문서이죠. 하지만 제 경험상 협약국들이 이런 보고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더군요.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큰 벽을 무너뜨려야 하죠. 안 그러면 이런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아워 월드 헤리티지에도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번엔 벽에 부딪히지 않고 벽을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피아의 생각을 묻고 싶네요. 예를 들면 젠더와 다양성을 세계유산 과정에 서 더 잘 대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별, 등재 신청,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을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더 잘 대변하려면 법적·정치적 요소의 측면에서 어디를 손봐야 할까요?

소피아 라바디

정말 복잡한 질문입니다만, 운영 지침에 어떤 장치를 포함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들의 장벽 때문에 복잡한 일인데, 자문 기구의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지침에서 뭔가를 시도하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니까요. 최근에 운영 지침에 젠더와 다양성 문제가 포함된 게 무척 반가운데요. 이런 작업이 이뤄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2015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문서고 정책이 채택된 건 좋은 일이지만,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운영 지침에 포함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지침을 확실히 실천하게 할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자문 기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 기구들의 작업을 살펴본 학술 연구가 많은데, 자문 기구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전문적인 부

분에 치우쳐 있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는가 등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고 에게가 말한 민주적 원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게 세계유산협약을 당대의 과제들에 공감하지 못하도록 어떤 ‘버블’ 안에 가둔다고 봅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좋은 정의네요, 버블.

소피아 라바디

그래서 저는 자문 기구의 평가가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문 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위원회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ICCROM에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몇 년간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아주 흥미롭습니다만, 그 반대로 흐르는 경향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건데요. 자문 기구들의 권한이 줄고 신성한 원칙들이 형식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역할이 제한적이죠. 가끔 대사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협약은 협약국들의 것인데 사람들이 대체 뭘 원하는 거냐고요. 마치 국가가 시민사회나 시민사회에 대한 역할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에게 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은 2030 의제 같은 중요 국제 문서에 이 신성한 원칙들이 명시돼 있는데 세계유산협약이 2030 의제를 어떻게 따르고 있나요?

에게 일디림

협약은 문서상으로 2030 의제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문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정책, 전략, 결정, 결정 보고, 경고, 임무 보고 등 방대한 문서가 존재하니까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질문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세 실이 얘기한 비정부기구 생태계가 돌아가는 방식과도 결부해서 얘기해보려고요. 이게 권력의 역학관계와 영향력, 기관의 생태계 문제라고 봅니다. 문서가 발행되는 건 좋습니다. 위원회와 센터에서 문서를 만들 때 협약국들의 이해관계와 권위가 큰 영향을 미치죠. 협약국 간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좀 더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국가들이 위원회의 태도 변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

수직적·지역적·국가적·국제적 교류와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지역화라는 게 있는데, 이 영향은 상향식입니다. 그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협약국 이 해마다 실질적 성과 없이 약속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화창에 지역 참여적 유산 관리에 대한 언급이 있더군요. 유산에 참여적인 지역 관리 체계가 잘 갖춰지면, 이게 현장 상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서도 더 나은 내용을 보고할 수 있어 일이 쉬워지니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이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자랑스러워할 만하죠. 지역 및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각자의 생태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걸 협약국들이 자신들에게 이롭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 역시 설명과 점진적인 설득을 위한 대화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도 그렇고요.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너무 많이 봤는데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를 알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적을 과장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고 서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과 협력하는 동시에 갈등을 빚기도 하죠. 가족끼리도 싸우지만 서로를 등지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 거대한 한 가족이죠.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흔한 착각입니다. 좀 전에 세계유산협약을 협약국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시각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협약을 선호하고 주인 의식을 느낍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여론이 막대한 지분을 갖고 있죠. 세계유산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뉴스거리입니다. UN 회의가 대서특필되는 건 본 적이 없지만, 호주 대보초는 정말 유명하죠. 사람들은 이 소중한 색색의 아름다운 장소들에 반응합니다. 호소력이 있죠. 유산마다 이야기를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사례 연구로 이어지고 사람들의 실생활로 귀결됩니다. 위원회에서 만드는 문서가 다가 아니죠. 가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으며, 많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우린 이 논의를 이어가기만 하면 되죠.

프란체스코 반다린

에게는 유산 관리자였다고 했고, 아마 지금도 그럴 텐데요. 그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가 세계유산 보호에서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는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장치가 있을 테니까요. 이론적인 얘기만은 아닐 텐데요.

에게 일디림

우리 자신을 더 잘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 하고, 자기 비판적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제가 겪은 시민사회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비생산적이고 혼돈된 시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시민사회가 대화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기술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연구와 자료, 지식에 근거해 메시지를 정리하고 종합할 능력을 갖춰서 정보에 정통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갈등이 아닌 대화에 기반한 소통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인가를 받았으면 하는 특정한 장치들이 있는데, 세실이 얘기한 다양한 비정부기구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자문 기구를 맡는 방식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세실이 말했듯이 문제점도 있지만 공식적인 토론에 대표를 내세울 작은 장치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입회인과 발언 기회가 증가하고 있죠. 토론이라는 기술적 도구를 이용하는 거고, 이는 더 많은 미디어가 시성과 대중의 압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더 잘 조정되고 협의된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감사합니다.

에게 일디림

잘 설명한 건가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네,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머니 선택을 잘해야겠죠. 한 가지 복잡한 질문이 있는데, 주최 측인 WHIPIC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WHIPIC은 논쟁적 서사와 역사 등에 관심이 많은데요.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이 단계의 논의를 마칩니다. 다툼이 있는 기억과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사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각자 주장하는 바

가 다른 많은 기관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증가하는 것 같은데요. 세실부터 시작해보죠. 늘 이런 갈등과 논의의 한복판에 있었으니까요. 벨기에나 아르메니아, 터키, 크로아티아 등 많은 사례가 기억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 세실 뒤벨

네, 유일한 방법은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놀라웠던 건,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에는 다층적 기억이 정말 많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세상의 기원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유산이 다른 유산들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이를 주장하려고 하죠. 이상하게도 지역공동체들이 무형유산에 그런 경계가 없다는 것을 더 잘 압니다. 중요한 건 소유자가 아니라 유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공동체가 이런 논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국을 상대로 엄격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국가보다 덜하니까요. 다층적 기억에는 시민사회에서 공유하지 않는 정치 쟁점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실제적 유산과 더 가깝고 정쟁에 대한 관심은 덜하죠. 다층적 기억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시민사회의 참여와 다양한 목소리가 많을수록 역사는 국가라는 하나의 단체가 쓰는 단일한 서사가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제 생각에 다양한 목소리는 논의해야 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진실이 어딘가에 있지만 다른 진실에 대립하는 건 아님을 보여줍니다.

— 프란체스코 반다린

명확한 답변이네요. 다양성과 대화가 핵심이군요. 소피아의 생각은 어떤가요? 시민사회가 서로 다투는 역사와 기억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 소피아 라바디

방금 세실이 한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8년에 제가 시민사회 행위자들과의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2015년에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실행 계획을 세우고자 열린 회의였죠. 아시다시피 평화와 안보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실행 계획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창에 실행 계획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분쟁 해결 장려를 위해 시민사회 행위자들은 참여적 접근법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보장하여 어떤 목소리도 가려지지 않게 하고,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대화 지향적 프로젝트를 장려하며, 역사 분쟁 화해를 위한 긍정적 시도들로 청년층이 미래를 건설할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갈등 해결에 관한 내용이고, 분쟁 후 회복을 위한 기여에서도 시민사회 행위자들이 많이 언급됩니다.

“공통성을 장려하고 분열을 초월하는 정체성 표지들, 지역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분쟁의 고통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대화 지향적 제도를 만든다. 공통성을 장려할 새로운 정체성 표지를 정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찾은 상충하는 서사들을 다룰 몇 가지 해결책입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게는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에게 일디림

저도 소피아가 조직한 회의에 참석했었고, 마지막에 훌륭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광범위한 정책 권고를 말하기는 쉽지만, 이를 다양한 장소에 맞게 조정하고 어떤 게 적합한지도 살펴봐야 하죠. 다층적 기억의 문제로 돌아와서,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공동체와 사회의 집단심리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불협화음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도 있는데요. 하나의 진실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주의적인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죠. 세 실이 다양하게 주장되는 진실 가운데 어떤 진실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서사에 관한 이분법이 없는, 더 모호한 환경에서의 운영에 익숙해져야 하는 건데, 이는 연습이 필요한 일이죠.

제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그렇더군요. 동의하지 않는 시각을 편하게 받아들

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언젠가는 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죠. 저는 터키 사람인데요. 20년 전에 이슬람의 여성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20살 정도 어렸을 땐 히잡을 쓰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터키 여성들 간에 그에 관한 의견이 대립했죠. 지금은 히잡을 쓰는 친구도 많고 그들에게 배우면서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차원의 논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지만, 마침내 어느 정도 권리를 쟁취했는데요. 사람들이 물리적인 토론 공간에서 서로를 만나는 데 익숙해지면 합의점에 이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통된 시각 없이는 서로 편안해질 수 없는데, 공통분모는 있기 마련이죠. 인간으로서의 공통점을 살펴볼 수도 있는데 누구나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생계 수단을 갖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원합니다. 자녀들을 보살피고자 하고요. 이런 기본 욕구들이 유산 관습에 적용되는데, 이는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은 감수할 수 있는 사소한 측면이 될 거고요. 민주적 다원성을 수용하는 문화죠. 서사는 하나가 아니어도 되며, 이제는 다양한 서사를 가지는 게 표준이 됐습니다. 크나큰 심리학적 변화죠.

— 프란체스코 반다린

세상 어디도 다양한 서사를 받아들이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겠지만, 그게 가야 할 방향인 건 분명하죠.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고, 다면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나눌수록 주최 측인 WHIPIC이 앞으로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논의가 영감이 되면 좋겠고, 이 많은 쟁점과 관련해서 계속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행자인 헤리 씨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왔고, 대화창에도 질문 세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제가 진행할까요? 아니면 직접 하시겠어요?

— 심혜리

네, 프란체스코. 문답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Q&A 박스에 질문 두 개가

들어왔고, 장 루이 씨가 대화창에 남기신 질문과 아이린 씨의 의견이 있는데요. 질문을 다뤄주시겠어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네, 우리 논의와 연결되는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장 루이 씨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중요하고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짝 다뤘던 부분인데 세계유산 과정, 유산 보존 분야에 활동가나 다양한 의견이나 많은 행위자를 받아들이면, 정치화가 더 심화할까 봐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시스템의 정치화를 보고 있으며, 이를 개방으로 완화하려 하는데, 오히려 정치화가 심화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피아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 라바디

우리가 '정치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재밌네요. 영국 정부가 한 동상에 대한 논의에서 정확히 같은 용어를 써왔거든요. 아실지 모르지만 작년에 영국 브리스틀에 세워져 있던 전 노예 소유주의 동상이 그 도시의 강에 버려졌습니다. 콜스톤의 동상인데요. 그 동상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예를 들어 남아공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영국 정부가 이 '정치화'라는 수사를 사용해왔는데, 어떤 부분이 정치화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저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른 관점의 인식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화가 정치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세계유산을 제한된 상태로 축소하는 게 정치화입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그런 글을 많이 썼죠.

저는 이 용어에 동의하지 않고, 세계유산을 개방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화 과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현장의 상황과 더 가까이 연결될 것입니다. 세계유산이 현실과 차단된 버블 같은 영역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말이죠.

프란체스코 반다린

제 경험상 분쟁은 무형유산이 아니라 세계유산 얘기인데요. 분쟁을 야기하는 쪽은 항상 국가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세계유산과 관련해서 분쟁을 일으키진

않죠. 이곳 캄보디아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곳도 그렇고요. 따라서 고위층의 정치 쟁점이 되는 거고요. 아마 무형유산은 경우가 다를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훨씬 크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변할 테니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장 루이 씨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행위자의 수를 확대하면 분명 일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시민사회단체를 더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논의의 정치적인 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봐왔듯이 세계유산 문제로 국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 더 힘드니까요.

아이린의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에 가까운 것 같네요. 티와나쿠의 흥미로운 사례를 얘기하셨습니다. 공동체 통합 관리의 좋은 본보기인데요. 지역 당국이 이사회에 일부가 되어 관리와 결정에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직원으로 일합니다. 볼리비아는 전 정부로 인해 최소 지난 10년 동안 원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그 결과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겠죠. 적어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세계유산 같았거든요. 아주 오래전이지만요. 좋은 의견 남겨주신 아이린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Q&A 게시판에 질문 두 개가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사무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기관 내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전문가 의견의 대표성 평가부터 시작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 사안을 다루는 일은 비유럽인이 사무국 일원이 될 기회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무급 인턴, 체류 허가, 지원 부족 문제가 있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다양성 부족과 협약 이행에서 일어나는 비유럽인 시각 배제 같은 현재의 문제들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성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된 문제를 거론해주셨습니다. 유네스코가 유럽에 있다 보니 직원 대부분이 유럽인인데, 이는 주로 사무국 직원들의 경우고 전문가들은 훨씬 균형 잡혀 있습니다. 협약국들이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충분한 균

형이 이뤄졌다는 건 아니죠. 공동 위원회,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논의되는 문제죠.

특히 인턴 영역의 인원을 늘리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자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유럽 정부와 대학들이 인턴십 기금을 대거나, 파리에서 몇 달간 지낼 형편이 되는 인턴들도 있습니다. 물가가 아주 비싼 도시죠. 또 그런 기회가 없는 다른 지역 출신들도 있고요. 이런 자원 문제가 있는데, 협약이나 유네스코 시스템에서 지원금을 마련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가끔 협약국들이 다른 나라 출신 인턴들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죠. 이게 문제인 건 맞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있긴 하지만, 세실이 이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 텐데요. 유네스코 내부의 문화는 상당히 다양성 존중을 지향합니다. 사람들이 이를 의식하고 있죠. 유럽이 아닌 글로벌 조직으로서 해야 할 의무적인 부분이니깐요. 우리 항상 유럽 중심적이 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유럽인이네요. 세실 생각은 어때요?

세실 뒤벨

네,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건 맞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턴십을 예로 들면, 인턴이 되려면 우선 유네스코가 있는 파리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몇 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파리에서 살아야 하는데, 개발도상국 출신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긴 하지만 주로 부유한 사람들만 인턴이 될 수 있고, 이 상황이 불균형을 부추깁니다. 유능한 인턴과 일을 하면 그에게 계약직을 제안하게 되고, 그 사람은 유네스코 업무를 더 잘 익히게 되죠.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인가 비정부기구 약 200곳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50% 넘는 기구가 유럽 국가에 있죠. 중남미나 아랍 국가는 아주 적습니다. 그쪽의 지역 단체들이 비정부기구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시민사회에 협약을 개방하는 과정에서도 서양적 사고방식의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비정부기구의 개념, 비정부기구와 같은 행정 기능을 지닌 기관의 자격 자체가 이미 문화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다양한 기반을

만드는 건 실제로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결국 함께 일을 하려면 최소 한두 개 언어는 공유해야 하는데, 아주 어려운 과제죠.

프란체스코 반다린

네, 저도 동의합니다. 해결이 쉽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죠. 이 두 질문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서로 엇갈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마리아나 에르난데스 페레스의 질문입니다. 세실에게 묻는 질문인데 다른 분들이 답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형유산은 영토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주민과 그들의 유산에서 영토가 굉장히 중요하니 둘을 분리할 수가 없는데, 무형유산보다 영토 보호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기가 더 복잡합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무형유산이 그 토지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른 질문은 그 반대입니다. 왜 세계유산의 무형적 가치를 그 일부로 볼 수 없냐는 거죠. 맞습니다. 세계유산이, 특히 문화 경관이나 다른 새로운 항목들을 도입함으로써 무형유산에 전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했죠. 6번 기준 등으로 제한돼 있긴 하지만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구분하는 일이 인위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보죠. 유무형 유산의 구분을 완화하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더 쉬워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실 뒤벨

먼저 첫 번째 의견에 대해 얘기하고 싶네요.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사례가 있거든요. 멕시코에서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목록에 등재 신청을 했어요. 어느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풍습이 그 지역에서 이뤄질 채굴 활동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멕시코에서 이 공동체를 지원하고자 이 풍습을 긴급보호목록에 올리려고 공들여 신청서를 준비했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은 이 원주민 공동체 시민사회로부터 항의를 받았습시다. 이들은 당사자인 원주민 공동체가 긴급보호목록 등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땅이 보호받길 바라기 때문에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이 보존되면 우리 무형유산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

프란체스코 반다린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세실 뒤벨

1972년 협약만이 우리 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 관련된 땅이 포함되는데도 땅을 보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다른 곳에도 협약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 협약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였고, 멕시코는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1972년 협약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아닐 것 같네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소피아는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무형 유산 구분, 시민사회 참여와 관련해서요.

소피아 라바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관한 얘기로, 제 발표의 마지막 논점이었죠. 저는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말도 안 되게 유무형 유산을 가르는 트위터 사이트를 봤습니다. 아프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뿐 아니라 자연유산, 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IUCN(국제자연보전연맹)의 자연/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더 잘 화합하는 접근법을 취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이 사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데,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잇는 결합적 접근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연결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와 그 협약이 유럽 중심적 신식민주의적 접근법을 따르는 거니까요. 자연과 문화의 분리는 계몽주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모두 데스콜라와 브뤼노 라투르의 저술을 읽어봤죠. 이게 그들의 설명이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고 다시 합쳐놓기 전까지 우리는 신식민주의적, 유럽 중심적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무형 유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은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유럽식 과정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화적 자궁이라 할 수 있고 원래 일본의 제도였죠. 유럽에서 비롯한 게 아닌데도 현장에서 유럽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의 분열이 우려스러운 거고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좋은 지적입니다. 에게의 생각은 어떤가요?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헤리가 마무리할 시간을 2~3분 정도 줄지 모르지만요. 일단 에게의 견해를 들어보죠.

에게 일디림

제 입장은 소피아와 거의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데요. 문화, 자연, 사람 간 구분을 흐리게 하고, 이 영역들을 더 연결해야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표현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ICOMOS에서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행사에 사용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에서 사람과 문화, 자연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하나의 경관을 이룹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ICOMOS의 지속 가능한 목표 정책 지침에서 소피아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유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며, 앞을 내다보는 주장을 했습니다.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개념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특히 원주민들은 이미 사람들, 땅, 영성을 전체론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N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사무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지는 잘 모릅니다. 협약 사무국 간의 비공개 회담이 있지 않을까 짐작할 뿐이죠. 지역 유산들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멕시코의 본보기도 훌륭했고 제가 유산 관리자로 있었던 터키의 유산은 중요한 신청 조건 중 하나가 세계유산협약 6번 기준이었는데, 세계유산 자문 기구인 ICOMOS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땅에 관련된 부분만으로도 설득력이 있었고, 유산을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지도 모르죠. 이 간극들을 메워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실례가 많으니 자료를 수집하고 공식 업무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다음에 마무리를 짓죠. 엘런 베게시의 질문입니다. 유무형 유산 문제에 관한 훌륭한 논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젊은 문화유산 종사자고, 벨리즈의 유산 비정부기구 감독인데요. 유무형 유산에 관한 접근법이 융합되면서 정의를 세우는 단계부터 큰 문제를 초래하는 걸 자주 보는데요. 두 개념을 연결할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또 그

게 실행 계획과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에게와 다른 분들이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세실이 이 질문에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세실 뒤벨

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유산과 별개로 이 분리는 완전히 인위적이죠. 문제는 두 가지 협약이 있고, 서로 아주 다른 접근법으로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들에 어려움이 있고요. 문제는 융합의 어려움이 아니라 개념입니다. 한 가지 개념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전문가 기준으로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유산의 개념이고요. 다른 쪽에는 지역공동체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지역공동체가 자신들의 유산에 가치를 부여하죠. 유산의 성격이 아닌 그 두 개념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 둘을 어떻게 결합할까요? 한쪽은 이 건 가치가 있고 저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보편적 조직체고, 다른 한쪽은 공동체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난 이게 좋고 이와 함께하고, 이를 행하고 싶고, 이건 내 유산이고, 다른 누구도 이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요. 두 협약의 연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협약에서 말하는 정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협약을 떠나서 현장에서 유형유산 공동체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유산 전체를 일치된 방식으로 돌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는 열린 토론입니다. 헤리 씨, 센터에서 큰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제기한 모든 문제가 열려 있지만 중대한 논점들이죠. 우리가 여러 논점을 다룬 것 같네요. 시민사회의 역할과 정의, 유형유산과 관련된 방식, 참여와 포용에 관련된 문제와 그 기능, 무형유산과 세계유산에 이미 존재하는 경험적 지식,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경험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논의의 결론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자연을 분리하는 패러다임은 더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IUCN에서 이 논의를 잘 시작해줬는데, 협약이 유럽 중심적 패러다임을 재고하는 단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비롯한 건지 더 오래된 건지 모르겠지만요.

많은 공동체에서 갈수록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유무형 유산 문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돼왔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늘 느끼듯 정의조차 너무 인위적이죠.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하고요. 물론 협약은 도구입니다만 협약이 한계를 인식한다면 이미 발전한 것이고, 반면에 도구가 이 정의들을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여긴다면 문제가 됩니다. 가끔은 협약이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지죠.

물론 이 모든 문제가 내년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일이죠. 협약이 전성기에 도달했지만 중대한 과도기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니깐요. 협약국들이 이를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 다가오고 있는 일이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자문 기구들이 많은 용기를 냈습니다. 7개 유산을 위험 목록에 등재하고 2개 유산을 세계유산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흥미로운 일입니다.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질 테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도 이 토론을 지켜볼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과정을 지켜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아워 월드 헤리티지에서 블로그를 여는 것도 고려하고 있죠. 올해 토론이 아주 뜨겁고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개정의 물꼬를 트거나 최소한 협약의 미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최 측인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가 주역을 맡길 바랍니다. 올해 말에 공식적으로 설립되니 2022년엔 정식 센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과 이 논의를 계속할 수 있길 바라고, 이 웨비나 시리즈를 시작하신 것뿐 아니라 세계유산협약의 핵심 문제들을 다루는 센터 설립을 계획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헤리 씨, 감사하고요. 논의에 참여해주신 동료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흥미로운 90분이었습니다. 청중과 참석자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토론을 마친다기보다 훗날 이어질 토론의 문을 여는 거죠. 감사합니다, 헤리.

—
심혜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토론을 정말 잘 이끌어주셨어요. 훌륭한 논

의를 해주신 소피아, 세실, 에게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경험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제외됐던 가치들을 포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천 단계에서는 무척 복잡한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웨비나에서 유산을 전체론적으로 다룬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토론을 봐주시고 논의에 참여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욱 흥미롭고 상호적인 웨비나가 됐습니다. 오늘 토론은 다음 웨비나로 이어집니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의 부대 행사로서 7월 18일에 열립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시리즈의 사회자 다섯 분인 크리스티나, 가미니, 장 루이, 수, 프란체스코가 유산과 서로 다른 기억의 문제를 논의해주실 예정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월에 열릴 다음 웨비나에서 뵙길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World Heritage: The Role of Civil Society

—
Haeree Shim

Hi,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Heritage Interpretation webinar series, World Heritage and Multiple Memories, hos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Haeree Shim again from the Preparatory Office for WHIPIC, that i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The preparatory office is an organizer of this event, a UNESCO Category II Centre-to-be, carrying out researching, capacity-building, and networking in the field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Centre will be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and this is our fifth webinar, and now we are heading almost to the end of this journey. As you know, we have raised pertinent and timely questions particularly regarding World Heritage and its conflicts through our last four webinars. And now in this webinar, we would like to ask what we can do to resolve the issues on heritage with contested pasts. We expect this webinar series to serve as a forum for discussing multi-layered narratives and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history related to World Heritage and we hope that we provide good

discussions for a better protection of our heritage.

And now, I would like to thank our moderator, Dr. Francesco Bandarin. I'm sure our audience knows him very well. Francesco is an architect and an urban planner, and has been a professor of urban planning and conservation at IUAV from 1980 to 2016.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since 2000 and it lasted for 10 years, and also an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and UNESCO from 2010 to 2018. Now he is a member and an advisory committee of our World Heritage Initiative. Well, now I would like to turn the time over to our moderator. Welcome, Francesco. The floor is yours.

—
Francesco Bandarin

Thank you very much, Haeree, and good morning, good evening, good night to everybody. I'm sure I'm talking to a very wide audience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 would like, first of all, to thank WHIPIC or the preparatory organization of WHIPIC for organizing this set of seminars, these serial seminars, and especially for focusing on issues that are so close to our concerns and to the work that Our World Heritage is doing in this year. We have launched a very important series of discussions and debates all throughout 2021 in preparation of 2022,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We share a lot with WHIPIC, in terms of vision, in terms of concerns, in terms of trying to move the convention beyond the important achievements that it has made in the past 50 years, but we also know that this system needs to be brought to a much more modern approach in terms of especially in relationship with civil society.

First of all, if you allow me, Haeree,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panelists we have proposed to join our conversation, three experts that have been working with me or with us all throughout the years, and we thought that these were the right people to be part of this discussion.

The first person is Ege Yildirim from Turkey, and she is an independent professional, a conservator, planner, but also, she has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focal points fo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ocument that was just a few months ago published by ICOMOS. And of course, she has many roles both in her country and as part of our World Heritage issues. In fact, she is the coordinator of the Sustainability of Semantics debate which will start tomorrow and continue for the entire month of July. So Ege will deal with these issues in civil society from her angle. We'll get back to this.

The second person is Sophia Labadi, whom I worked with many years ago at UNESCO, and now she's a professor of Heritage at the University of Kent, and of course, many other things. She is a consultant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issues with a specific focus on issues of human rights and gender, as she will very clearly explain.

And the third panelist is Cécile Duvelle. Cécile was a colleague of mine for many years. She was, in fact, the Secretary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le I was at UNESCO during those years. And of course, she's a trained anthropologist, and as a Secretary of the Convention, she was really in charge of projecting this very important convention to a very high ceiling and the convention has become very important for many

communities in the world. And we would like to ask her also, some important questions on how a convention can better relate to civil society.

Now, Haeree, if you allow me, I will just give a very short presentation, a short framework of what we intend to do today. And then we will let our speakers give their presentations for five minutes each, and then we will open up a discussion, first internally, and then with the questions and answers from our attendees. The issue that has been put upfront for this conversat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civil society.

Now, I think I owe everybody a definition of civil society before we go and talk about this very complex terrain because the term is very generic. We understand that “civil society” is an all-encompassing term that everybody is part of civil society in one form or another, so I think we understand that this term might be a bit vague and a bit ambiguous sometimes. At the same time, it’s an important term because it somehow defines everything that is not a state or a governmental body. So, in a way, as much as you have the definition of governments is also complex, we need to have a general definition for everything that is not representing a governmental interest. So, first of all, it’s an all-encompassing term, there has been many definitions, many attempts to define it, even UNESCO has tried that, and UNESCO course had to keep it very, very wide.

So, in fact, in civil society, you have all forms of similar civil organization, that go from NGOs to academics, academic organizations, from local groupings, cultural communities, professional

communities and so on. So if you look at the definition from UNESCO, you won't find very much light because it is still very large. In this discussion. I think we have to keep this flexibility. Unfortunately, some flexibility is necessary because people have different experiences. But, let's say that we would like to give more emphasis to the role of NGOs and cultural communities rather than simple individuals. Although individuals are also part of civil society because organizations that have already established their mission, and their way of working are much easier to identify and to deal with. So, let's say that we are looking at civil society as a kind of constellation of organizations that represent issues that we think are relevant for the advancement of the convention in terms of its use in civil society.

Now, let's say that many organizations are complaining to the fact that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never really in practice and in fact don't assume civil society as a partner for its function. Of course, if you read the convention, if you read, especially how operations are organized, civil society is mentioned and praised, etc. But we know that in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convention this is not true. It remains a convention that is a very closed system of member states' interests. And sometimes this just affects the pure participation. People cannot express really what they think about the conservation of a site. But in other cases, it becomes a serious issue, because you are going into area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rights of communities, control communities, or any form of community that are involved in World Heritage Sites and are not properly logged in the preparation or denomination or even in th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So, we think that this issue is paramount. It's a very prominent issue. By the way, just a few minutes ago, we had a very

important webinar of Our World Heritage on this issue,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with very important people like the former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all to Justice, Dr. Youssef, Professor Franchione was probably the most prominent legal expert o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was organized by Ana Broleag from Australia and they were really looking at this thing and indigenous people. And they were looking at this resistance on the convention to accept a role for these communities and even sometimes fight the role of these communities within the nomination processes as well. So, there is a big issue. Our relationship between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civil society in the form that we have quickly described earlier.

This issue will be, in my view, many people's view, the critical issue next year when we will hav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onvention. Fifty years is a great span of time to make an assessment of results, successes and failures. And also, somehow look at the projection into the future. The future is the 21st century. Is the convention a convention that has developed adequate tools for the 21st century's issues? We doubt it. And we think that important reforms have to be done both in legal terms and the way in which the process is organized, but also in political terms of the way in which state parties approach these issues. So, as you can see, it's a very big issue, a very burning issue. It's not something simple because it goes directly into the politics, into the interest among the states, and into the conflicts that sometimes exist between member states and expressions on civil society. So, we know that this is not a neutral issue. It's an issue that might engage considerations of very difficult situations, conflicts and so on.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there is a way to make the convention survive in this century, or even next decades, unless these

issues are dealt with in a proper manner.

I tried to make it very simple and very synthetic what are the reasons of our concern. And we would like to discuss this with our three friends and partners here. And I would like first to start with Ege, and I proposed to start with Ege because Ege has worked on a very broad system, which is a sustainability issue. Sustainability is directly link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bodies. So, we would like Ege to comment on this and perhaps present her own views in five, six minutes. I'm sorry for a very short time but it's important to give a very central core succinct message so that we can then have a discussion. Please, Ege, take the floor.

—
Ege Yildirim

Thank you Francesco. It's wonderful to be here.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and I hope to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I will share three slides with you while I speak. And as Francesco said, I have had a chance to work with a broad sphere and especially also as a former site manager, the chance to work with different kinds of stakeholders at different levels on the ground has provided some very eye-opening insights as well as the ICOMOS experience that I will share with you here. Can you see my slide? Yes? Okay. So, some key messages that I'd like to share. One is the documents are in good shape, in my view. I mean UNESCO has been developing the documentation, the policy, the doctrine since a long time ago. There are a lot of entry points into community and civil society engagement, starting with the convention itself. The very much quoted Article 5, the fifth C of communities, and like Francesco explains, the way that UNESCO sees community is everybody but the states parties. That is very broad and diverse, but there is a recognition that we need to develop an explicit methodology

to engage with all of these different parties in a complementary way to reconcile differences, the historic urban landscape in 2011 also dwells on communities quite a lot. They just had their 10th-anniversary event in these past days, a very important milestone, in my view. And of course, the policy itself of 2015 o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emphasizes the different headings, the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economic-environmental, plus the very important aspect of peace and security, of course. So, these are tools at hand.

And speaking of non-state actors or the rest of us, let's say the civil society at large, an important response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ed body of experts which are also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 very established one like ICOMOS, and a very new and much more flexible and ad hoc one like Our World Heritage, we have been producing responses about how to engage heritage and the SDGs in sustainable development in a more explicit way. Again, I think being explicit is a key word. For SDG 16, for example, that was a very important hitting for us the goal on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talking about transparency, accountability, participation, governance, capacity-building, edu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the like. And Our World Heritage, also, in its Civil Society debate theme has emphasized the fact that the system being so centered on state parties' interactions is not really sufficient anymore. How can the decision-making system be more democratic, more inclusive, and how can we have more change the way that we feel we need? So, these responses have been accelerating recently especially in the last five, six years with the adoption of the 2030 agenda which is a big road map, a big reference for us now.

And I also tried to compile a few important thoughts, or as Francesco said, burning issues or recurring themes that come up. And even the policy of 2015 itself, in its fifth paragraph, talks about unless we engage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in our OUV protection processes, World Heritage will become a victim of the process of local socio-economic development. So, there are a lot of red flags about very important brand, very globally popular brand is becoming a victim of its own success. And the way forward seems very much interlinked with broader socio-economic processes. If we don't solve problems of rule of law, of capacity, of social capital economic development, we will not really be able to improve the way that the World Heritage system or protection works either. They're very much either a win-win or a lose-lose situation. And that means we need to mainstream much better development and heritage.

And that there is increasing pressure in the forms of new activism. The new generation is here. Climate youth, Fridays for Future. A lot of talk about the colonization and the new digital tools at hand about open source, crowdsourcing, organizing in new ways, especially now we see with the post-pandemic, of course. These are important entry points, again, to take forward. And then there is this interesting divide between the official and unofficial. Is this corresponding to the states parties and the civil society? Apparently so. But the unofficial world would like to be a bigger voice on the table. The public opinion, the media, now we see that it's the media season for World Heritage. You might be following the news on various sites in danger in The Guardian or The New York Times, et etc. It'll be very interesting this month to follow all of these discussions and disputes and controversies. And how does the World Heritage official system engage with these? I

suppose we need to just actively use the mechanisms at hand. The official mechanisms are there, but how do we actually apply these on the ground?

—
Francesco Bandarin

Ege, your time is up.

—
Ege Yildirim

Ah, well. Okay. So, my last message is that local counts, and we need to have more dialogue between national and local and everybody else. So. Thank you very much. That's it.

—
Francesco Bandarin

We'll come back to this. Now let me ask Sophia to take the floor. Sophia has been a protagonist over one month to date in Our World Heritage. She dealt with gender and diversity. And I think she has quite an experience on that. So, please, Sophia, take the floor for your presentation.

—
Sophia Labadi

Thank you very much, Francesco. Like Ege,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WHIPIC for this very important webinar. So, when I work on civil society, I'm always asked how I define the concept. I believe I've been asked to focus primarily on cultural diversity and genders. I will first highlight two key issues, and then present some solutions I've worked on.

The first idea is the exclusionary nature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when it comes to diversity and genders. What some have called epistemic injustices. If you look for instance, at the work of Allison Wiley, some of my publications, including, for instance, the 2013 book, UNESCO, Cultural Heritage and Outstanding Universal Value, explain that World Heritage perpetuates the 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that is a narrative of heritage which focuses on the “great men of history” as I call them and as Laurajane Smith has also called them. In this process, women, LGBTQ+ individuals, and other minorities are marginalized, if not totally excluded from World Heritage narratives. In my research, I have also noted that this focus on what I call “the great men of histor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which is quite a worrying trend as exemplified, for instance, with the serial nomination of 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inscribed on the list in 2016.

The second idea which repeats an idea from Francesco Bandarin is the legitimation of traditional practice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being discriminatory if right-holders were asked about these. Here, I’m thinking in particular of Mount Athos in Greece and the sacred island of Okinoshima in Japan. What I find particularly disturbing is that it is not clear right-holders have been consulted about the exclusion of women from the sites, which might thus be considered as a discriminatory practice on the ground, discriminatory practice approved by UNESCO, thus being legitimized by an international body. Having highlighted those two core issues, I wanted to highlight two solutions. The first solution is the 2015 UNESCO policy o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lready highlighted by Ege, which I helped to draft and we got inspired by the work that was done by the 2003 convention. A full section of this policy i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to address some of the issues that I’ve just discussed,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Mount Athos. We requested that, and I quote, “gender-rooted traditional practices within World Heritage properties, for instance, in relation to access 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mechanisms have received the full consent of all

groups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through transparent consultation processes that fully respect gender equality.” Obviously, this statement is not going to solve all issues but I think it is the first and necessary step. Now, of course, the challenge is how to implement this key statement and maybe we can discuss that later on.

The second positive steps are the series of events organized recently on gender and diversity as part of the Our World Heritage Initiative, that was also already mentioned and was launched by Francesco and others. In particular, we launched a call for participation that aims to redress some of the exclusionary practices and exclusionary narratives, what I’ve called “the epistemic justices.” Entries presented multiple histories at World Heritage Sites, particularly in India. We also had an entry that looked at the little-known histories of workers who built Brasília in Brazil. And another entry focuses on cultural manifestations, performed during carnivals at different World Heritage Sites in Brazil. And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entry because it highlights the fluidity of gender norms and helps women to conquer public spaces. And we’ve seen a lot how women are being marginalized from public spaces.

—
Francesco Bandarin

Sophia, your time is almost done.

—
Sophia Labadi

Just one more thing. It is clear from this entry that a more inclusive approach that would bridge the divide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will help change this exclusionary situation. I hope we’ll discuss this later on.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
Francesco Bandarin

And we’ll come back to this. And as you mentioned, intangible

heritage, we will defer to Cécile. Cécile has been the Secretary of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and I think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that Cécile will tell us more has a completely different approach to this issue of civil society. Not that it is perfect, right? But it certainly is different, and sometimes people in the World Heritage world look at the Intangible Heritage world for inspiration and ideas. Please, Cécile.

—
Cécile Duvelle

Yes, thank you for speaking about the 2003 convention and indeed, as you know, this convention, in fact, was created to kind of fill a gap. Not only in terms of the nature of heritage, but also in terms of functioning. And one of the areas where this convention took a step further, it was for a better integration and more diverse relationship with civil society, indeed. As a result, even though the text of the convention and the structure very much aligned with the '72 convention, you find in the convention and the operational directives, two main actors that are coming in the process on a very clear basis. So, the first one...

—
Haeree Shim

Cécile, sorry to interrupt, but do you want to share your screen for your slides? Or do you want to just go on?

—
Cécile Duvelle

Yes.

—
Haeree Shim

Thank you.

—
Cécile Duvelle

I thought I was sharing it. Sorry.

—
Haeree Shim

Please. Thank you.

—
Cécile Duvelle

I will share it. Sorry. Here I am.

—
Haeree Shim

Yes. Take your time.

—
Cécile Duvelle

Okay. Okay?

—
Haeree Shim

Yes, we can see your screen.

—
Cécile Duvelle

And then like that. Okay? So, the first group, I would say, the first main actor is called the communities, groups, and appropriate individuals. In the convention, everywhere, you find that actor because they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duction and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fact, they are the bearers, those who practice, transmit this heritage and so to whom this belongs. And so, you have them in many places, but state parties are requested to involve them in the identification, in the inventories, in fact, and definition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 their territories, so you find them in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inscriptions, the state has to provide the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of the community concerned. Also, in the safeguarding plans, they have to prove their participation and the full agreement with what is going to be planned and also to benefit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they have to have been not only consulted but part of this management plan. So, you see that the communities are everywhere and the state parties are even invited to think about coordination mechanisms for them to speak together, etc.

Then you have a second actor who is also present, I would say in the first Article 11 because NGOs are also requested to take part of

the inventory process in particular, but you have a very clear second aspect, which is to provide advisory capacity-- advisory services to the committee. So, like ICOMOS or IUCN in the '72 convention, you ha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But at the difference, they didn't want one single organization. They wanted for intangible heritage a diversity, not only of NGOs, but of their geographical origin, of their thematic specialty and they wanted as many people, organizations as possible. The result is that today after more or less 10 years of accreditation process, we have nearly 200 accredited NGOs. And as you can nearly conclude, it's very difficult for the committee to work with 200 bodies together. So the advisory service regarding nominations' consultative body is composed of twelve bodies, six experts and six NGOs.

So, for a mandate of four years, you see that to advise the committee one NGO from one region has a hope to come every four years. So out of these two hundred NGOs it's very clear that there is a big challenge because many NGOs have not the capacity to advise the committee. They have the expertise in intangible heritage, they have the capacity to make a great job at the national level with the states, but they don't have the capacity to help the committee to fulfill its task. And so, there is an ongoing reflection now, in the 2003 convention to see how to make the difference in the accredited NGOs with those that can provide concrete, they speak English or French, and they can provide concrete help to the committee, and those that are more likely to have a role at the local level. What is interesting is, at any rate, those 200 NGOs have created what they call a forum, which is meeting every year at least once a year before the committee, who are reporting to committee, and who are making relations between

themselves. So even without the committee's work, they work together, share experiences, and produce material, build capacities, etc. So, this is an ongoing process for the 2003 convention, but the success I would say of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need to organize it a bit more, otherwise, we will be overwhelmed by too many voices that cannot be heard. That is what I can say as of now.

—
Francesco Bandarin

It's very interesting and because intention on important dimension of-- first of all, the fact that there is a convention that has taken this issue as a primary goal for the civil society and then the hurdles and difficulties of doing it I think is also important because looking at processes and mechanisms, legal, political,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the outcome comes exactly from the nature of the process. As I said at the beginning, eve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mentions civil society. But then in reality, the practical concrete role of civil society is the two-minutes floor that they are given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or sometimes during the discussion on state of conservation, or nomin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always after the decision is taken.

Now I think we set the ground for our discussion. I would like to start, with your permission, Haeree, starting-- having perhaps a more interactive kind of exchange. So let me ask a few questions and perhaps I will try to start with Ege because Ege is, in my view, the one that has a new umbrella view, the global, because she's been immersed in the sustainability process for years and so on. I'll ask you a very basic question. Why do you think the World Heritage needs civil society? It could work very well. It has worked very well for 40 years

without that. Why does it ever need it? In fact, we're trying to do here is protect some sites or a number of sites and to give it to the future generation. So why? I know it's a very simple and basic question but then I think the answer is very important. Please, Ege.

It's a difficult question and an easy one at the same time. I mean, the easy answer is, without civil society, we will fail because it's all or nothing. The UN Agenda 2030 has been talking about something called leaving no one behind. If everybody is not together, then we will not really move the ship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ll, your question, specifically on why couldn't states parties do this on behalf of all of us up to now or anymore, maybe it's the world is changing. States parties perhaps had a different position or mandates maybe 50 years ago, and today, I think societies have created new demands and maybe it's also something about the political economy and capitalism and how capitalist growth and oppressive practices of this political economy are sometimes partnering up with governments to the detriment of vulnerable groups, and we see that in practice, the states parties by themselves are not really delivering what they're supposed to deliver. I'm slightly wary in saying this in such a harsh way, and I know that we need the states organizing, let's say a monopoly on violence, for example, or the standard setting and that's another aspect of this. It cannot be without states parties either. But it has to be more balanced, I think.

And also, I think the world's dynamics are changing in terms of the technologies are making youth more important and the acceleration of resources in terms of depleting the future generations' rights to these resources are making the demands from the young people more

relevant because they are the ones aware of what's going to happen to them in the next 50 years. So, I think civil society involvement addresses these new concerns, in my view.

—
Francesco Bandarin

Sophia, do you agree with that? And do you see any possibility of even more conflict? There is more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Some states are worried about that.

—
Sophia Labadi

Yes, but involving a civil society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conflict, and it's interesting that you mentioned that term because it shows a resistance towards opening and democratizing the system, it seems to me, and it refers to the really, really old dichotomy between conservation and access at a site that has existed all the time. But I totally agree with Ege but listening to her, I was wondering, what do we really want to do in terms of World Heritage? Is it about processes, like consent? Or is it about involving community to also work on nomination decision, to change the narrative? We've seen a lot with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that in particular. But not only that the way history is written might not be, how should I say, the most objective way of writing history. There's lots of debate in the UK about that. We've seen also some in France or in relation to Napoleon. So, we could rewrite the whole history of the world, if we change the way nomination as being drafted involving a civil society. So, what do we want? Or is it just around management? Is it about values? Is it about just involving them? There are so many different things that could happen and I think there needs to be a greater debate around that, but I do agree that civil society needs to be involved. And that's not necessarily going to lead to greater conflict. But because this is organized by Korea, I also wanted to congratulate the Koreans and

the Korean government for doing quite a lot of work on interpretation at the moment and on civil society involvement.

—
Francesco Bandarin

Very important, we see a great role for WHIPIC in the future on this. But Cécile, maybe you are the one that can answer this question. How being open to civil society, being sometimes drowned to civil society has changed the member states, their approach, because, at the end, they are the same member states, the same member states of the convention or World Heritage of the same on intangible heritage, more or less. So, how do you explain this schizophrenia?

—
Cécile Duvelle

I think, for intangible heritage, there is no way out. Because intangible heritage is not safeguarded by states, it's safeguarded by the fact that communities still practice. So, you cannot imply those that are going to safeguard. So, it was an obligation. But I must say that, when speaking about the NGOs, we cannot speak about...

We cannot think that they are a whole agreeing body. They themselves do not agree, and within a community, people do not agree. I think on a specific position. So, I think what we must have in mind when speaking about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is more the benefit of dialogue and ongoing discussion more than those who have the right solution, who do not exist. And so, the state in its responsibility towards safeguarding or protecting heritage is the beneficiary of this discussion, in my opinion. Because the more he bases his position and his action on an important group of people supporting it, the best is for him. So, I think too many states have the idea speaking about civil society as opposition and I don't think it's right. There are some oppositions but they are also some supports. And so, leaving the civil

society working on the grassroots level on those things is alleviating the burden of the state towards the management of heritage.

—
Francesco Bandarin

Yes. But during my tenure as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all the convention and for Our World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and the others, I was coming to all the committees and I noticed that intangible heritage tended to be even more conflictual tha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Mayb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as better in sort of suppressing the conflict, but the intangible heritage was not as good in suppressing because it was open to civil society. So, I remember many cases in which intangible heritage elements became the focus of enormous discussions and if not conflicts and so...

—
Cécile Duvelle

But it was to the benefit of the elements because then many people were interested. So, it was reinforcing safeguarding.

—
Francesco Bandarin

Yes, I understand.

—
Cécile Duvelle

So, conflict is not necessarily negative.

—
Francesco Bandarin

I understand. That's a good point. But let me ask you one thing from your point of view, because you've been managing the processes of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you probably know the processes of World Heritage, where would you touch on the World Heritage processes to improve the role of civil society? Which elements would you touch?

—
Cécile Duvelle

Yes. We could think, for example, of the participation or even the

production by civil society on the reporting. Why should only the state report on the management of a site? Why civil society, who has a role in the management or a role with the community, why —can't they first report to the state their own views and second report even to the committee? For the committee to have a larger view of what is the situation. For example, this is an example where I think progress can be made on a quite easy basis.

—
Francesco Bandarin

Although we have an example because World Heritage Watch which is a sister organization to Our World Heritage has been doing that for many years and they present a document which is done by professional and expert people which in a way represents the voice of civil society, view of civil society and addresses the member states. But in my experience, I have noticed that these things, these reports are not at all considered by the member states. They are probably not even read. In any case, they don't influence the decision. And so, there is a big wall there that needs to be taken down. Otherwise, these efforts will go nowhere. It's a little bit of a concern that we have in Our World Heritage initiative. We want to do things that, this time, don't crash into a wall, but, on the contrary, somehow go beyond that wall.

But I'd like to ask Sophia, what she thinks about this. How would you put, for instance, gender and diversity better representation of gender diversity in World Heritage processes? I am talking about, identification nomination, monitoring all these processes that you know so well. Where would you touch in terms of legal and political elements to have better representation?

—
Sophia Labad

Of course, it's a really complex question but including some mechanism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could be one-way forwards. But we've seen that it's complex. As you said, there's this wall of states, so I think the evaluation by the advisory body is really important. So, if we are trying something in operational guidelines, then it needs to be followed up and I'm really glad, for instance, that issues of gender diversity were included recently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I'm really thankful for the work that has been done. But now that needs to be followed up. And that's the same with the 2015 policy. I've done a lot, it's a great text, it's great that it was adopted, but then there needs to be some follow-up. And some follow-up is not only to put them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is also mechanism to ensure that what is written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is actually followed up. And I think it is the role of the advisory body in particular. But if we look at the work of the advisory bodies, and I think a lot of people have done a lot of academic work looking at the work of the advisory body, it's very technical. Is i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whatever, to define it? Has it been changed over time or not? So, it's very technical. So, it moves away from those democratic principles that Ege was referring to. And I think it puts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to this bubble of something that is really not related to our contemporary challenges on time.

—
Francesco Bandarin

Good. That's a good definition, "bubble."

—
Sophia Labadi

So yes, but for me, a first step would be the evaluation by the advisory body. Giving more work, more power to the advisory body and then the committee needs is to follow this up. There's a really interesting work at the moment being done by ICCROM looking at those issues

in particular, what is the role of ICCROM in the next few years and these are some of the issues we've started discussing.

—
Francesco Bandarin

It's very interesting. Although, I must say that trends that I can observe are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and that's why we are so worried. Less power to the advisory bodies, more formal acceptance of all the sacred principles. But for real, closing down to two to very restricted circle, eh? Sometimes, we've been heard ambassadors saying that convention belongs to the state parties. What is this? What do these people want? As if a state could exist, per se, without civil society or without their role towards civil society.

But another question for Ege, and all these things, sacred principles are enshrined now in the big international text and particularly Agenda 2030. How do you think the convention is respecting Agenda 2030?

—
Ege Yildirim

The convention is respecting the Agenda 2030 on paper fully and I'd like to dwell on that word "paper" because there's a large literature of policies, strategies, a whole body of decisions, reports, warnings, mission reports, etc. So, what happens on the ground, what happens in real life is something that I'd like to connect your question to. And also tying in with what Cécile said and how the NGO ecosystem operates, I think it's really about an ecosystem of power dynamics and influences and agency. I mean, a document can be issued, which is perfect, which is actually produced by the committee and the center and they are very much influenced by those states party interests and dominance. There are interactions between the states parties themselves. Some are more progressive, some are more inclusive, and they actually helped influence some of the changes

in the committee's attitudes. But then there's also this vertical-local-national-international kind of traffic, the localizing of the SDGs, as they say, and this influence from the ground upwards, does it have consequences on actions? I mean a states party can come back here and time and time again one year later, one year later with promises and no real delivery because those papers are not really creating real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country's economy, perhaps.

So I think there was a comment in the chat box about being locally participatory management of the sites. If sites, I have more participatory local management systems in place, they are directly influencing what happens on the ground already, and then the jobs of the nation states are made easier because they have better things to report. That that's a win-win. I mean, they can be proud of these inclusive and positive outcomes. So, are states parties actually harnessing or using to their benefits what the local and the civil society actors in their own ecosystems can provide to them? So maybe it's a matter of just the dialogue, again, to explain and slowly persuade. And also, this conflict issues we're talking about. I've witnessed so much of unnecessary conflict because of misunderstanding. People don't talk to each other. People don't get to know each other and they kind of exaggerate the enemy. And we are not enemies and we have multiple relationships between each other. We have cooperation, we have conflict at the same time with the same people. And we have fights with our families but we will not give up on them. We're all in this together as one big family, I'm saying all these generic words but I think they're true.

And also, something else about the World Heritage's influence

dynamics is the popular imagination. I mean, it was just said a moment ago how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just like a club or a game of states parties, it's not really true because the whole world likes it and owns up to it. There is a huge ownership of the public opinion, of regular layman people. People know about World Heritage and it makes the headlines. I haven't seen some of the UN meetings ever make the headlines. But we do see the Great Barrier Reef now. People respond to these colorful, beautiful, valuable places, some of them live there, it speaks to them. There's this qualitative storytelling power of each site. It's a case study and it comes down to people's real lives. It's not just a paper that some committee produced. So, there's so much potential. We cannot give up on that potential, and I think there's a lot of hope. We just need to keep going with these discussions.

—
Francesco Bandarin

But Ege, but in your experience, you said you were a site manager and probably still are a site manager. In your experience, how can civil society really become part of it, become more effective in protecting World Heritage? I mean, because there must be at some point a mechanism that allows the thing. It cannot be just theoretical.

—
Ege Yildirim

I think we have to organize ourselves better. We have to learn the language to speak productively with states of stakeholders. I think we have to be self-critical. I mean, if I'm speaking from the civil society angle and that hat, I think there's a lot of unproductive, chaotic protests going on and I don't think that all civil society understands what it means to go into dialogue either. Technically speaking, you're asking... I think being more competent at organizing and synthesizing messages based on research and data and knowledge,

so being well informed and taking messages to stakeholders and having a communication strategy, which is again based on dialogue and not conflict. And also demanding specific things, like, I want to be accredited. I think Cécile's presentation of different NGOs being advisory bodies to the Secretariat of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is genius. It comes with its problems, of course, as she said, but I think more official, maybe small mechanisms of official representation in the official debates, and it's increasing, more observers and more speaking slots, so using the technical tools of the debates, which also brings more media visibility and more public pressure. So, we need to have a coordinated, concerted communication strategy, I would say.

—
Francesco Bandarin

All right. Thank you. Thanks.

—
Ege Yildirim

Does that makes sense?

—
Francesco Bandarin

It's clear, of course, but it's a long way. So, we have to do it to make a good bet. Now I have a very, very complex question, which I think in a way reflects also, the interest of our host, the WHIPIC. The WHIPIC is very interested in the narratives in the contested history and so on, so I'd like to ask all three of you and then we'll close this phase of the discussion. How can civil society contribute to solving this contested memory and in issues of a contested history and memory which appear everywhere and more and more? Because there is a surge of interest of many organizations in their own representation. Let's start with Cécile, which has been living in the middle of many of these conflicts and discussions. I remember the one with Belgium and Armenia, or Turkey and Croatia, in many things. So, please Cécile,

how can we deal with this?

—
Cécile Duvelle

Yes, the only way is to, to speak and to discuss. And what was incredible was... as you said, there are so many contested memorie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y all think they are the origin of the world, and they all think their heritage is the basis of the other heritage. And every state has this will to affirm against another. When strangely local communities, are much more aware that boundaries that do not exist in terms of intangible heritage. And so, what is important is the heritage, and not the owners. And so, the contestation, I think, benefited from communities themselves, we are less inclined to claim ownership, strict ownership against another one than the states themselves. So, in contested memories, there are political issues that the civil society do not share because civil society is much closer to the concrete heritage and less interested in political battles. And so, to solve contested memories, the more civil society you have, even with multiple voices, the clearer it becomes that history is not written by one single body which is the state. And so here again, I think multiple voices show there are different interpretations that are on the table and that the truth is somewhere to find but not given against another one. So here, again...

—
Francesco Bandarin

It's very clear. Diversity and dialogue. What do you think, Sophia, about this? How civil society really deal with contest history? Memory? Choose.

—
Sophia Labadi

I totally agree with what has just been expressed by Cécile. In 2018, I organized a meeting with civil society actors to see-- to write an action plan on how to implement the 2015 policy on World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you know, there's a pillar which is on peace and security. And I'm going to read to you, some of what is in that action plan and I will put the link of that action plan in the chat:

“To promote conflict resolution, civil society actors should ensure multiple interpretations through participatory approaches, ensuring that no voices are silenced. Promote dialogue-oriented projects to ensure that tensions between conflicting parties can be resolved peacefully. Create positive attempts to reconcile historical conflicts, providing a foundation upon which the youth can be for the future.”

So, that was around conflict resolution, and to contribute to post-conflict recovery, the civil society actors discussed a lot:

“Identity markers that promote commonalities and transcend divisions. Create dialogue-oriented schemes as a means of empowering local communities and overcoming the pain caused by conflict. And maybe also to define new identity markers that can promote commonalities.”

So, these are some of the solutions that were actually found by our civil society actors to deal with those conflicting narratives.

—
Francesco Bandarin

Excellent. Thank you very much. And Ege, how do you react to the same question?

—
Ege Yildirim

Yes, I was in that meeting that Sophia organized and we had really great recommendations at the end. Maybe we still need to take them even further into concrete actions. I mean, it is it's much easier to say broad policy recommendations and then you have to

work harder to actually customize them to different places or see what's feasible, so more work there. But coming to this challenge of contested memories, I think there's a sea change in the collective psychology of communities, societies as time goes by, about being more comfortable with discord. It's also a little bit postmodern how some things are more relativist now and there is no one truth. Cécile talked about looking for some kind of truth between different claims of truth. So being comfortable operating in more vague and ambiguous environments where there's no black and whites about the real narrative. And it takes practice.

And I mean, I see it in my personal individual life it takes time to get to be comfortable with views that you really don't agree with. And one day, they might change your mind and you might change their mind. I come from Turkey. We've had a couple of decades of women in Islam discussions. I mean, when I was 20 years younger, I did not have one single friend with hijab and there was this us-and-them thing in women of Turkey. Now I have plenty of women friends with hijab and I learned from them, and I'm much more comfortable, and I think we've had to have various levels of controversy and some people got hurt, but finally, some rights were won and as people get used to seeing each other and in the same spaces, physical debate spaces, then they find a way to actually, I think, find common ground. I don't think we would be ever comfortable without any shared vision together. There are common denominators and maybe looking at things we share as human beings and there are very simple basic needs we all want and people want to have some livelihood, not to go hungry, and they want peace of mind and some security, for example, or they want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se human needs go

through heritage practices and they're not that difficult to agree on and all the other things, I think they become details in a way that you can live with. So, it's a culture of living with democratic plurality and the fact that it's okay not to have one narrative and it's the new normal to have multiple narratives. So, it's a psychological sea change, I think.

—
Francesco Bandarin

Well, probably we're not there anywhere, everywhere in the world, in terms of accepting multiple narratives but certainly is the direction. I think we have gone very far and one thing I can say is how complex this issue is and, in a way, it has many faces-- the more you discuss it and the more you understand how complicated the task of our hosts in the future, the WHIPIC, will not be easy, but we hope that this will give some inspiration to them. And also, we hope that we will continue working with them on these many issues.

Now, a question for Haeree, who's our host, we have now a few questions from the floor, from attendees and three questions also, I see, in the chat. How do you, do you want to manage it through? Should I manage this or will you do it? It is explicit.

—
Haeree Shim

Yes, please Francesco. Please manage the questions. First, we have two questions in the Q&A box and then we have one question from Jean-Louis in the chat box and also comments from Irene. So, can you please address that?

—
Francesco Bandarin

Yes. Let me start with this one because in a way it continues what we were saying, Jean-Louis, who is, by the way, say hello to him. He's asking a very, very important question, not an easy one, we touched

a little bit on it. Are you not afraid if opening the World Heritage process to multiple actors in the field of heritage conservation, including activists or plural opinions would still create more so still more politicization than it is today? And today, we see the system politicized and so on and we want to reduce politicization by opening, and he said there is a risk of more politicization. What do you think, Sophia, about that? You are muted.

—
Sophia Labadi

I find it really funny that we use the word “politicize.” The UK government has been using exactly the same term, when discussing the statue as you might know, last year, in the UK, one statue in particular of the former slave owner was put in the river of the town where it was, which is Bristol. It’s the statue of Colston and there’s been a lot of debate on statues, whether they should be kept or not. That also has happened all over the world, and it happened also in South Africa, for instance. And the UK government has been using this rhetoric of politicization. And I’m wondering where is the politicization? I think it’s around as we’ve just been discussing, multiple voices and recognizing different viewpoints. So, I don’t think democratization is about politicization. My view is that reducing World Heritage to narrow states is politicization. As we’ve seen actually recently, have been written quite a lot by some scholars.

So, I don’t agree with that term, I actually think it would be a healthy democratic process to open it up and it will open it up to multiple voices, more closer connections with what happens on the ground, unless this bubble that I’ve described as World Heritage that exists in this kind of sphere that is so disconnected from reality.

In reality, my experience the conflict develops, I talk about World Heritage, not about intangible world heritage, conflict was always generated by states, never by communities in the World Heritage, probably here in Cambodia or many other places. And then so it becomes a political issue from the top. The purpose is different in the case of intangible heritage where you have a much bigger role of community that find their representation under the discussion. I think Cécile has gone away for the moment, but she might come back.

So I think it's probably... I don't know if there is an answer to Jean-Louis, but probably there are pros and cons. Certainly, by expanding the number of actors that have something to say we will complicate things, but probably by involving more civil society organization, we will lower the political level of the discussions. It's much more difficult to have an armed conflict between communities on issue of heritage than between states, like we unfortunately have.

There is a question that actually was not really a question, it's more like a statement by Irene. She mentioned an interesting case into one account that is a good example of a degraded management of the community. Community authorities are part of the directory that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of the situation. And also, the workers come from the local communities. I'm sure that in Bolivia in the past decade at least there was a much bigger of a role of local indigenous peopl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due to the form of government. And certainly, this is a consequence, but it probably wasn't like this before. And I'm sure when, at least when I visited the site, it looked very much like a classical World Heritage Site with its own institutions, but that was back many years ago. Anyway, thanks to Irene for this

comment, which I appreciate.

And then we have a couple of questions from the Q&A forum. One is actually an interesting one. It has to do with the Secretariat, they say, well, let's start by assessing the representational technical voices in decision-making positions inside the organization. For instance, addressing the issues are related to opportunities for non-Europeans to be part of the Secretariat, particularly for the issued non-paid internships and lack of support for residency permits. I think if we're looking at the future, we need to recognize the issues of the present and lack of diversity and integration of non-European views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 think this attendee which, by the way, there's no name but touches an issue that has been discussed for many years at UNESCO. The fact that UNESCO is located in Europe, makes it largely-- the staff is largely European. Mostly the secretarial staff rather than the professional, the professional is more balanced because the member states are very attentive to this but certainly this is a doesn't mean that there is an acceptable balance. It's been discussed and it is discussed every time the collective board meets and the committee meets, every day there's a discussion on this issue.

The problem with having more people in the, especially in the area of the internship has to do with the resources. A lot of European governments or academic universities or institutions finance their internships or simply in terms of the resources and on their own to spend a few months there in Paris, which is a very expensive city. And we have somebody coming from another region, doesn't even have this opportunity. So, there is an issue of financing and probably

the only solution would be to create a kind of support funding in the convention or in the UNESCO system in order to balance this and give opportunities also to the others. Sometimes, this is done directly by the member states, which support interest from other countries but it's not so frequent. So, it is an issue. Although I think that even if there is an imbalance, the culture inside UNESCO, maybe Cécile can comment on this, the culture inside UNESCO is quite oriented to respect diversity. The people are really conscious of this. This is a mandate of the organization to really be a global organization, not a European one. We always say "don't be Eurocentric," but we're all European. So, what do you think about it, Cécile?

—
Cécile Duvelle

Yes, it's true that we are very keen to try to respect cultural diversity, but it's also true that it's very difficult concretely to apply it. For example, for internship, because you raised the point, to be an intern, you need to be able to live in Paris, in UNESCO, to live in Paris, for example, a few months, even six months, who can afford it from developing countries? So, it's open to everybody but concretely, only those that are the wealthiest are able, mainly, to be interns. And so, it is feeding this unbalance which is that when you work with an intern who is very good, you tend to have then the will to give him a little contract and then he becomes much more acquainted to the UNESCO practice, and then it's a vicious circle. So, we try very much to solve it. But you must know that nearly 200 NGOs that are accredited to UNESCO, to the 2003 convention, the same problem occurs. More than 50% are from European countries, and Latin America and Arab states are very few. Because the community organization, the local organization that they have is not through the form of an NGO. So even in thinking, opening to civil society, the convention proposed a

model that is very Western-minded in a way because the idea of an NGO, an organization that has status and a kind of administrative functioning like an NGO is already biased culturally. So, working on a real culturally diverse basis is concretely, very complicated because at the end, you need to share at least one or two languages to understand yourself and to be able to work together. So, it's a challenge, it's a big challenge.

—
Francesco Bandarin

Yes now, I agree with that and perhaps there is not an easy solution but it certainly is an issue. I have now, a couple of questions which are probably the last ones which in many ways somehow crisscross. The first one is from Mariana Hernandez Perez, which asks to Cécile but I think it can be considered also to the others, whether the intangible also is linked to the territory. So, I mean, she somehow says, if we think about indigenous people, for instance, and their heritage, the territory is a very important and also you cannot separate that. And so the protection of the territory will be a more complex-- in order to gain political support, rather than the intangible heritage. It is a question somehow tends to say that intangible heritage should also be rooted on land. And therefore...

The other question is the opposite, when we consider the intangible values or heritage, as part of it is true that World Heritage has-- especi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landscapes and many other new categories, has given more value to intangible heritage, although it remains always limited to the criteria 6, or the other thing. But it's true that this partition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is very artificial. So now, let's have a comment on this to think. Can we-- maybe it's a solution, also, we will facilitate civil society involvement, if we could

have less partition between tangible and intangible. What do you think? Sophia, sorry, Cécile, as you are on the video, please, start.

—
Cécile Duvelle

First, I would like to react to the first remark because I have a very concrete example. Very interesting. Mexico proposed on the list of intangible heritage in danger, some of the cultural practices of an indigenous community that was in danger because of the mining activity that was going to happen on their land. And so, to support the community, Mexico elaborated a nomination to place this element on the urgency of guarding this. But the Secretariat of UNESCO received complaints from civil society of this indigenous community, so there were different people arguing that they didn't want to go on the urgency guarding list of the intangible heritage, but they wanted to go on the World Heritage List because they wanted their land to be protected, because they said, "our intangible heritage is not in danger, provided our land is preserved."

—
Francesco Bandarin

Very interesting point.

—
Cécile Duvelle

So only the '72 Convention can protect our land because intangible heritage, even though the defini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cludes the associated land, does not protect the land, okay? Because it is so that you can practice elsewhere, you can you can move a little bit. And so, here, the role of civil society was to say you are not in the right convention. And Mexico withdrew and I don't know if they went to the '72 Convention, I fear not.

—
Francesco Bandarin

But then what do you think, Sophia, about the same issue and this issue of tangible and intangible and in relation with civil society participation?

—
Sophia Labadi

I can only comment on the second question, about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That was my last point of my presentation. I spent a lot of time in Africa before COVID-19 occurred, and I've seen a Twitter dish site that doesn't really make sense to divide tangible and intangible. And it's not only in Africa, I think it's all over the world. But not only that, but also the nature-culture, which obviously, we have a nature-culture program by IUCN. But I think we really need to work on having a more cohesive approach and I think hopefully that's going to be in the next years, in having a more cohesive approach where we bridge tangible and intangible and nature and culture because not bridging them means that UNESCO and its convention work, according to a very Eurocentric and neo-colonial approach, the nature-cultural divide comes from the enlightenment. I mean, we've all read Descola and Bruno Latour and that's what they explain and they're totally right. And until and unless we bridge that gap and we put it back together, then we will continue to operate under a neo-colonial and Eurocentric system and I think the same for tangible and intangible. What I find really fascinating is that intangible heritage from UNESCO did not really come from a European process. It was very much a cultural Mathura and that was a Japanese national, so it's not European but it's still making this very European and Eurocentric divide, I think, on the ground. So very much for a disintegration of categories.

—
Francesco Bandarin

Excellent point, and Ege,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 think we

—
Ege Yildirim

have almost finished our time, unless Haeree gives us 3 minutes to wrap up, but you can give your position Ege?

Well, my position is more or less the same as Sophia's, or it's the same as Sophia's, really. Culture, nature, people and the divides need to be blurred and more bridges need to be made between these arenas.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graphic expression of what we're talking about, if you don't mind, if you can see our little icon that we use that ICOMOS for the SDGs events, We made a little icon where you see people, culture and nature together, and it forms a landscape and in the last ICOMOS publication on this topic, that we mentioned before the SDGs Policy Guidance, Sophia, in her visionary way, insisted we shall not use the word "cultural heritage" we shall use the word "heritage." And it took us a while to get used to it. But conceptually we're getting there, especially with indigenous people's recognition the way that people, land, spirituality they already see it that way, holistically.

But in terms of the UN mechanisms, I'm personally a relative novice in creating real solutions to secretarial matters. I mean, I can only imagine that maybe there are some conversations in the back rooms or in some private meetings and between the convention secretariats. Actually, there are very good examples from local sites. The Mexican site was great. My own site in Turkey, where I was site manager, we had a criterion 6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s one of our important proposals and we had difficulty persuading the World Heritage advisory body. Our own ICOMOS, that it was strong enough related to the land, and maybe we need to just work harder to start seeing it that way. And so, a lot of lessons over practical examples to

bridge these divides, I think. We need to collect the data and then see a way forward for our own official practices. Thank you.

—
Francesco Bandarin

Thank you. I think we have still one question and then we'll wrap up and it's from Ellen Bekasi, "Thank you for the great discussion about the tangible and intangible issue. I'm a young professional in cultural heritage and director of a heritage NGO in Belize. We see that often tangible and intangible approaches merged and that having definitions in the first place caused the biggest issue. Do you think there is a way to bridge these two concepts and how could it change action plans and implementation?" Well, part of it was answered by Ege and others. But maybe Cécile wants to pick up on this question and answer, please?

—
Cécile Duvelle

Yes, I would like to say that I totally agree. Heritage is one thing and this division is completely artificial. The problem is that the conventions are two things that have been elaborated at two times, with two very different approaches. And those approaches have difficulties. It's not the topics that have difficulties to be merged, it's the conceptions. Because one conception i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meaning that it is, on an expert basis, that you give the value to the heritage. This is for World Heritage. On the other side, you have completely subjective value given by the community itself. Nobody else than the community is giving value to its own heritage. So my question is, it's not the nature of heritage that is causing problems, but those two conceptions. How can you marry one world-wide universal body that is going to say 'this has value, this has not,' and on another side it is to the community itself to say, 'I love that, I share with that, I want to practice it, this is my heritage and nobody has a say to that.' And so,

the question for making the two conventions work together is how to approach those with the text of the convention that are what they are, that cannot be changed. And so, the question is more, maybe to go out of the convention, but on the ground, making sure that heritage as a whole is taken care of in a concerted manner, with all stakeholders involved, including for the tangible heritage communities.

—
Francesco Bandarin

Excellent. Well, of course, this is an open discussion. I'd like to say, Haeree, you have a big task at the center. Because all of the questions that we have raised are very open, but crucial. I think we've touched on a number of things, the role of civil societies, also definition a bit. The way in which it relates to heritag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the issue and function of participation and inclusion and some experiences that exist already both in intangible also in World Heritage, there are a number of interesting experiences that are coming out.

But, all goes into somehow, we have to change some paradigm. The paradigms where you have culture and nature doesn't work anymore. IUCN was very good in starting this discussion and I hope this will lead the convention to reconsider this fundamentally Eurocentric paradigm which comes from maybe ancient Greece or even before and so, more and more unacceptable for many communities. But eve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I think this has been discussed a little bit and people have accepted, but really, as you know, we always saw that even the definition is so artificial and we have to go beyond those things. Now, of course, then you look at the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s are tools. And, but if the tool is aware of its limitation, it's already much better. If the tool, on the contrary, takes these

definitions as sacred and untouchable then if there is a problem and sometimes the convention is very sacred and untouchable.

Of course, all of these things, I think, will be at the core of the discussion next year and this is inevitable. The convention has reached a very high point, but at the same time it's reaching a critical moment of transition. I don't know whether the member states have understood that operate, perhaps there is a denial of this. But certainly this is coming by the way this year, I don't know if you noticed that this year, the advisory bodies have taken a lot of courage, and they have proposed seven sites for endangered listing, and two sites for deletion from the World Heritage List, this is interesting because it will make the committee very hot. It will be really a hot discussion. As you know, we will follow this discussion. As Our World Heritage we are thinking of opening up a blog so that people can follow and can participate. But I think that this discussion this year will be so hot and so complicated, that even next year will be inevitable to open up a revision, or at least a process of discussion on the future of the convention.

I hope that our hos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 will be the protagonist because you will be established by the end of the year, isn't it? So, by 2022, you will exist. And we really hope to continue this discussion with you and congratulate you for having started this webinar series but also for having had the idea of launching a Centre that really addresses a key issue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ank you, Haeree. And thanks to all of you, dear friends, for this contribution, it's been a very interesting hour and a half. I hope our listeners and

attendees were also enjoying the discussion and certainly, we cannot get to any conclusion. There is no closing. It's more like an opening to the next discussion that we will have in the years to come. Thank you, Haeree.

—
Haeree Shim

Thank you so much, Francesco, for your wonderful moderating and facilitation. And of course, Sophia, Cécile, and Ege for your excellent contribution to the discussion. Well, we really liked this discussion as we have learned two valuable lessons from the experience from the ICH Convention, and we see that including the values that were excluded is extremely important. But at the same time, it's very complex in the practical level. And I think in this webinar we dealt with heritage holistically. So, we really liked this discussion.

And thank you to our audiences who watched and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for making this webinar all the more interesting and interactive. Today's discussion will lead to our next webinar which is our very last session in the series and it will be held as the side event of the 44th World Heritage Committee on July 18th. In the last session next month, our five moderators of the webinar series, Christina, Gamini, Jean-Louis, Sue, and Francesco will be discussing the issue of Heritage and Multiple Memories, so please don't miss it. Thanks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we hope to see you at the next webinar in July. Bye, everyon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everyone.



6회



세계유산과 다층적 기억, 유산해석의 역할



**World 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2021 Webinar Series – 6th Session

Side Event of 44th World Heritage Committee

18 July 2021, Sunday

9AM Paris, 10AM Nairobi, 4PM Seoul

World 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Christina Cameron

Professor Emeritus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é de Montréal



Gamini Wijesuriya

Special Advisor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Sue Hodges

President
ICIP-ICOMOS



Hyun Kyung Lee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ean-Louis Luxen

Emeritus Board Member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Former Secretary-General ICOMOS



Francesco Bandarin

Former Assistant Director-General
of UNESCO for Culture
Former Director of
the World Heritage Centr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PIC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Programme



African World
Heritage Fund



세계유산과 다층적 기억, 유산해석의 역할

좌장: **이현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학센터 연구교수

—
심혜리

안녕하세요? 한국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유산 해석에 관한 2021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마지막 시간입니다. 유산 해석을 위한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WHIPIC 설립추진단의 심혜리입니다. WHIPIC은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의 약자죠. 이 행사의 주최자인 WHIPIC은 유산 해석 분야의 연구와 역량 구축, 네트워크 형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센터는 올해 말에 공식 설립됩니다. 다층적 기억을 지닌 세계 유산들의 문제를 살펴보는 여정이 오늘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웨비나는 아주 특별한데요. 제44차 연장 세계유산위원회 부대 행사를 겸하고 있죠. 그동안 진행해온 다층적 기억을 지닌 유산들을 위한 논의를 이 특별한 행사에서 발표하게 돼 무척 기쁩니다. 한국 문화재청의 김현모 청장께서 환영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김현모 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사 - 김현모 한국 문화재청장”

—
김현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1972년 세계유산 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유산 보호 방식은 물리적 보전과 복원에 중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새로운 이슈와 미래 대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세계유산의 궁극적 목적인

문화적 대화와 존중, 인류의 화해와 평화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 역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관인 세계유산국제해석실 명센터 설립 등으로 세계유산과 관련된 포괄적 해석 방법을 연구하고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참가하신 국제 전문가, 협력 기관과 세계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청중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심혜리

감사합니다. 청장님과 기관의 아낌없는 지원 덕에 웨비나 시리즈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포용적 유산 해석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네스코에서 개최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샤바즈 칸(Shahbaz Khan) 소장께서 유네스코를 대표해 개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개회사 - 샤바즈 칸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장”

—
샤바즈 칸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좋겠네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국 푸저우에서 인사드립니다. 세계유산 해석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에서 주최하는 특별한 웨비나에 함께하게 돼 기쁘고, 한국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니 무척 반갑습니다. 한국은 우리 사무소나 유네스코에 대단히 중요한 협약국이죠. 아프리카 세계유산기금의 협력도 있었는데요. 웨비나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여섯 회 중 마지막 회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겠지만 전 세계에서 세계유산과 해석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푸저우에 있는 우리와 베이징 사무소, 세계유산센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설레고, 이 중요한 웨비나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심혜리

친절한 말씀 감사합니다, 칸 소장님. 총회 기간이라 특히 바쁘신 줄로 압니다.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는 해석 분야에서 WHIPIC의 핵심 협력 기관이기도 한데요. 빠른 시일 내에 협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웨비나의 주제였던 불협화음 속 유산에 관한 짧은 영상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진행한 웨비나 시리즈를 요약한 내용으로 2분이 안 되는 영상입니다. 감상해보시죠.

요약 영상

평화와 화해를 위해 창설된 세계유산. 그러나 때로는 국가 간 논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안 석불,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세계의 보물인 터키의 아야 소피아 성당. 유산의 용도와 가치에 대한 변화. 그리고 다층적 기억을 지닌 유산들. 이처럼 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2021년, 국제 전문가들이 갈등 유산 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분열을 낳는 역사를 말하는 건 힘들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장소들에 관련된 다층적 기억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국익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유산에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서사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 유산이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위태롭습니다. 그 하나의 서사에 이의가 제기되면 전부 무너져버리거든요.” 2021 유산 해석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 한국 문화재청.

심혜리

네, 이 웨비나 시리즈는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앞두고 기록된, 우리 시대의 불협화음 속 유산에 관한 의미 있는 담론이며, 미래의 관련 쟁점과 질문들을 다루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웨비나는 쌍방향 토론인 만큼 청중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줌의 대화창이나 유튜브 영상 밑에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웨비나의 사회자 이현경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현경 박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학센터의 연구교수로서 식민지 유산과 냉전 유산 같은 동아시아 불편 문화유산을 연구해왔고, 아시아 지역의 유산학자들과 협력해 불편 문화유산과 기억 갈등의 구조를 아시아 관점으로 확장하려 노

이현경

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최근 책 두 권을 출간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건설과 불편 문화유산」이라는 논문이고, 두 번째 책인 『유산과 기억, 형벌』은 타이완의 동료, 황 슈메이 박사와 공동 집필했습니다. 이제 사회자를 모시겠습니다. 이현경 박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헤리 씨. 지난 5회의 웨비나를 이끌어주신 걸출한 유산 전문가 다섯 분을 모시고 마지막 웨비나를 진행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2021 웨비나 시리즈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은 세계유산의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 서사들을 재발견함으로써 세계유산 해석의 지평을 넓히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기억 논쟁에서 비롯한 주제인 세계유산의 다층적 기억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평화 구축과 화해, 시민사회가 이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늘은 웨비나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 시간에서 다룬 중심 쟁점과 새롭게 배운 내용을 각 사회자의 발표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발표자들과 토론을 진행하고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청중과의 문답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발표자 다섯 분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크리스티나 캐머런입니다. 첫 번째 웨비나의 사회자였죠. 캐머런 박사는 캐나다 몬트리올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에 30년 넘게 관여해왔고,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을 두 번 지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자입니다. 두 번째 웨비나의 사회자였던 가미니 위제수리아 박사인데요. 위제수리아 박사는 유산 보존과 관리 분야에서 40년 동안 일해왔고, ICCROM(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 사무총장과 WHITR-AP(아태지역 세계유산 교육 연수 연구원) 원장의 특별 고문이었습니다. WHITR-AP은 중국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죠.

다음은 볼까요? 세 번째 발표자는 세 번째 웨비나의 사회자였던 장 루이 룩센

박사입니다. 룩센 박사는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며 세계유산 협약 이행에 관여했고,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이사회 일원이었으며, 2018년 기억유산 해석에 관한 유네스코 보고서 저자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발표자는 수 호지스 위원장입니다. 네 번째 웨비나의 사회자였죠. 이분은 현재 ICOMOS 문화유산 해석 및 해설 국제과 학위원회 위원장이며, ICOMOS 자문위원회의 일원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는 프란체스코 반다린 박사입니다. 다섯 번째 웨비나의 사회자였죠. 반다린 박사는 10년 동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을 지냈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유네스코 문화 부문 사무총장 보였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나 캐머런 박사는 시차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지 못하시지만 친절하게도 미리 녹화한 5분짜리 발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웨비나에 대한 크리스티나의 회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세계유산 보존의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크리스티나.

■ 크리스티나 캐머런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지켜보시는 청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스티나 캐머런입니다.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 웨비나 시리즈의 첫 사회자였죠. 우리는 세계유산 해석과 관련한 국제적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저명한 토론자 세 분이 논의에 참여했는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의 엘리자베스 실크스 사무국장, 초국적 역사학 교수이자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소장인 임지현 교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유산 전문가, 올웬 비즐리 박사였죠.

오늘의 마지막 웨비나를 위해 많은 흥미로운 의견을 종합해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포용적 서사. 둘째, 세계유산 권력구조. 셋째, 상호 연결

성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포용적 서사를 논의하면서 유산의 진가는 진실을 말하는 데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산은 이야기의 힘이 더해질 때 활기를 띠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란 그 장소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말합니다. 유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활용하고 전달하면 새로운 이해와 관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유산 관리 책임자들이 이야기들을 통제한다는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기적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담는 방식이 발달해갈 수 있죠. 불편한 기억을 지닌 유산에서는 부정적 경험을 한 이들의 서사가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일부 서사가 배제되면 화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우리는 해석 안내판과 전시물을 살펴보는 논의에서 빠진 이들을 다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해석에서 배제된 이들은 유산에 관여하고 보존에 기여할 의욕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죠. 세계유산에 모두의 목소리를 포함하면 화해와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유산에 문화적·사회적·환경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그런 면에서 유산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됩니다.

세계유산협약에서 비롯한 계층적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유익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가 행위자들이 세계유산협약 회원국으로서 유산 후보를 식별, 등재 신청을 하고,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녔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 행위자들이 과정을 지배하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국가의 우선 사항을 반영하죠. 세계유산 등재 신청 서류는 일반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은 간과되는데요. 우리 토론자들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가치와 서사를 포함할 것을 권했습니다. 해석은 유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제적, 지역적 등 모든 범위의 가치가 유산에서 어떻게 제시될지 설명과 함께 신청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소수 집단의 서사가 국가 서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세 번째 논점은 상호 연결성입니다. 21세기의 세계 기억 형성 논의에서 떠오른 주제인데요. 과거에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의 기억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유산들이 세상의 다양한 집단에서 다양

한 의미를 지닙니다. 기억의 세계화라는 개념은 세계유산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오늘날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과거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꼬인 실들을 푸는 건 민감한 작업이죠. 우리는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의 경험을 유용한 본보기로 들었습니다. 얽힌 과거를 풀려면 편견이나 재단 없이 모든 서사가 표현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화와 적극적 경청의 과정이 유산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관점들로 이어질 수 있죠.

첫 웨비나의 몇 가지 핵심 논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생각들은 당연히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주최해주신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추진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 첫 시간의 주제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셨듯이 첫 웨비나는 세계유산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각도를 제공하는 과정을 강력하게 시작해줬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유산이 진실을 말하는 존재이며 그 이야기들이 강한 힘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유산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함께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는지 통찰을 주는 논의였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가미니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제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불협화음: 다양한 목소리와 서로 다른 기억’이었죠. 가미니, 발표 준비가 되셨나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네. 감사합니다, 현경 씨.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시 참석하게 돼 기쁘고요. 불협화음에 관한 토론 내용을 요약하기로 했는데 우리의 풍성한 논의를 5분 길이로 요약하는 건 무척 어려운 과제였지만, 최선을 다해 몇 가지 논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불협화음을 ‘귀에 거슬리는 음의 조합’과 ‘합의의 결여’라고 정의했는데 두 번째가 우리 논의와 관련된 정의죠. 불협화음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학자들은 이미 유산 영역에서 이 용어가 지니는 관

련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불협화음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전달한다고 하는데, ‘불일치와 부조화의 개념’과 ‘음악적 조화에 대한 함축적 비유’입니다. 이는 협력과 화합, 최적의 균형으로 향할 가능성을 암시하죠. 요컨대 불협화음은 유산 관리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목소리와 서로 다른 기억에 중점을 둔 세계유산 해석 웨비나에서 우리는 유산 및 보존 관리에서 불협화음이 지니는 의미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불협화음이라는 개념은 유산 해석뿐만 아니라 유산 관리의 많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밝혀졌는데요. 이미 해석이 전반적 관리의 일체가 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논의에 참여해주신 저명한 세 토론자는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다시아 비에호로세 박사, 스위스의 피터 빌 라슨 박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파스칼 타루빈가 박사였습니다. 우리 모두 유산 분야가 사람이 담론의 중심에 두는, 인간 중심 접근법 쪽으로 발전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그들의 가치가 유산 관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이는 반드시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 기억, 다양한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불러옵니다. 이런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조화와 힘을 가져오지만, 때로는 견해차와 그로 인한 불협화음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이 맥락에서 불협화음이 유산 관리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이를 외면하는 건 유산은 물론 우리 사회와 유네스코의 평화 구축 목표에도 해롭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좀 더 풍요로운 유산을 위해 불협화음이 다수의 목소리와 균형 잡힌 대화를 꽃피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있었죠. 불협화음은 유산의 중요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와 기억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욱 풍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불협화음이 유산 관리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완할 수 있는 무형적 가치, 창조성, 연속성 같은 간과된 측면들을 알리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공동체 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크

리스트티나의 말처럼 하향식 구조 안에서 국가 서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협약에서 국권을 보장하는 만큼 토론자들은 불협화음을 다루는 게 힘든 과제를 인정했습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서 토론자들은 더 큰 포용을 위한 노력, 지역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폭넓은 접근법, 문화적 관점의 고려 등 표준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유산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협약국들이 더 노력하고 자문 기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기존 도구의 이용을 장려하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고, 무엇보다 불협화음에 대한 논의를 등재 신청 단계부터 세계유산의 전 과정에 통합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위원회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멋진 발표 감사합니다. 가미니는 다양한 이야기 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런 불협화음이 유산의 간과된 가치들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고 유산 관리에 기여하는 연속성과 창조성, 균형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일깨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 루이 박사가 세 번째 웨비나를 돌아봐주실 텐데요, 주제는 ‘세계 유산을 둘러싼 서로 다른 기억들의 다름’입니다.

장 루이 룩센

안녕하십니까? 중국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서로 갈등하는 기억들에 관한 세 번째 웨비나를 진행했습니다. 주최 측에서 대단히 민감한 세 가지 사례를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슬람 사원으로 다시 전환된 아야 소피아였고, 스탠퍼드대 비셰라 펜체바 교수가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펜체바 교수는 이 탁월한 유산의 복잡하고 다채로운 가치를 강조하며 그 보편적 의의가 감각으로 인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약국 외 다양한 당사자의 목소리로서 강조되는, 미학과 영성으로 가득한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아야 소피아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신앙과 관습은

물론 다양한 문화에 큰 울림을 주는 유산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분열과 법적 논쟁이라는 덫을 피해야 합니다. 펜체바 교수는 아야 소피아의 전 역사를 고려하는 폭넓은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그가 선호하는 관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시각은 이 부서지기 쉬운 아름다움의 보호를 우선시하는데, 그게 세계유산협약의 목표이기도 하죠.

두 번째 사례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입니다. 국립 타이완대의 황슈메이 교수가 이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황 교수는 일반적으로 유산 분야에서 시설과 건물들에 과도한 중요성이 부여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산업유산의 설명에 인간적 측면과 외국인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기억을 담는 일입니다. 등재 시에 요청되었듯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각 유산의 산업화 단계들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를 반영해야 하고, 그 내용이 현장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당사자의 경험을 고려해야 하죠. 황 교수는 협약국의 단일한 틀을 넘어선 연대, 화해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경을 초월한 대화를 지지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요. 유네스코의 노예의 길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알리 무사 이에 씨가 이 사례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유산목록 등재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단계의 보호를 받는 유산들의 운영 네트워크에 속해 있고, 네트워크에 속한 유산 중 소수만 목록에 등재돼 있습니다. 실무적 협력은 『관리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의존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은 유산의 기념물 개념을 초월해 기억유산의 종교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노예제가 현대사회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인종주의 같은 현재의 관심사들과 연결되는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과 관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은 실크로드나 일반 및 지역 역사 세계기록유산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등 다른 유네스코 프로그램들에서 발달한 다양한 관점의 지식을 활용합니다.

발표 이후에 토론한 내용은 요약하기가 어렵지만 네 가지 주요 결론을 이끌 어냈습니다. 첫째, 기억유산은 다양한 당사자를 위해 그 다원적 의미들을 밝히고 편파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설명은 피해야 한다. 둘째, 따라서 유산의 다양한 의미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다양한 공동체, 비정부기구, 학계 등 비국가 행위자들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하면 이와 같은 다원적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셋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개념을 재확인하되 더욱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제2세대, 제3세대 인권으로 향상된 인권 보편성과 평행을 이룰 수 있죠. 넷째, 세계유산목록 외에 특히 최근 기억과 관련된 논쟁이 있는 유산들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들을 살펴본다.

이 웨비나 시리즈를 주최한 WHIPIC 설립추진단에 축하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경

세 번째 웨비나를 설명과 함께 잘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례를 통해 유산을 둘러싼 민감한 기억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해 주신 네 가지 결론을 꼭 기억해야 할 텐데요. 서로 갈등하는 다수의 기억이 유산의 전체적 역사와 당사자 간 관용과 존중을 다시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이제 수 호지스 위원장이 네 번째 웨비나에 대해 발표해주실 텐데요, 주제는 ‘유산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 이룩’입니다. 수?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일하고 있는 땅의 전통적 주인이 콜린 국가의 워런저리 위이워링 부족임을 말씀드립니다. 호주 멜버른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던 네 번째 웨비나는 ‘유산 해석을 통한 평화와 화해 이룩’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산의 모범적 해석과 평화 구축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모했고, 해석의 측면에서 작품에 담긴 생각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들은 다양한 의미가 현장에서 어떤 모습인지, 학술적 이론이 지역공동체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줬죠. 참가자들은 저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해석 활동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줬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도 있었죠. 우승자인 머시 안데소는 케냐 미지켄다 부족의 신성한 카야 숲 세계유산에서 유산 해석이 어떻게 젊은 세대의 평화와 화해를 증진했는지 보여줬습니다. 문화 산책, 평화를 상징하는 의식, 움막 짓기, 그 외의 문화 사업들이 있었죠.

우수상 수상작은 두 편이었는데 첫 수상자인 요시프 알 다파이는 이라크 모술 구시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시프는 ‘유산은 기억을 통해서만 계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IS가 모술을 파괴한 뒤 요시프는 공유된 기억을 기록하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우수상 수상자는 아프리카 바라쿤 박물관을 다룬 올루페미 아데툰 지입니다. 이 박물관은 신세계로 수송된 노예들의 마지막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죠. 이 유산에 속한 공동체의 역사는 식민 지배로 인한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와 연결돼 있고, 노예와 노예 소유주 후손들 간의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노예의 후손들이 이끈 활동이 공동체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졌고, 두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장려상 수상작도 두 편인데 첫 번째는 칸두카르 마푸즈 알람과 이마무르 호세인의 영상이었죠. 두 사람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비탄갈 아크라 사원을 살펴봤습니다. 역사 논쟁이 있는 유산이죠. 이들은 구전 역사와 전통 관습, 의식을 이용해 신앙이 다른 사람들 간 통합을 이루었고, 청중을 적극적인 의미 형성자로서 평화의 서사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 수상자 가네시 더트는 보스니아 내전 이후 모스타르 다리 재건이 근처 공동체들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줬음을 보여줬죠.

우리가 이 콘테스트에서 배운 점이 뭘까요? 든든하게도 모든 수상자가 떠오

르는 전문가들로, 유산의 미래가 믿음직한 이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모든 참가자가 인권 기반 유산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인간 중심 해석이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세계유산 뿐만 아니라 모든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암시가 깔려 있는데요. 인권 기반 유산이 이론을 실천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혁신적인 행위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한 유산이 공식적·비공식적 과거들과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층적 기억이 의미하는 바고 우리 콘테스트 참가자들은 실무적 해결책을 제안해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유산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집단학살, 인종 간 폭력, 인종청소, 인권침해, 내전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이후 전 세계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는데도 말이에요. 기후변화도 많은 세계유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주 정부는 호주 대보초가 종대 위기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이 유산을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올리는 걸 반대하고 있죠.

이는 유산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해석의 역할은 학술 이론과 논의를 의미 있는 행동으로 옮기고, 인종차별과 기후변화, 반인륜적 범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해석은 이를 통해 모든 민족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일원이며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수. 인권과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유산 해석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호소력 강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웨비나는 이론적 논의를 행동으로 옮기고, 공동체의 유산 해석에 귀를 기울이는 획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웨비나는 유산 학계와 공동체를 잇는 다리가 됐죠. 청중분들도 콘테스트 수상 영상들을 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마지막 순서지만 아주 중요한 프란체스코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웨비나의 주제는 '세계유산: 시민사회의 역할'입니다. 프란체스코?

감사합니다, 현경 씨. 모두 안녕하세요? 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한 세계유산위원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과 동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순조로운 진행에 무척 감탄했습니다.

우리 웨비나에는 세 분이 참석해주셨는데, 젠더 문제 전문가인 켄트대 소피아 라바디 교수와 세실 뒤벨 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과장, 도시 설계자에게 일디림입니다. 유산과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관한 최근의 ICOMOS 문서 작성 과정을 이끈 전문가죠. 우리는 이 대화에서 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이라는 중요한 쟁점과 관련한 세계유산협약의 진화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협약은 진화했는데요. 협약 내용, 특히 제5조를 보면 강력한 하향식 접근법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나 시민사회는 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의 수혜자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책 등 최근 방침들을 보면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고, UN의 정책들이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죠. 내년이 협약 50주년인데 10년 전인 40주년 이후로 접근법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채택을 비롯해 많은 국제 문서 덕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계유산협약은 여전히 하향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협약은 50년 전에 작성됐고, 그 시절에는 시민사회가 중요하지 않았고 전문적·정치적 담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모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기록한 문서에서 그 영향이 드러나는데, 유산의 성격이나 미적 가치 등을 강조하는 서사가 우세했기에 공동체는 항상 뒤로 밀려났습니다.

또 협약은 유산 보존의 도구인 만큼 보존에 초점을 두는데 역시 기술적으로 운영됩니다. 보존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죠. 물론 상황이 달라지고 있지만 하향식 운영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유산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관광업이 판도를 바꿔놓았는데, 50년 전에는 관광이 지역 경제 측면에서 지금처럼 중요하지 않았죠. 유산의 경제적 가치와 관광 문제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역 공동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더 배제됐습니다. 국가나 지역공동체의 정치적 이해 외에도 사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죠. 협약은 아주 느리게 변하고 있어요. 참고로 원주민을 위한 정책도 주목받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요? 다른 유네스코 협약의 포용적 과정들을 살펴봤는데요. 예를 들면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있죠. 물론 새로운 움직임과 접근법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난 2년간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아워 월드 헤리티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계유산협약과 협력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활동을 하죠.

우리가 터놓고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협약은 예전보다 훨씬 정치성이 강해졌습니다. 1992년까지 협약 대표들은 협약국의 위임을 받은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었는데, 1992년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인들 때문은 아닙니다만 '일본 개정안'이라고 불리죠. 지금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는 협약국 대사들인데, 이 때문에 협약이 과학에 근거한 결정에서 멀어져 정치적 이해를 더 중시하게 됐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30분만 봐도 과학에 근거한 독립적인 토의와 결론 외에, 국가의 이익을 충족할 균형 잡힌 방법을 찾는 게 위원회 대표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이는 앞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유산 해석에서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산은 사회와 공동체의 일부임에도 유산 관리와 보존에서 공동체의 역할은 오랫동안 간과됐습니다. 프란체스코의 발표는 2019년 ICCROM에서 발표한 논문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지역공동체가 유산 관리에 참여하면

공동체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앞으로 유산 해석과 관리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길 바랍니다.

청중들께서도 다섯 분의 멋진 발표를 재미있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세계 유산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포용적인 유산 해석의 중요한 역할을 지적하는 발표들이었죠. 유산에 관한 영양가 높은 새로운 지식으로 속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 토론자 다섯 분의 흥미로운 논의로 소화할 시간입니다. 발표자 다섯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유산 해석을 재검토하기 위해 네 가지 토론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사전 녹화 영상으로 논의에 참여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쌍방향 논의를 위해 질문이 있는 분은 줌이나 유튜브 대화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주저 없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논의를 시작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논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상의 진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다섯 번의 웨비나에서 다룬 사례들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뭘까요? 크리스티나가 첫 논의 주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크리스티나?

— 크리스티나 캐머런

기존 세계유산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데 고려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세계 유산 과정은 업무량이 많고, 수정 등재 신청 준비에 협약국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협약국들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개 기존 등재 유산보다는 새로운 등재 신청이 우선이고요. 게다가 세계유산 시스템 자체에 매해 위원회가 검토할 등재 신청 건수에 대한 뼈뺀 상한선이 있어서 협약국들은 재등재 신청에 한정된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잠정목록의 유산들이 주는 압박이 크죠.

이처럼 제한된 예산과 등재 신청 상한선 때문에 사상의 진화에서 비롯한 새로운 가치들을 더하기가 힘든데요. 하지만 새로운 개념들을 적용한 중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재등재가 그중 하나인데, 원래 1990년에 자연유산 기준만으로 등재됐던 곳이죠. 1993년에 문화경관 개념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자마자 불과 3년 만에 협약국에서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산들과 마오리 원주민들의 문화적·영적 결속을 인정하고자 재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크리스티나는 복잡한 세계유산 과정과 제한된 예산, 세계유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유산 해석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미니, 크리스티나의 의견에 덧붙여 말씀해주시겠어요?

가미니 위제수리아

네, 물론입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세계유산 과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이죠. 제 기억에 1982년에는 우리가 2분, 5분 만에 잠정목록을 작성하고, 하룻밤에 등재 신청 한두 건을 검토했는데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죠. 세계유산 과정이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진화를 허용하고 새로운 생각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기억에 관한 기준이나 규정, 지침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도 이미 관리 안내서에 유산을 관리할 때,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돼 있을 것입니다. 특정 조건이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바꾸지 않아도 관리 단계에서 모든 가치를 포함하고 해석을 확장할 방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이현경

훌륭한 제안 감사합니다. 유산의 개념이 진화해왔으며, 새로운 개념을 기존 개념과 통합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유산 관리 단계에서 모든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미니.

두 번째 논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세계유산 맥락에서 불협화음을 빚는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다른 기억을 지닌 유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방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층적 기억들을 어떻게 다루면 좋

을까요? 장 루이가 오랫동안 불편 문화유산 해석을 다뤄보셨을 테니 두 번째 논의 주제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장 루이 특선

그러죠.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모든 유산에 어느 정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또 우리는 포용적 해석으로 유산이 다양한 당사자에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분쟁이 있었거나 분열을 낳는 기억을 지닌 유산들에 주목해봤으면 하는데요. 이는 요령 있게 다뤄야 하는 매우 특수하고 민감한 문제죠. 우리는 세계유산협약과 같은 정부 간 법적 장치의 틀 안에서 일하고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기억이 유산의 무형적 측면을 수반한다면, 포용적 해석을 허용하는 방법과 도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6번 기준은 다른 주된 자격 기준의 부수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관행과 운영 지침에 따르면 그 다른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에 분쟁이 있었거나 기억 갈등이 있는 유산들을 목록에 등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산들은 언제나 협약국에서 그들만의 시각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테니까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요. 즉, 이런 유산들은 세계유산협약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노예의 길 프로젝트 같은 대체 프로그램들과 연결되는 게 낫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발표에서 언급된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 같은 전문적 비정부 기구들도 있고요. 이게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중요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장 루이. 최근의 분쟁 유산과 관련해서 세계유산협약과 같은 법적 장치에 관한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고, 최근의 분쟁 유산들은 세계유산으로 바로 등재하는 것보다는 한동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죠.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 이 논의에 더할 의견이 있으신가요?

수 호지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장 루이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사학자로서 어떤 유산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칠 수 있고 최근의 분쟁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니까요. 세계유산보다는 일반적인 유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문 분야가 일반 유산 해석이기도 하니까요. 많은 경우 새로운 해석 매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몰입형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통해서요.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학자로서 강조할 만한 한 가지 주안점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 역사'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진실에 대한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에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 친구의 조상이 호주 북부 원주민 학살에 관여했는데, 리사가 학살 피해자 후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렬한 의식이 진행됐죠. 영상 콘테스트에서 봤듯 때로는 의식과 치유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진척 없는 적대적인 논쟁만 반복할 게 아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사학자로서 직접 경험한 일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 논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유산 해석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를 포용할 수 있을까요? 유산 해석이 어떻게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시민사회를 다룬 다섯 번째 웨비나를 진행하셨던 프란체스코가 이에 대해 답변해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질문인데요. 많은 지역의 정부 기구들과 시

민사회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니까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접근법을 볼 수 있는데, 책임자나 담당 기관이 해석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세계유산 해석이 합작 과정이라는 원칙을 확립할 대등한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세력이 중요한데, 시민사회가 조직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시민사회가 조직되고 발언권을 가지면, 해석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시민사회 조직은 정치적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들과 연결돼야 합니다.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상황과 세계적 상황을 연결하는 도구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위원회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위원회가 시민사회의 역할을 정책에 명시했지만, 이게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어느 영역이 시급하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보여줄 도구가 더 필요합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을 찾았죠. 무형문화유산의 식별부터 등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시민사회가 협의 대상이 되고 참여해야 하거든요. 세계유산협약도 이런 방식에 착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죠. 위원회의 논의를 보면, 예를 들면 어제도 장시간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시민사회에 2분 동안 발언권을 줬을 뿐 토론에서 그들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협약의 정치적 접근법 안에서 협약국과 대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대사들이 '우리가 협약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시민사회에 이바지하는 기본적인 역할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할 일이 많고 과정의 여러 단계를 지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시민사회 조직과 집단들이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현경

감사합니다. 짧지만 굉장히 집약적이고 자세한 답변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시민사회를 포함하자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유산 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전략적 도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이 도구는 아주 투명하고 창조적·개방적이어야 하고, 지역, 국가, 국제적 단계를 연결해야 하고요. 지역공동체가 등재 신청과 관리에 참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방식을 세계유산이 배워야 한다는 말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수, 현장에서 지역공동체와 일해본 경험이 많으신데요. 시민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수 호지스

네. 제가 했던 모든 작업의 중심에 지역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는 지역 유산부터 세계유산까지 다양한 유산에 해당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구에 따르면 많은 지역공동체가 유산과 관광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역공동체가 세계유산에 열광할 거라고 짐작하는 경우가 많죠. 현재 빅토리아주 금광 지대의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역공동체들은 이 유산에 대해 잘 모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많은 시간을 들여 지역공동체에 이 유산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거죠. 이익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업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익과 역량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지역공동체를 낭만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와 일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공동체는 다양한 내부 갈등을 안고 있죠. 해석의 역할은 공동체 내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착해 현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들려줄 장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이나 다중매체에 모두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경우, 웹사이트에 모든 의견을 올릴 수 있죠.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발언권을 줘야 합니다. 물론 조정도 필요합니다.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처럼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는, 발언권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를 압축하는 해석 체계가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 유산에 반영될 수 없으

니까요. 공동체와 대화를 하되 현실적이어야 하죠. 그게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수. 대화가 시민사회를 유산 관리와 보존에 참여시키는 열쇠라는 데 동의합니다. 시민사회가 유산 관리와 해석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익뿐만 아닌 사회적 가치와 이익도 언급해주셨는데요.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모색해보아겠습니다.

이제 다음 논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이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협약의 이행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고, 어떤 부분이 간과됐을까요? 오늘날 세계유산을 보호하려면 새로운 접근법과 관점이 필요할까요?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데 정말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섯 분 모두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나입니다.

크리스티나 캐머런

처음부터 주된 초점은 유산 등재에 있었고,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관행은 그대로입니다. 세계유산 지정은 항상 협약국의 위신 문제였습니다. 초기에는 유산 보존을 목적으로 등재 신청이 이뤄지는 편이었지만, 최근의 등재 신청은 정체성 문제, 특히 관광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현재 총회에서 보듯 등재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강한 한편 보존과 관리 문제에도 서서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초기에는 물리적 구조에 집중했지만, 점차 다양한 유무형 가치를 포함하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적 접근법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계획에서는 해석을 덜 중요시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억의 세계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향후의 세계유산 관리에서 해석을 보존과 동등한 위치에 둘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현경

크리스티나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유산 등재부터 정체성, 경제적 가치, 관리 계획과 해석까지 세계유산협약의 전 발달 과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 바로 다음 발표자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가미니.

가미니 위제수리아

네, 감사합니다. 이걸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설명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세계유산은 진화하고 있고,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나가 몇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2005년, 운영 지침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정의가 추가되고, 2007년 공동체가 전략 목표로 추가되는 등 50년 동안 많은 문제를 다뤄왔고, 아직 다뤄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논의하고 세계유산 과정에 통합해야 합니다. 제 논점은 이를 위해 모든 관련자가 참여하고 포함돼야 하며 활동을 주저하는 관련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여가 활발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들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죠. 세계유산협약이 진정 세계적인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의미의 다양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참여와 협력이 균형을 이뤘으면 합니다. 더 노력해야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세계유산협약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계유산협약은 그 시절의 유산 개념에 근거한 협약이라 유형물과 세속적 가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유산을 규정하는 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죠. 프란체스코가 제안했듯 세계유산 과정을 초기 단계부터 살펴볼 발전적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가미니. 더욱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참여를 통해 모두 함께 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장 루이?

장 루이 룩센

네, 물론 협약이 시행된 지 50년이 됐으니 이전 협약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크리스티나의 말에 동의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절차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또 과정의 정치화에 대한 프란체스코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협약의 이행에 아주 위험한 요소죠. 따라서 새로운 접근법들을 제안해야 하지만 협약의 근본 원칙들을 돌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의 목적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의 보호니까요. 크리스티나가 말했듯이 최대한 많은 유산을 새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재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합니다. 정치적 압력이나 협약국 간의 협상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가 과학 자문 기구의 권고를 너무 자주 기각하는 문제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관광개발이 유산 보호에 위협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지만, 협약 이행의 부정적인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현재 시행 방식의 부정적인 측면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더 전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수, 차례가 돌아왔네요.

수 호지스

다들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크리스티나와 모든 분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계획의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해석이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상을 보호할 가능성은 적거든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해석 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관련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산이 사람들과 분리된 채로 등재되지 않게요. 과정에 그런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지역 공동체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해석 계획을 통해 유산의 무형적 가치도 가져올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수. 잘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프란체스코 반다린

감사합니다. 중요한 질문인데요. 내년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협약은 분명 성공적인 도구였습니다. 뉴욕에 있는 사람들 말처럼 UN에서 손꼽힐 만큼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필요성을 아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첫째, 유산의 보존 상태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이나 통제가 없었고 둘째, 협약국들

은 유산 등재 등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표현하고 경제적 목적을 위해 유산의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었죠. 보존과 등재의 양극성은 늘 존재했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보존의 측면이 더 강했지만, 지금은 등재가 훨씬 강해졌고요. 이번 총회에서도 45개 유산의 등재가 제안될 예정인데요. 이게 진짜 관심사고, 협약국들은 보존 상태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야기되죠. 이 흐름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협약이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협약이 정치적 도구로 매수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봤죠.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시민사회가 훨씬 큰 역할을 하는 21세기에 걸맞은 협약이 돼야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나 과학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유산 보존을 위한 다른 도구와 접근법이 많은데, 여기에 협약의 성패가 달렸죠.

우리가 그동안 이런 논의를 해왔습니다. 아워 월드 헤리티지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유산을 새로 등재할지, 식민주의 같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등을 논의했죠. 세계유산협약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반이 이런 유산을 갖고 있으니까요. 기술 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협약은 기술 측면에서 2세기쯤 뒤쳐져 있죠.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세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년엔 이런 큰 논의가 있을 텐데 주목을 받길 바랍니다. 협약국들이 관계를 차단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신뢰 상실의 흐름이 계속될 테니까요.

이현경

잘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이 논의가 내년엔 있을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네, 맞습니다.

이현경

아워 월드 헤리티지는 새로운 사업이지만 현재의 세계유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죠. 이 사업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아주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스밀로 씨의 질문입니다. 다층적 기억의 인정과 관련해서 장 루이 룩센 박사가 국가주의적 의도가 유산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지역공동체의 경험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협약국들이 유산을 국가 건설이나 그럴듯한 이미지 구축에 이용하는데요. 협약국의 제약이나 대표권, 허가 없이 특정 유산에 대한 반대되는 경험이나 믿음을 지닌 공동체나 집단을 통해 유네스코 목록에 유산을 등재하는 방식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호스밀로 씨의 말씀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등재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법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질문 같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 시스템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게 가능할지 물으셨고요. 장 루이가 이 질문에 대답해주시겠어요?

장 루이 룩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산 보존이 공동체 건설이나 국가 건설의 일부가 되는 건 정상적인 일입니다. 지역이나 지방, 국가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정말 어려운 상황은 다른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국익을 형성하는 일이 다른 나라들과 갈등을 빚을 때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등재의 부차적 차원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해석을 해야 국익이 받아들여지고 다뤄질 수 있죠. 하지만 단지 분쟁이나 최근에 분열을 낳은 기억만 다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 유산이 등재된 두가지 예가 있는데요. 노르망디와 갈리폴리의 상륙 해변입니다. 저는 이런 곳들이 협약의 범위에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공격적인 방식으로 돌아보는 일일 뿐이니까요. 저는 이런 등재가 평화 구축으로 이어질 거로 믿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국가 건설은 문제가 없지만, 기억의 가치에만 근거하는 건설이라면 이런 식의 등재는 피해야 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좀 고지식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질문에 대한 제 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감사합니다. 국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유네스코가 출범했을 때와 같은 국제주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사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 루이. 다른 분들도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프란체스코, 수, 가미니?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재현 교수님의 질문입니다. 불협화음 속 유산의 다층적 기억들을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에 포함함으로써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지역적·무형적 가치와 균형을 이루게 해 유산을 둘러싼 갈등을 막을 방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토론 시간에 이미 이 문제를 짧게 논의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더하실 분이 계신가요?

프란체스코 반다린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 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항상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 작업이 이뤄지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죠.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한 가지 나쁜 예는 캄보디아 프레아비헤아르 사원인데요. 협약의 가장 충격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원의 등재가 태국과의 분쟁을 일으키다시피 했으니까요. 그곳에 여러 번 가봤는데 세계유산이 아니라 군부대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대화 없이 서로에게 맞서다가 이뤄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는 카팍 난입니다. 콜롬비아부터 칠레까지 6개국에 걸쳐 있는 안데스 도로망인데요. 이 중요하고 독특한 유산의 등재를 준비하는 10년 동안 이 나라들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이 안데스 도로망의 통합을 위한 대화가 10년 동안 계속됐고, 결국 하나의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진행해온 작업이었죠. 이처럼 공동체 간의 문화와 교류를 이루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듭니다.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경

쉬운 해결책이 없다는 건 중요한 작업이라는 의미죠. 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일정 수준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인내심과 관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WHIPIC의 김덕순 팀장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갈등이 존재하고, 우리는 발전과 진화를 위해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서로 다른 역사적 기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 갈등이 불편해서 피하려 하는데요. 국제사회가 문화유산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방침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22년이 세계유산협약 채택 50주년이니깐요. 세계유산협약과 관련된 문화유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세계유산협약 시스템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유산 시스템 밖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까요? 여기에도 쉬운 해결책은 없겠지만,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답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토론 시간에도 이 문제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수?

수 호지스

이 흥미롭고 복잡한 질문에 시간 내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석에는 갈등이 내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요. 우리도 친구나 가족과 논쟁을 벌이고,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입장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증거를 제시해 방문자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요. 저라면 그런 접근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그게 사람들을 평화로 이끄는 방법일 것입니다.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복잡한 유산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기가 힘들죠.

이현경

감사합니다, 수. 장 루이? 가미니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장 루이 룩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협약의 목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를 알고 대안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예의 길 프로젝트라는 좋은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런 민감한 문제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첫 발표에서 설명했던 기구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은 다층적 기억을 중재한다는 목표를 지닌, 유연한 비정부 기구입니다. 세계유산협약으로 모든 문제를 끌어올 게 아니라 대안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감사합니다.

이현경

대안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 감사합니다. 가미니.

가미니 위제수리아

이 역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얘기인데요. 첫 시간에 국가를 초월한 해석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정의할 때 그 의의는 국경을 초월해야 하고 이는 국제사회가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협약이 각국의 국권을 보장하거든요. 따라서 장 루이의 말처럼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가 단계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모든 기억과 모든 측면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할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물론 해답은 드릴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현경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네요. 조금씩 지평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프란체스코 반다린

제가 한마디 보태도 될까요? 장 루이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유산 보호와 해석의 측면에서 기회와 형식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 회복을 위한 국제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그와 동시에, 장 루이도 동의할 것 같은데요, 협약이 이런 노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문제를 배제할 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다룰 문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관들이 일할 여지를 주고 대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이현경

맞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이 협약에 영향을 미치

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죠. 더는 어떤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게요. 감사합니다, 프란체스코.

영감을 주는 모든 의견과 질문, 논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유산 해석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향후 50년을 준비하면서 세계유산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여섯 번의 웨비나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유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논의의 씨앗을 심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산이 사회 과정이듯, 유산 해석도 더 많은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웨비나 시리즈나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이 유산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어떻게 성장해 이 분야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함께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유산 해석에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헤리 씨, 나와주세요.

— 심혜리

오늘 토론을 세심하게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웨비나 시리즈에 지대한 기여를 해주신 크리스티나, 가미니, 장 루이, 수, 프란체스코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시리즈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롭고 쌍방향적인 웨비나가 될 수 있도록 토론을 봐주시고 참여해주신 청중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6개월간 이어진 여정에 동행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웨비나 시리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마지막 화면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피드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산 해석에 관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orld 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The Role of Heritage Interpretation

—
Haeree Shim

Hi, everyone. Welcome to the final webinar in the 2021 heritage interpretation series, World Heritage and Multiple Memories, hos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Haeree Shim from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first UNESCO Category II Centre for the heritage interpretation to be, WHIPIC,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n organizer of this event, WHIPIC will be carrying out researching, capacity-building, and networking in the field of heritage interpretation. The Centre will be officially established by the end of this year.

Today we have reached the end of our journey for exploring the issues of 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around the world. And as you know, today's webinar is very special, for it is held also as a side event for the 44th extended World Heritage Committee this year. We are very happy that we can present you with a discussion that we've done so far for the heritage with the multiple memories at this very special event. To welcome all of you, the administrator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nt us the welcome remarks. I present to you Mr. Kim Hyun-mo.

Welcome Remarks, Kim Hyun-mo,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Kim Hyun-mo

Greetings, everyone. This is Kim Hyun-mo, the Administrator of Cultural Heritage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e adop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1972, preservation of World Heritage has mainly focused on physical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However, we are at the point where we need to embrace diverse opinions on new issues regarding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Through this webinar, we hope to build a foundation that may realize cultural dialogue and respect, the ultimate goals of World Heritage, and peace and reconciliation of humankind. The Korean government will try its best to implement research on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and to open the forum for diverse discussion regarding World Heritage by establishing a UNESCO Category II Centre,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appreciation to the international experts, affiliate institutions and, the audience who are attending this event for your interest in the preservation of World Heritage. Thank you.

—
Haeree Shim

Thank you, Mr. Kim. We were able to proceed this webinar series thanks to you and your organization's generous support. We appreciate your serious interest on the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and would like to have further cooperation with you in the future as well. And we have also opening remarks from UNESCO. The

director of UNESCO Beijing Cluster Office, Mr. Shahbaz Khan, will be delivering the remarks on behalf of UNESCO. Mr. Khan, please.

Opening Remarks, Mr. Shahbaz Khan, Director UNESCO Beijing Cluster Office.

—
Shahbaz Khan

Thank you very much. I hope you can hear me well. From Fuzhou, where we are having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m very pleased to join this special webinar today, which is organized by our very first UNESCO Category II Centre in the area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and I'm very pleased to know that it is suppor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 very important member state for my office and for UNESCO in cooperation with the African World Heritage Fund. So, congratulations to all of you for this webinar series, as I understand as six of them, and today is the last one; it will not only enrich people who are joining today, but it will become a very important reference for people dealing with World Heritage and its interpretation around the world. So, from us here in Fuzhou with my colleagues from the Beijing Office and the World Heritage Centre, we are excited to be with you and we look forward to the deliberations of this very important webinar. Thank you.

—
Haeree Shim

Okay. Thank you very much, Mr. Khan, for your kind words. We know that you're particularly busy during this time of committee period. UNESCO Beijing office is also one of the core cooperation bodies to WHIPIC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we would love to collaborate on projects with you in the near future. Now, just before beginning the discussion, we would like to present you a short video that we

made on dissonant heritage, which was our webinar theme, and the summary of the webinar series that we have done for the last six months. It's less than two minutes. So, shall we watch?

—
Video Clip -
Video Summary

World Heritage, conceive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But it sometimes becomes the bone of contention between countries. Buddhas of Bamiyan, Afghanistan, A world treasure destructed by the Taliban. Hagia Sophia Cathedral, Turkey, Changes in heritage uses and values. And...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Diverse interpretations of heritage exist. In 2021, international experts gathered to discuss World Heritage in conflict. Yes, it is hard work telling divisive histories, but it is essential. We're more aware that there are multiple memories associated with places. But if a nation state has a monopoly, conflict between national interest and the World Heritage, the outstanding values is in a sense inevitable. Now we have there's this contradiction in heritage when it's singular, when it has one narrative, it feels very powerful and strong. But actually, it's quite vulnerable because if that one narrative is in any way challenged, then it crumbles.

2021 Heritage Interpretation Webinar Series.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Preparatory Office for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Haeree Shim

Great. I think this webinar series was a very good record of the meaningful discourses on dissonant heritage in our era facing the 50th anniversary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next year, and will be an important reference for the future issues and questions that we'll be

facing. Before we begin the webinar, I would like to ask the audience for your full participation as it is an interactive discussion. Please leave your comments or questions in the chat if you are in Zoom and also below the video if you're on YouTube.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moderator of the webinar today, Dr. Hyun Kyung Lee. Hyun Kyung is a research professor in the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South Korea. She has been working on the difficult heritage in East Asia, such as colonial heritage and Cold War heritage. With a collaboration with heritage scholars in the Asian region, she makes an effort to expand the frameworks of difficult heritage and memory conflicts into Asian perspectives. As an outcome of her endeavor, she has recently published two books. Her first monograph is *Difficult Heritage in Nation-Building*, and her second book is *Heritage Memory and Punishment* written in collaboration with her Taiwanese colleague, Shu-Mei Huang. Well, now, I would like to turn the time over to our moderator. Welcome Hyun Kyung, the floor is yours.

—
Hyun Kyung Lee

Thank you, Haeree. I'm so honored and pleased to moderate the final webinar with these five outstanding heritage professionals, who have facilitated the past five webinar sessions. The 2021 webinar series, *World Heritage with Multiple Memories*, has endeavored to broaden the horizon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by rediscovering the multiple voices, multiple values, multiple narratives of World Heritage Sites. We have held in-depth discussions under *Multiplicity: The Memories of World Heritage*, spinning from the unavoidable presence of dissonance and memory conflicts at the sites. And through this contribution to peace-building and reconciliation and to the significant

role of civil society in this field. Today, while wrapping up the webinar series, we are so lucky to listen to the core issues and new learnings of each session through each moderator's presentation. In following, we are going to have a discussion with the presenters and have an open Q&A session with the audience who are listening to this last webinar. Now, let me briefly introduce the five presenters.

Our first presenter is Christina Cameron, who was the first session's moderator. She is a professor emeritus in the School of Architecture at the University of Montreal, Canada. She has been involved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program for more than 30 years and been a chair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wice.

Next Our second presenter is Gamini Wijesuriya, who was the second session's moderator. He has been working in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for 40 years. He served as a special advisory not only to the director-general of ICCROM, but also to the director of the WHITR-AP, which is the UNESCO Category II Centre for World Heritage in China.

Next. Our third presenter is Jean-Louis Luxen, who was the third session's moderator. He served as a secretary general of ICOMOS and has been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e was also a boar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and is the author of the UNESCO report, Interpretation of Sites of Memory in 2018.

Next. Our fourth presenter is Sue Hodges, who was the fourth session's moderator. S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the ICOMOS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ittee on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and a member of the ICOMOS advisory committee.

Next, please. Our fifth presenter is Francesco Bandarin, who was the fifth session's moderator.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Centre for 10 years. Also, he served as UNESCO's assistant director-general for culture from 2010 to 2018.

Before going further, here is a very short notice. Due to the time difference, Christina Cameron is not able to participate in today's webinar. However, she kindly sent us a pre-recorded 5-minute presentation. Shall we listen to Christina's reflection on the first session, "New approaches to World Heritage conservation". Christina?

 **Christina Cameron**

Thank you, Haeree, and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to our audience at the 44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My name is Christina Cameron. I moderated the first webinar in the series on World Heritage, Multiple Memories. Our session focused on the international context related to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We had three distinguished speakers to discuss the question: Elizabeth Silke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headquartered in New York City; Professor Jie-Hyun Lim, professor of transnational history and director of the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at Sogang University in Seoul, Korea; and Dr. Olwen Beazley, a World Heritage professional with the 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in Australia.

So, for today's final webinar, I've tried to synthesize their many fascinating observations and I've chosen to do it under three headings. The first is inclusive narratives, the second is the World Heritage power structure, and the third focuses on the concept of interconnectedness. So, in discussing the issue of inclusive narratives, our session concluded that the best World Heritage sites are truth-tellers. They come alive through the power of their stories, and here we're speaking about all the stories associated with the place. Harnessing and sharing the full story of a site brings benefits of new understandings and new perspectives. And we were cautioned in our discussion that those responsible for managing sites would have to release any sense of control over the stories that emerge. Capturing multiple perspectives in an organic process can take on a life of its own. For sites with difficult memories, the narratives of those with negative experiences at the site are key to understanding the full story. If some narratives are excluded, there is little chance for reconciliation. When looking at interpretive panels and exhibitions, we were asked to look and ask the question, "Who's missing?" Because those who are missing are not likely to be motivated to engage with the site and contribute to its conservation. Inclusion of all voices at World Heritage Sites can lead to reconciliation and more involvement in the sites. These outcomes bring cultural,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to the sites. And in that sense, they support their sustainability.

We also had a good discussion about the hierarchical power structure that flows from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tates actors identify potential sites and nominate them for listing and states actors are also member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that decide whether the sites posses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r OUV. In other words,

states actors nominate the process and OUV reflects states' priorities. Now, typically, World Heritage nomination documents focus on OUV, with the result that other values are ignored. Our group encouraged the inclusion of multiple values and multiple narratives, even if they're not considered to b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ecause interpret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site management, all values, international, regional, local, should be stated in the nomination document along with an explanation of how they will be presented at the site. In this way, Minority narratives will be reflected within the dominant state narrative.

And the third issue that we considered was interconnectedness. This arose out of a discussion about global memory 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In the past, people seem to be less interested in the memories of other nations. But in our era, World Heritage Sites have different meanings for different groups in the world. The concept of the globalization of memory is a tool for understanding World Heritage Sites in a different way. In today's interconnected world, our past is more entangled than we previously understood. But it's a delicate operation to disentangle the various threads of the past. And the experience was Sites of Conscience provides a useful model, in our view. To disentangle the past, necessitates the creation of safe spaces where all narratives can be expressed without prejudice or judgment. This process of dialogue and active listening can lead to new understandings and new perspectives on site values.

Those were some of the key ideas from our session one. And, of course, they are interconnected. And I would like to close by thanking the preparatory office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for its leadership in sponsoring this discussion. Thank you, and back to you, Haeree.

—
Hyun Kyung Lee

Thank you, Christina, for your clear explanation on the main theme of the first session. As she noted, the first session powerfully opened the door to provide a new angle of understanding World Heritage Sites. Christina mentioned that heritage is a truth-teller and their stories are so powerful, if it gives us an insight on how to include multiple voices, along with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t the World Heritage Site.

Now, we can move to Gamini's presentation on the second session, "Dissonance on World Heritage, Multiple Voices and Different Memories". Gamini, are you ready to present your paper?

—
Gamini Wijesuriya

Yes, indeed. Thank you, thank you Hyun Kyung. And it's great to be back a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s well. I'm expected to summarize the panel discussion we had on the theme, "dissonance." It is a very difficult task to summarize the rich discussion we had, to summarize it in five minutes. Anyway, I'll try my best to give some points that came up. The Oxford Dictionary defines dissonance as a "combination of musical notes that sounds harsh", and also as lack of agreement, which is relevant to our discussion. Although dissonance is a relatively new concept, academics have already begun to discuss its relevance to the heritage sector. According to them, the idea of dissonance conveys two key elements: ideas of discrepancy and incongruity, and an implicit analogy with musical harmony, which implies the possibility of a move towards consonance, or some form of optimum balance. In short, it can be a very useful tool in managing heritage. On the Interpretation of World Heritage and Multiple Voices,

Different Memories, the panel discussion discussed the meaning and applicability of dissonance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eritage. It was revealed that the notion of dissonance can play a vital role, not only in interpretation, but also on many other aspects of managing our heritage. I have already discussed and stressed interpretation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overall management, not an isolated entity.

The three distinguished panelists who contributed to the session were Dacia Viejo-Rose from Cambridge University, Mr. Peter Bille Larsen from Switzerland, and Dr. Pascal Taruvinga from South Africa. All were in agreement that the heritage sector has advanced towards more people-centered approaches, which place people at the heart of the discourse. In consequence, people and their values have begun to play a central role in managing heritage. This invariably brings multiple voices, multiple values, multiple memories, and the involvement of multiple groups of stakeholders. Such multiplicity can invariably bring harmony and strength, but it can also reveal conflicting views, and therefore dissonance, in some instances. In this context, the panelists were unanimous in agreeing that dissonance is an unavoidable phenomenon in heritage management and that ignoring it would bring more harm than good to heritage as well as to the society and our overall goal of building peace, which is the goal of UNESCO.

It was suggested dissonance can be the seed for enabling many voices and balanced dialogue to flourish with a view to embrace diversity and bring richness to heritage places. Dissonance would not diminish the significance of a place, rather recognition of and respect for different voices and many memories would bring robust meaning

to it.

It was also suggested that dissonance can act as a hub to promote some of the forgotten dimensions, such as intangibles, creativity, and continuity that are embedded in heritage with which outstanding universal value can be complemented in managing sites. However, in a world where community engagement is at the relatively formative stage, and we're top-down as Christina mentioned, narratives of national view carry a considerable rate, and the Convention guarantees national sovereignty. The panelists acknowledge that addressing dissonance is a challenging task. We need to do more, and it can even be a double-edged sword. In search of solutions, the panel acknowledged some of the standard ideas, such as working towards greater inclusivity, adopting broader approaches to stakeholder participants, including local voices, and entertaining cultural perspectives, and also focusing on the need for more research to help achieve deeper understanding of heritage. Finally, the panelists agreed that more needs to be done by state parties and the advisory bodies, but pointed out that the Committee itself must play a bigger role in promoting the use of existing tools, for developing new tools, but most importantly, integrate in the discussion on dissonance into the entire world heritage process, starting from nomination. That was our last message. Thank you very much.


Hyun Kyung Lee

Thank you so much, Gamini, for your wonderful presentation. Gamini reminds us that dissonance and conflicts between different stories are unavoidable. However, it is worthy to note that such dissonances can help reveal the forgotten aspects of heritage values and can be transformed into continuity, creativity, and balance, contributing to

further heritage management.

Now, Jean-Louis will present the reflection on the third session, “Contested Multiple Memories on World Heritage Sites”. Jean-Louis? Jean-Louis, could you please unmute? Yes, thank you.

—
Jean-Louis Luxen

Is it okay now?

—
Hyun Kyung Lee

Yes, it's very clear now.

—
Jean-Louis Luxen

I am very sorry. Well, good afternoon and to the people i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China. I had the honor to moderate webinar number three, on Contested Multiple Memories. Three very sensitive cases have been selected by the organizers. The first case was Hagia Sophia, converted back to a mosque with a presentation by Bissera Pentchev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She insisted on the complex and rich values of this outstanding heritage property. Its universal significance should be perceived to the senses, for the monument is full of aesthetics and spirituality to be highlighted by voices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besides the nation-state. Hagia Sophia is highly sonorous to both Christian and Islamic beliefs and practices, and more generally, to multiple cultures. We should avoid the trap of political divisiveness and legal controversies. Professor Pentcheva is in favor of a wider perspective, considering the whole history of Hagia Sophia. She prefers a tolerant, pluralistic vision giving priority to the protection of a fragile beauty, which is in fact, the aim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 second case was related to the Sites of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We had a presentation by Shu-Mei Huang, professor at National Taiwan University. She considers that, in general, in heritage, too much importance is given to the infrastructure and to the buildings. The issue here is to bring the human dimension and the workers' memories in the presentation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including foreign workers. As requested, at the time of the inscription,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Meiji Industrial sites should reflect the full history of the phases of industrialization of each site and on-site. I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experience of the various stakeholders. Professor Huang is in favor of cross-border dialogues, nurturing solidarity and reconciliation beyond the State-Party's single frame

The third case wa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the UNESCO program on Memorial Routes on Slavery. We had a presentation by Ali Moussa Iye, director of Afrospectives, who used to be the head of the Slave Route Project at UNESCO. The program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listing as World Heritage property. It is under an operational network of heritage sites of different levels of protection. Only a few heritage sites of the network are inscribed on the list. The practical cooperation relies namely on the "Resource Book for Managers". The program transcends the monumental conception of heritage and recognizes the sacred, spiritual, and social functions of Sites of Memory. It highlights the influence of slavery on the cultural identity and social behaviors of contemporary societies. It also establishes a link with current concerns about social inequalities, discrimination, and racism with a connection to the —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t makes use of the multiple perspective knowledge developed by other UNESCO programs, like the Silk Roads, the General and Regional

Histories, the Memory of the World, and the Convention on Intangible Heritage.

It is difficult to summarize the discussion that took place after the presentations. But we can draw four main conclusions. One, a Site of Memory should unfold its pluralistic meanings for various stakeholders and avoid a partial or nationalistic presentation. Two, therefore, the important role of non-state actors should be stressed in integrating the multiple significances of a site, with the voices of civil society or different communities, NGOs, academia, and we know that new technologies make that plural approach possible. Three, the concep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s reaffirmed. But the concept is to be revisited in a more inclusive and pluralistic perspective. We could establish a parallel with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that have been enriched by the rights of the second and of the third generation. Four, besides the World Heritage listing, it is recommended to explore alternative programs, especially for sites of recent conflicts of divisive memories.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preparatory office of WHIPIC for the organization of these webinar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Hyun Kyung Lee

Thanks Jean-Louis for your explanation and summary of the third session. We have learned sensitive memories of the World Heritage Sites through three cases. It is so important to remind ourselves of the four main conclusions that Jean-Louis emphasizes in the last part of the presentation. We should not ignore the benefit of the contested multiple memories to help us rethink the full history of the site and tolerance and respect between diverse stakeholders.

—
Sue Hodges

Now Sue shares with us the reflection of the fourth session,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Sue?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doing such a wonderful job. Before I begin, I would like to acknowledge the traditional owners of the land on which I’m working, the Wurundjeri Woi Wurrung people of the Kulin nation; it’s in Melbourne, Australia. I had the honor to moderate the fourth webinar, which was in the form of a video competition with the theme of “Achiev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We invite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to produce videos that showed best practice interpretation and how to build peace at heritage sites. And we also asked the entrants to explain the thinking behind their work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 results were what multiple meanings look like in practice and how academic theory became action in these communities. Each entrant dealt with a problem in their community and showed how interpretive activities made a difference, sometimes transformational. The winner, Mercy Andeso, showed how heritage interpretation fostered peace and reconciliation among youth at the sacred Mijikenda Kaya Forest World Heritage Site in Kenya. Some of the activities were cultural walks, rituals that symbolized peace, building huts, and other cultural enterprises.

There were two distinctions. The first was Yousif Al-Daffaie who examined Mosul’s Old Town in Iraq. He showed that quote, “It is only with memory that the continuation of heritage is possible”. After Isis destroyed Mosul, Yousif participated in programs that documented shared memories and brought hope back to people in the town.

The second distinction was to Olufemi Adetunji, who worked at the Barracoan Museum in Africa. This Museum marks the last departure point for slaves before they were taken to the new world, “the point of no return”. The history of the community attached to this site is linked to the agony and trauma of colonization. And this history has led to violence between the slave descendants and the descendants of the slave owners. Such was led by the descendants of former slaves have led to breakthroughs in community relationships and indicated that peace between these two groups is possible.

There were two commendations. The first was by Khandokar Mahfuz Alam and Imamur Hossain. And the two men looked at the Bithangal Akhra Temple in Bangladesh, a site of contested history. They used oral histories and traditional practices and rituals to negotiate unity between people of different faiths and included audiences as active meaning-makers within a narrative of peace.

Our final commendation was to Ganesh Dutt. He showed how the reconstruction of Mostar bridge after the Bosnian War brought about peace to some members of nearby communities.

What did we learn from this competition? Reassuringly, every prize-winner was an emerging professional, which gives us all hope that the future of Heritage is in safe hands. All entrants showed the importance of rights-based heritage and demonstrated how people-centered interpretation can transform our communities. And these are not just communities associated with World Heritage, but also heritage sites in general.

However, there's an interesting note to this. Rights-based heritage turns theory into practice. This is a revolutionary act and one that is long overdue. All around the world we see heritage under threat, and clashes between official and unofficial versions of the past. This is what multiple memories mean and our entrants showed what a resolution may look like in practice.

Nevertheless, as I speak, genocide, racial violence, ethnic cleansing,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civil wars are wreaking havoc in many countries near these World Heritage Sites, despite the world vowing “never again” after the Holocaust. Climate change is also threatening many World Heritage Sites. In my own country, the Australian government is contesting the potential listing of the Great Barrier Reef on the World Heritage in Danger list, despite scientific evidence that the reef is in dire straits.

This means that truth-telling through heritage interpretation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The role of interpretation is to take things from academic theory and discussions to meaningful actions and to shed light on racism, climate chang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this, interpretation can help move people of all ethnicities and religions on the pathway to peace. In the end, we are all members of communities and our voices all count. Thank you.


Hyun Kyung Lee

Thank you, Sue, for your powerful presentation on pinpointing the significance of heritage interpret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also the other important aspects in the world. The fourth session was a milestone to turn the theoretical discussion into actions, to listen to the communities' heritage interpretations. This session has become

the bridge between heritage academics and the community. I highly recommend that the audience should watch the contest winners' videos. Thank you.

And last but not least, it is time to listen to Francesco's presentation, the fifth session, "World Heritage: the Role of Civil Society". Francesco?

 **Francesco Bandarin**

Thank you very much, Hyun Kyung, and hello to everybody. Let me also salute my colleagues, including those of you that are very much involved in these days in the very difficult preparation of this very special World Heritage Committee. It'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is done virtually. I really admire the effort because it's going very smoothly.

In our webinar, we had three guests, Professor Sophia Labadi, professor at University of Kent. She is a specialist in gender issues. Cécile Duvelle, who is the former secretary of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at UNESCO. And Ege Yildirim who is an urban planner and the specialist that conducted the process for the drafting of the recent ICOMOS document on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at we try to do in this conversation was to try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is very important issu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the processes of the Convention. And in reality, the convention has evolved, if you look at the text of the Convention, especially Article 5, you see that there is a very strong top-down approach. The community, civil society is the kind of a beneficiary of a process that is decided by higher authorities.

But if you look at recent policies, for instance the one on sustainable development, you see that there is a much more adaptive approach; the approach has changed, obviously, because also, the world has changed and because the policies of the United Nation have changed. Since the 40th anniversary 10 years ago and the 50th anniversary next year, there's been a really big change in approach. Thanks also to the approval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many other international documents and so on. Still, we think we saw that the Convention maintains a top-down. These are words written 50 years ago. We have to understand at that time, civil society was not so powerful or even important. So, it was technical and political discourse that dominated, and this reverberates in every single outstanding statement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because the dominant narrative is the one that shows the value of heritage for its beauty, nature or artistic value and so on, and community always comes very late.

Also, the Convention is a tool for heritage conservation, so the focus is on conservation, but again, seen as a technical operation. There is no or very little understanding of the role that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can play in the conservation. Of course, things are changing, but still remains the dominant top-down operation. On top, we have had in the past decades the surge of the World Heritage as an economic interest place. Tourism has changed the game. 50 years ago, tourism was not so important as it is today in terms of economies of places. So now this issue of tourism and economic value of sites has come to the forefront and this has contributed even more to excluding communiti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because besides the political interest of a state or local community,

there is also an interest of the economic operators, so the Convention changes very slowly. And by the way, we can see it in audit policy for indigenous people took 20 years to come to the forefront.

How to change this? Well, we looked at some inclusionary processes that our UNESCO Convention had, for instance of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And of course, we're looking at new movements and approaches that are coming, including the one that is being created by the large number of professionals these past two years, Our World Heritage, which is an art collaborative, but also a critical operation with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There is an issue there, however, that we need to put up front. The Convention has become much more political. Until 1992, the Convention's representatives were experts delegated by the member states, and they could speak freely on their own responsibility. In 1992, this changed completely. It's called the Japanese Amendment. The Japanese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they have no responsibility, but it's called this. And now those who have taken the floor are always delegates, the ambassadors. This has shifted the Convention away from science-based decisions towards more political interests. And we see that. You just watch half an hour of the Committee, realize how much important it is for the delegate of the Committee to sort of find anything in equilibrium, a balance, a way to somehow meet the interest of the state besides the important science-based and independent deliberations and conclusions of the advisory body. This has to be changed in the future.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s, Francesco, for your excellent reflection on the significant

role of the civil society in heritage interpretation. Although heritage is part of society and community, the role of the community in heritag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has been long-neglected. Francesco's presentation reminds us of the paper article published by ICCROM in 2019, that communities' participation in heritage management can bring a positive impact on communities' wellbeing. I hope the civil society's role is more emphasized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in the future.

I'm fairly sure that the audience did enjoy listening to five excellent presentations. The five presentations point out the emerging and important role of inclusive heritage interpretation at World Heritage Sites. As all of us are well fed with nutritious new heritage knowledge and learning, it is time to digest them with an interesting discussion with the five discussants. Let me invite five presenters to the discussion session again. We have four discussion topics in order to revisit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Christina will join our discussion with her prerecorded works. Also, this is a friendly reminder for the interactive discussion. If the audience has any questions, please don't hesitate to leave your questions or comments on Zoom chat or YouTube live chat. After this discussion, we will talk with you.

Okay, shall we move to the discussion session? Then let's dive into the first discussion topic. Could you please share the screen? Excuse me. Could you please show us the first discussion topic slide? If not, then I'll just quickly say it. The first topic is that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World Heritage property can change over time according to evolution of ideas from the cases that we have covered in the past five webinars. What have we learnt?

Christina wants to share her thoughts on responding to these the first discussion topic. Christina? Could you please share the video? Thank you.

—
Christina Cameron

One challenge in adding new values to an existing World Heritage Site is that the World Heritage process is really heavy and requires a significant investment by the state party to prepare a revised nomination,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states parties work within limited budgets, and for the most part, their priority is on new nominations, not sites that have already been listed. In addition, the World Heritage system itself has a tight ceiling on the number of nominations that the Committee will consider in any given year. So, countries don't want to use up or waste their limited space with re-nominations. There's lots of pressure, as we know, from sites that are on tentative lists.

So, limited budgets and ceilings for new nominations make it hard to add values that come from the evolution of ideas. There have been some important examples, however, that adjust to new concepts and one is the re-nomination of Tongariro National Park in New Zealand, which was originally listed in 1990 under natural criteria alone. As soon as the cultural landscape concept became official in 1993, only three years later, the state party re-nominated the site to recognize the unbreakable cultural and spiritual bond between the mountains of Tongariro National Park and the Maori indigenous peoples.

—
Hyun Kyung Lee

Thanks, Christina. Christina points out very complicated World Heritage processes and also limited budgets, and difficulties like a situation also protecting that World Heritage's system but it can be

improved by the heritage interpretation, probably. So Gamini, adding to Christina's opinions, could you please share your opinions too?

—
Gamini Wijesuriya

Yes, sure. I may take a different view. World Heritage, its process itself is evolving. So, it is important. I remember in 1982, we wrote our tentative list in two minutes or five minutes, I would say, and one or two nominations overnight. But you know how things have changed and what has happened is the process has evolved. So, we should let things evolve and we should integrate these new ideas. It's very important that we bring criteria or rulings or whatever guidelines to bring in respecting multiple voices and memories. Perhaps, you have already highlighted through our management manual that you need to look at values, not just outstanding value when you are managing sites by looking at all of them. So, this is perhaps without changing the condition, without changing the sites, OUV, it is important that we look at the management level how to bring in all values and also interpretation to expand with professional people.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s for your brilliant idea. It's a very important idea that the heritage concept has been evolving. It is important that how new concepts can be integrated into the original one and also respecting all the values can be happening in the heritage management level. That would be a very beautiful idea. Thank you, Gamini.

And let's move to the second discussion topic. What is the dissonant heritage in the modern World Heritage context? How can we deal with multiple memories trying to prevent and resolve current issues regarding heritage with different memories? Jean-Louis has been working on the difficult heritage interpretation for a long time. So,

Jean-Louis, could you please share your ideas about the second discussion topic?

—
Jean-Louis Luxen

Yes. During the webinars, we all considered that there is some degree of dissonance in each heritage site. And we know, that some inclusive interpretation, this allows the recognition of its multipl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t stakeholders. Okay. Now I would like to draw the attention to the sites of recent conflict or of divisive memories, because this is a very special and sensitive issue that requires a tactful treatment. We should always remember that we are working within the framework of an intergovernmental legal instrument lik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f the memory is an accompanying intangible dimension of the site, there are methods and tools that allow inclusive interpretations. In other words, the criterion six is an accompany criterion to another main criterion. This other criterion is essential according to the practice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But this also means that sites of recent conflicts or of divisive memories as such should not be inscribed on the list. We know that they would always be presented and interpreted by the state party with its own vision, and will be open to continuous controversies. This means that they don't relate to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vention, and they should rather be connected to alternative programs like the National Memorial Routes of Slavery that we have been speaking about, or other specialized NGOs, like the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that was mentioned by Christina in her opening remarks. This is a real important point that I wanted to stress.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Jean-Louis. It's a very significant issue. You mentioned a very significant point about the legal instrument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ites of recent conflicts as well. So instead of the direct inscription to the World Heritage Sites, the sites of recent conflicts can be open to the public and all the controversies can be just opened for a whil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pinions.

And Sue? Probably, you might add some more opinions and your thoughts to the discussions too?

—
Sue Hodges

Thank you. I just have to concur with Jean-Louis' comments. As a historian myself, I think that certain period needs to elapse before some sites can be treated. They're just too visceral and too much in the memory of people or recent conflicts. But I'll comment generally on sites other than on the World Convention Sites because my expertise is in general heritage interpretation, as well. That I think a lot of times, the new interpretive media allows for different voices to be heard in formats such as digital media, immersive reality, augmented reality and so on, and virtual reality. So, some of the new technologies allow these multiple stories to be told. But one of the main ideas as a historian that we would bring to this is that evidence needs to be presented and that needs to be substantiated. So, it can't be what I call "fake history" that often there's very fruitful debate between people from different opposing sides about what actually happened. And part of the skill is recognizing that sometimes no agreement will be made, but then the important thing is to move forward into peace.

And quickly, one example here in Australia is a friend of mine whose ancestors were involved in massacring aboriginal people in Northern

Australia and Lisa held a ceremony with the descendants of the people who'd been massacred. They held a very powerful ritual. And as we saw in that competition, sometimes rituals and healing need to be the purpose, not getting stuck in really nasty and difficult debates that never move forward. So, I'll leave you with that.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Sue, for sharing your experiences in your field. So, it's very interesting to learn about current, ongoing conflicts in the site. Thank you so much. Now we can move to the third discussion topic. How can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be more inclusive and open to all the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How could heritage interpretation contribute to heritage conservation?

So, because Francesco moderated the fifth session about the civil society, you can respond to this discussion topic.

—
Francesco Bandarin

Well, I can try to articulate. It's a very complex question because it has to do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governmental apparatus in many different places. And we see in looking at the world, you have very different approaches. Sometimes, there is an interest and willingness of the people in charge, of the responsible administration and so on to have civil society playing a role in the interpretation process. Other times, you have the opposite. So, I think the issue is very much how to create a level field in which, in fact, we establish the principle that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has to be a joint process.

Now, this depends a lot on the force of civil society and very often civil society is not organized. So that's what we are saying, very often,

“get organized”. If civil society gets organized and has a voice, it will be easier to affect the interpretation process. Now, the organization of civil society, again, depends on political and conditions. But it also needs to somehow connect with others. It cannot be just the local situation. So that’s why we are trying to create tools that allow local situation to connect with the global situations. The Committee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on this. As I said earlier, the Committee has written in its policy that it’s forged in societies but this doesn’t happen in the field. This is the problem.

I think we need more transparency more accountability on this. Now, we need more tools to show and demonstrate where are the areas of critical areas and how civil society should be involved. The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has found very important processes for this because in every single step from the identification of an element of intangible heritage to the inscription, civil society has to be consulted, has to be present, has to be participating. I think something like this should inspire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 think we’re very far and if you look at the discussions at the Committee yesterday, for instance, there was a long discussion on a point and then two minutes was given to civil society just because they had to talk, but they had no plan, no role in the discussion. The Convention has taken this political approach in which states and their representatives say-- I’ve heard ambassadors saying “We own the convention.” As if a state could exist without playing its fundamental role: serving civil society. So, there is a lot of work to do on that. But pointing to the different steps of the of the proces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help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groups locally to operate and act.

—
Hyun Kyung Lee

Thank you so much. It's very short but it's very intensive and investing answers. Actually, it'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only saying "we should include civil society," it is good but we need to think about concrete solutions. How we can help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heritage management. So that's why the tactical tool is very important, that should be very transparent and creative and open as well. And connecting between the local, national, and global level, as well. And it's very impressive to say that the World Heritage Sites that can learn from intangible Heritage in nomination and management with the involvement of the communities. Thank you, Francesco.

And Sue, you have lots of experience to working with the community in your real field. So, could you please share your opinions about civil society's involvement?

—
Sue Hodges

Sure. In all of the work that I've done in my career, the community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the work. And that applies to all kinds of sites that from local sites right up to World Heritage. And the most important... Currently, the research shows that a lot of communities don't understand heritage and they don't understand tourism. So, we assume quite often that they'll be excited about World Heritage and currently we're working the Victorian Goldfields World Heritage bid. And those communities really, of course, haven't really got much understanding of it. So, the first thing to do is to spend a lot of time working with the community to inform them about what it's about, to be transparent, and also, to identify the benefits. I don't just mean commercial benefits, but social benefits, capacity-building, and so on. And then, second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to romanticize the community, because that can happen where people say "I'm

working with the community,” but in fact, as we know, communities are split and diverse and conflicted within themselves. So, the role of interpretation is to capture those voices and then, on the ground, to provide mechanisms by which those stories can be told.

In one simple example is if in our work we can include every voice in a trail, or a film or multimedia, we may then say that we’ll put all of the opinions on a website and you can upload your opinion and use social media. So, I think it’s so important that every voice is heard and, of course, moderated because there are certain things like racism and hate speech that can’t be allowed, but beyond that it’s actually allowing that voice, it’s crucial, but then having that interpretive framework that helps narrow that down. And I’ll finally say that, on the ground, actually working on the sites, you need to give people a realistic idea of how they can contribute. It can’t be “we’re holding a session and everyone will see what they’ve said on the site.” It’s about communication with that community and being realistic, I think is the way forward.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indeed, Sue. I agree that communication is the key to help the civil society get involved in the heritag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Also, you mentioned the social value and social benefit, not only the commercial benefits through the civil societies’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and interpretation. Yes, we should think more about a concrete way of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Now, we’ll move to the last discussion topic.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s facing 50 years. What do you think has been the main focu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so far? And what areas have

been overlooked? Do we need new approaches and perspectives to protect World Heritage in this world? I think this discussion topic is really important to prepare for the next 50 years. So, I'd like to give the opportunity to all five presenters. The first is Christina.

—
Christina Cameron

Since the beginning, the main focus has been on listing sites and the reasons for that focus may have changed over time, but it still persists. World Heritage designation has always been a question of prestige for states parties. Now, the early nominations were likely submitted more for conservation objectives, and more recently, I would say, however, that nominations have shifted to look at identity issues and economic benefits, particularly related to tourism. But while the desire for listing still remains strong, as we can see at the current sessio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issues have slowly gained more attention, and part of that is manag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planning has evolved as well. From its early focus on physical fabric to a broader territorial approach to conservation, incorporating the full range of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Within management planning, however,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interpretation is seen as less important. And so, I would urge that with the globalization of memory, the time has come to position interpretation on an equal footing with conservation in the future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
Hyun Kyung Lee

Wow, for a short time, Christina explained all the trajectories of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from listing sites, to the identity and economic value, and also management planning, and now interpretation. Due to the time limit, and then I will very quickly move to the next presenter's ideas. Gamini?

—
Gamini Wijesuriya

Yeah, thank you. Thank you. I think this is a very difficult, not difficult, it needs longer time to explain because World Heritage, as I mentioned, is evolving, and it's a complex process as already mentioned. And of course, Christina mentioned certain things. And so, we also added a defini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n the 2005 operation guidelines. Communities were added as strategic objectives in 2007. Somehow, over the 50 years, we have addressed many issues, but there are more, and, of course, in the future too, we need to address new ideas and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World Heritage process. For this, my point 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engagement and inclusion of all players on one hand, and the proactive engagement of non-active players. There are many paths. I mean, this world, there is one part of the world who are very active, and another part of the world not active sufficiently, I would say. So, they need to be all engaged and let's have a balanced participation engagement and work together by embracing that diversity in its true meaning to make World Heritage Convention truly global. We have more work to do but we can do that.

Just one point about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and this convention. That is what happene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as based on the notion of heritage that existed at that time, it focuses on materiality and the values, secular values, and so on. Whereas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clearly says heritage has to be defined by the people. This is the difference and good that Francesco himself suggested, we need a way forward to look at them starting from the early processes of World Heritage process.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Gamini. It is very good to hear that you need to have

more patience to go all together with a balanced and more inclusive participation. Thank you so much. And Jean-Louis?

—
Jean-Louis Luxen

Yes. Of course, after 50 years of implementation, there is a need for an evaluation of the Convention. And I very much agree with what Christina said and we need new approaches. However, I have been a witness of the change of the procedure withi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ecause I attended the meeting from 1992 to 2002, and I completely agree with Francesco that the politicization of the process, was a real danger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So, of course we have to propose new approaches. However, to a large extent, it would be wise, also, to come back to the fundamentals of the Convention. Just the very title of the Convention is the protection of sites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as opposed to the race for a maximum of inscription of new sites, as Christina was explaining. The monitoring of states of conservation of the listed properties should become a priority. There is also a matter of serious concern, when, too ofte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overrules the recommendation of the scientific advisory bodies under political pressure or in some sort of bargaining between state parties.

There is a matter of concern when tourism exploitation becomes a danger for the protection of the heritage, for a lack of effective management plan. Thus, to conclude, we need new approaches, in particular, involving civil society, but we should maybe start correcting negative practi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is is the point I wanted to make.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for your very clear remark. So before going further

it's also important to correct the negative aspects of the current implementation. Then we can move forward further. Thank you. So, Sue? It's your turn.

—
Sue Hodges

Okay, because everyone has spoken so beautifully and powerfully, I, of course agree with Christina and everyone that interpretation is crucial. And I, in terms of planning, I think it would be good to have interpretation planning at the start of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process and particularly because if people don't understand what something is about, they're not as likely to protect it. And one of the really important things is getting communities associated with that site involved from the very beginning in that kind of interpretive planning, so that they're not just junk, the site isn't just inscribed without the people. I know that the process says that happens, but quite often the communities don't know, in my experience. And I think it also brings forward the intangible values of the site to work with interpretive planning. I'll leave that there.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s, Sue. Thank you very much. So, Francesco? Could you please unmute? Thank you.

—
Francesco Bandarin

Sure. Yes. Thank you very much. Well, of course, the question you're raising, it's very big and we will have next year, I hope,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a lot of discussion on this, because the convention has been a successful tool for sure. We know that it's perhap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ograms in the United Nations as people in New York say. Because it somehow was able to interpret two big needs, the need to have an international supervision, let's call it, or at least control over the state of conservation sites

which was missing. And the second one was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member states to express their own prestige through the inscription of sites and so on, and to perhaps even value the sites for economic purposes. So these two polarities between conservation and listing have been always there. And at the beginning, perhaps the conservation was stronger, now, listing is super strong. You'll see in this very session of the Committee, there are 45 sites that will be proposed for inscription. And this is the real interest. The state of conservation is less interesting for member states because it creates problems. But this trajectory is very dangerous. The Convention risks can lose credibility. I can see it in our talks, too many people say, "Oh, the Convention, it's sold out as a political tool," and so on. So, we have to do something to repair this. And the way it's going, it's not very good. So, we have to somehow bring the Convention to the 21st century in which civil society has a much bigger role. And there are many other tools and approaches that allow effective heritage conservation, in respect of the local civil society and also of science, because that's what is a stake at the Convention.

We've been discussing this all throughout the years. We have made a huge effort as Our World Heritage has to discuss these issues, to see the new approaches, maybe see what kind of new type of sites are needed, how to deal with complex issues like colonialism. This is this word is not me being pronounced 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t'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half of the world has this kind of heritage. And then not to mention the use of technology, the Convention belongs to two centuries ago in terms of technology. And perhaps also see what are the new needs of the new generations in the 21st century. This big discussion will happen next year, I hope that

this will be heard, also. If member states close their circles and they don't listen to civil society, there is no hope because this trajectory of loss of credibility will continue

—
Hyun Kyung Lee

Great, Francesco. I think this discussion is maybe the preparation session warming up session for the next year's full discussion, right?

—
Francesco Bandarin

Yeah.

—
Hyun Kyung Lee

Yeah. So yeah, but I think Our World Heritage initiative is such a new movement, but it's very important movement to give a further impact on the current World Heritage system. Thank you very much for introducing it too. Great.

So now, we'll open the floor, and we'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participate in further discussions. Actually, many of you already left wonderful and very significant and in-depth questions for us.

So, firstly, let me go to the first question from... Sorry. Okay. The first question from Hoosmelo, in recognizing multiple memories Jean-Louis Luxen mentioned that nationalistic agenda should be less privileged than how a heritage site was experienced by people or communities who claimed to have memory of it. I agree with him though, also... Sorry, the question is a bit long. Also, recognize how member states have the tendency to problematically use heritage for nation-building or constructing acceptable images or... Sorry. Okay. I'm sorry. So, images of a nation and its people. Should we then begin to start to think of heritage nomination for UNESCO list from communities or groups that may have a dissenting experiences or beliefs about a

particular heritage without restriction, representation, or sanitation of the member state? Yeah. So, Hoosmelo talked about... Hoosmelo's question seems to be about how we can overcome those kinds of nationalistic approaches to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and listing. And about the possibility if we could involve the communities to nominate the whole World Heritage, like nomination systems. So, probably Jean-Louis, do you want to respond to this question? Or who wants to... Yes, Jean-Louis?

—
Jean-Louis Luxen

Do you hear me?

—
Hyun Kyung Lee

Yes, I can hear you now. Thank you.

—
Jean-Louis Luxen

To be short, to assess to a certain degree, it is normal that the conservation of the heritage is part of the community-building and the nation-building. It could be at the local level, the regional, provincial, or national level. It is a matter of degree. When it becomes very difficult, is when we are reaching a kind of opposition to other countries. And when they're here, formation of the national interest comes into conflict with other countries. This is why I said earlier, we can accept that as a secondary dimension of an inscription, the national interest could be accepted and could be dealt with in a comprehensive, inclusive interpretation. But when we are dealing with just conflict or recent conflict or divisive memory, if some sites are inscribed... I would give these two examples of Debarquement beaches of Normandy and of Gallipoli. I don't believe that that kind of site is 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because they are just a matter of revisiting the past in an aggressive way. I don't believe that that kind of inscription would lead to peace-building. Now, to some extent,

nation-building, okay, but when it is only on that the memory value, as such we should avoid listing that kind of building. I am a little bit square when I say things because of the lack of time, but this is my main answer to the question.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so much. Nation-building is also important, but it doesn't seem to be contributing to the peace-building that UNESCO pursues. So, I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the internationalism from when UNESCO started, right? So, we should think about how to make good harmony with the diverse people in the world instead of just pursue national profit. Yes. Thank you very much, Jean-Louis. Are there any other comments on this question? Francesco, Sue, Gamini?

No? Then let me move to the next question from the floor. Professor Choi Jae Han, "I would like to hear how we can deflect inclusive and multiple memories of each dissonant site into the World Heritage nomination processes, as well as to make balanced OUV with local values and intangible values in order to prevent the potential conflicts around sites". I think we have already very briefly discussed these issues and mentioned these issues during the discussion time. But is there anyone who wants to add some more opinions to response to the question?

—
Francesco Bandarin

If you allow me. There's no easy solution. There is a lot of work behind it, and if work is not done, then conflict is looming always there. If work is done, then it's possible to find a solution. I'll give you two examples.

One, the bad one was the case of Preah Vihear in Cambodia. This

was perhaps the most shocking case for the Convention because the inscription Preah Vihear almost generated conflict with the Thai. I visited the site many times, and it was shocking to see that there was essentially a military camp, it was not a World Heritage Site because the thing was done, one against the other. There was no time.

The other, the good example is the Qhapaq Ñan, the famous Andean Road, which involves six countries from Colombia to Chile, which, during the ten years of preparation of this important and unique site, had revolutions, wars between themselves, conflict. It was just, every day, there was a problem within the country. But this dialogue on the inclusion of the Andean Road continued uninterrupted for 10 years, and we were able to inscribe it at the end as a unique, once as one site. So, 10 years' work. It takes a lot of work to create the culture and the exchange between communities, it's not an easy way. No easy solutions.

—
Hyun Kyung Lee

Thank you. There is no easy solution, that means it's a very significant one. It takes a really long time. So, we have to be very patient and tolerant as well in order to reach a certain level of the solution. Right? Thank you so much.

The final question from the floor is the director, WHIPIC's director, Kim Deok Soon, "Conflict always exists in our lives and for better development and evolution, we must resolve it. Conflicts are also occurring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due to different historical memories. Sometimes, it's uncomfortable and you want to avoid it. I think it'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cide the direction to resolve the conflict over cultural heritage, especially since 2022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dop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how should we resolve this cultural heritage conflict regard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hould we overcome it through active consultation within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system, or should we avoid it by dealing with it outside the existing World Heritage system that emphasizes OUV?” So it’s not a very easy solution as well, right? But is there anyone who would respond to these difficult issues?

Actually, we have been talking about these issues during the discussion time. So maybe, yeah? Sue?

—
Sue Hodges

I can’t answer that really interesting and complex question in the time, or perhaps at all, but I think it’s accepting the notion that conflict is inherent to interpretation and is it really important and that that may not be resolved, because in our own lives, we know if we have an argument with a friend or a family member, you go away with two versions. That’s what I say to people. So, it’s more accepting that those two versions can sit side-by-side, or more than two. And also, then, allowing, maybe, the visitor to make their own mind up by presenting the evidence. That’s how I would approach that. I don’t assume anymore. And that’s actually, I think, a healthy way of showing... It actually moves people more towards peace to recognize that and perhaps to try to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may never be arrived at. But that’s just, I mean in other sites, yes, but in really complex sites, I think it’s hard to get that unanimity of voice.

—
Hyun Kyung Lee

Thank you, Sue. Jean-Louis? Yes? Jean-Louis? And Gamini, do you want to say something as well? Yes, after Jean-Louis. Jean-Louis,

could you please...? It's on mute. Please unmute your... Jean-Louis, could you please unmute? Because we can't hear you.

—
Jean-Louis Luxen

Can you hear me?

—
Hyun Kyung Lee

Yes, we can hear you now.

—
Jean-Louis Luxen

Yes, very short. I think there are limits to the objectives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sometimes, we should just recognize it and consider alternative programs. We gave the very good example of the Memorial Routes of Slavery. There are other programs that could be used for that kind of very sensitive issue. And I would like to mention what Christina was explaining at the beginning of the presentation. The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is an NGO, very flexible with that specific objective of trying to reconcile divergent memories. So, we should avoid bringing all the issues to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consider alternative programs. Thank you.

—
Hyun Kyung Lee

Thank you so much for suggesting the alternative programs. Great. Gamini?

—
Gamini Wijesuriya

Yes, it's, again, going to be negative in a way, to show how difficult it is. In fact, in the first session, there was a question about interpretation going beyond nation states. Now,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because in terms of World Heritage, its defini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s significance that transcends beyond national boundaries, which mea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argue that they have some stake in it. But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has guaranteed the national sovereignty of each country. So, to work, as

Jean-Louis said, we will certainly meet these parameters and we need to think what the best way would be to deal with on a national level and as much as possible. Acknowledging all memories, all aspects of values and heritage. But of course, I also have no answer. But these are the limitations.

—
Hyun Kyung Lee

Yes, that is very important. We can reach little by little to broaden our horizons over there.

—
Francesco Bandarin

Can I just add a word? I totally agree with Jean-Louis.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omehow multiply the opportunities, and for the forms, also, a heritage protection interpretation. So for instance,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is fantastic and it's been really important. At the same time, I hope Jean-Louis agrees, the Convention has to recognize this work because it doesn't have to expel the issue, it has to recognize that the world, the issue belongs to other formats, which means that they have to give space to those organizations and have a continuous ongoing dialogue with them, which is not the case at the moment.

—
Hyun Kyung Lee

Yes, indeed. So making alternative options would be very important, but that alternative option has to influence the main center, and they can collaborate together. Any voices shouldn't be ignored anymore, right? Thank you so much, Francesco.

Thank you for all your inspiring comments questions and discussions. This is my final remark. We don't intend to provide certain and clear answers of World Heritage interpretation. Rather, we would like to give a question for all of you on how to interpret World Heritage Sites in

the preparation for the next 50 years.

Through the six webinars, all of us have been endeavored to plant a seed for the further discussions that will help us understand World Heritage with new perspectives. As heritage is a social process, heritage interpretation is also a dynamic process that encourages further stakeholders' participation. Hence, for the next webinar series, or the next time, we shall look forward to your full, active participation in heritage interpretation, and we can see altogether how our seeds will be growing up and which fruits are yielded in this field. Thanks for your support and interest in Heritage interpretation. Haeree, back to you.

—
Haeree Shim

Thank you so much, Hyun Kyung, for your considerate moderating and facilitating of the discussion today. And of course, Christina, Gamini, Jean-Louis, Sue, and Francesco for your excellent and profound contribution to the whole webinar series, including today's. We would never be able to complete the series without you. And above all, the audience who watched and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for making this webinar all the more interesting and interactive. We really appreciate your company with us for this six-month journey and I hope you also enjoyed it.

We would love to listen to your opinion on our webinar series, so please do send us your feedback to our social media or to the email address that will be shown on our next ending page. So, thanks again for joining us today and we hope to see you with our next interesting program on heritage interpretation. Thank you. Bye, everyone!